韓國音樂學資料叢書 十四

協律大成・梁琴新譜
歐邏鐵絃琴字譜・玄琴五音統論
靈山會象・芳山韓氏琴譜・浪翁新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十四

協律大成・梁琴新譜
歐邏鐵絲琴字譜・玄琴五音統論
靈山會象・芳山韓氏琴譜・浪翁新譜

國立國樂院

古樂譜解題

1. 協 律 大 成

李 東 福 (慶北大 藝大 教授)

編者, 年代未詳, 寫本 一冊 93張(186面) 縱 35.4cm×橫 23.4cm 所藏 : 李燉熙(江陵) : 原本 서울大學校 가람文庫(圖書番號 : 가람古781, 751 H995) : 轉寫本.

『協律大成』은 編者・年代 未詳의 歌譜이다. 그러나 오로지 歌譜로서만이 아니라 器樂曲도 실려 있다는 점이 다른 歌譜와는 다른 點이라고 하겠다. 協律大成의 珍本은 李根宇氏 所藏이던것이 現在는 그의 令郎 李燉熙氏에게 물려서 傳해지고 있으며, 李根宇氏의 所藏本에 依한 轉寫本이 서울大學校의 가람文庫(圖書番號 : 가람古781, 751 H995)에 所藏되어있다. 그리고 1960年 11月 16日에 가람文庫 所藏本에 依한 print本이 東國大學校 文理大 教授인 誠岩學人 金根洙님에 依하여 國語國文學資科叢書 第七輯으로 刊行되었다. 本稿에서는 東國大의 print本을 參考하였으며 規格・面數 等은 가람本을 擇하였음을 밝혀둔다.

『協律大成』의 內容을 一瞥하면 調律之法・洋琴圖・與民樂・本還入・細還入・平調靈山會上의 器樂曲譜와 22曲調의 羽調 및 界面調의 歌曲의 樂譜가 실려 있으며, 連音標說明,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 永言全部에는 男唱 歌曲 30曲調에 642首와 女唱秋에는 23曲調에 186首 等 總 828首의 時調詩를 曲調에 따라 排列하고 一一히 連音標를 붙였으며, 八曲의 歌詞를 樂譜나 連音標 없이 사설(text)만 실었다.

永言全部에 실려있는 時調詩의 內容과 排列의 順序는 『歌曲源流』와 거의 같으며, 『歌曲源流』의 著者는 朴孝寬・安玟英의 作品이 收錄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時調詩에 關한 限 『歌曲源流』가그 藍本인 것 같다. 위의 것이 事實이라면 이 책은 『歌曲源流』의 編纂年代인 高宗 13年 (1786 A.D) 以後에 되었을 것이다.

『協律大成』의 調律法은 完全 8度와 完全 5度로 調律하며 同書의 調律之法은 다음과 같다.

〈調律之法〉 原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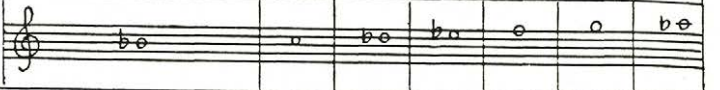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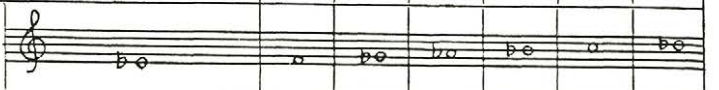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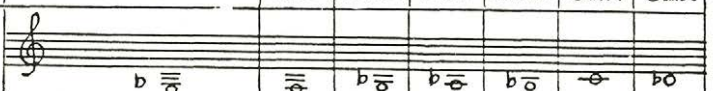
「最先調一(＊林)字律與黃鍾合然後一(＊林)字與市(＊林)字謂之雌雄律(＊Octave 音)

次調船(＊林)字與市(＊林)字合謂之兄弟律 旣得船(＊林) 字律則眠(＊黃) 字律自成矣以眠(＊黃) 字律調來(＊潢)字謂之祖孫律.

次得中(＊仲)字因中(＊仲) 調斗(＊仲) 因市(＊林) 得呼(＊汰) 因呼(＊汰) 調家(＊太) 因家(＊太) 得上(＊南) 因上(＊南) 調安(＊南) 因安(＊南) 得字(＊無) 因子(＊姑) 調酒(＊夾) 因酒(＊夾) 得不(＊無) 然後因長(＊無) 調李(＊無) 因安(＊淌) 調白(＊南) 因酒(＊浹) 調詩(＊夾) 因家(＊汰) 調百(＊太) 因眠(＊潢) 調篇(＊黃)

이상 調律之法과 洋琴圖를 參考하여 解讀에 도움이 되도록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協 律 大 成

絃數 / 棵便	第 1 絃	第2絃	第3絃	第4絃	第5絃	第6絃	第7絃
左 棵 左 便							
現 行 音 程	林	南	無	潢	汰	沽	沖
現 行 口 音	당	동	지	징	칭	○	퐁
『協 律 大 成』	倘 淋 船	動浦上	至濂不	微潢來	稱汰呼	○浹子	種沖天
左 棵 右 便							
現 行 音 程	黃	太	夾	仲	林	南	無
現 行 口 音	당	동	지	징	칭	○	○
『協 律 大 成』	唐 潢 眠	同汰家	之浹酒	澄沖中	層淋市	○浦安	○濂長
右 棵 左 便							
現 行 音 程	倩	仗	俠	仲	淋	倘	儵
現 行 口 音	칭	칭	칭	흥	동	동	○
『協 律 大 成』	淸 黃 篇	靑太百	○夾詩	與仲斗	광林一	登南白	○無李

(※ ○표는 없는 것임)

同譜의 與民樂 樂譜는 文字譜의 一種인 詩譜로 된 洋琴譜인데, 第一章은 없으며 第二章부터 第七章까지 있다. 與民樂 第二章의 註에 "自二章至七章每章各三十二句"라고 있는 것과 같이 제 2 章부터 제 7 章 끝까지 1 句씩을 나누어 各各 32句(＊刻 또는 長短과 같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現行 與民樂이 各章마다 32刻(長短)으로 되어 있는 것과 同一하다. 本還入과 細還入은 2 句씩을 나누어 36句로 하였는데 現行과 같다. 平調靈山會上은 現行 上靈山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初章부터 5 章으로 分章되어 있다. 平調會上은 다른 樂譜에서는 보기드문 樂曲이다. 以上 4 曲은 모두 時價 없이 詩譜로 記譜되었다.

歌曲에는 羽調에 7 曲調와 界面調에 15曲調 等 모두 22曲調를 歌詞와 함께 적고 있는데, 詩譜(洋琴譜)에다. 「○ ·) · (」 等의 記號를 併記하였다. 即 中間에 詩譜를 적고 左則에 歌詞(text), 右則에○) (等 記號를 적었다. 22曲調의 歌曲譜의 大餘音에는 大音·靑大音·靑搔音·靑半詮·靑弄音 等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接續되는 曲에 따라 어는曲의 大餘音을 演奏하는 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歌曲의 樂譜(詩譜로된 洋琴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連音標에 關한 記號를 說明하였고, 歌曲의 曲別로 特徵的인 것을 나타내는 曲態 또는 曲想標語라고 할 수 있는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이 있다.

그 다음에 梅花點長短과 長鼓長短이 있다. 長鼓(*杖鼓)長短의 初章 以下 大念(*大餘音)까지의 各章別 長短 點數는 梅花點長短의 圖解와 함께 記載하였는데, 總150點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永言全部라고 하여 歌曲(*男唱) 642首와 女唱秩(*女唱歌曲)에는 185首 等 都合 827首의 歌詞(text)를 실고 있는데, 時調詩 右側에 連音標를 적었다. 同譜의 女唱秩의 後庭花 다음에 있는 臺와 羽調 二數大葉 앞의 臺 사이에 將進酒를 挿入한 것은 將進酒를 女唱 歌曲으로 取扱한 것이며 앞으로 「臺」의 性格이 究明되어야 하겠다.

또한 女唱秩의 二數大葉 註에는 "初數大葉, 三數大葉·瓮弄(*言弄)·編樂·瓮編(*言編) 等 6曲이 女唱에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女唱秩의 界面調 二數大葉(#50) 의 註에 女唱 初數大葉이라고 있으며, 瓮編(#182)의 註에 男唱이라고 註한 것은 女唱 歌曲에 二數大葉과 瓮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協律大成』에는 女唱秩의 歌曲 第185首인 女唱 中擧와 第186首인 奏臺(*現行 太平歌 가사와 같음)사이에 모두 8首의 歌詞가 있다. 8歌詞를 歌曲의 맨끝곡바로 앞에 配置한 까닭이 궁금하다. 『協律大成』에 收錄된 歌詞는 樂譜나 連音標 없이 歌詞(text)만을 적었는데, 名妓歌는 다른데서 볼 수 없는 것이고, 關東別曲과 勸酒歌는 다른데 있는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協律大成』 目次

○調律之法

○洋琴圖

○與民樂 二三章訣 五言曰

山月皎如燭 霜風時動竹

夜半鳥驚棲 窓間人獨宿

四五六七章 六言曰(*없음)

〈樂譜〉

1. 與民樂(*初章은 없음)

二章註：自二章至七章每章各三十二句

(*與民樂 樂譜는 詩譜로 된 洋琴譜로서 歌詞 없이 2章부터 7章까지 1行을 1刻〔1장단：本譜에서는 1句로 함〕으로 삼아서 적었다.

2. 本還入(*章別 區分 없음)
3. 細還入(*章別 區分없음)
4. 平調 靈山會上(*現行 上靈山에 該當) (初章·二章·三章·四章·五章)
5. 羽調 初數葉(*天皇氏 詞) (初章·二章·三章·中章·四章·五章·大音)
6. 二數大葉(*江潮에 詞) (初·二·三·中·四·五·大)
7. 平擧數葉(女唱) (* 이몸 식어져서 詞) (初·二·三·中·四·五·青大音)
8. 三數大葉(*屈原忠魂 詞) (初·二·三·中·四·五··青騷音)
9. 騷聲(어제밤도 혼자 곱송그려서 詞) (初·二·三·中·四·五·青半瓮)
10. 半瓮數葉(*三月三日 詞) (初·二·三·中·四·五·大)
11. 其二(*흐리나 말그나 詞) (初·二·三·中·四·五·) 大音上篇通用
12. 界面調 初數大葉(*압못세든 고기 드라 詞) (初·二·三·中·四·五·大)
13. 二數大葉(*華山의 春日暖 詞) (初·二·三·中·四·五·大)

14. 中擧 數大葉(女唱) (*누구나자년 窓밧게 詞) (初・二・三・中・四・五・青大音)
15. 三數大葉(*轅門藩將氣雄豪 詞) (初・二・三・中・四・五・青弄音)
16. 界旋弄(*기럭이 풀풀 다나라드니 詞) (初・二・三・中・四・五・大)
17. 旋弄(*十載를 經營屋數椽 詞) (初・二・三・中・四・五) 大音與上篇通用
18. 界弄(*月一版燈三更 詞) (初・二・三・中・四・五・大)
19. 始弄返樂(*가마귀 거무나 다나 詞) (初・二・三・中・四・五・大)
20. 羽樂(*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詞) (初・二・三・中・四・五・大)
21. 其二(*우슬 부슬 雨滿空 詞) (初・二・三・中・四・五)
大音上下篇大音通用
22. 旋樂(*碧紗窓 詞) (初・二・三・中・四・五・大)
23. 編樂(*남우도 바히 詞) (初・二・三・中・四・五・大)
24. 編數大葉(*鎭國名山 詞) (初・二・三・中・四・五)
大音上仝
25. 旋編(*寒松亭 詞) (初・二・三・中・四・五・大)
26. 界樂(*鐵驄馬 詞) (初・二・三・中・四・五・大)
以上 歌曲譜(洋琴譜)

○連音標 說明

ㄱ : 題目標
ㄴ : 가즌든홀님
ㄴ : 훗든홀님
ㄴ : 눌러뉘는표
✓ : 드러뉘는표
ㅅ : 반긱표
ㄱ : 연음
△ : 두표
ㄴ : 장귀
ㅣ : 막뉘는표
ㅅ : 볼써러진 장단표

隨勢而拍 先以半刻下以七點拍之則可以合符.

自標雖如是聲韻之用變動無常字音語彙高低淸濁互有權變而擧流音亦有疊直之勢歌者隨其曲與律合宜之勢而歌之不爲膠瑟可也 一言以蔽之曰通神妙然後可謂詠歌爾.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

初中大葉　南薰五絃 行雲流水
二中大葉　海濶孤帆 平川挾灘
三中大葉　項王躍馬 高山放石
後庭花　鴈叫霜天 草裏驚蛇
二後庭花　空閨怨婦 寂寞悽悵
初數大葉　長袖善舞 綠柳春風
二數大葉　杏壇設法 雨順風調
三數大葉　轅門出將 舞刀提賊
搔聲　暴風驟雨 飛飛橫行

編搔聳　　兩將交戰 用戟如神
蔓横　　舌戰群儒 變態風雲
弄歌　　浣紗清川 逐浪翻覆
樂時調　　堯風湯日 花蘭春城
編樂時調　春秋風雨 楚漢乾坤
編數大葉　大軍驅來 鼓角齊鳴

○梅花點長短

單手拍之以五點用而復始不拘半刻

○長鼓長短(＊梅花點 長短으로된 杖鼓長短은 省略)

初章　二十點
二章　十七點
三章　二十三點
中念　十 點
四章　十七點
五章　三十點
大念　三十三點

○永言全部

『協律大成』의 永言全部에는 男唱歌曲의 歌詞(text) 642首와 女唱歌曲 186首等의 總828首의 歌詞(text)를 時調詩 右側에 連音標를 달아서 적었다. 다음에 보이는「#」은 首를 나타내며, 아라비아 숫자는 首의 序數를 나타낸다.

1. 羽調 初中大葉(# 1 → # 3)
　　南薰五絃 行雲流水
2. 長水葉(# 4)
3. 三中大葉(# 5 → # 6)
　　項王躍馬 高山放石
4. 界面調 初中大葉(# 7)
5. 二中大葉(# 8)
6. 三中大葉(# 9)
7. 後庭花(# 10) (
　　鴈 叫霜天 草裏驚蛇
8. 臺(# 11)
9. 羽調 初數大葉 (# 12 → # 21)
　　長袖善舞 綠柳春風

10. 二數大葉(#22→#56)

杏壇設法 雨順風調

11. 羽中擧(#57→#73)

12. 平擧(#74→#95)

13. 頭擧(#96→#117) 존ㅈ진ㅎ닙

14. 三數大葉(#118→#138)

轅門出將 舞刀提賊

15. 搔聳(#139→#150)

暴風驟雨燕橫行

16. 栗糖數大葉(#151→#155)

舌戰羣儒 變態風雲

或稱半瓮數大葉 純羽調則爲羽弄歌之

17. 界面調 初數大葉(#156→#158)

18. 二數大葉(#159→#239)

19. 中擧(#240→#292) 중허리드는 ㅈ존ㅎ닙

20. 平擧(#293→#354) 막니는 자존ㅎ닙

21. 頭擧(#355→#421) 존쟈존ㅎ닙

22. 三數大葉(#422→#444)

轅門出將 舞刀提賊

23. 蔓橫(#445→#469)

舌戰羣儒 變態風雲

俗稱瓮弄者與三數大葉同頭而爲弄也.

24. 弄歌(#470→#526)

浣紗清川 逐浪翻覆

25. 界樂(#527→#557)

26. 羽樂(#558→#576)

堯風湯日 花爛春城

27. 瓮樂(#577→#603) 지르는 낙

28. 編樂(604→#610)

春秋風雨 楚漢乾坤

29. 編數大葉(#611→#632)

大軍驅來 鼓角齊鳴

30. 瓮編(#633→#642) 지르는 편

女唱秩(*以下는 女唱歌曲)

只傳羽調中大葉界面調二中大葉界區調後庭花將進酒故今上冊後亦不知存亡

1. 羽調 中大葉(# 1)

2. 界面 二中大葉(# 2)

3. 花後庭(# 3)

4. 臺(# 4)

5. 將進酒 (# 5) 自此半刻式入羽

6. 臺(#6)
7. 羽調 二數大葉(#→#19)
女唱無初數大葉三數大葉瓮弄樂編藥瓮編.
8. 中擧(#20→#29) 즁허리드는 쟈즌한닙
9. 平擧(#30→#35) 막드는 ᄌᆞ즌한닙
10. 頭擧(#36→#47) 존 자즌한닙
11. 栗糖數大葉(#48→#49) 或稱半數瓮大葉.
12. 界面調 二數大葉(#50→#66) 女唱初數大葉.
13. 中擧(#67→#86) 즁허리드는 자즌한닙
14. 平擧(#87→#107) 막드는 ᄌᆞ즌한닙.
15. 頭擧(#108→#120) 존 ᄌᆞ즌한닙.
16. 弄歌(#121→#134)
17. 羽樂(#135→#151)
18. 界樂(#152→#165)
19. 編數大葉(#166→#181)
20. 男唱 瓮編(#182→#183)
21. 數大葉(#184)
22. 中擧(#185)
23. 歌終奏臺 女唱(#186) 〔* 現行 太平歌가사와 同〕

〈歌詞〉

協律大成의 歌詞는 女唱歌曲의 第185首와 第186首의 사이에 모두 8곡의 歌詞가 있다.

1. 漁父詞
2. 處士歌
3. 想思別曲
4. 春眠曲
5. 名妓歌
6. 關東別曲
7. 白鷗詞
8. 勸酒歌

◎ 가람 李秉岐 先生이 江陵의 李根宇 所藏의『協律大成』을 轉寫할 때 그 뒤에『徽琴歌曲譜』에서 移記한 徽琴圖式, 調絃法, 徽琴歌曲譜目録, 商調調音 等이 収録되어 있으나 説明은 省略한다.

2. 梁琴新譜

文學博士 李 惠 求(서울大 名譽教授)

編者 梁德壽, 年代 1610年, 筆寫本, 1冊26張, 縱26,7cm×橫 22.2cm, 서울大 中央圖書館圭章閣 所藏圖書, 도서番號 : 가람780.951 Y 17y, 玄琴譜

이 琴譜는, 그 序文에 쓰이어 있는 바와 같이, 樂師 梁德壽가 壬辰亂을 避하여 南原에 寓居하였을 때, 거문고道가 斷絶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썼고, 西紀一六一〇年에 發刊된 것이다.

이譜에 실린 曲은 다음과 같은 九曲이다.

一, **慢大葉** 樂時調
一, **北殿** 平調界面調 羽調界面調 羽調等 北殿 易棵而已
三. **中大葉** 俗稱 心方曲
四, **中大葉**
五, **中大葉** 羽調
六, **中大葉** 羽調界面調
七, **中大葉** 平調界面調
八, **調音**
九, **感君恩** 平調四編

以上 九曲이 梁德壽의 創作이 아니고, 當時 傳來되었던 曲임은 勿論이다. 그中에서 慢大葉과 感君恩은 이 梁琴新譜 以前의 譜에도 볼 수 있지만 그 中大葉은 다음과 같은理由로 貴重하다. 即 그 中大葉譜는 (一), 現存 樂譜中에서 最古의 것이고, (二), 平調, 羽調, 平調界面調, 羽調界面調, 以上 四調의 中大葉을 具備하여, 그 四調의 性質을 밝혀주는 것, (三), 비록 그 中大葉은 今日 불리우지 않지만, 그와 密接한 關係에 있고 今日까지도 불리우는 數大葉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梁琴新譜 以前의 大樂後譜와 安瑞琴譜에는 慢大葉은 있지만, 中大葉은 없고, 梁琴新譜 以後의 玄琴東文類記(泰昌元年 또는 光海君十二年 또는 西紀一六二〇年 頃)에는 겨우 平調 中葉이란 것이 둘 있을 뿐, 또 玄琴新證假令(肅宗六年, 西紀一六八〇年)에는, 비록 梁琴新譜와 같이 四調의 中大葉譜는 있지만, 그것은 井間譜로 되어 있지 안하여 梁琴新譜처럼 曲의 時價를 表示하지 못하여 未備하다.

梁琴新譜의 四調, 即 平調, 羽調, 平調界面調, 羽調界面調는 拙著「韓國音樂研究」에서 자세히 說明되었기에, 여기서는 다만 그 四調가 遊藝志에서는 各各 平羽調, 羽調, 平界調, 羽界調로 別稱되었고, 現在에는 그 四調中에서 平調와 平調界面調는 없어졌고, 다만 羽調와 界面調(即 梁琴新譜의 羽調界面調)二調만이 남었다는 것을 參考로 指摘하여 둔다.

慢大葉, 中大葉, 數大葉은 慢・中・數・이같은 무브멘트(Movement)를 이루었었는데, 그中에 慢大葉은 遊藝志에 안 보이는 까닭에, 正祖頃에는 벌써 없어진 듯 하고, 中大葉도 그 以後 또 없어졌고, 지금에는 겨우 數大葉만 남었다. 이같이 中大葉은, 비록 現在

演奏되지 않지만, 그와 同系列에 屬하는 現行 數大葉의 研究에는 不可缺의 貴重한 資料다.

調 絃 法

梁琴新譜 調絃法의 平調散形을 同譜中의 調絃法에 關한 說明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即 먼저 清絃棵外清및 棵上清줄의 高低를 定한다(現行 調絃法에 依하면 (B플랠). 그것이 即 平調散形의 宮이다. 다음 母指로 大絃第六棵를 가볍게 누르고 清絃音에 마 춘다(B플랠). 平調散形에 依하면, 大絃第六괘音은 商이어서, 清絃(宮)보다 높으나, 가볍게 눌리면 商이 아니고 宮이 될 것은 分明하다. 다음에는 名指로 遊絃第二괘를 가볍게 눌러 清絃法에 마춘다(B플랠). 遊絃第二괘도 宮이 아니고, 商인 理由는 역시 그괘를 輕按하지 않고, 力按한 까닭임이 分明하다. 다음엔 文絃의 岐棵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大絃第三괘音 即 平調散形의 羽가 아니고 그보다 낮은 徵로 마춘다(F).

다음 羽調散形과 羽調 調絃法의 說明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羽調의 大絃과 清絃은 平調의 그것들과 다 같다. 다만 武絃의 岐棵가 棵外清의 岐棵보다 올라와서 大絃第二괘音에, 即 宮에 맞는다(E플랠). 이와 反對로 文絃의 岐棵는 鳳尾에 가까히 내려가서 武絃音, 即 宮과 맞는다(E플랠).

平調散形에서 遊絃 第二괘音이 宮이 아니고 商인 까닭은 다음 글로 說明된다. 「지금每棵를 누를 때, 마치 第二괘를 力按(이것은 推라고도 稱하여 줄을 앞으로 내밀어서 뗑기게 하여 그 音을 올린다) 하여 第三괘의 音을 내듯한다. 故로 大絃과 遊絃을 各各 一音씩 내려서 調律한다. 古今이 이같이도 다를가!」

梁琴新譜와 樂學軌範의 調絃法을 比較하면 平調에 있어서는 一致하나, 羽調에 있어서는 棵外清에서만 다르다. 即 梁琴新譜에 依하면, 羽調의 棵外清은 徵인데, 樂學軌範에 의하면 그것은 宮이다. 또 한편 梁琴新譜와 現在의 調絃法을 比較하면 훨씬 다르다. 即 梁琴新譜에는 平調와 羽調의 두가지 調絃法이 있으나, 지금에는 梁琴新譜의 平調 調絃法에 該當하는 한가지 밖에 없다. 이같이 지금에는 거문고 調絃法은 平調것 밖에 없는데, 音樂, 即, 數大葉은 羽調것 밖에 없기 때문에, 自然 羽調 數大葉을 平調로 調絃된 거문고로 타게되어서, 不合理가 생긴다. 그 例는 數大葉의 終止에서 發見되는데, 여기서는 그 說明을 略하겠으니, 拙著「韓國音樂研究」를 參照하기 바란다.

執 匙 法

右手의 食指와 長指새에 술대를 끼우고, 母指와 食指끝으로 그것을 쥐고, 남어지 三指로 주먹을 쥔다. 술대를 힘 있게 쥐면 點(치고, 뜨는 것)과 畫(二 以上의 줄을 내리 긋는 것)이 바르다. 또 술대가 橫(水平)이면 不可하고, 從絃直彈(垂直으로 타는 것) 하여야한다.

按 絃 法

左手로 줄을 누를 때, 母指를 大絃 第五괘에 대고, 長指를 大絃 第三괘에 대고, 名指를 遊絃 第三괘에 대고, 小指를 文絃에 대고 나서, (但 現在는 위와 같이 하지 않는다), 술대로 文絃에서 武絃까지 다 내 긋는 것을 清이라고 한다. 文絃을 치려면 그 줄에서 小指를 들고, 音이 난 後에는 도로 그줄을 눌르는 것이 妙法이다.

按絃이 橫(水平)이면 不可하고, 손고락이 大棵(即 鳳尾 쪽)를 向하여 從絃直按 即 垂直으로 줄을 눌러야 한다.

合 字 法

大　　大絃의 略
方　　遊絃의 略
二, 三, 四, 五.　　棵의 次第
フ　　母指의 略
人′　食指의 略
レ　　長指의 略
タ　　名指의 略
ゝ　　右點은 擧絃 即 술대를 안을 向하여 떠서 내는 표. 「뜰」에 해당하는것
ゝ　　右點은 打絃 即 술대를 밖을 向하여 쳐서 내는표
丨　　文絃에서 所按의 絃 까지 順次로 긋는 것
L　　文絃에서 武絃까지 죽 긋는 표, 一名, 皆清.
點이 없는 것.　　줄을 누르고 술대를 쓰지 않고 노는 손고락으로 自出하는 것
ス　　가볍게 줄을 누르는 것
ミ　　弄絃, 또는 搖
ム　　그 줄을 引(力推)한 즉, 그 音이 先平(先輕按)하다가 後高(後力按)하고, 소리가 나면 곧 도로 例按하는 것(연이때 같이 누르는 것).

時 價 表 示 法 (打量法)

縱畫(세로 그은 것)은 行(줄)이라 하고, 橫畫(가로 그은 것)은 腔이라고 한다. 各腔 아래에 글字가 많고 적은데, 글字가 많으면, 節奏가 急하고, 反對로 적으면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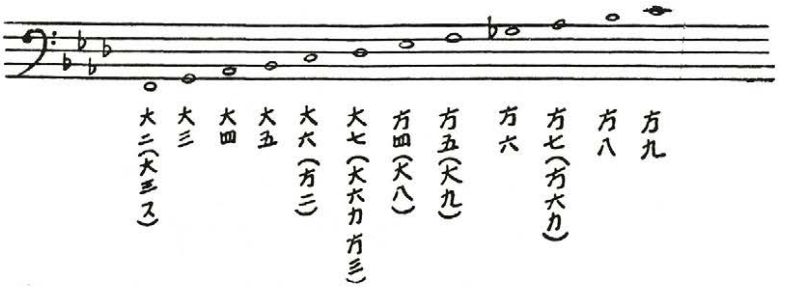
梁琴新譜의 時價表示는 比較的 不分明하다. 特히 慢大葉이 더 甚하다. 그러나 이 慢大葉을 大樂後譜의 그것과 比較하면, 그 時價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即 梁琴新譜의 慢大葉의 一腔은 八井間으로 細分된다. 그리고 梁琴新譜의 中大葉의 六腔은 各各 三, 二, 三, 三, 二, 三井間으로 細分될 것이다. 그것은 第二, 第五腔이 其他 것 보다 좁은 것과 또 現行 數大葉의 例로 證明된다(拙著 韓國音樂研究 一八페이지 參照).

譯 譜

梁琴新譜 中에서 慢大葉譜는 外國人著書에서 五線譜로 번역된 것이 있으나, 그것은 宮, 商, 角, 徵, 羽를 中國의 五音과 混同하였다. 宮, 商, 角, 徵, 羽가 中國의 五音과 다른 것은 合字譜에 依하여 證明된다. 即 그 一例로 樂時調(平調와 同)의 慢大葉과 平調界面調의 中大葉을 比較하면, 그 二曲의 宮은 다 같이 「大五」인데, 商은 하나에서는 「大六」이고, 또 하나에서는 「大六力」으로, 이 같이 다른 것을 보아도, 그 商이 中國의 商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梁琴新譜의 慢大葉과 大樂後譜의 그것을 比較하면, 前者의 宮, 商, 角, 徵, 羽가 後者의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와 一致함을 發見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音程은, 그 曲이 平調냐 界面調냐에 따라서 各各 다르다. 一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羽	徵	角	商	宮	
또는 上 四	上 三	上 二	上 一	宮	
g	f	es	c	B	平 調
as	f	es	des	B	界面調



3. 歐 邏 鐵 絲 琴 字 譜

文學博士 **張 師 勛** (서울大 名譽教授)

編者 李圭景 飜譯 第 圭達參校, 年代 純祖, 韓紙, 筆寫本 1冊 21張, 縱 17㎝×橫 21㎝, 서울大 圭章閣, 圖書番號 : 가람 古 787 Y 55g, 洋琴譜

李圭景의 字는 伯揆, 號는 五洲, 正祖朝 柳得恭, 朴齊家, 徐理修로 더불어 四檢書官의 한 사람이다.

그의 著書에는 五洲衍文長箋散稿 六十冊과 五洲書種·青壯館稿·士小節·紀年兒覽·蜻蛉國志·盎葉記·宋史補傳·明遺民傳 등이 있는 바 當代 學界에 이바지한 바가 컸던 것이다.

歐邏鐵絲琴字譜는 字義 그대로 歐羅巴의 鐵絲로 된 琴의 字譜라는 말이다.

樂譜는 遊藝志 뒤 끝에 있는 洋琴字譜와 同一하며, 거기에 九條項으로 나누어 洋琴의 流入을 비롯한 律名·字點 등의 說明이 붙어 있는 點이 遊藝志와 다르다.

第一 叛來條에 「歲在丁丑仲春 同典樂文命新 講作此譜」라 있어 純祖 十七年에 洋琴譜를 처음 만든 듯한 印象을 주고 있지마는 同項 「嘗見文獻錄中 有人於小紙列書 某某書及梁琴一譜」 云云의 文句로 보나 燕巖集 卷之四十二 熱河日記 銅蘭涉筆에 「歐邏鐵絃琴 吾東謂之西洋琴 西洋人稱天琴 中國人稱蕃琴 亦稱天琴 此器之出我東 未知何時 而其以土調解曲 始于洪德保 乾隆壬辰 六月十八日 余坐洪軒 酉刻立見其解此琴也 欒見洪之 敏於審音 而雖小藝 既系叛始 故余詳錄其日時 其傳遂廣于今九年間 諸琴師無不會彈…」의 記錄

에 依하면 洋琴字譜가 꼭 文命新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을른지 疑問이다.

目　　次

第一　刱來　　琴　　譜
第二　律名　　調絃～羽調調絃・界面調絃
第三　字點　　靈山會相(大一～四, 中一～四, 小一～四, 除一～四, 還入
第四　宜用彼字　　－～四, 下絃還入 －～四)
第五　製形　　歌　　曲　俗稱 紫芝羅葉
第六　藏棄　　時　　調
第七　鼓絃
第八　琴銘
第九　典攷

이 樂譜가 모두 譯譜되어 全貌를 把握하게 된 것은 1958年度 以後에 屬한다.

이 樂譜가 오랫동안 解讀되지 못한 理由는 俗樂器인 洋琴을 雅樂器와 同一視한 데에 起因한다.

다시 말하면, 洋琴 各絃의 音程을 實際와는 距離가 먼 雅樂式인 十二律의 順에 依하여 配律하고, 이에 따라서 樂譜를 만들었기 때문에 解讀이 不可能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張師勛의 「歐邏鐵絲琴字譜의 解讀과 現行 平時調와의 諸問題」(1958 亞細亞研究 通卷 二號)에서 詳述하였기로 그를 參考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그릇된 洋琴의 配律을 訂正한 結果만 紹介하여 두기로 한다.

歐邏鐵絲琴字譜의 律名과 訂正律名 比較表

區分	絃順 / 律名 比較	第1絃	第2絃	第3絃	第4絃	第5絃	第6絃	第7絃
右 棵 左 便	在來式 律名	工	黃	大	太	夾	姑	仲
	訂正 律名	黃	太	夾	仲	林	南	無
左 棵 右 便	在來式 律名	蕤	林	夷	南	無	應	上
	訂正 律名	潢	汰	浹	沖	淋	湳	潕
左 棵 左 便	在來式 律名	潢	汰	汰	浹	潕	沖	潕
	訂正 律名	淋	湳	潕	潢	汰	潕	沖

4. 玄琴五音統論

文學博士 張師勛 (서울大 名譽敎授)

編者 尹用求?, 年代高宗 23年 丙戌(1886). 寫本 1冊, 現 韓國 精神文化硏究院 圖書室, 前舊皇室文庫 (藏書閣) 所藏, 玄琴譜.

玄琴五音統論이라 하여 五音과 調格, 與民樂의 順으로 論說하였으나 注意할 바 못된다. 다음에는 玄琴圖·徽琴式圖·徽琴學門入識이 있고, 羽調長理音 以下 거문고譜 (肉譜)가 揭載되어 있다.

徽琴學門入識에

『吾族兄 秋河先生 顯求氏 攻經術 而兼通 六藝間 嘗注意律呂 每以本琴之不合爲感 與余質論者屢矣』

라 있고, 더욱이 庚辰年(高宗17年)에는 使臣을 따라 燕京에 가서 琴과 嚮齋譜를 求得하여 秋河와 더부러 硏究한 다음 우리나라 調로 옮기는데에 十數朔을 공부하였고,

『乙酉冬 與秋河 購劇數月 奚成一譜 開錄如左 以俟沒之學者』

라 하였으니, 이 琴譜가 이루어진 것은 乙酉 다음 해인 丙戌年이 된다.

또, 韓末年에 徽琴에 能하고 徽琴譜를 世上에 내 놓은 분이 尹顯求와 尹用求임을 생각하면 이는 高宗 二十三年 丙戌 尹用求의 編著임에 틀림 없다.

또한 參考로 들거니와 玄琴圖의 調絃法에 있어서 旋法과 調의 區分없이 文絃은 黃, 遊絃(開放絃)은 仲, 大絃(開放絃)은 無, 上淸은 林, 下淸은 林, 武絃은 林으로 統一되어 있는데, 이러한 調絃法도 古法이 아니므로, 이 樂譜가 이루어진 年代를 좁혀 주고 있다.

目 次

羽調 長理音
靈山會相
界面加樂調
兩淸還入
羽調加樂調
吹打調
本還入
細還入
羽調 初數大葉
〃 二數大葉
〃 中擧·平擧
〃 頭擧
〃 三數大葉
〃 搔龍耳
〃 栗糖
界面 初數大葉
〃 二數大葉
〃 中擧·平擧
〃 頭擧
〃 三數大葉
〃 言弄
〃 平弄
〃 界樂
(羽調) 羽樂
(〃) 言樂
編樂
編
言編
羽栗糖
界搔龍伊
還界樂

이같이 많은 曲이 收錄되어 있으며, 現行 거문고 가락은 거의 完備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琴譜는 거의 같을 뿐만 아니라, 靈山會相中 解彈이라던지 歌曲 還界樂以下(目次에서는 省略함)에 나오는 第二, 第三大餘音이라던지 歌詞에 따른 隨聲가락은 꼭 譯譜 整理되어야 할 것이다.

5. 靈 山 會 象

李 東 福(慶北大 藝大教授)

編著者 및 年代 未詳. 筆寫本 1冊 14張. 縱30.5cm×橫17cm・7行. 墨書.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5層 貴重本閱覽室 所藏圖書. 圖書番號：고서 780,951가(128477). 洋琴譜 및 玄琴譜

이 樂譜의 表紙題名은『靈山會象』이다. 이 樂譜도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의 所藏本인 다른 고악보와 함께 필자에 의해 發掘되어 斯界에 처음으로 紹介하게된 古樂譜로서 唯一本이다.

이 樂譜는 萬歲歷(大淸 光緖二年歲次)을 뒤집어서 記譜한 樂譜로서 앞에는 洋琴譜를 적고, 뒤에는 거문고譜를 적었다. 이 樂譜에는 序文이나 跋文 또는 雜記 等이 없으므로 그 編纂動機(目的)나 編者・年大・底本 및 編纂方法 等을 알 수 없다.

『靈山會象』의 記譜法은 漢字式 洋琴 肉譜로 洋琴譜를 적고, 漢字式 玄琴 肉譜로 거문고譜를 적었으며, 時價의 表示는 없다. 이 樂譜의 洋琴譜에는 靈山會象 上靈山부터 念佛還入까지 있으며, 거문고보에는 上靈山부터 上絃道頭里까지 있는 不完全한 樂譜이다. 또한 記譜에 있어서도 거문고보의 上靈山 初章은 한글 거문고 肉譜로 기보되는 등 不完全한 點이 있다.

『靈山會象』의 目次를 簡略히 살펴보기로 한다.

1. 靈山會象(*제 1 번곡부터 제 7 번곡 念佛까지는 洋琴譜임. 以下 省略함. 現行 上靈山에 該當하며,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2. 中靈山(*初章부터 五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3. 殘靈山(*現行 細靈山에 該當하며,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4. 加樂道頭里(*現行 別樂除只에 該當하며,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5. 上絃道頭里(*現行 上(三)絃還入에 該當하며,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6. 下絃道頭里(*現行 下絃還入에 該當하며,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7. 念佛(*現行 念佛還入에 該當하며, 章別區分이 5行半의 樂譜가 실려 있다. 以上은 洋琴譜이다)
8. 靈山會象(*이 곡부터 끝까지는 거문고 악보이며, 이곡은 現行 上靈山에 該當하며, 初章만은 한글 거문고 肉譜로 기보하였으며, 其外의 모든 곡은 漢字式 洋琴肉譜 또

는 거문고 肉譜로 記譜하였다.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9. 中靈象(*現行 中靈山에 該當하며, 初章부터 四章까지로 分章되어 있다)

10. 細靈山(*初章과 二章으로 分章되어 있다)

11. 中靈山 還入(*現行 細靈山의 뒷부분에 해당하리라고 생각하며, 章別區分은 없다)

12. 加樂道頭里(*現行 加樂除只에 該當하며, 初章·二章·四章으로 分章되어 있다)

13. 上絃道頭里(*現行 上絃還入에 該當하며, 章別區分은 없다)

樂譜는 제14張 뒷면 까지 있으며, 제15張에는 모두 비어 있다.

6. 芳山韓氏琴譜

文學博士 **張師勛** (서울大 名譽教授)

編者 韓玗錫, 年代 1916年, 寫本 1冊 99張, 縱25.2 cm×橫 19 cm, 金昇植의 外孫 洪鍾鎭 所藏

이 樂譜는 1959年 8月 18日 國立國樂院 展示會에서 처음 發見된 것이다. 樂譜中 欄外에

『此譜는 京城府 芳山町 四十九番地

正樂傳習所 正樂整理長

金議官 景南 門生 韓玗錫 丙辰 五月十二日 謄書

贈 仁兄 昭格洞 李康協』

이라 적혀 있다.

即, 이 琴譜는 韓玗錫의 謄書로 自己가 玄琴의 大家요, 正樂傳習所의 古樂整理長이던 金景南의 門下生이라는 點, 이 樂譜는 丙辰(1916年) 5月 12日 昭格洞에 居住하는 그의 樂友 李康協에게 贈與하기 위한·것이라는 點, 自己의 住所는 芳山洞 49番地라는 點 等을 數處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芳山 韓氏琴譜"라 假稱한 것이다.

대개의 琴譜는 거문고 肉譜이고, 洋琴 肉譜가 數種 보일 뿐인데, 거문고·가야고·洋琴 樂譜가 한 책에 收錄되어 있는 樂譜는 드물다.

特히 많은 曲調 가운데서 洋琴 肉譜인 時調 伴奏譜가 珍貴하며, 歌曲 太平歌 다음에 記載되어 있는 「舍館 紫芝羅葉」의 說明이 興味롭다.

『勿論 某處하고 妓女與鼓人으로 遊時에 翌日 早朝 唱歌가 名曰 "舍館 紫芝羅葉" 其曲은 羽調 小數大葉·半葉·界面 小數大葉·界弄·界樂·界編 合六歌與鼓人幷風流. 玄琴은 樂之丈 不彈하나이다.』

라 하여 「사관風流」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처음 보는 記錄이다.

「사관風流」라면 향피리·대금·해금·장구·북으로 編成되는 慶豐年을 指稱해 왔는데, 여기에 半葉이 들어 있는 點이 좀 다르다.

그리고 「舍館」은 「사관」을 漢字로 쓴 것에 지나지 않고, 「사관」은 「鄕管」의 사투리로 생각된다.

曲目의 次序는 다음과 같다.

目　　次

序
八音
西琴　洋琴　凡例
笙簧
玄琴　絃聲
洋琴　絃名
步虛詞(全七章)
與民樂(全七章・下聲　細還入)
歌曲(羽調・界面調　全曲)
靈山會像(玄琴)
界面加樂除只
文蟹兩淸還入
羽調加樂除只
吹打
伽倻琴　絃名
羽調　調音
界面　調音
靈山會像(伽倻琴)
界面加樂除只
文蟹兩淸還入
羽調加樂除只
時節歌

이 중에서 時調譜는 張師勛의 「歐邏鐵絲琴字譜의 解讀과 現行 平時調의 諸問題」에서 解讀 發表되었다.

金景南은 高宗年間의 거문고 三絶의 稱號를 받은 분중의 한 분이다.

即, 李柄文은 靈山會相가락이 絶妙했고, 咸在韻은 與民樂에 特出했고, 金景南은 歌曲 伴奏에 神妙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樂譜에 傳하는 歌曲譜에는 金景南의 興趣있고 絶妙한 가락이 담겨 있다는 點에서 所重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7. 浪 翁 新 譜

文學博士 **張 師 勛** (서울大 名譽敎授)

編者 浪翁의 아들과 제자, 年代 正祖 12年(1788), 筆寫本 1冊, 尹孤山 生家 尹亨植 所藏, 玄琴譜

정조 12년(1788) 낭옹(浪翁)의 아들과 그의 제자들이 전기(傳記)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문고 합자보(合字譜). 낭옹신보(浪翁新譜) 첫장 최탁지제(崔濯之題)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그 편찬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악사 김성기(金聖基(器))는 거문고로써 세상에 떨치었는데, 스스로 호를 낭옹(浪翁)또는 어옹(漁翁)이라 하였으며, 종실(宗室) 남원군(南原君)과 일찍부터 상종하였다.

낭옹(浪翁)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과 함께 배운 여러 제자들이 전수받은 곡을 전기(傳記)

하고 이름하여 낭옹신보(浪翁新譜)라 하였으니 공(公)의 아들은 금도(琴道)에 크게 공을 끼치었다.

아들의 이름은 훌(橘), 자(字)는 자직(子直), 호는 수악설(隨樂窩)이다. 무신(戊申) 국추(菊秋) 최탁지제(崔濯之題)』

이로보아 무신(戊申)은 정조 12년(1788)이 거의 확실하다.

완암집(浣岩集) 등에 의하면 김성기는 처음에 상방 궁인(尙方弓人)이었는데 뒤에상궁(尙弓)을 버리고 거문고와 글로 이름이 났다. 또 퉁소와 비파도 잘하고 시조도 잘 지었으며, 악계에 이름이 있는 자는 대개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고 한다.

또 정윤경(鄭潤卿)은《청구영언(靑丘永言)》서문에서 김천택과 김성기와의 친교에 대하여 『이숙(履叔 : 金天澤)은 이미 노래를 잘 불러 스스로 신성(新聲)을 짓고, 또 선금자(善琴者) 김성기(金聖器)로 아양지계(峨洋之契)를 이루니, 김사(金師)가 거문고를 타고 이숙(履叔) 이 이에 맞추어 노래하면, 그 소리가 맑아 가히 귀신을 움직이고 양화(陽和)를 발(發)하니 이 두 사람의 기예는 가히 일세(一世)의 묘절(妙絶)이라 이르겠다』라고 하였다.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여 분명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복사판에 의하면 첫장 목록에 소개된 곡명과 악보 내용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악보 차례는 다음과 같다.

평조 고조 심방곡(古調 心方曲). 원태전기(原台傳記)

북전(北殿) 속칭 후정화(後庭花) 3편, 평조. 원태 전기(原台傳記)

중대엽 제 1. 속칭 심방곡. 원태 전기

〃 제 2. 원태 전기

〃 제 3. 원태 전기

삭대엽 평조 제 1. 원태 전기

〃 〃 제 2.

〃 〃 제 3. 원태 전기

〃 〃 제 4.

평조조음(平調調音) 다수임. 원태 전기

평조계면조 조음(平調界面調調音) 다수임

계면 북전(界面 北殿) 원태 전기

계면 중대엽 제 1. 원태 전기

〃 〃 제 2. 원태 전기

〃 〃 제 3. 원태 전기

삭대엽 평계(平界) 제 1. 원태 전기

〃 〃 제 2. 원태 전기

〃 〃 제 4. 원태 전기

보허자(步虛子) 8 편, 평조. 이민재(李敏載) 전기(傳記)

이상과 같은 곡은 모두 원태(原台)가 전기(傳記)한 것이고, 보허자 한 곡만 이민재(李敏載)가 전기한 것으로 되어있다.

첫 장에 소개된 낭옹신보의 편찬은 낭옹의 아들과 함께 배운 여러 사람들이 전기(傳記)한 것이라 하였으니 원태(原台)와 이민재(李敏載)는 김성기의 제자임이 틀림없다.

낭옹신보(浪翁新譜)는 경북 안동군(安東郡) 서후면(西後面) 유희철(柳熙轍) 소장의어은보(漁隱譜)와 그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곡이 많다.

目　　次

連音標 說明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 …… 37
梅花點長短
長鼓長短
永言全部
羽調 初中大葉
長水葉
三中大葉
界面調 初中大葉
二中大葉
三中大葉
後庭花
臺
羽調 初數大葉 …… 38
二數大葉
羽中擧 …… 39
平擧 …… 40
頭擧
三數大葉 …… 41
搔聳 …… 42
栗糖數大葉
界面調 初數大葉 …… 43
二數大葉
中擧 …… 45
平擧 …… 47
頭擧 …… 49
三數大葉 …… 52
蔓横
弄歌 …… 53

1. 協律大成
調律之法 …… 26
洋琴圖
與民樂
本還入 …… 27
細還入
平調 靈山會上 …… 28
羽調 初數葉
二數大葉
平擧數葉 …… 29
三數大葉
騷聳
半㐫數葉 …… 30
其二
界面調 初數大葉 …… 31
二數大葉
中擧 數大葉
三數大葉 …… 32
界㐫弄
㐫弄
界弄 …… 33
始弄返樂
羽樂
其二 …… 34
㐫樂
編樂
編數大葉 …… 35
㐫編
界樂 …… 36

處士歌
想思別曲
春眠曲 …… 70
名妓歌
關東別曲
白鷗詞 …… 72
勸酒歌
歌終奏臺 女唱
徽琴圖式 …… 73
調絃法
徽琴歌曲譜目録
商調 調音
2. 梁琴新譜
琴雅部 …… 77
玄琴鄕部
平調散形 …… 78
羽調散形
慢大葉 樂時調 …… 79
北 殿 …… 81
中大葉 俗稱 心方曲 …… 82
中大葉 羽調 …… 84
中大葉 羽調界面調 …… 85
中大葉 平調界面調 …… 86
調 音 俗稱 다ㅅ림 …… 87
感君恩 平調 四篇 …… 88
3. 歐邏鐵絲琴字譜
第一 叛來 …… 92
第二 律名
第三 字點 …… 93
第四 宜用彼字
第五 製形 …… 94
界樂 …… 56
羽樂 …… 57
㕘樂 …… 58
編樂 …… 59
編數大葉 …… 60
㕘編 …… 61
女唱秩(*以下는 女唱歌曲)
羽調 中大葉 …… 62
界面 二中大葉
後庭花
臺
將進酒
臺
羽調 二數大葉
中擧 …… 63
平擧
頭擧
栗糖數大葉 …… 64
界面調 二數大葉
中擧
平擧 …… 65
頭擧 …… 66
弄歌
羽樂 …… 67
界樂
編數大葉 …… 68
男唱 㕘編 …… 69
數大葉
中擧
〈歌詞〉
漁父詞

二數大葉
中擧・平擧…… 127
頭擧
三數大葉…… 128
搔聾
栗糖…… 129
界面 初數大葉
二數大葉…… 130
中擧・平擧…… 131
頭擧
三數大葉…… 132
言弄
平弄…… 133
界樂
(羽調) 羽樂…… 134
(〃) 言樂…… 135
編樂
編…… 136
言樂(編)
羽栗糖
界搔聾伊 …… 137
還界樂
5. 靈山會象
靈山會象(洋琴譜) …… 146
中靈山
殘靈山
加樂道頭里 …… 147
上絃道頭里
下絃道頭里 …… 148
念佛
靈山會象(玄琴譜) …… 149
第六 藏衆 …… 97
第七 鼓絃
第八 琴銘
第九 典攷 …… 98
靈山會相 …… 100
界面調絃 …… 109
羽調調絃
歌 曲 俗稱 주ㅈ니닙 …… 110
時調 …… 112
4. 玄琴五音統論
琴圖…… 115
徽琴學門人識
調絃法
律式 …… 116
羽調長理音 …… 117
本靈山 …… 118
中靈山
細靈山 …… 119
加樂還入
上絃還入
下絃還入…… 120
念佛
打令 …… 121
軍樂
界面加樂調 …… 122
兩清還入
羽調加樂調 …… 123
吹打調
本還入 …… 124
細還入 …… 125
羽調 初數大葉…… 126

平 聲
小數大葉
三數大葉…… 181
쇠ㄴ셋지치
騷聳伊
言 弄 …… 182
蔓 横
界 弄
界 樂 …… 183
界編
太平歌…… 184
半葉大葉
還界樂
鳳凰臺上 編樂
솔아리 編樂
나무도바이 編樂 …… 185
言編
흐리나 말그나 男唱 半葉·186
靈山會像(玄琴)
中靈山
細靈山 …… 187
加樂除指
上絃還入(三絃) …… 188
細還入(上聲)
下絃還入 …… 189
念 佛…… 190
打鈴
軍 樂…… 191
界面加樂除只
文蟹兩清還入 …… 192
羽調加樂除只 …… 193
中靈象…… 150
細靈山
中靈山還入
加樂道頭里
上絃道頭里 …… 151

6. 芳山韓氏琴譜

序 …… 155
八音 …… 156
西琴 洋琴 凡例 …… 157
笙簧
玄琴 絃聲
洋琴 絃名…… 158
步虛詞(全七章)
與民樂(全七章·下聲 細還入)·· 163
〈歌曲〉
羽調 初數大葉…… 172
二數大葉…… 173
擧中聲
平聲
小數大葉 …… 174
三數大葉
쇠ㄴ셋지치…… 175
騷聳伊
羽弄…… 176
羽樂
쇠ㄴ羽樂…… 177
蕚樂
羽編
界面 初數大葉…… 179
二數大葉
擧中聲……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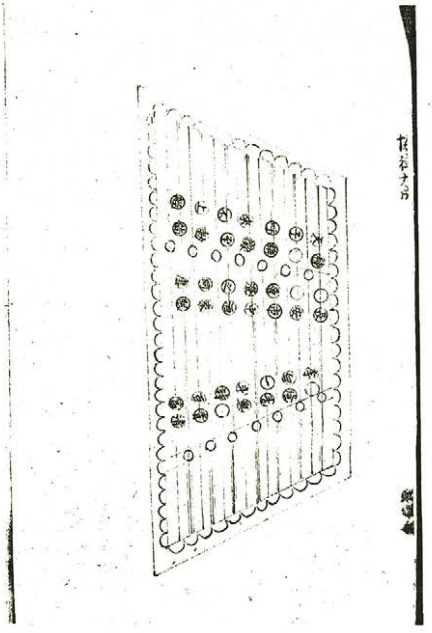
文蟹兩淸還入…… 202
羽調加樂除只
時節歌…… 203

7. 浪翁新譜

平調(古調 心方曲) …… 207
北殿(俗稱 後庭花, 三編, 平調)
中大葉(俗稱 心方曲) …… 208
數大葉…… 210
平調調音〔다ㅅ임〕 …… 212
平調界面調 調音(다ㅅ임)
界面北殿 …… 213
界面中大葉
數大葉 平界…… 216
步虛子(八編, 平調) …… 217
吹 打
伽倻琴 絃名 …… 194
羽調調音…… 195
界面調音
靈山會像 本靈山(伽倻琴)…… 196
中靈山
細靈山…… 197
加樂除只
三絃還入
上聲 細還入 …… 198
下絃…… 199
念佛
打鈴…… 200
軍樂
界面加樂除只…… 201

協律大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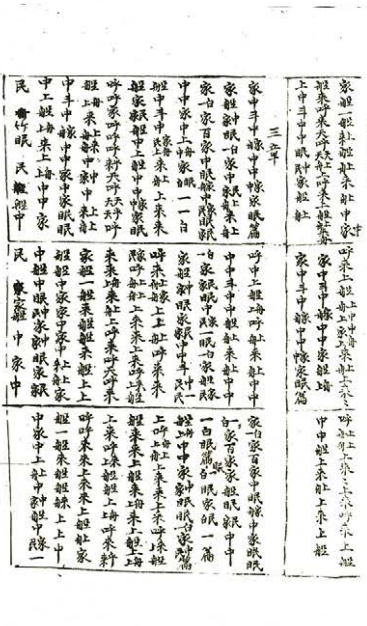
가 람
781.751
H995.



右七律　李白一斗詩百篇
中七律　長安市中酒家眠
左七律　天子呼來不上船

調律之法

啟先調一字律與黃鍾合然後一字與市字
謂之雌雄律次調般字與市字合謂之兄弟
律既得般字律則眠字律自成矣以眠字律
調來字謂之祖孫律次得中字因中調斗四
市得呼因呼調家因家得上因上調安因安
得子因子調酒因酒得不然後因長調李因長
調白因酒調詩因家調百因眠調篇



協律大成

與民樂

二三章　詠五言曰

山月皎如燭　霜風時動竹　夜半鳥驚棲　應聞人獨宿

（江陵李登年吹笛）

二章　自二章至七章每章各三十二句

一眠篇眠白眠家眠白一篇
家般般白家中家般來般上
般來般來般來般來般來般
來般來般來般來般來般來
般來般來般來般來般來般
來般來般來般來般來般來
般來般來般來般來般來般
來般來般來般來般來般來

協律 3前

四章

家百家家中家眠
来眠来家中家中
舡一毋毋毋上
中斗中上白上
上毋上来工来上毋
来民来来来乎
毋一毋毋上毋中
中斗中中家毋

家眠舡中舡中家眠
家百家家眠毋中
中工毋来上毋上
毋来上中毋上
上乎天来乎来上
来上来乎天乎来
来上毋中家毋上来
中毋来上来上毋

上舡上上上来来舡
家百家家中家眠
中斗中中眠家毋
毋一毋舡上毋中
毋一毋毋上中
乎来上毋上毋上
上毋上来上来上毋
中斗中中眠家毋

来上舡舡上乎天
中中家毋中中家民
中斗中中家民
来上毋中家毋上毋来
天乎来毋上乎天
乎来天天乎来乎来上
乎上来乎来上毋
中斗中中家眠

五章

家百家家中家民
乎来上毋毋上乎天
上毋工来工来上毋
中斗中毋上毋来
来民来来来乎

中家民家中家毋
来民来来乎天天
乎上来乎来上毋
上白上上乎来
毋乎来乎来上

中斗中家上毋中
乎来民来来上毋
中家中毋上中
上毋上来上来上毋
乎家乎乎来天天

家毋中家民家民
家民毋中毋中家民
家中家民家民家
来上毋毋上乎天
乎来上来乎天乎来

協律大成

協律 3後

乎来上毋上乎来毋
中斗中中家民
家中家眠家民家

来上中毋毋上
毋中家中毋上
中家中毋中中家

毋一毋毋上毋中
毋一毋毋毋上
民竹眠民毋中

乎上来乎来上毋
中上毋来上毋中
民家毋中家中

六章

家百家家中家民
中斗中来上毋上
民竹民民白一
上上毋来乎来上
来上毋上来上来上毋来
乎家乎乎来天天乎
上毋一毋毋上毋中
中斗中中家毋

中家民家眠家
家百家中民家中
中家中家民白一
毋一毋毋上乎来
上毋毋上乎天
来上来乎天乎
来上毋中家毋上毋来
中毋来上来上毋

毋一毋毋毋上
家百家家中家民
家民家中斗中
上毋一毋毋上毋中
来民来来来乎
来乎来上毋上毋上
上毋上来上来上毋
中斗中中民家毋

上毋毋中毋上毋上
中家民一白家中
毋上中家眠家民
来上毋中家毋上毋
上乎来乎来上
乎来天天乎来乎来
乎来来上乎来上毋
中斗中中家眠

七章

毋一毋毋毋上
中家民家中家毋

毋工毋中毋上毋上
中斗中家上毋中

家百家家中家眠
家百家中民家中

中家民家中家民家
家百家家中家民

協律 4前

上乎来毋上乎天
毋上中家眠家民
来上毋上毋上
乎来上毋上乎来
中斗中中家民
家中家眠家民家

来民来来上毋
上上毋来乎上来
乎家乎乎乎来
毋来上中毋上
毋中家中毋上
中家中舡中中家

中家中家民白一
毋上毋中家中
乎天乎天天乎来
毋一毋毋上毋中斗
毋一毋毋毋上
毋民民民毋中

家民家中斗中
上白上工来上毋
民来来来乎来来上乎乎来
上来乎来上毋
中上毋来上毋中
民家毋中家中

本還八

家白白白眠一白
眠眠一眠白家白一
家眠眠一民白白一斗
家眠家家中中中中白
白斗白斗一民斗斗
百一百斗竹竹百料百斗
家家家白白白家民中民一
斗斗百竹斗百竹竹

家白一粕斗竹百百白
粕斗竹百百一白一百
粕白一民一民斗百
白白民一白家白一粕
竹百百竹斗一斗家一白百
百料一白家一白粕斗
一眠一民一民一眠一白
百料百斗百料一白

一百眠一竹一眠眠
家白白白眠一白家
一民眠民一中中
斗竹一白白百斗
竹斗粕一斗斗
一白白一斗百一眠
眠百斗一白粕斗一白
家一白粕斗一白一民一民

眠一白家眠白眠眠
白一白斗粕白一眠一眠
民一民中家中家中
一眠白斗斗白白斗
斗粕簫一百百百斗竹
眠一民一眠白白
斗一白斗一白斗一眠白
眠一白白一白一一

協律大成

協律 4後

竹百一一斗一白斗
斗斗百竹百斗

一眠斗一白眠家一白

白白一斗斗一眠民一竹

竹斗粕竹百

細還八

乎上工上舡来上毋
来来毋毋上来上毋乎上毋上毋
来来毋毋家来中上舡乎上来来毋来
来上毋乎上毋上中中家
家民家中舡来中毋家民家
中家中中家眠舡毋上来
乎舡舡乎来来上来上来来上
一眠中家中家中家中
舡家毋中来毋上舡中舡

乎上上毋中中家眠家
中中家眠家家毋舡中
来来毋毋乎天天乎舡毋舡来天
眠民家家毋上中家中来毋
家民家中家毋中家一民民
上工毋中中上家家毋舡中
上毋乎上上毋中中家上上毋
眠家舡舡上来毋上中中
来上毋毋乎毋上中中毋家家民

家毋舡毋中家来舡一舡
家乎上上上舡来
乎天来天乎天料天乎来
上舡上中中毋上来毋中
中中民眠毋家中家中中家
家毋来来毋来毋来上乎上来家
中中家上中毋上中上舡
毋上毋来上中中来上中上
舡毋来来眠眠中中家眠

来上来舡上乎来毋上
毋上乎上上家毋中中上舡
乎乎天天天乎上上上上舡
中中来毋舡中中毋家民家
民家白民一眠中家中家
上上家上来来毋毋乎乎来天乎
中毋上来上眠眠眠一白民家
上毋家家舡中家毋毋家
毋家中家中中家家眠一

平調崖山會上

初章

百百篇百篇百百眼一白一百百百一白一白
百一一百眼家眼眼白一百一一百眼白一百
篇

二章

家眼白一百篇眼家眼家中家眼眼篇眼
家眼眼眼白百篇眼眼家眼眼家眼中家神
一白眼眼一白百一一百眼白一百篇

三章

家眼篇眼一白百一一百眼百家家家百眼家中家家
百一一百眼眼家眼眼家眼神一白眼眼一白百
一一百眼一白百篇

四章

百百百百一一百眼眼一白百篇家家眼家家眼

五章

家眼一眼家眼眼眼一白百一一百眼一白百篇
白一百一百一斗百篇一一白白一白
一一百眼家眼眼一白百一一百眼一白百篇

羽調

初章

中之家家民家白一一竹家中眼舟之眼中中斗中之家家民中家
天望○民 미리 이 ㅅ 세 시 에 이 에 지 日本 日出 之

二章

舟之神中神中神民家眼一百一竹軒民中眼
夜學生에 에 이 外 流 歸 ㅣ 마 日 ㅂ 에 ㅅ 流 ㅣ 歸 來 生
舟之神中中斗中之眼一白民神家眼一白家眼一之斗一一百
風○雨 에 기 ㅋ 沿 전 지 ㅇ 草 리 거 斗
神一斗竹一之眼一白民家一斗一百舟之神中中斗中之神家 來 古 社 에
ㅋ ㅋ 리
中之家中神一一竹軒斗家手響白民家眼一之斗一斗民
互 ㅂ 雪 玉 ㅂ 五 白 ㅂ 重修修 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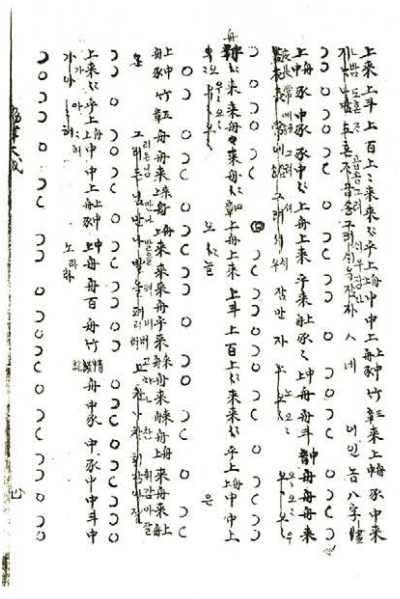
中白民家白民一斗民白白斗之白白斗白一百一竹歌斗中斗
斗 에 에 ㅌ 斗
舟之神民家眼舟家神民 中家中斗 家家 家白 百一竹
中家民中家民家眼家眼一之斗一百一
白民白民家眼白家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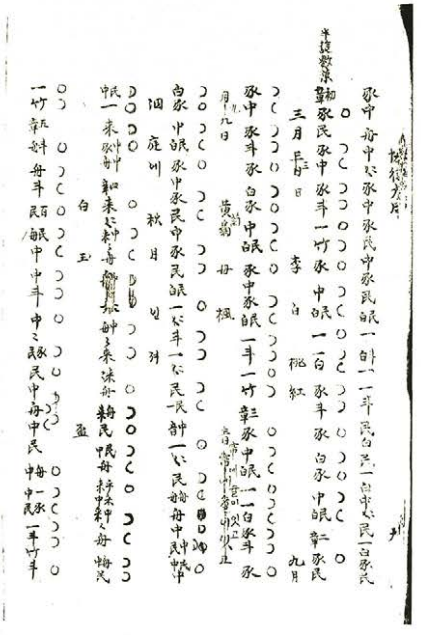
二數大樂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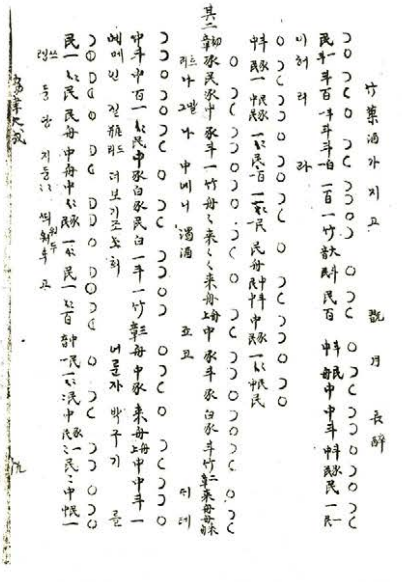
初章 一百家百家斗一竹家中家中斗家家家白百一竹
江湖 歌 에 의 謝 音 斗 ㅂ ㅇ 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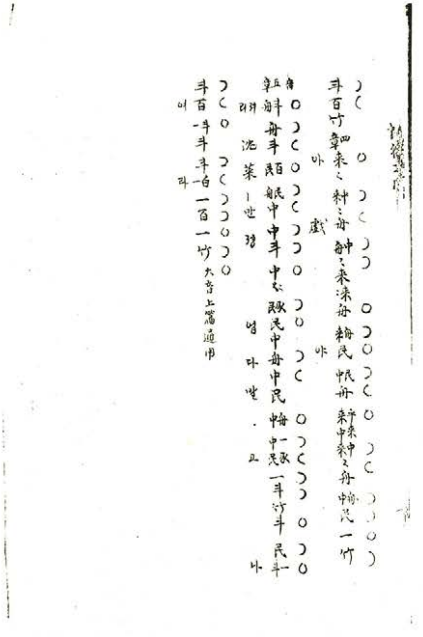
二章 家斗家中中家斗家眼民家中民神家白民一斗一竹軒白一百家
十年 ㅂ ㅂ 之 奔走 計 斗 ㅂ ㅌ 之

眼中之斗家斗家中舟中家民神眼一一眼一之斗白一百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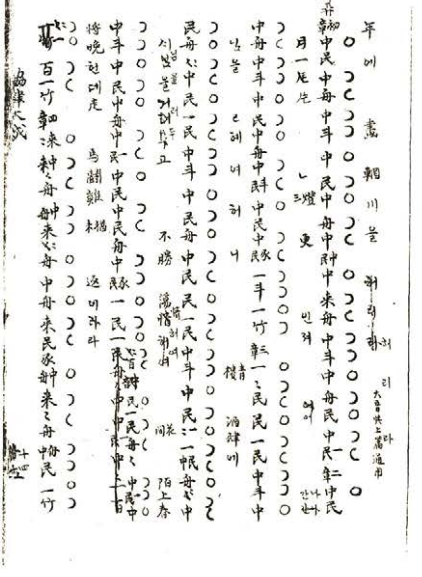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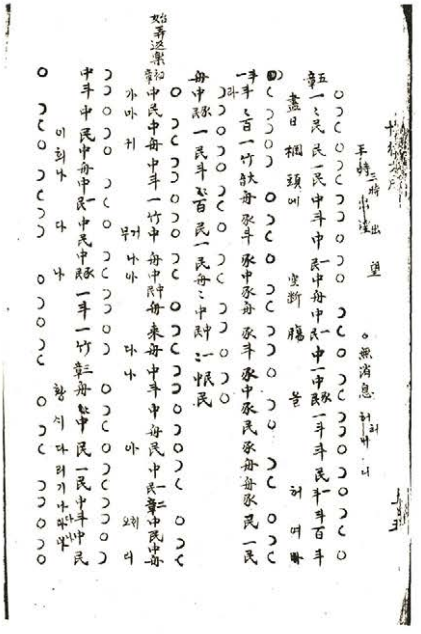
協律1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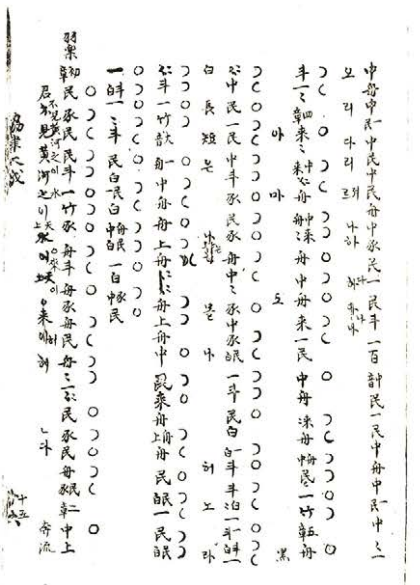
協律1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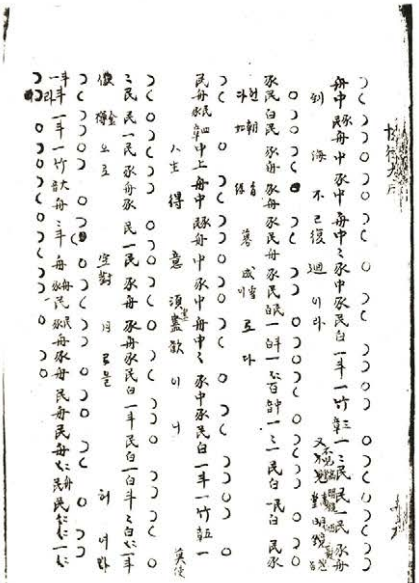
協律1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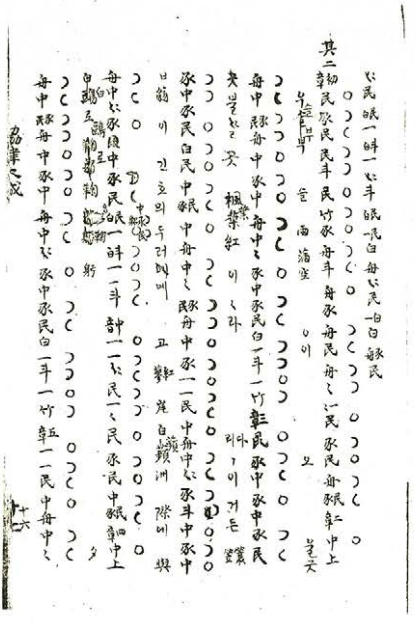
協律1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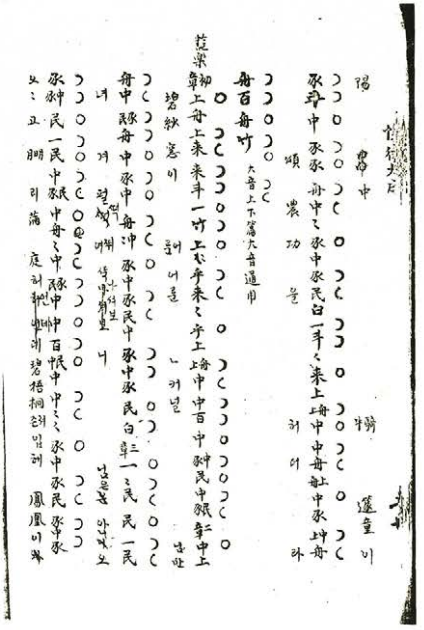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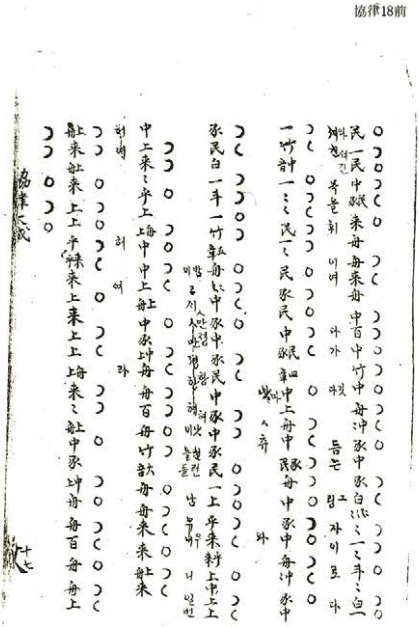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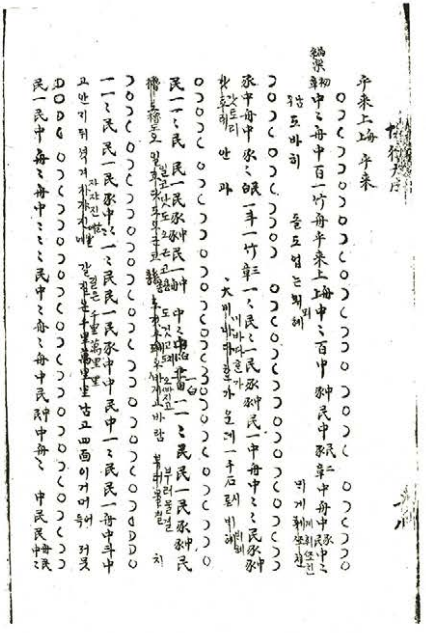












自標雖如是聲韻之用變動無常孚音語
量高低清濁互有楷爰而等級音亦有當直
之勢歌者隨其曲與律合宜之勢而歌之不
為膠瑟可也一言以蔽之曰通神妙然後可謂
詠歌爾

隨勢而拍 先以半刻下以七點拍之則可必合符

協律23前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

初中大葉　南薰五絃　行雲流水
二中大葉　海濶孤帆　平川挾灘
三中大葉　項王躍馬　高山放石
後庭花　鴈叫霜天　草裏驚蛇
二後庭花　空閨怨婦　寂寞悽悵
初數大葉　長袖善舞　綠柳春風
二數大葉　杏壇設法　雨順風調
三數大葉　轅門出將　舞刀提賊
搔聳　暴風驟雨　飛鷰橫行
編搔聳　兩將交戰　用戟如神
蔓橫　舌戰羣儒　變態風雲　俗称詳弄반지기
弄歌　浣紗淸川　逐浪翻覆
樂時調　堯風湯日　花爛春城
編樂時調　春秋風雨　楚漢乾坤

協律23後

編數大葉　大unopened軍驅來　鼓角齊鳴

梅花點長短

單手拍之以五點用而復始不拘半刻

長鼓長短

初章二十點
二章十七點
三章二十三點
中念十點
四章十七點
五章三十點
大念三十三點

協律24前

永言全部

羽調初中大葉　南薰五絃　行雲流水

△黃河水 맑다더니 聖人이 나시도다 草野羣賢이 다 니러나단 말가 어
즈버 江山風月을 눌을 주고 거니　鄭忠信 字可行 錦南君

△仁心은 터이되고 孝悌忠信 기동이되여 禮義廉恥로 가득이 예엿시니 千
萬年 風雨를 만ᄂᆞ돈 기울줄이 잇시랴

△空山 寂寞 혼되 슬히우ᄂᆞᆫ 져 杜鵑아 蜀國興亡이 어졔 오ᄂᆞᆯ 아니여든 지
숙히 피나게 우러 쳥남의 비를 ᄭᅳᆫᄂᆞ니　鄭忠信

長大葉

△松林에 눈이 오니 柯枝마다 곳이로다 한柯枝 걱거 너여 님 계신 듸 드리과져
님이 보오신 後에 녹아 진들 엇더리

三中大葉　項王躍馬　高山放石

△三冬에 뵈옷 닙고 岩穴에 눈비 마자 구름 낀 볏뉘도 쬔 젹이 업건마ᄂᆞᆫ 西
山에 ᄒᆡ 지다 ᄒᆞ니 눈물 계워 ᄒᆞ노라　曺南溟 名植 字楗仲 文貞公

△浮虛코 셥셔올손 아마도 西楚霸王 긔 ᄯᅳᆼ 天下야 엇지 ᄒᆞ엿ᄉᆞ나 못 엇ᄉᆞ나 千里馬

協律24後

絶代佳人을 눌을 주고 이거니

界面調初中大葉

△잘 새ᄂᆞᆫ 다 라 들고 새 달은 돗아 온다 외나무 다리로 홀노 가ᄂᆞᆫ 져 禪師야 네
졀이 언마ᄂᆞ 나 ᄒᆞ관듸 遠鍾聲이 들니ᄂᆞ니

二中大葉

△碧海渴流後에 모릐 모혀 셤이 되여 無情芳草ᄂᆞᆫ 해마다 푸르로되 엇지
타 우리의 王孫은 歸不歸를 ᄒᆞᄂᆞ니　具容 字大受 号竹窓

三中大葉

△淸凉山 六六峯을 아ᄂᆞ니 나와 白鷗 白鷗야 헌ᄉᆞᄒᆞ랴 못 미들 손 桃花ㅣ로
다 桃花야 ᄯᅥ 지지 마라 漁舟子ㅣ 알가 ᄒᆞ노라　李滉 号退溪

後庭花　鴈叫霜天　草裏驚蛇

△누운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님이 오랴 이제 누엇신들 어니 잠이 하마 오리
찰하로 안즌 곳의셔 긴 밤이나 새오쟈

臺

△秦淮에 배를 미고 酒家를 ᄎᆞ져 가니 隔江商女ᄂᆞᆫ 亡國恨을 모로고셔 烟籠

水 月龍吟 [illegible] 鄭逑 寒岡

[illegible]初數大葉 長袖善舞 綠柳春風

夫皇天之心 [illegible] 堯舜에 [illegible] 漢唐宋風 [illegible] 지오리

거다 [illegible] 리도 [illegible] 도 [illegible] 도 [illegible] 려도 [illegible] 라

南薰殿 [illegible] 밝은 [illegible] 에 八元八凱 [illegible] 시고 五絃琴 [illegible] 生民之慍 [illegible]

도다 [illegible] 리도 [illegible] 초 [illegible] 교 [illegible] 樂太平 [illegible] 라

南八 [illegible] 男兒 [illegible] 死耳면정 [illegible] 可以不義屈矣 [illegible] 고 對蒼 [illegible] 이有

言敢不死아 [illegible] 古에 [illegible] 雄이 [illegible] 치 [illegible] 얼나오 金清陰

東恩 [illegible] 라오 [illegible] 萬物이皆自樂 [illegible] 草木昆氣 [illegible] 마四生 [illegible]

[illegible] 람은 [illegible] 緣故로歸不歸 [illegible] 라고 朴孝元 字素華 東國名歌

周 [illegible] 稱 [illegible] 我命이維新이라 [illegible] 之大 [illegible] 命을 [illegible] 布德 [illegible] 化을 [illegible]

시금 [illegible] 我東方 [illegible] 世 [illegible] 보리로다 金人

春至 [illegible] 라고 [illegible] 한 [illegible] 려 [illegible] 에 [illegible] 春風에 [illegible] 아 [illegible] 려 [illegible] 다

十四

가 [illegible] 도남 [illegible] 밝이며도 [illegible] 라 [illegible] 伊 [illegible]

[illegible] 처서 [illegible] 이여 [illegible] 밝은 [illegible] 도 [illegible] 가 [illegible] 이서라 [illegible] 도 [illegible] 면가 [illegible] 마는 [illegible]

[illegible] 니고 [illegible] 이 [illegible] 精 [illegible] 도 [illegible] 라 金人

[illegible] 後한 [illegible] 里에 [illegible] 식 [illegible] 염 [illegible] 라 [illegible]

森 影일부드 [illegible] 憲에 [illegible] 人金 [illegible] 미 [illegible] 는 [illegible] 라고 [illegible] 라

三數大葉 杏壇說法 兩順風調

沿 天下五十年에 [illegible] 知와 [illegible] 天下事를 [illegible] 億兆蒼生 [illegible] 民을 [illegible] 하노 [illegible] 康

衢에 聞童謠하니 太平인가 [illegible] 或者堯舜 [illegible] 生 [illegible] 不識

江湖에 [illegible] 釣 [illegible] 도 [illegible] 年을 [illegible] 老 [illegible] 시고 [illegible] 鷗는 [illegible] 의 [illegible] 다는건 마는

[illegible] 恩이 [illegible] 宣 [illegible] 시면 [illegible] 고 [illegible] 라

[illegible] 恩 [illegible] 行爲敎 [illegible] 色을 [illegible] 가 [illegible] 면 [illegible] 라 [illegible] 이 [illegible] 고 [illegible] 아니 [illegible] 이러니

行 [illegible] 고 [illegible] 力이 있거든 [illegible] 學 [illegible] 文 [illegible] 자하리라 [illegible] 石 [illegible] 傷

[illegible] 맛 [illegible] 고 [illegible] 論하니 [illegible] 남 [illegible] 마 [illegible] 요 [illegible] 드려로 가자하리라 [illegible] 음

마 [illegible] 란 있거라 [illegible] 곧이 [illegible] 제가리라

周公 [illegible] 夢人이 [illegible] 라 世 [illegible] 스 [illegible] 라 [illegible] 조 [illegible] 와 [illegible] 들이 [illegible] 武王 [illegible] 와이 [illegible] 조 [illegible]

[illegible] 꼬에 [illegible] 蟠 [illegible] 로 [illegible] 니 [illegible] 에 [illegible] 보 [illegible] 업 [illegible] 제라

[illegible] 음이여 [illegible] 라 [illegible] 이 [illegible] 라 [illegible] 萬重雲山 [illegible] 에 [illegible] 의 [illegible] 오리마는 [illegible] 지는

님 [illegible] 부는 [illegible] 로 [illegible] 에 [illegible] 함 [illegible] 해 [illegible] 라 [illegible] 라 徐敬德 [illegible] 詩

[illegible] 음아 [illegible] 는 [illegible] 이 [illegible] 每 [illegible] 에 [illegible] 렷 [illegible] 니 [illegible] 너 [illegible] 는 [illegible] 제 [illegible] 면 [illegible] 로 [illegible] 아 [illegible] 니 [illegible] 을 [illegible] 소 [illegible] 아

마 [illegible] 고 [illegible] 너 [illegible] 조 [illegible] 처 [illegible] 만 [illegible] 가 [illegible] 방 [illegible] 누 [illegible] 일가 [illegible] 라

春 [illegible] 樂 [illegible] 杖 [illegible] 드 [illegible] 지 [illegible] 고 [illegible] 逗 [illegible] 오 [illegible] 라 [illegible] 드 [illegible] 니 [illegible] 爾 [illegible] 三仙 [illegible] 金 [illegible] 익 [illegible] 구 [illegible] 로 [illegible] 에 [illegible] 잠 [illegible] 겨 [illegible] 제 [illegible] 라 [illegible] 오 [illegible]

은 [illegible] 塵 [illegible] 緣 [illegible] 불 [illegible] 다 [illegible] 열 [illegible] 치 [illegible] 고 [illegible] 赤 [illegible] 秋 [illegible] 구 [illegible] 로 [illegible] 조 [illegible] 초 [illegible] 리 [illegible] 라

梧 [illegible] 桐 [illegible] 에 [illegible] 雨 [illegible] 滿 [illegible] 는 [illegible] 니 [illegible] 彈 [illegible] 琴 [illegible] 을 [illegible] 니 [illegible] 의 [illegible] 는 [illegible] 듯 [illegible] 黃 [illegible] 葉 [illegible] 에 [illegible] 風 [illegible] 動 [illegible] 하 [illegible] 니 [illegible] 楚 [illegible] 漢 [illegible] 이 [illegible] 렷 [illegible] 구 [illegible] 는 [illegible] 듯

金 [illegible] 穗에 [illegible] 月 [illegible] 光 [illegible] 明 [illegible] 을 [illegible] 보 [illegible] 李白 [illegible] 是 [illegible] 듯 [illegible] 여 [illegible] 라

天地 [illegible] 帳幕 [illegible] 고 [illegible] 日月 [illegible] 燈燭 [illegible] 合 [illegible] 라 [illegible] 北海 [illegible] 水 [illegible] 到 [illegible] 酒 [illegible] 樽 [illegible] 에 [illegible] 다 [illegible] 녀 [illegible] 두고

李白

醉 [illegible] 에 [illegible] 老人 [illegible] 劍 [illegible] 을 [illegible] 빈 [illegible] 취 [illegible] 를 [illegible] 보 [illegible] 고 [illegible] 라 李 [illegible] 鈺

唐虞 [illegible] 도 [illegible] 려 [illegible] 와 [illegible] 夏 [illegible] 周 [illegible] 1 [illegible] 더 [illegible] 국 [illegible] 衰 [illegible] 라 [illegible] 이 [illegible] 제 [illegible] 는 [illegible] 데 [illegible] 여 [illegible] 하 [illegible] 니 [illegible] 녀 [illegible] 졌 [illegible] 만 [illegible] 는 [illegible] 저

이고 [illegible] 堯 [illegible] 天에 [illegible] 舜 [illegible] 日이 [illegible] 밝았 [illegible] 시 [illegible] 니 [illegible] 아 [illegible] 부 [illegible] 젠 [illegible] 줄 [illegible] 뉘 [illegible] 라 朱義植 [illegible] 東宗 [illegible] 人 [illegible] 號

十五

가 [illegible] 마귀 [illegible] 라고 [illegible] 白鷺 [illegible] 아 [illegible] 지 [illegible] 아라 [illegible] 갔 [illegible] 치 [illegible] 검 [illegible] 로 [illegible] 돌 [illegible] 수 [illegible] 초 [illegible] 차 [illegible] 검 [illegible] 로 [illegible] 소 [illegible] 수 [illegible] 갓 [illegible] 되고

마 [illegible] 귀 [illegible] 검 [illegible] 은 [illegible] 줍 [illegible] 성 [illegible] 은 [illegible] 마 [illegible] 귀 [illegible] 가 [illegible] 을 [illegible] 라 李樓

마 [illegible] 귀 [illegible] 오 [illegible] 도 [illegible] 끝 [illegible] 에 [illegible] 白鷺 [illegible] 아 [illegible] 지 [illegible] 아라 [illegible] 만 [illegible] 가 [illegible] 마 [illegible] 귀 [illegible] 회 [illegible] 보 [illegible] 초 [illegible] 서 [illegible] 울 [illegible] 제 [illegible] 라 [illegible]

江 [illegible] 에 [illegible] 조 [illegible] 히 [illegible] 씨 [illegible] 손 [illegible] 끝 [illegible] 을 [illegible] 쥐 [illegible] 려 [illegible] 보 [illegible] 가 [illegible] 을 [illegible] 라 [illegible] 翰 [illegible] 國 [illegible] 隱 [illegible] 每 [illegible] 親 [illegible] 爲 [illegible] 國 [illegible] 隱 [illegible] 赴 [illegible] 太 [illegible] 空 [illegible] 席 [illegible] 暇

마 [illegible] 귀 [illegible] 가 [illegible] 를 [illegible] 보 [illegible] 니 [illegible] 라 [illegible] 고 [illegible] 도 [illegible] 제 [illegible] 깊 [illegible] 깊 [illegible] 이 [illegible] 꽤 [illegible] 라 [illegible] 귀 [illegible] 各 [illegible] 아 [illegible] 붙 [illegible] 여 [illegible] 고 [illegible] 려 [illegible] 조 [illegible] 조 [illegible] 감 [illegible] 있 [illegible] 느

냐 [illegible] 무 [illegible] 리 [illegible] 도 [illegible] 白鷺 [illegible] 검 [illegible] 일 [illegible] 맥 [illegible] 을 [illegible] 롯 [illegible] 어 [illegible] 들 [illegible] 가 [illegible] 하 [illegible] 고 [illegible] 라

감 [illegible] 정 [illegible] 시 [illegible] 려 [illegible] 하 [illegible] 고 [illegible] 天 [illegible] 鵬 [illegible] 박 [illegible] 옷 [illegible] 지 [illegible] 마 [illegible] 라 [illegible] 天 [illegible] 蓋 [illegible] 長 [illegible] 空 [illegible] 에 [illegible] 날 [illegible] 고 [illegible] 려 [illegible] 도 [illegible] 는 [illegible] 다 [illegible] 는

어 [illegible] 리 [illegible] 二 [illegible] 媒 [illegible] 飛 [illegible] 鳥 [illegible] 는 [illegible] 네 [illegible] 오 [illegible] 제 [illegible] 오 [illegible] 라 [illegible] 드 [illegible] 아 李 [illegible]

마 [illegible] 밝 [illegible] 빛 [illegible] 구 [illegible] 는 [illegible] 마 [illegible] 라 [illegible] 江 [illegible] 湖 [illegible] 에 [illegible] 도 [illegible] 려 [illegible] 지 [illegible] 소 [illegible] 려 [illegible] 라 [illegible] 消 [illegible] 息 [illegible] 끝 [illegible] 나 [illegible] 는 [illegible] 라

고 [illegible] 林 [illegible] 에 [illegible] 도 [illegible] 려 [illegible] 지 [illegible] 소 [illegible] 려 [illegible] 라 [illegible] 이 [illegible] 제 [illegible] 야 [illegible] 성 [illegible] 각 [illegible] 하 [illegible] 니 [illegible] 욱 [illegible] 려 [illegible]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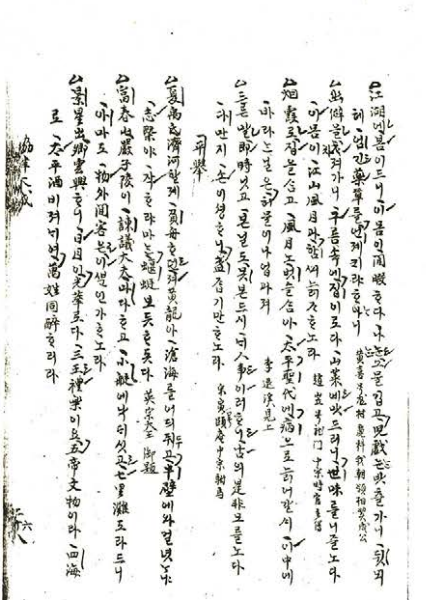
만 [illegible] 맑 [illegible] 에 [illegible] 서 [illegible] 는 [illegible] 며 [illegible] 들 [illegible] 을 [illegible] 히 [illegible] 우 [illegible] 러 [illegible] 지 [illegible] 니 [illegible] 려 [illegible] 다 [illegible] 이 [illegible] 제 [illegible] 야 [illegible] 성 [illegible] 각 [illegible] 하 [illegible] 니 [illegible] 밥 [illegible] 이 [illegible] 욱 [illegible] 려 [illegible]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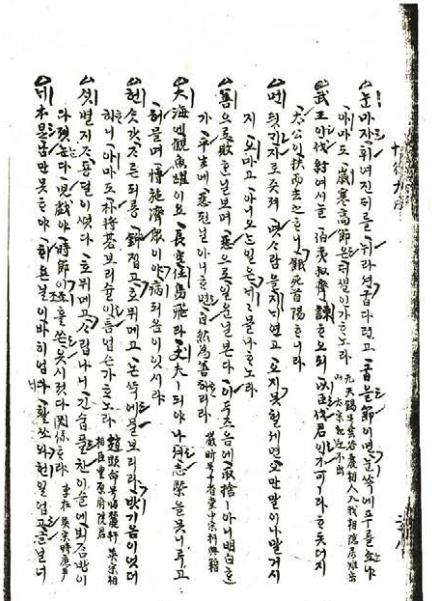
니 [illegible] 도 [illegible] 라 [illegible] 라 [illegible] 고 [illegible] 우 [illegible] 러 [illegible] 보 [illegible] 니 [illegible] 려 [illegible] 라 元 [illegible] 觀 [illegible] 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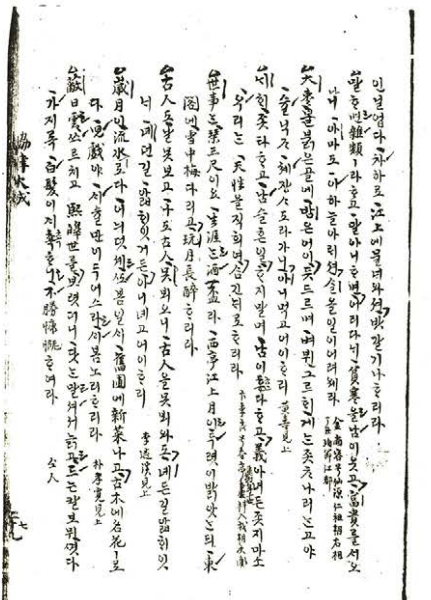
榮 [illegible] 桑 [illegible] 꼬 [illegible] 柳 [illegible] 村 [illegible] 에 [illegible] 鷗 [illegible] 鷺 [illegible] 는 [illegible] 이 [illegible] 되 [illegible] 어 [illegible] 고 [illegible] 놀 [illegible] 염 [illegible] 는 [illegible] 거 [illegible] 고 [illegible] 꼬 [illegible] 러 [illegible] 엽 [illegible] 시 [illegible] 집 [illegible] 혔 [illegible]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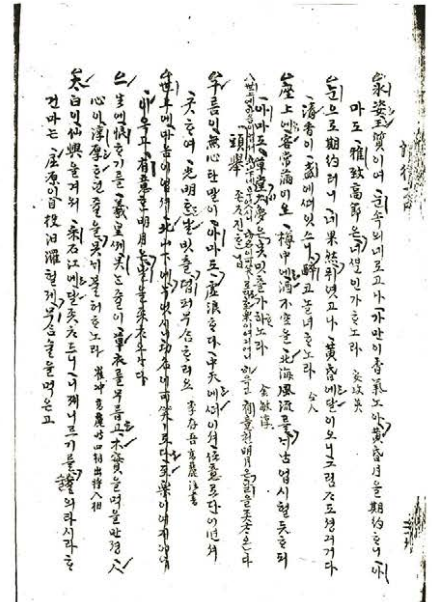
니 [illegible] 白鷺 [illegible] 이 [illegible] 知 [illegible] 음 [illegible] 을 [illegible] 지 [illegible] 니 [illegible] 고 [illegible] 려 [illegible]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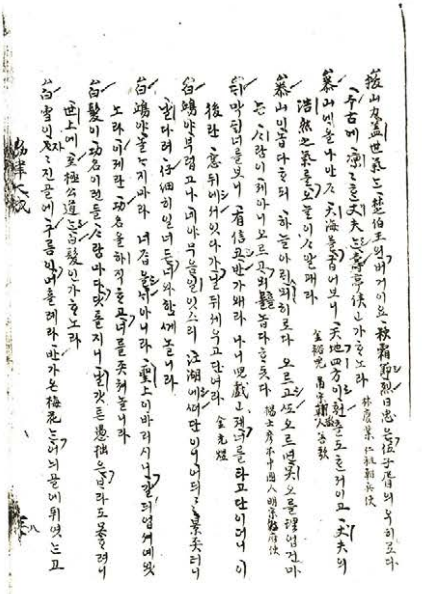
鵬 [illegible] 湘江 [illegible] 더 [illegible] 뷔 [illegible] 려 [illegible] 하 [illegible] 늘 [illegible] 있 [illegible] 겐 [illegible] 뷔 [illegible] 를 [illegible] 띠 [illegible] 며 [illegible] 瀟 [illegible] 日 [illegible] 浮 [illegible] 雲 [illegible] 듯 [illegible] 쓰 [illegible] 려 [illegible] 보 [illegible] 리 [illegible] 라 [illegible] 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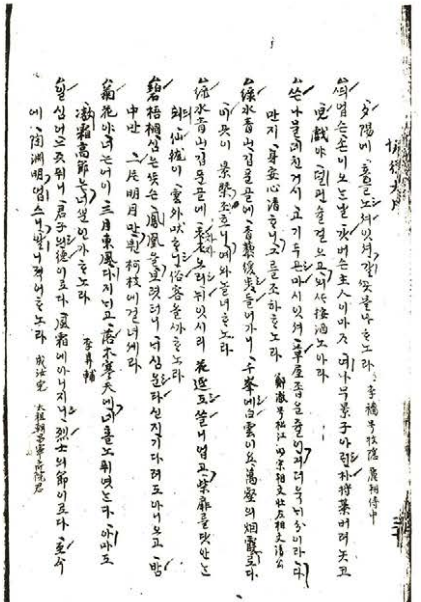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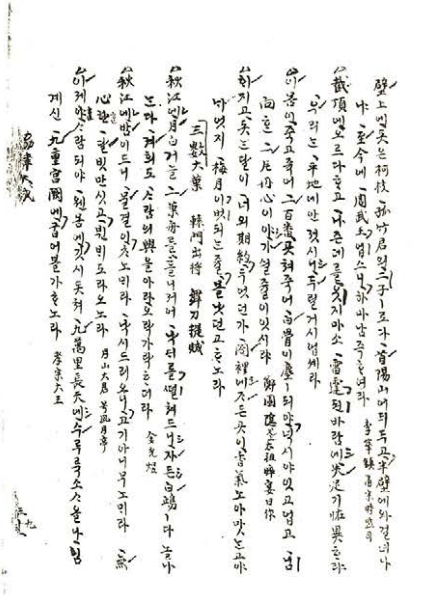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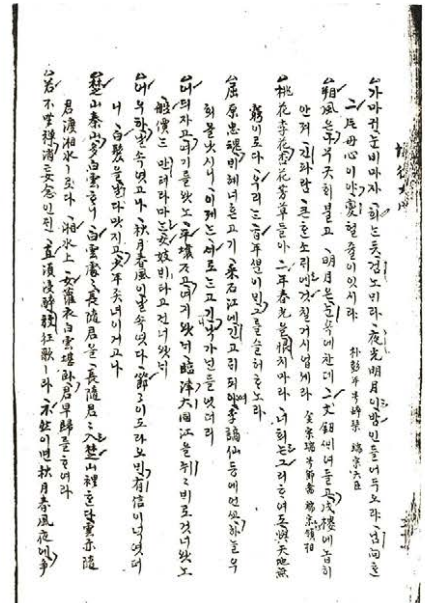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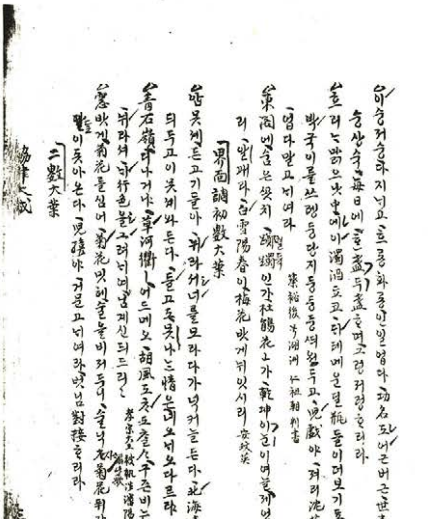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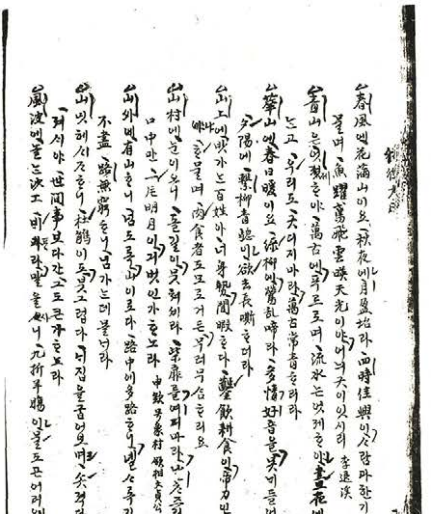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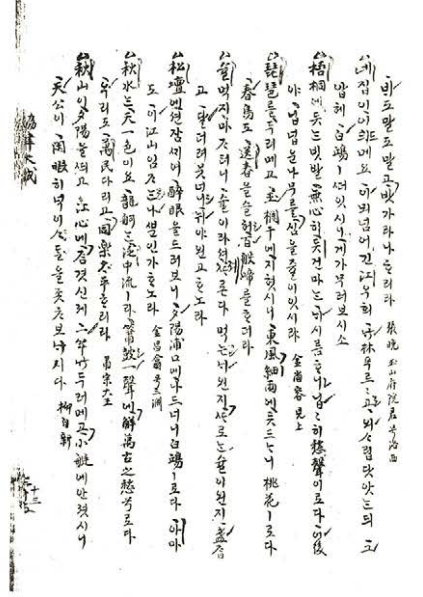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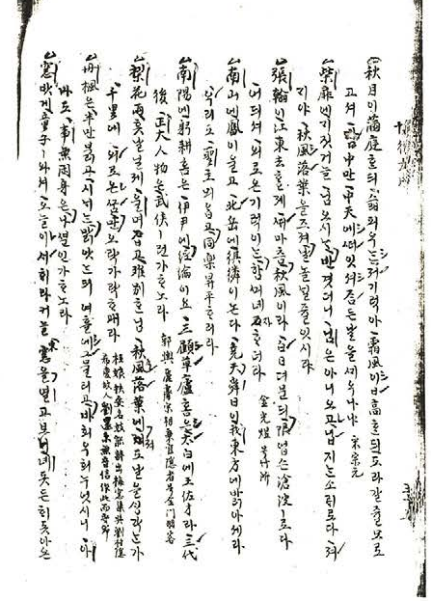












萬頃滄波遶郡城 흔흔 天에 [illegible] 橋邊을 [illegible] 興亡事여 [illegible] 花月

一般이로다 [illegible] 醉코 江湖에 [illegible] 이시니 節가는 줄 [illegible]

入無復洛城來이요 今人還對落花風을 [illegible] 花相似여 [illegible]

人不同이로다 [illegible] 이 [illegible] 줄을 [illegible]

回園에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다 [illegible] 葉 [illegible]

야 [illegible] 라 [illegible]

老人이 [illegible] 을 [illegible] 玉樹 [illegible] 白雲을 [illegible]

제 [illegible] 來使白雲을 [illegible] 于帝鄉 [illegible]

四面 [illegible] 柄枝 [illegible]

니 [illegible] 에 [illegible] 花 [illegible]

[illegible] 이 [illegible] 아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는 [illegible] 바 [illegible]

[illegible] 아 [illegible]

[illegible] 이 [illegible] 子 [illegible] 於 [illegible] 에 [illegible]

小園百花叢에 [illegible]

陽에 [illegible]

三萬六千日을 [illegible] 樣만 [illegible]

太平烟月만 [illegible]

於郎 [illegible] 고 [illegible] 七十之年엇멸子들에 [illegible]

後에 [illegible]

於 [illegible]

[illegible] 가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前山 [illegible] 花面에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天 [illegible] 에 [illegible] 英雄 [illegible] 古興亡이 [illegible] 胡子의 [illegible]

[illegible] 傳에 [illegible]

清風 [illegible] 下에 [illegible] 中 [illegible] 을 [illegible]

[illegible] 樵 [illegible] 笛 [illegible]

明燭 [illegible] 秋에 [illegible]

[illegible] 義 [illegible] 字 [illegible]

長室九萬里에 [illegible]

라 [illegible] 世上 [illegible]

술이 [illegible] 酒 [illegible]

[illegible] 風 [illegible]

東 [illegible]

야 [illegible]

春風 [illegible] 花 [illegible]

上에 [illegible]

[illegible] 그 [illegible]

[illegible] 나 [illegible]

에 [illegible]

五百年 [illegible]

[illegible] 庭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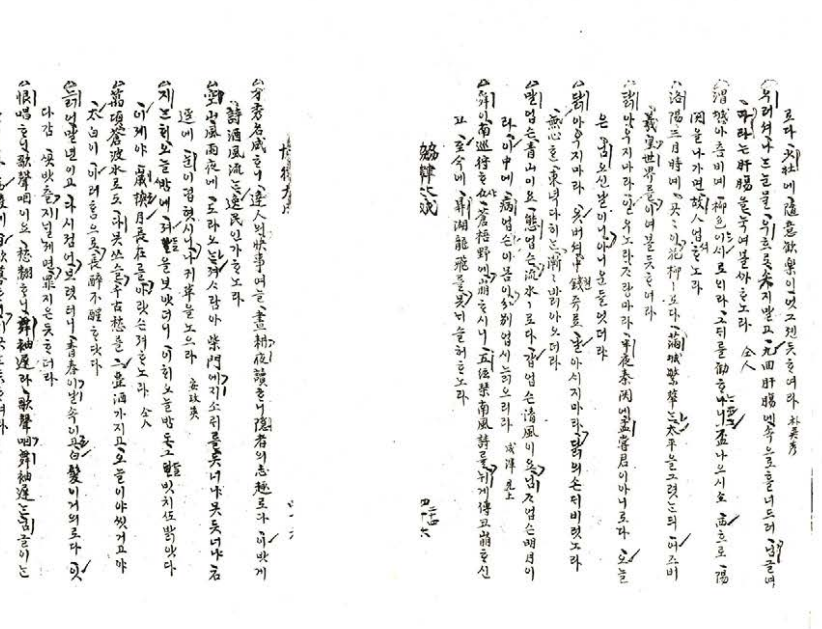
[illegible] 三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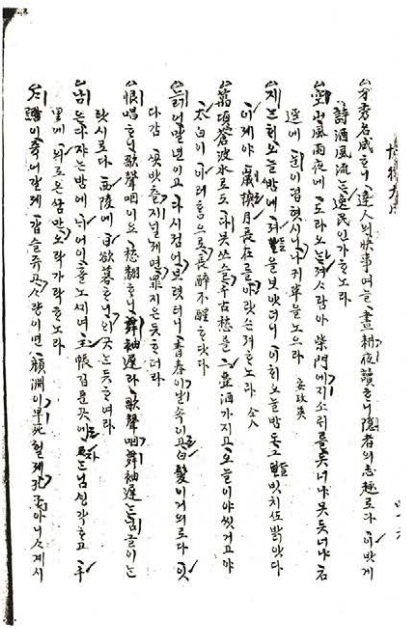
[illegible] 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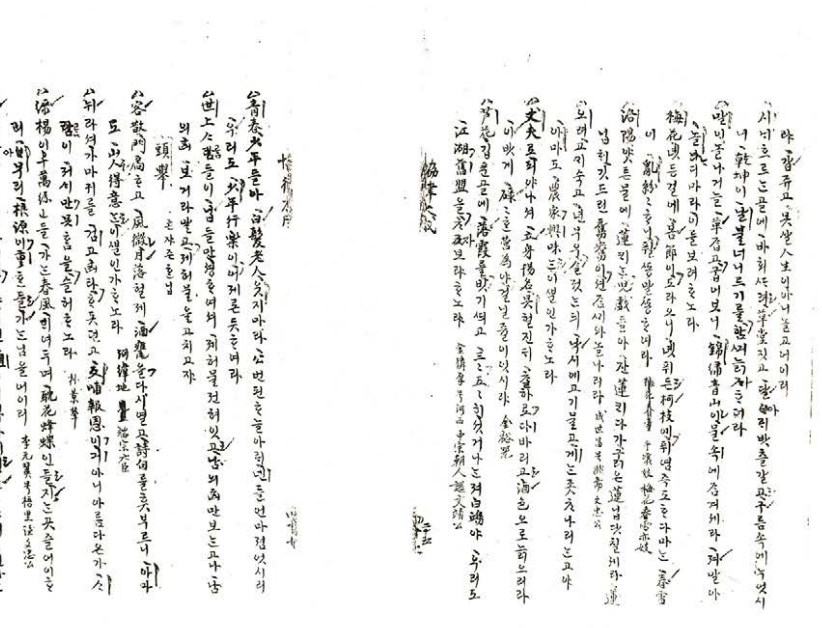
[illegible] 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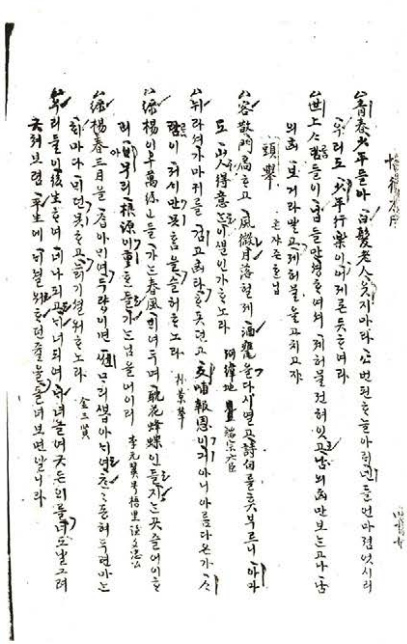
[illegible] 라 [illegible]

[illegible] 라 [illegible]









白日은西山에지고 黃河는東海로든다 古來英雄은北邙으로드단말가 두어
라 物有盛衰니 恨헐줄이잇시랴 崔冲 高麗人
白雲깁흔골에 綠水靑山을 녯노되 神龜로다 爭ᄒᆞᄂᆞᆫ 松竹間집이로다 每日
에 蘆笛을 빗드리며 鶴鹿함셔 놀니라
白雲이니러나니 나무끗치 흔들린다 밀물에 東湖가고 혈물에 西湖가자
兒孩야 닐그물것어셔러 당바닷슬들고 못골놈히달나라
白雪이滿乾坤ᄒᆞ니 千山이玉이로다 梅花ᄂᆞᆫ半開ᄒᆞ고 竹葉이푸르럿다 兒
孩야 盞가득부어라 興을겨워ᄒᆞ노라
白雪이자ᄌᆞ진골에 구름이머흐레라 반가온梅花ᄂᆞᆫ어ᄂᆡ곳의픠엿ᄂᆞ고 夕
陽에 호올노셔셔 갈곳몰나ᄒᆞ노라 李穡 號牧隱
白雪이ᄌᆞᄌᆞᆫ날에 天地가ᄒᆞᆫ빗치로다 羽衣를 떨쳐닙고 玉堂에올나가니 어
즈버 天上白玉京을 밋쳐볼가ᄒᆞ노라
白髮을훗날니고 靑藜杖 굽으면셔 滿西江湖로 綠陰間에누엇더니
渴鰲이 黑甜鄕 西夢을 黃鳥聲에 ᄭᆡ거다 金敏淳 號梅翁
落漿聲 찬ᄇᆞ람에 기럭이 울고 夕陽江頭에 고은님보내올제 釋迦

協律之成 二十六

協律大成 四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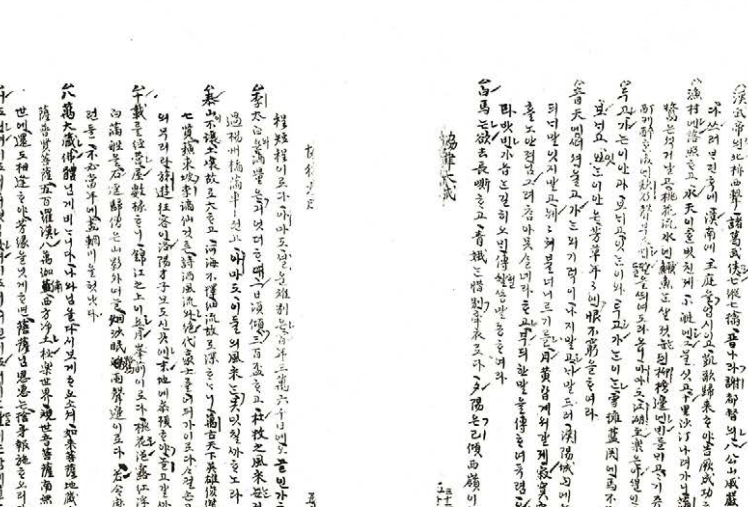
外親聽이 當逢ᄒᆞᆫ줄 마니 볼줄잇시랴
楚伯王의壯ᄒᆞᆫ뜻도 죽기도곤 雜別절워 玉帳悲歌에 눈물지엿시나 三
진後 烏江風浪에 우단말이 업세라
楚襄王은무ᄉᆞᆷ일노 人間樂事다 바리고 巫山十二峰에 雲雨夢만 싱각ᄂᆞᆫ
고 두어라 神女의生涯는ᄭᅮᆷ생인가ᄒᆞ노라
楚山에우는범과 沛澤에 ᄌᆞᆷ긴龍이 吐雲生風ᄒᆞ야 氣勢도 壯ᄒᆞᆯ셔고 秦나
라 외로온ᄉᆞᄉᆞᆷ이 갈곳몰나ᄒᆞ돗다 李芝蘭 靑海伯
首陽山바라보며 夷齊를恨ᄒᆞ노라 주려쥭을신들 採薇조ᄎᆞᄒᆞ올것가
비록애 푸새엣거신들 그 뉘ᄯᅡ헤 낫것고 成三問 號梅竹堂 端宗六臣
首陽山ᄂᆞ린물이 夷齊의 怨淚되야 晝夜不息ᄒᆞ고 여흘ᄂᆞᆫ우ᄂᆞᆫ ᄯᅳᆺ즌 至
今에 爲國忠誠을 못니슬허ᄒᆞ노라 洪翼漢 三學士
북소리들니ᄂᆞᆫ 절이 머다ᄒᆞᆫ들 면마ᄂᆞ 머니 靑山之上이오 白雲之下 연마ᄂᆞᆫ 그곳
에 白雲이 ᄌᆞ옥ᄒᆞ니 아모덴줄몰내라
岳陽樓에올나안져 洞庭湖七百里를 둘너보니 落霞與孤鶩齊飛요 秋
水共長天一色이로다 어즈버 滿江秋興이 數聲漁笛뿐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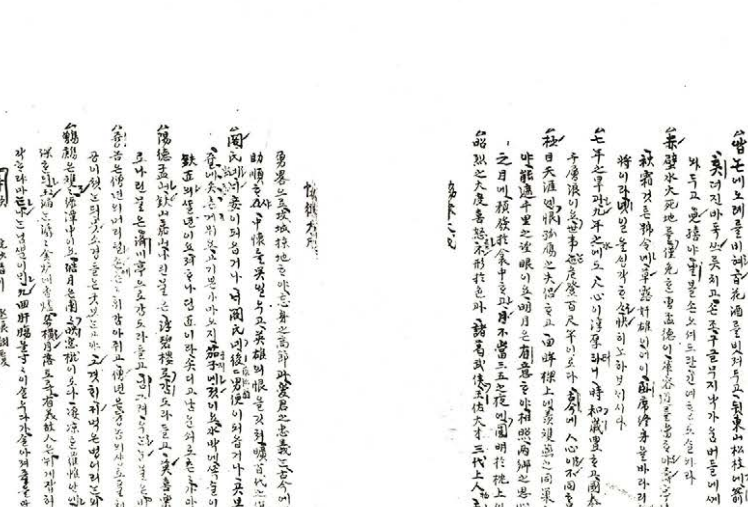
夕鳥ᄂᆞᆫ 나라들고 暮烟은 나려ᄂᆞᆫ다 東嶺에 ᄃᆞᆯ이올나 襟懷에 빗최도다
兒孩야 尾樽에술걸너라 彈琴ᄒᆞ고 놀니라
太公의 고기낙던낙ᄃᆡ 긴줄이 연밥넉헤나려 銀鱗玉尺을 버들움에 ᄭᅦ여들고
오ᄂᆞᆯ 杏花村酒家에 모든벗님ᄂᆞᆫ 다 외온다 ᄒᆞ더라 朴孝寬 高宗時名歌 ...
秋다가셔여보니 어여쁜소리 련고 入我床下蟋蟀인가 秋思도 逼ᄂᆞ다 童子도
對答지아니코 고지숙여 조오더라 李廷藎 四時歌中秋題
秋다가셔여보니 님의게셔 尺紙 왓네 百番남아 펴보고 가슴우희 언젓더니
긋더나 무겁든아니ᄒᆞ되 가슴답답ᄒᆞ여라
草堂에 깁피든ᄌᆞᆷ을 새소리에 놀나ᄭᆡ니 梅花雨긴柯枝에 夕陽이 거의로다
다 兒孩야 ᄂᆞᆨ더뇌여라 고기잡이 느젓다
草堂에 일이업셔 거문고를 베고누어 太平聖代를 ᄭᅮᆷ에나 보렷더니 門前에
數聲漁笛이 잠든날을 ᄭᆡ와라 柳誠源 端宗六臣
雪月이滿窓ᄒᆞᆫ듸 ᄇᆞ람아 부지마라 曳履聲 아닌줄은 判然이 아라마ᄂᆞᆫ 그
립고 아쉬온 마음에 ᄒᆡᆼ혀 긘가 ᄒᆞ노라
雪月은 前朝色이요 寒鐘은 古國聲을 南樓에 홀노셔셔 녯님군 싱각ᄒᆞᆯ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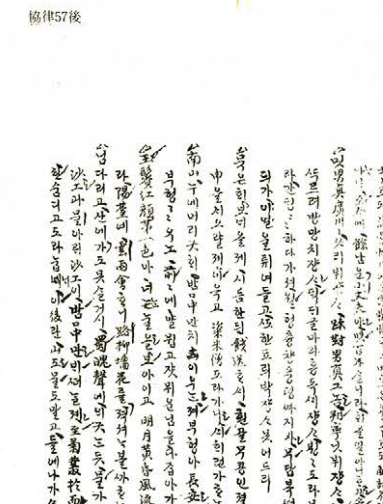
協律大成 二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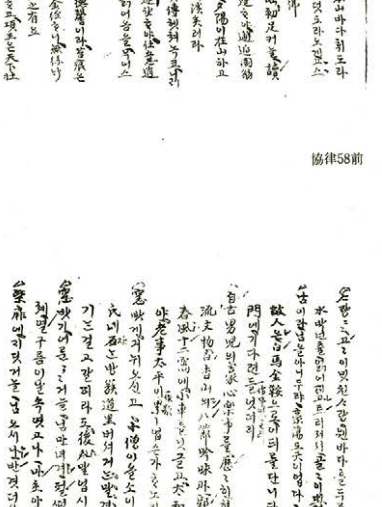
協律大成 四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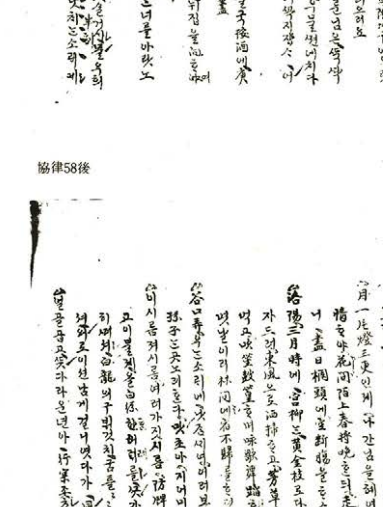
殘郭에 暮烟生ᄒᆞᆫ니 不勝悲感ᄒᆞ여라
雪岳山가는길에 皆骨山 중을 만나 중다려 무른말이 楓葉이 엇더터니 이
ᄉᆞ이 連ᄒᆞ여 서리치니 ᄯᅢ 마즌가 ᄒᆞ노라 趙明履 英祖時人
積雪이다 녹도록 봄消息을 몰낫더니 歸鴻은 得意天空闊이오 臥柳生心
水動搖ㅣ로다 兒孩야 새술걸너라 새봄마지ᄒᆞ리라
秋더닛ᄌᆞ즌 생ᄒᆞ여 ᄭᅮᆷ에 조차니뵈니 너 아니 겨를니젓거든 졔 들현마 니줄
소냐 언마ᄂᆞᆫ 단정헐 님이완대술든 외를 줏ᄂᆞ고
北斗星도라지고 달은 잇쳐아니젓다 예ᄂᆞ 비 언마ᄂᆞᆫ오나 ᄒᆞᆫ이 의 깁헛
도다 風便에 數聲砧들니 ᄂᆞᆫ가 ᄒᆞ노라
北天이 ᄆᆞᆰ다커늘 雨裝업시 길을나니 山에ᄂᆞᆫ 눈이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
은 찬비마잣시니 어려잘가ᄒᆞ노라 林悌 見妓寒雨 作此歌與同枕
뷔연쇠게싯고 고기건져 兒孩주며 아ᄒᆡ네 모라다가 술을 몬져 걸너스라
우리도 夕陽이 아직머럿시니 興치가 ᄒᆞ리라
易水寒波저문날에 荊卿의거동보소 一劍行裝이라 아니 烟語ᄒᆞᆫ가 至今에
宋遺翎術을 못니슬허ᄒᆞ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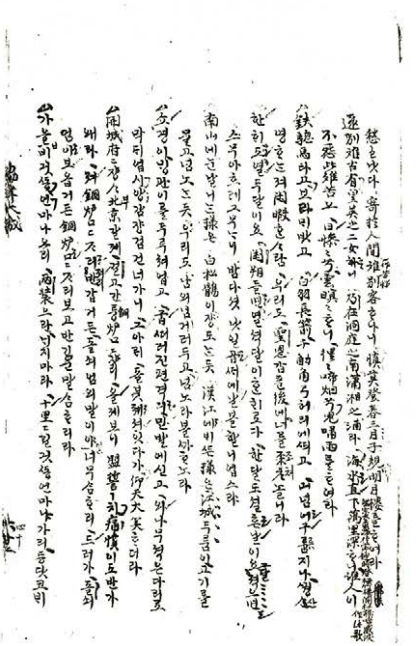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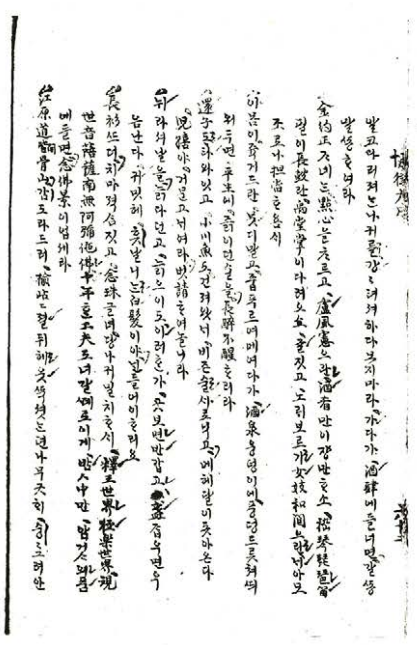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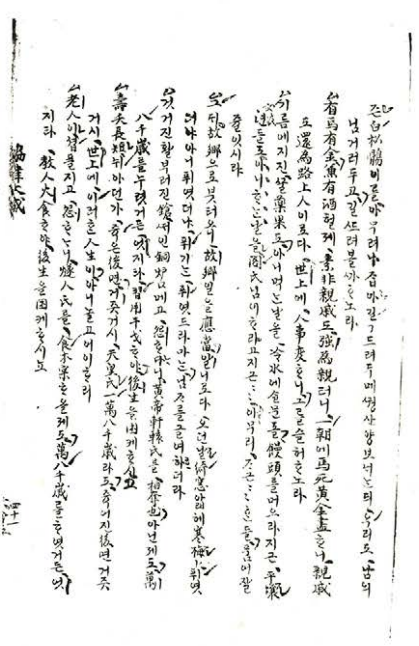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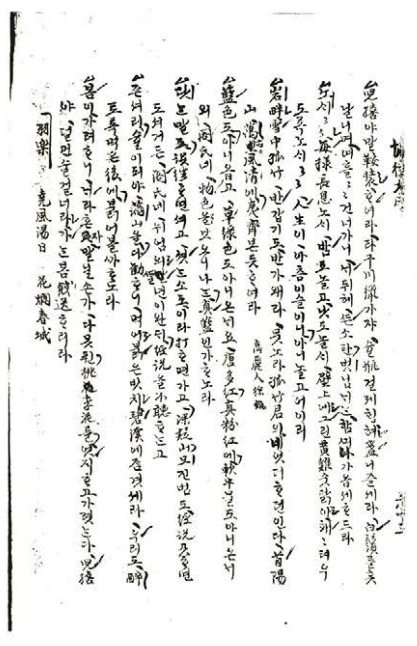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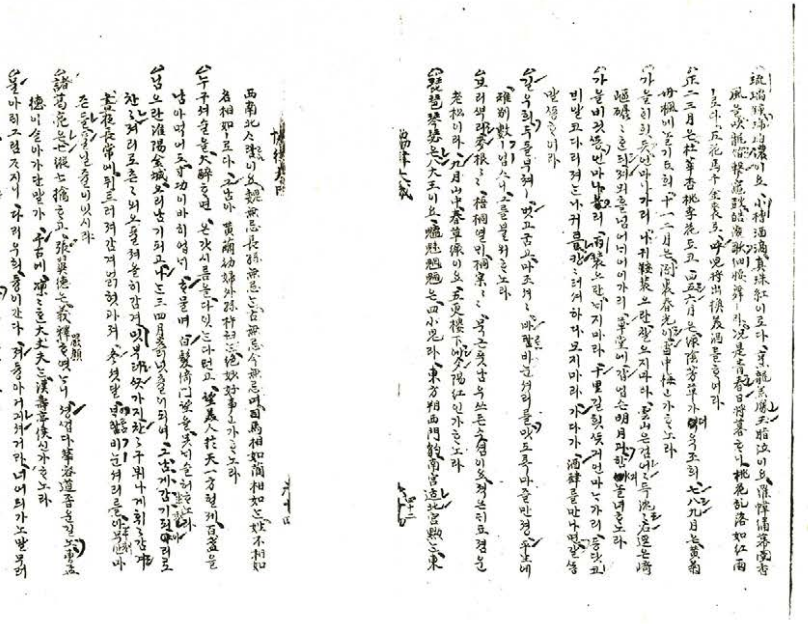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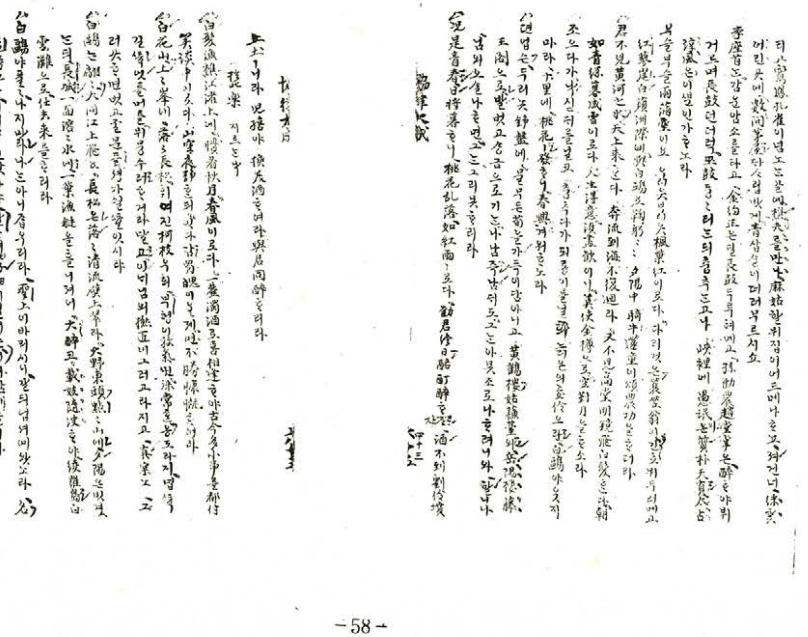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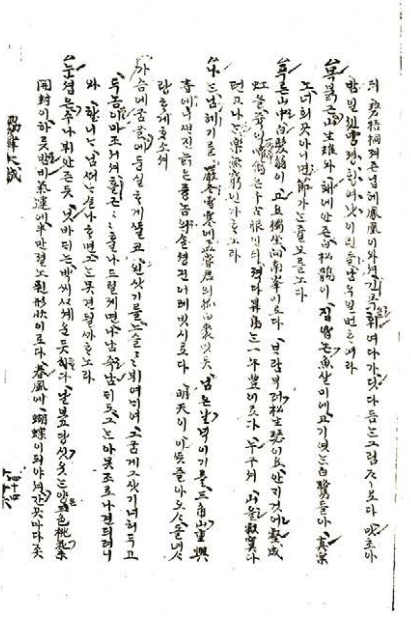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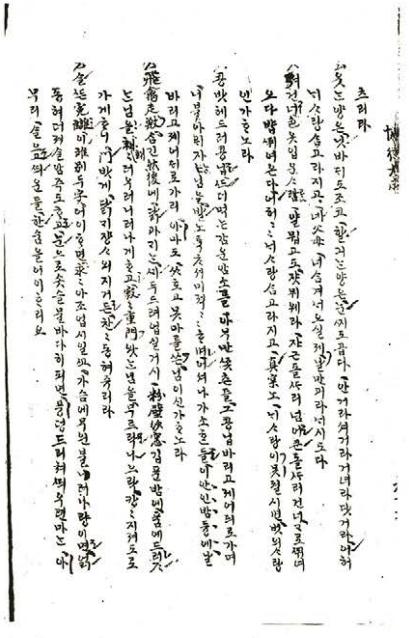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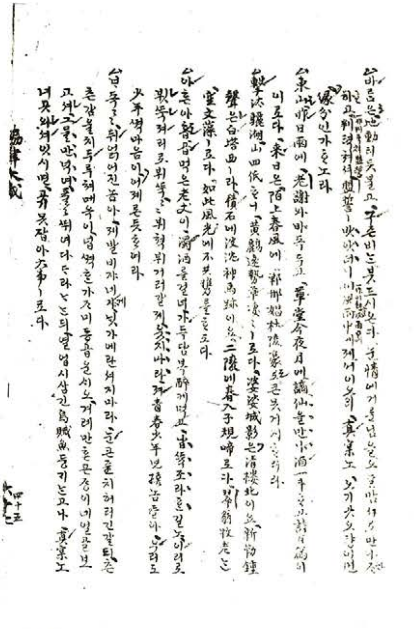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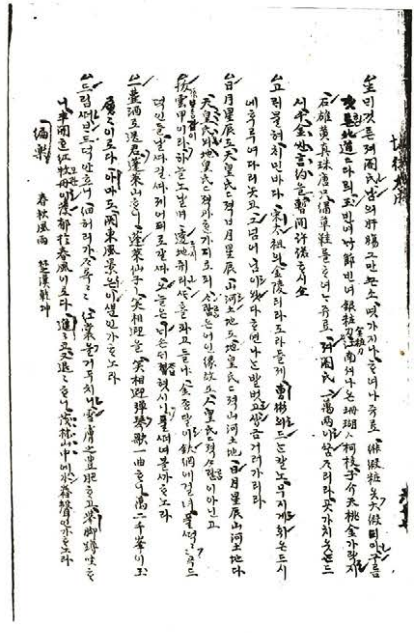












깁고깁기는님이신가ᄒᆞ노라

울어ᄉᆞ지말고 출하로ᄌᆞ어져셔 月明空山에 졉동새넉시되여 새도록 우

나게우러님의귀에들니리라

우어도ᄌᆞ셕ᄂᆞᆫ 肝腸 드ᄂᆞᆫ칼노벼혀내여 珊瑚箱 白玉函에 黥ᄒᆞ미담앗다가

아모나 가ᄂᆞᆫ이잇거든 님계신되 보내리라

次 ᄭᅵ바다한가온되 ᄉᆡ려엄 순남기나서 柯枝ᄂᆞᆫ 열둘이오 닙흔三百예순닙

히로다 그남게 열음이 열니되 다만 둘식이러라

春水ᄂᆞᆫ 滿四澤ᄒᆞ니 물이만하못오던가 夏雲多奇峯ᄒᆞ니 山이놉하못오던

가 秋月이 揚明輝ᄒᆞ면 님ᄌᆞᆺ봇타 ᄯᅡᆯᄒᆞ리오

大旱七年 ᄲᅡᆺ제 湯님군이 犧牲되여 剪爪斷髮ᄒᆞ고 桑林野에 비르시니 湯王

이 聖德이 格天ᄒᆞᄉᆞ 大雨ㅣ 方數千里를ᄒᆞ니라

春風桃李花들아 고온樣子 ᄌᆞ랑마라 蒼松綠竹 歲寒에 보렴우나 貞ᄒᆞ

고 落ᄒᆞᄂᆞᆫ 節을 곳칠줄이 잇시랴

金生麗水ㅣ라ᄒᆞ니 물마다 金이나며 玉出崑崗인들 뫼마다 玉이나랴 아모리

女必從夫ㅣ라ᄒᆞᆫ들 님ᄆᆞ다 조ᄎᆞ랴

協律大成

五十八

恨唱ᄒᆞ니 歌曲咽이요 愁翻ᄒᆞ니 舞袖遲라 歌聲咽舞袖遲ᄂᆞᆫ 님글이ᄂᆞᆫ탓시

로다 西陵에 日欲暮ᄒᆞ니 애긋ᄂᆞᆫ듯ᄒᆞ여라

琵琶로 昭君이여 ᄉᆡᆼ각건ᄃᆡ 불상ᄒᆞ온ᄉᆞ 漢宮粧 胡地妾이 薄命ᄒᆞᆫ들 도ᄌᆞ지 엽다

至今에 死留青塚ᄂᆞᆫ 못ᄂᆡ슬허ᄒᆞ노라

閣 란이러ᄒᆞ면 미얼골을 가렷시라 愁心이 실이되야 구뷔구뷔 ᄆᆡ쳐잇셔 ᄲᅡ

리 ᄏᆞ르러ᄒᆞ여도 ᄭᅳᆺ간데를 몰너라

頭擧 혼ᄌᆞ존한님

天地ᄂᆞᆫ 萬物之逆旅요 光陰은 百代之過客이라 人生을 혜아리니 渺蒼海之一粟

이로다 두어라 若夢浮生이 아니놀고 어이리

壬戌之秋七月既望에 배를타고 金陵에 나려 ᄯᅡᆫ 조고기낙가 고기주고 술을 ᄉᆞ

나 至今에 蘇東坡 업스니 놀니 더어ᄒᆞ노라

雪月이 滿窓ᄒᆞᆫ되 바람아 부지마라 曳履聲 아닌줄은 判然이 알건마ᄂᆞᆫ 그립

고 아쉬온ᄆᆞ음에 행혀긘가ᄒᆞ노라

우셔라 술이 퍼여 滿山 [illegible] 勸ᄒᆞ니 어 [illegible] 푸른님히요 늘아츰 다 [illegible] 거다 白

髮도 검길줄 알량이면 우리님도 勸ᄒᆞ려라

不老草로 비즌술을 萬年盃에 가득부어 잡우신 盞마다 비나니 南山壽

를 眞實노 이盞곳 잡우시면 萬壽無疆ᄒᆞ오리라

자다가 ᄭᆡ여보니 님의게셔 片紙왓ᄂᆡ 百番남아 펴보고 가슴우희 언졋더니

굿ᄐᆡ나 무겁든 아니ᄒᆞ되 가슴이 답답ᄒᆞ더라

달쓰쟈 빈ᄯᅥ나니 이제가면 언제오리 萬頃滄波에 가ᄂᆞᆫ듯 도라오소 밤中만

至菊叢 소릐에 애긋ᄂᆞᆫ듯ᄒᆞ여라

물이 東到海ᄒᆞ니 何時에 復西歸오 古往今來에 逆流水ㅣ 업건마ᄂᆞᆫ 엇

지다 肝腸 석은물은 ᄂᆞ로 솟ᄂᆞᆫ고

金爐에 불이 ᄶᅥ지고 金炉에 香 [illegible] 芙蓉갓튼 [illegible] 세여성각 [illegible] 寒

빗게 風曉聲 나ᄂᆞᆫ가 슴즈즉ᄒᆞ여라

梧桐에 곳이 [illegible] 中夜悲歌에 눈물 ᄶᅥ셔 안쟈이셔 [illegible]

님 [illegible] ᄆᆞ음은 나 혼ᄌᆞᆫ가ᄒᆞ노라

一生에 발뒤울쓴거뒤 外에ᄂᆞᆫ 업ᄂᆞᆫ가 제비발 목려 니여 방녕고 [illegible]

곳보고 춤츄ᄂᆞᆫ 나뷔를 다 집우려ᄒᆞᄂᆞ니

되 [illegible] 구름지고 [illegible] 비올지 눈이올지 바람부러 즌서리칠

協律大成

五十九

지 넌딧님 오실지 못오실지 지만줄노 ᄌᆞᆺ더라

밤못세든 고기들아 ᄭᅡᆫᄭᅡᆫ 다뷔니 [illegible] 가 넉커든 ᄃᆞᆫ다 北海淸沼를

어ᄃᆡ두고 이못셰와 든다 들고도 못나ᄂᆞᆫ 情은 네오녀오 다르랴

弄歌

白玉盃 明月로 배거ᄂᆞᆫ 바를타고 秋江에 드니 물아래 하ᄂᆞᆯ이오 하ᄂᆞᆯ우희 달이

로다 見君아 저달을 건져스라 玩月長醉ᄒᆞ리라

楚山에 나무뷔ᄂᆞᆫ 兒孩 나무뷜제 힝혀 대뷜셰라 그대 ᄌᆞ라거든 뷔혀 휘오리라

낙시대를 우리도 그런줄 아오며 나무만 뷔혀ᄒᆞ노라

華堂 뒤헤 와안저 우ᄂᆞᆫ 솟적다새야 [illegible] 다 못오셧다 [illegible] 이 어듸

업셔 客窓에 와안저 우ᄂᆞᆫ다 져솟적다새야 空山이 [illegible] 되ᄂᆞᆫ줄 나 오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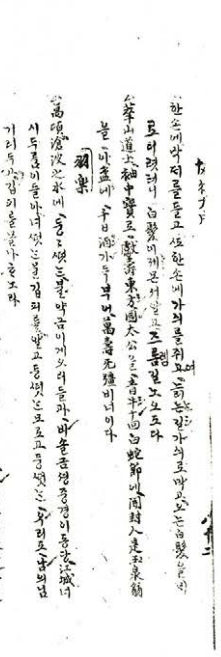
아자ᄌᆞᆫ 나쓰든되 黃毛試筆 墨陽梅月을 삼계ᄀᆞᆯ아 흠벅ᄶᅵ어 窓 [illegible] 에 언졋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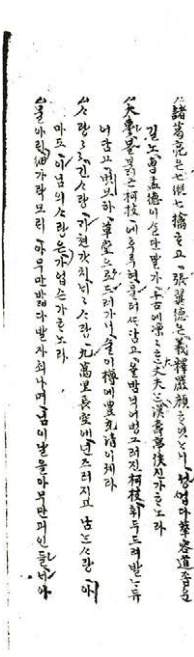
댁 [illegible] 구우러 ᄯᅮᆨ 나 ᄯᅡ자거고 이제 ᄎᆞ자가면 엇에 올法이 시련마ᄂᆞᆫ 아무나 엇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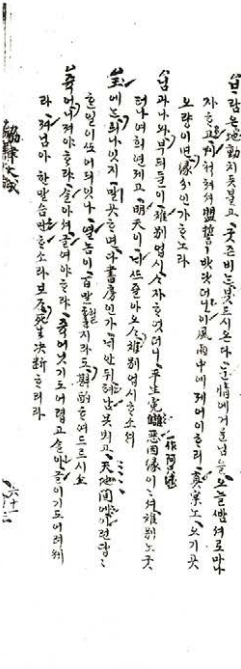
가져셔 글며나 보면 알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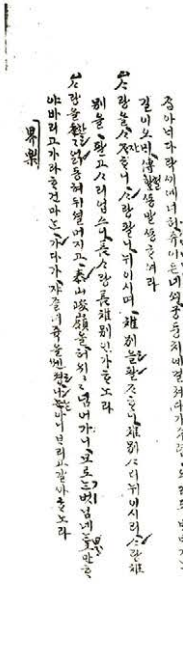
呈 [illegible] 못칫올 동지나무뒤던지 月中桂樹 [illegible] 나 남기나 시위ᄑᆞ락 廣寒殿 [illegible] 뫼혜 잔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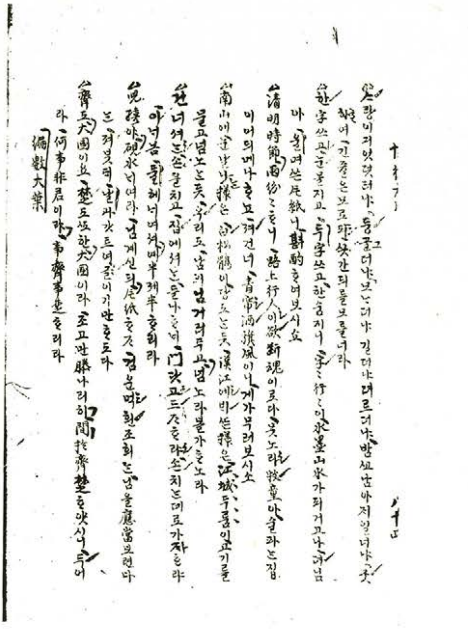
셔리며든 아니머무러 못ᄒᆞ라 [illegible] 님이 김되 곳업스면 님이신가ᄒᆞ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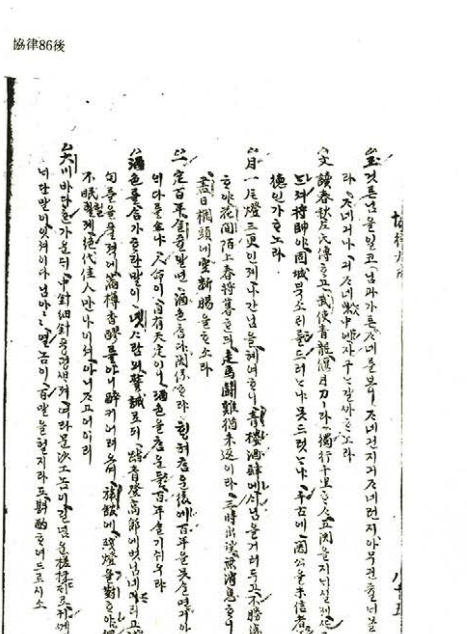












水ᄀᆞᆺ 것치 두렷ᄒᆞᆫ 님아 ᄎᆞᆷ외 것치 단 말슴 마소 狡丈ᄂᆞᆫ ᄒᆞ시ᄂᆞᆫ 말슴 진 말슴인쥴
너 볼너라 六十月 씨 종아 것지 속쳥 권말 마르시소
花灼灼 범나뷔 쌍쌍 楊柳靑靑 꾀꼬리 쌍쌍 날 즘ᄉᆡᆼ 길버러지 ᄶᅡᆨ쌍쌍 이 노니ᄂᆞᆫ듸
우리 도 情든 님 다려고 ᄶᅡᆨ지어 놀녀 ᄒᆞ노라
근골 蝶尋紅이요 金光蟻浮白을 거ᄂᆞ리고 당당 노리ᄒᆞ니 두룸이 둥둥 춤을
춘다 兒孩야 柴門에 기 쥿즈니 벗 오시나 보아라
사랑이 거 벗엇더냐 둥그더냐 모나더냐 기더냐 져르더냐 발 ᄶᅧ 남아 지일너냐
웃ᄒᆞ여 긴 쥴은 모로되 ᄭᅳᆺ 간 듸를 몰너라
碧桃花를 손에 들고 白玉盞에 술을 부어 우리 聖母께 비ᄂᆞᆫ 말슴 져 碧桃와 갓치
쇼셔 三千年에 ᄭᅩᆺ이 퓌고 三千年에 열미 ᄆᆡᆺ져 ᄭᅩᆺ도 無盡 열미도 無盡 長春
色이라 이ᄋᆡ도 瑤池王母의 十十壽를 聖母께 드리고져 ᄒᆞ노라 巢父莫夫王

男唱 指數編

치넙에 쇠 옷슬 두고 손ᄶᅢᆨ 리며 의 써 넘어 가니 말 만ᄒᆞᆫ 草屋에 헌덕져 나 소쌀 ᄭᅩ년
놈이 마조 누어 아러거지고 트러졋니 아 이제 ᄉᆞ어럽장이 반로 산에 들거고나 두
머라 모밀ᄯᅥᆨ에 두 長鼓를 ᄉᆞ와 무ᄉᆞᆷᄒᆞ러뇨

協律大成 六十四

古今大成 六十五

一身이 ᄉᆞ자 ᄒᆞᆫ 엿더니 물 껏게 위 못 ᄉᆞᆯ니로다 琵琶 갓튼 蠐螬 蚊 ᄉᆞ기 ᄉᆞ 갓튼 등
에어이 갈 ᄶᅡ귀 ᄉᆞᆷ위 약이 신 박쥐 누른 박쥐 졋져 갓튼 가랑이며 보리알 갓튼 슈통
이며 쥭련니 갓션니 잔벼룩 倭벼룩 ᄭᅢᄂᆞᆫ 놈 긔ᄂᆞᆫ 놈에 다리 기다ᄒᆞᆫ 모긔 부리 ᄲᅩ죡
ᄒᆞᆫ 모긔 ᄉᆞᆯ진 모긔 여왼 모긔 그리마 ᄲᅧ룩이 甚ᄒᆞᆫ 唐비록에 어려웨라 그 즁에
ᄎᆞᆷ아 얄뮈울 쏜 五六月 伏다림에 쉬파린가 ᄒᆞ노라

數大葉

술먹지 마쟈ᄒᆞ고 重ᄒᆞᆫ 盟誓ᄒᆞ엿더니 盞 잡고 굽어보니 盟誓ㅣ 둥둥 술에 ᄯᅥᆺ
다 兒孩야 盞 가득 부어라 盟誓ㅣ 풀려ᄒᆞ러라

中擧

靑山 自사 松아 네 어이 누엇ᄂᆞᆫ다 風霜을 못 이긔여 ᄲᅮ리 져졋져 누엇노라 가다가
良工을 만나거든 날 옛더라 일너라

漁父詞

雪鬢漁翁이 住浦間ᄒᆞ야 自言居水勝居山을 至匊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倚船漁父一肩高ㅣ라
비ᄯᅥ라 비ᄯᅥ라 早潮纔落晩潮來라 青蒻笠綠簑衣 涼風起ᄒᆞ고 紅蓼花邊白鷺閑을
ᄯᅡᆺ드러라 ᄯᅡᆺ드러라 洞庭湖裏駕歸風을 至匊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帆急前山忽後山을
盡日泛舟烟裏去ᄒᆞ야 有時搖棹月中還을 이어라 이어라 하니 我心隨處自忘機ㅣ를 至
匊悤 於斯臥ᄒᆞ니 扣枻乘流無定去를 萬事無心一竿竹이요 三公不換此江山을 돗지
어라 돗지어라 山雨溪風捲釣絲를 至匊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一生蹤跡이 在滄浪을 東
風西日楚江深ᄒᆞ니 陽岸漁村兩三家를 濯纓歌罷汀洲靜ᄒᆞ니 竹逕柴門猶未閑라
비저어라 비저어라 夜泊秦淮近酒家를 至匊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瓦甌蓬窓又獨酌時를
醉來睡著無人喚ᄒᆞ니 流下前灘也不知라를 비ᄆᆡ여라 비ᄆᆡ여라 桃花流水鱖魚肥를 至匊
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滿江風月屬漁船을 夜靜水寒魚不食ᄒᆞ니 滿船空載月明歸를
닷지어라 닷지어라 罷釣歸來繫短蓬을 至匊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風流未必載西施를
一自持竿上釣舟로 世間名利盡悠悠를 비븟쳐라 비븟쳐라 繫舟猶有去年痕을 至匊悤
至匊悤 於斯臥ᄒᆞ니 欸乃一聲에 山水綠을

處士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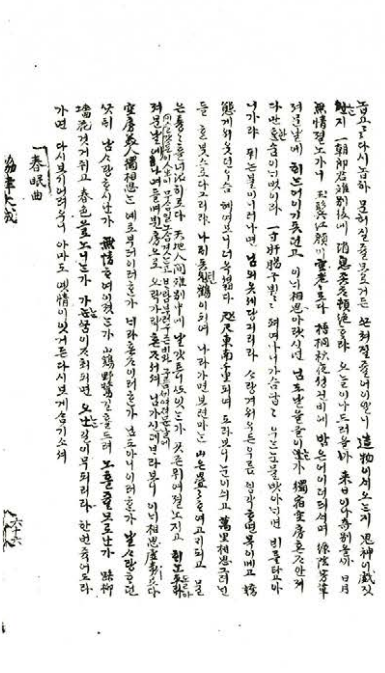
協律大成 六十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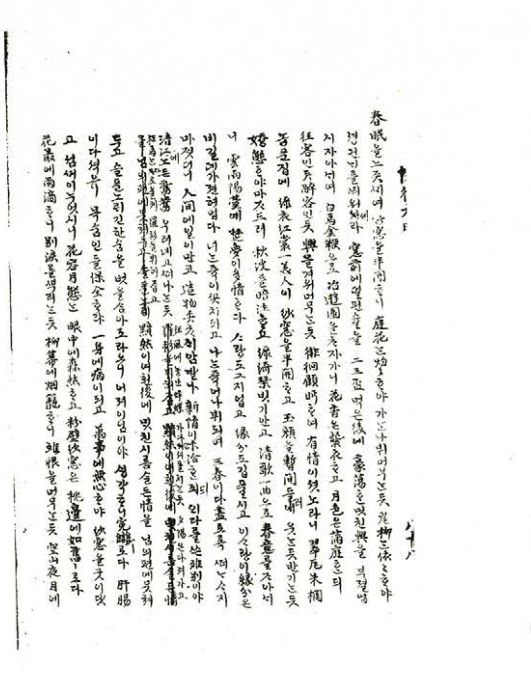
古今大成 六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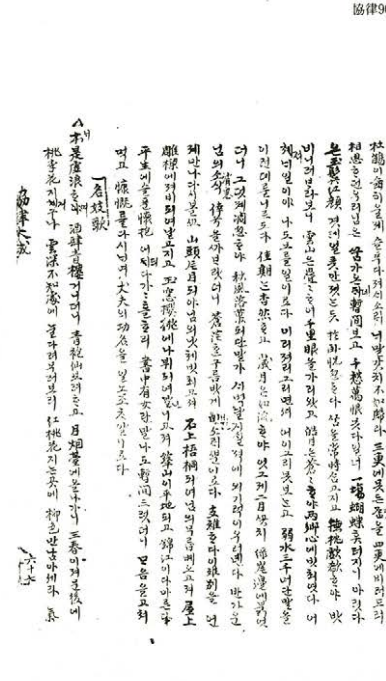
平生我才 쓸듸 업셔 世上功名을 下直ᄒᆞ고 雨間安命ᄒᆞ야 雲林處士 되오리라 九節竹杖
에 걸고 三節竹杖 손에 쥐고 落照江路景 조흔데로 芒鞋緩步 드러가니 寂寂松關 다닷ᄂᆞᆫ듸
寥寥香閣이 ᄌᆞᆷ겻ᄂᆞ다 夢叢錦衣 조흘시고 山林草木 프르럿다 蒼岩屛風 둘넛ᄂᆞᆫ듸 白雲深
處 너괴로다 江湖漁父 갓치ᄒᆞ여 竹竿簑笠 졋게 쓰고 十里沙汀 나려가니 白鷗飛去 번이
로다 一葉扁舟 흘니 ᄯᅴ고 萬頃滄波로 흘니져어 數尺銀魚 낙가내니 松江鱸魚 비길
소냐 子陵灘頭 낙든 데가 銀鱗玉尺 뛰노ᄂᆞᆫ다 箕山潁水 예 아니면 別有天地 此間로다
日落淸江 져문 날에 泊舟浦渚 도라드니 南北孤村 두세 집이 落霞暮烟 ᄌᆞᆷ겨세라 아
마도 이 江山 님자ᄂᆞᆫ 나 뿐인가 ᄒᆞ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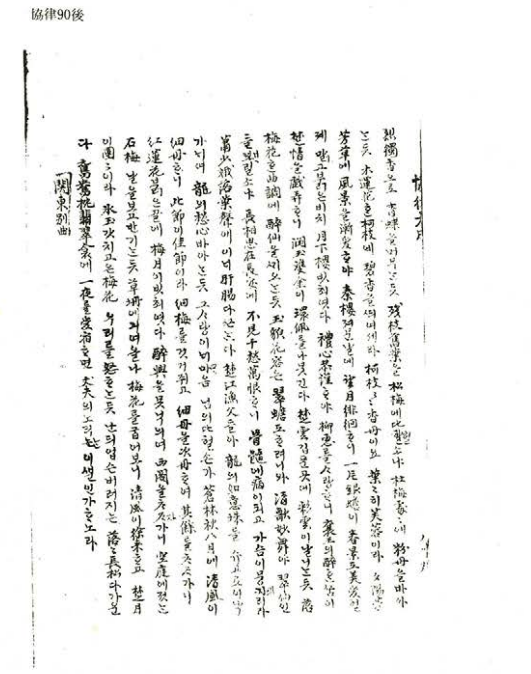
相思別曲

人間離別 萬事中에 獨宿空房 더욱 셟다 相思不見 이내 眞情을 제 뉘라셔 알니 맷친 셜음 이렁
저렁이라 흣트러진 근심 다 후루쳐 더뎌두고 자나 ᄭᆡ나 ᄭᆡ나 자나 님을 못보아 가슴이 ᄎᆞᆸᄎᆞᆸ 엇던
고은 양자 고은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보고지고 님의 얼골 듯고지고 님의 말슴 비ᄂᆞ이
다 하ᄂᆞᆯ님게 이제 보게 ᄒᆞ오소셔 前生 此生이라 무삼 罪로 우리 둘이 삼겨나셔 ᄉᆞᆫ이 相
思 한데 만나 離別마쟈 百年期約 ᄆᆡᆺ지 말고 ᄒᆞᆫ데 잇셔 잇지 마쟈 처음 盟誓ㅣ 千金珠玉
귀 밧기요 世事 一貫 關係ᄒᆞ랴 根源 흘녀 沼이 되야 깁고 깁고 다시 깁고 ᄉᆞ랑 ᄆᆡ여 뫼히 되여









江湖에病이드러 竹林에누엇시니 關東八百里을 特命으로맛기시니 於卧聖恩이여 가지
록罔極ᄒᆞ다 延秋門드리ᄃᆞ라 慶會南門바라보고 下直고믈너나니 玉節이압헤섯다 平
邱驛馬갈아라고 黑水로도라드니 蟾江은어듸메오 雉岳山이여긔로다 昭陽江나린물이
어듸메로도다단말고 孤臣去國에 白髮도하도ᄒᆞᆯ샤 東州밤겨오새와 北關亭에올나가니 三
角山第一峯을 ᄒᆞ마ᄒᆞ면보리로다 弓王大闕터에 烏鵲이지저괴니 千古興亡을 아ᄂᆞ다몰
으ᄂᆞ다 淮陽녯일흠이 마초아ᄀᆞᆺᄒᆞᆯ시고 汲長孺風采를 곳쳐아니볼셔이고 營中이
무사ᄒᆞ고 時節이三月인제 花川시내길이 楓岳으로버더잇다 行裝을다떨치고
石逕에막대집고 百川洞겻ᄐᆡ두고 萬瀑洞드러가니 銀ᄀᆞᆺᄐᆞᆫ무지게와 玉ᄀᆞᆺᄐᆞᆫ龍의초
리 섯돌며샘ᄂᆞᆫ소리 十里에ᄌᆞ자시니 드를제ᄂᆞᆫ우레러니 보니ᄂᆞᆫ눈이로다 金剛臺
민우層에 仙鶴이삿기치고 春風玉笛聲에 첫ᄌᆞᆷ을ᄭᆡ오ᄂᆞᆫ듯 縞衣玄裳이 半空에소
소뜨니 西湖녯主人을 반겨셔넘노ᄂᆞᆫ듯 小香爐大香爐을 樓에ᄂᆞ리굽어보니 正陽寺
歇惺樓에 올나안ᄌᆞᆫ말이 廬山眞面目이 여긔와다뵐노다 於卧造化翁아 헌ᄉᆞ
도헌ᄉᆞᄒᆞ샤 날거든ᄯᅱ지마라 셧거든솟지마라 芙蓉을ᄭᅩᆺ잣ᄂᆞᆫ듯 白玉을묵것ᄂᆞᆫ듯
東溟을박차ᄂᆞᆫ듯 北極을괴왓ᄂᆞᆫ듯 놉흘시望高臺와 외로올ᄉᆞ穴望峯을 開心臺
올나안저 衆香城바라보며 萬二千峯을歷歷히혜아려보니 峯마다ᄆᆡ쳐잇고 긋마

協律大成 六十八

六十九

마다서린春運 맑거든ᄭᅩ치마라 셧거든맑지마라 이氣運허러내여 人傑을만들마져 形
容도그지업고 體勢도하도할샤 天地삼기실제 自然이되연마ᄂᆞᆫ 이제와보게되면 有情
할샤 毘盧峯上上峯에 올나보니 긔뉘신고 東山와泰山이어ᄂᆡ야놉단말고 魯國
좁은줄도 우리ᄂᆞᆫ모로거니 넙거나넙은天下 엇지라져근지 於卧저境界를 어
이ᄒᆞ야알ᄉᆡ이고 오르지못ᄒᆞ거든 나려감이怪異ᄒᆞ랴 圓通골가ᄂᆞᆫ길에 獅子峯에올
나가니 그아래너른바회 九龍沼이되여셰라 千年老龍이 구뷔구뷔서려잇셔 晝夜로흘
너ᄂᆡ려 滄海에니어시니 風雲을언제엇어 三日雨를ᄂᆡ려다가 陰崖에이온풀을 다
살녀내여ᄉᆞ라 摩訶衍妙吉祥의 雁門재넘어드러 외나무셕은다리 佛頂臺올나가
니 千尋絶壁을 半空에셰워두고 銀河水흔구뷔를 ᄎᆞᄎᆞ이버혀내여 실ᄀᆞᆺ치플텨내여
뵈ᄀᆞᆺ치거럿시니 圖經열두구뷔 내보ᄆᆡ여러히라 李謫仙이제와셔 고쳐議論ᄒᆞ게되
면 廬山이여긔도곤 낫단말못ᄒᆞ려니 山中을ᄆᆡ양보랴 東海로가쟈셰라 藍輿緩步ᄒᆞ
ᄋᆡ야 山映樓에올나가니 玲瓏碧溪와 數聲啼鳥ᄂᆞᆫ 景物을ᄌᆞ랑ᄒᆞ고 離別을怨
ᄒᆞᄂᆞᆫ듯 旌旗를ᄯᅥᆯ치고 五色이넘노ᄂᆞᆫ듯 鼓角을섯거부니 海雲이다것ᄂᆞᆫ듯 鳴沙길
녀흔악새 醉仙을빗기실어 碧波를戱弄ᄒᆞ며 海棠花路드러가니 白玉樓남은기동
다만네히셔이셰라 公輸子의精靈인가 鬼斧로다듬인가 굿ᄐᆞ야굿은面은 무엇

ᄉᆞ로像ᄒᆞ연고 高城을뎌만두고 三日浦를ᄎᆞ자가니 丹書ᄂᆞᆫ宛然ᄒᆞ되 四仙은어듸간고
예셔사흘머믄後에 어듸가또머믈고 仙遊潭永郎湖에 거긔나가잇ᄂᆞᆫ가 祥雲이집
혓ᄂᆞᆫ듯 六龍이ᄇᆡᆺᄂᆞᆫ듯 日出을보라ᄒᆞ고 밤ᄉᆞ中만니러보니 洛山東畔에 義相臺올
나가니 바다헤셔날제ᄂᆞᆫ 萬國이어리더니 天中에셔보롯이 毫髮을헤리로다 ᄒᆞ다
셔구름이 近處에머물셰라 神仙은어듸가고 海若만남앗나니 天地間壯한奇別 仔細
히알거이고 斜陽峴山에 躑躅을므니밟아 羽蓋芝輪 鏡浦臺올나가니 十里
氷紈으로 돌니뭇쳐더히 물결도잔ᄌᆞᆫᄒᆞᆯ사 모래를헤리로다 長松鬱鬱ᄒᆞᆫ되 슬
ᄏᆞ장펴젓시니 孤舟를解纜ᄒᆞ고 亭子우헤올나가니 江門橋넘은겻헤 大洋이여
긔로다 紅粧의古事ᄂᆞᆫ 헌ᄉᆞ라ᄒᆞ리로다 이ᄭᅩᆺ에셔가즌곳이 또어듸가잇단말가 從
容할ᄉᆞ져氣像 闊遠할ᄉᆞ져境界야 江陵大都護ᄂᆞᆫ 風俗도됴흘시고 節孝旌門이
골ᄀᆞ로버럿시니 比屋可封이 이제잇다ᄒᆞ리로다 眞珠宮竹西樓에 五十川나린물이
太白山그림ᄌᆞ를 東海로당마가니 출하로漢江에가 南山에다히고져 王程이有
限ᄒᆞ고 風景은모숩뷔워 天根을못니보아 望洋亭올나가니 仙槎를ᄯᅴ여내
여 斗牛로向ᄒᆞ실가 幽懷도ᄒᆞ도할샤 客愁도ᄀᆞ이업다 바다밧게ᄒᆞ늘이오
ᄒᆞ늘밧게무어신고 仙娥를ᄎᆞ즈리라 與宄에머무실샤 水투에惟번고리 뉘라

協律大成 六十九

七十

져흘너관ᄃᆡ 물거니샏거니 어즈러이구ᄂᆞ지고 銀山을것거내여 六合에나리ᄂᆞᆫ듯
五月長天에 白雪은무ᄉᆞ일고 져근덧밤이드러 風浪이定ᄒᆞ거ᄂᆞᆯ 扶桑咫尺에 明
月을기다리니 瑞光千丈이 뵈ᄂᆞᆫ듯숨ᄂᆞᆫ고나 珠簾을곳쳐것고 玉階를다시쓸고 啓
明星돗도록 곳초안자바라보니 白蓮花ᄒᆞᆫ柯枝를 뉘라셔보내신고 이됴흔世界를
남ᄃᆡ도뵈고지고 梨花酒부어잡고 ᄃᆞᆯ두려무른말이 英雄은어듸가고 四仙은뉘러런고
아모나만나보아 녯긔별뭇ᄌᆞᄒᆞ니 仙山東海에 갈길이머도멀샤 松根을베고누어
ᄑᆞᆺᄌᆞᆷ을얼픗드니 ᄭᅮᆷ에ᄒᆞᆫ사ᄅᆞᆷ이 날ᄃᆞ려니른말이 그ᄃᆡ를내모ᄅᆞ랴 上界에神仙
이라 黃庭經一字를 엇디ᄒᆞ야그릇닐고 人間에謫下ᄒᆞ야 우리를ᄯᆞ로ᄂᆞ나 젹
븐듯가지말고 이술ᄒᆞᆫ盞먹어보고 北斗星기우려 滄海酒부어내여 저먹고날
勸커ᄂᆞᆯ 一二盃거우르니 春風이習習ᄒᆞ여 兩腋을추혀드니 九萬里長空에 져
기면날니로다 이술ᄒᆞᆫ盞부어다가 四海에고로ᄂᆞᆫ화 億萬蒼生을 다醉케만근
後에 그제야다시만나 ᄯᅩᄒᆞᆫ盞먹ᄌᆞᄒᆞ니 말지자鶴을타고 九霄에올나가니 空
中玉簫소리 어제런가그제런가 나도ᄌᆞᆷ을ᄭᆡ야 滄海굽어보니 깁픠를모로거든
가인들어이알니 기러니다ᄂᆞ기러니며 져니다ᄂᆞ져니라 兒孩야盞을씨셔 일盞잔盞
어다가 九重으로도라가셔 보다취케ᄒᆞ오리라

白鷗詞

白鷗야 풀ᄅᆞ 나지마라 너잡을 내아니로다 聖上이 바리시니 너를 좃ᄎᆞ 예 왓노라 五柳
春光景 됴흔듸 白馬金鞭花柳가쟈 雲沈碧溪花紅柳綠ᄒᆞᆫ듸 萬壑千峯 빗츤시라
壺中天地에 別乾坤이 여긔로다 高峯万丈淸溪𨕫ᄒᆞ되 綠竹蒼松은 놉기를 닷톼
明沙十里에 海棠花만 다 퓌여서 모진 狂風을 견듸지 못ᄒᆞ야 ᄯᅥᆨᄯᅥᆨ ᄯᅥ러져셔 아쥬 펄펄
나라나니 긘들 아니 景이런가 바회 岩上에 다람쥐 기고 시니 溪邊에 金자라 긘다
좀잘 납게 되 죵ᄡᅥ소리며 함박 쏫헤 벌이 나셔 봄은 동즐고 발은 져어 제 몸을 못이
여 東風 건듯 불제마다 이리로 졉뒤젹 져리로 졉뒤젹 너흘너흘 ᄎᆞᆷ을 추니 긘들
아니 景이런가 黃金 것튼 ᄭᅬᆨᄭᅩ리 ᄂᆞᆫ 버들 ᄉᆞ이로 往來ᄒᆞ고 白雪 것튼 흰나뷔ᄂᆞᆫ 쏫을 보
고 반기 녀겨 나라든다 두나리 펼치고 나라든다 ᄯᅥ든다 감아케 별 것치 놉다케 ᄂᆞᆫ
것치 펄ᄂᆞ 나라드니 긘들 아니 景이런가

勸酒歌

잡우시요 잡우시요 이 술 ᄒᆞᆫ 盞 잡우시요 이 술 ᄒᆞᆫ 盞 잡우시면 千萬年이나 ᄉᆞ오리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漢武帝의 承露盤에 이 슬 바든 거시오니 쓰나 다나 잡우시요 勸할 제 권
에 잡우시요 제 것두고 못먹으면 王將軍之庫子오니 若飛蛾之拍燈이며 似赤子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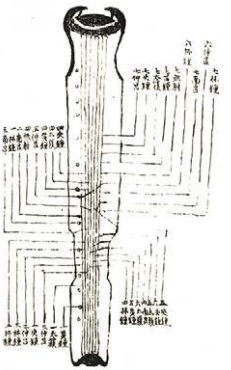
協律九后 九十二

入井이라 ᄒᆞᆫ 번 ᄯᅩ 나 뵌 몸이 쑷 줄 것거 籌를 녹코 無盡無盡 먹ᄉᆞ이다 名沙十里 海棠
花야 쑷 진다 고 슬허마라 明年三月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퓌려니와 可憐ᄒᆞ다 우리 人生
ᄒᆞᆫ 번 늙어지면 다시 졈든 못ᄒᆞ리라 紅顔白髮이 졀노 오니 긘들 아니 셜다 말가 寄一葉之扁舟ᄒᆞ야
擧匏樽而相屬이라 寄蜉蝣於天地ᄒᆞ니 渺滄海之一粟이라 哀吾生之須臾ᄒᆞ고 羨
長江之無窮이라 挾飛仙而遨遊ᄒᆞ고 抱明月而長終이라 知不可乎驟得일세
셔벽셔리 초년간에 뫼기려 이 술 되옵다 님의 消息 바랏더니 蒼蒼ᄒᆞᆫ 구름 밧게
ᄉᆡᆨ인소리 ᄲᅮᆫ이로다 梧桐秋夜 밝은 달에 님 ᄉᆡᆼ각이 ᄉᆡ로외라 님도 날을 ᄉᆡᆼ각ᄂᆞᆫ가
人生 ᄒᆞᆫ 번 도라가면 뉘라 ᄒᆞᆫ 번 먹즈 ᄒᆞ리 술 잇슬 제 이리 노셔 勸君終日酩酊醉ᄒᆞ쟈
酒不到劉伶墳上土ᄒᆞ니 相思ᄒᆞ던 우리 郞君을 ᄭᅮᆷ 가온듸 暫間 만나 萬端情懷 다 못ᄒᆞ여
ᄒᆞᆫ 눈이 ᄯᅥ 次 밝아 온다

歌終奏樂 女唱

이리 ᄒᆞ여 도 太平聖代 쳐리 ᄒᆞ여 도 聖代로다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 우리도
太平聖代니 놀고 놀녀 ᄒᆞ노라

徽琴圖式



（京城帝大所藏 93954）

調絃法

初調第六絃以林鍾為準與云琴對下清相同次調第三絃九徽與六絃散聲相應次調第二絃按八徽半與六絃散聲相應次調第一絃按九徽與六絃散聲相應次調第五絃按六絃七徽半與五絃散聲相應得仙翁次調第四絃按五絃九徽與四絃散聲相應得仙翁而四絃散聲與一絃十二徽半相應又四絃散聲與云琴相同五絃九徽與四絃七徽相應也次調七絃按七絃七徽七分與六絃散聲相應得仙翁

嚮運齋琴譜云琴為十三徽散聲為全律七徽當全律之半按之與散聲同徽又居半律之半按之亦與散聲同五徽為一分九徽為一分徽之間架推以可知也

音標每行分三行又分絃之一二三四五六七書律呂左行分左手指之一二三四

琴徽之間架或有指長指短者彈者隨機運按可也

癸巳南至節亦疇軒校輯　石荷高益相參訂

徽琴歌曲譜　目錄

初調　初大葉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　五章

大餘音

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與初大葉四章同　五章

三章又一調

中樂

大餘音　一章起頭用此餘以下皆與二大葉同

平樂　與中樂通用

大餘音

促大葉　急拍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與初大葉四章同　五章

三大葉　大餘音

大餘音　又一調　一章　二章與促大葉二章同　三章中餘音　四章　五章

騷聲　大餘音

大餘音又一調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與二章同　五章與二大葉五章同

半葉　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三章又一調　四章四章五章若用羽樂四章五章則為羽音　五章

商調　俗稱界面　初大葉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見半葉中餘音　四章與二章同　五章

二大葉　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與初大葉中餘音同　四章　同半葉四章　五章　同半葉五章

女唱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同　五章

中樂　大餘音

一章　二章與三章同　四章與五章並與二大葉同

中樂　女唱一章

二章與三章與四章與五章　並同二大葉

平樂　俗稱界面之音與中樂通用

大餘音

協律97前

促大葉 俗稱 즈자즌안닙
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同初大葉中餘音 四章同二大葉四章 五章
促大葉 女唱
一章 二章 三章同二大葉 如請弄則當用女唱三大葉三章弟一刻末變調 中餘音
四章若不請弄則與半葉四章同 若請弄則與三大葉四章同 五章若不請弄則與女唱二
大葉同 而五章起頭十四點長短至싣지ㅇ與三大葉五章起頭十四點長短싣지ㅇ或換用而二大葉
中擧平擧三五章起頭幷或換用 當隨聲也 此五章若請弄則用三大葉五章
三大葉 大餘音
大餘音又一調起頭與初大葉一章頭十點長短同 二章同促大葉二章 三章若不請弄
則第二刻以後一依促大葉四章五章並同促大葉 中餘音 四章 五章
㢷弄 大餘音 通用於原弄
一章同三大葉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 五章
弄 大餘音
一章 二章↓三章↓四章↓五章 並同㢷弄五章 若向羽樂則末段變羽
五章變羽調
弄三章五章全刻
弄三章五章半刻

二

協律97後

界樂 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 五章
羽樂 大餘音 以半葉大餘音或用於羽樂 大餘音又一調 大餘音又一調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四章與二章同女唱則見下 五章
女唱羽樂隨聲 一章二章同男唱
三章萬頃滄波 中餘音 四章女唱例用此章 五章
女唱羽樂隨聲 一章二章同男唱
三章風地動 中餘音 四章五章同萬頃滄波
㢷樂 大餘音
一章 二章同羽樂二章 三章碧款意隨聲 中餘音 四章 五章
羽樂㢷樂半刻
編樂 大餘音女唱還界樂亦用此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木石磨易難隨聲 中餘音 四章 五章
編 大餘音 一章 二章 三章 中餘音
三章五章全刻 三章五章半刻 四章五章並同編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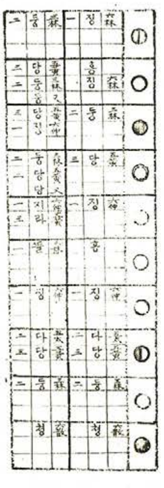
協律98前

㢷編 大餘音
一章 二章同編二章 三章寥松亭隨聲 中餘音同編 四章同二章
五章同編五章但頭一刻寥松亭則凡六回
女唱還界樂 大餘音用編樂大餘音
一章二章即羽樂 三章隨聲 縛虎越嶺 中餘音見界樂 四章五章並界樂
又隨聲三章 前川後川喂斗 中餘音
太平歌
一章 二章三章四章五章並促大葉
女唱太平歌一章
二章三章四章五章並同促大葉
羽調之音 或云羽意
商調之音 俗稱界面다스름

三

協律98後

商調之音



가람
780.951
Y17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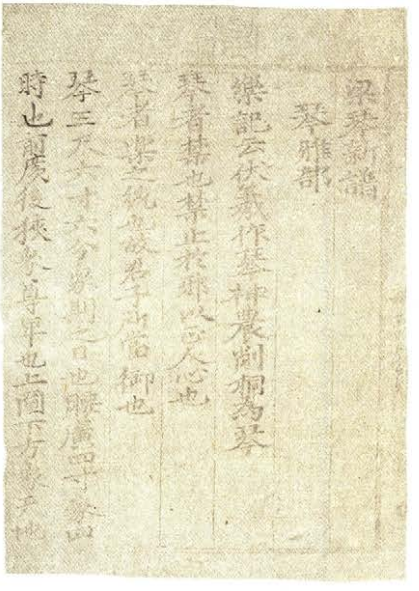
梁新1後

也絃者五聲有也徵十有三聲十二律也
一闕也大絃爲君小絃爲民文武各加一
絃是謂七絃

玄琴鄉部

初音人以七絃琴送高句麗麗人不知鼓之之
法時第二相王山岳改易其法制無製曲以
奏之於是玄鶴來舞遂名曰玄鶴琴後但云

梁新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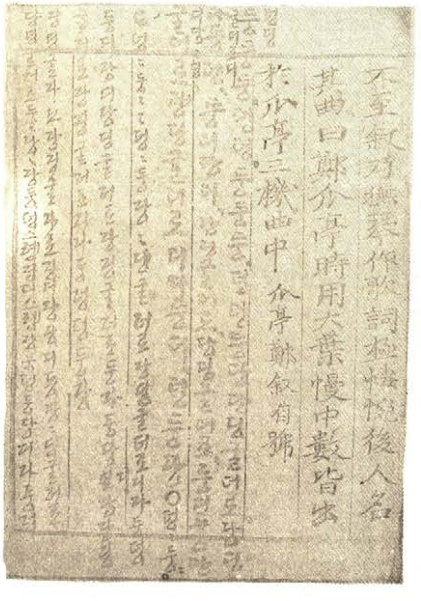


梁琴新譜

琴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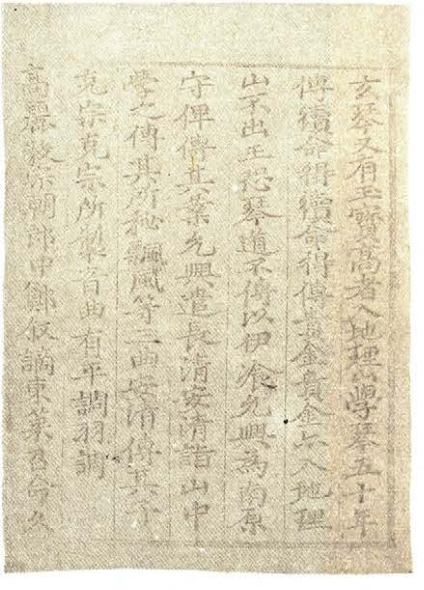
樂記云伏羲作琴神農剡桐爲琴
琴者禁也禁止於邪以定人心也
琴者樂器故琴字從音御也
琴三尺六寸象期之日也廣四寸象四
時也厚二寸象二儀也上圓下方象天地

梁新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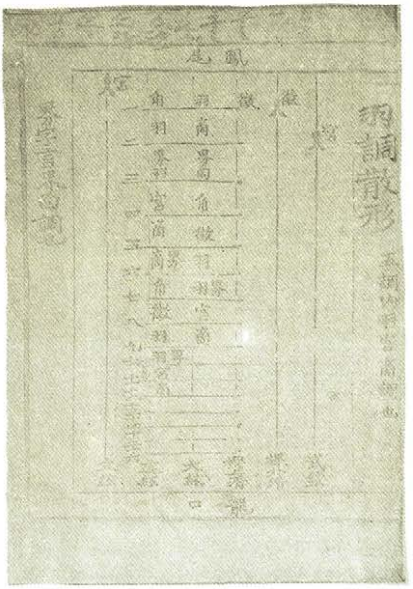
不至叙功樂琴作歌詞極悲怨後人名
其曲曰鄭仲賢時用大葉慢中數皆出
於仲賢三樣曲中 仲賢鄭叙有號

梁新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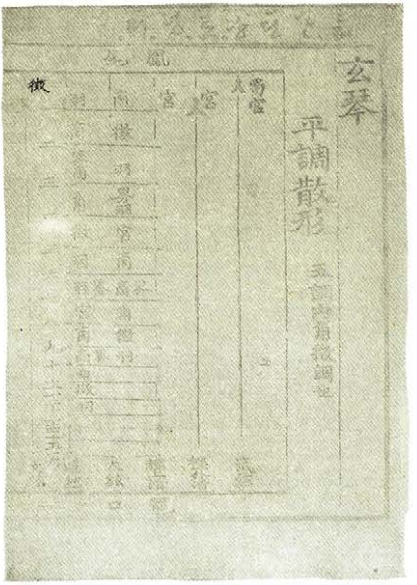


玄琴又有玉寶高者入地理尊琴五十年
得積雪得積雪得得黃金黃金出入地理
出宋出王忠琴道不傳以伊飡允興爲國原
守俾傳其業允興遣長清安清詣山中
學之傳其所秘鳳笙三曲安清傳其子
克宗克宗所製百曲有平調羽調
高麗終始調中鄭叔謫東業名命久

梁新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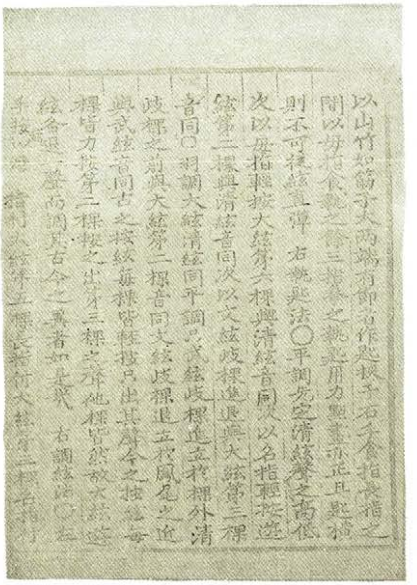


梁新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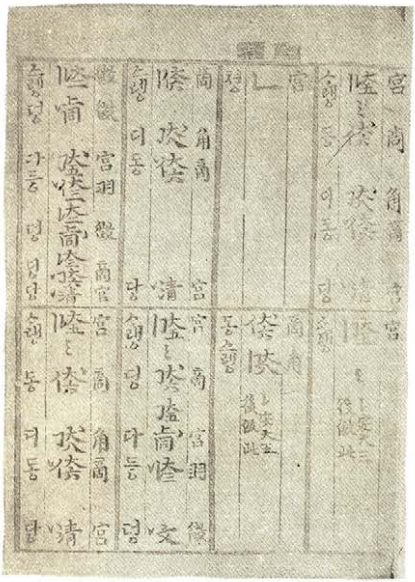


梁新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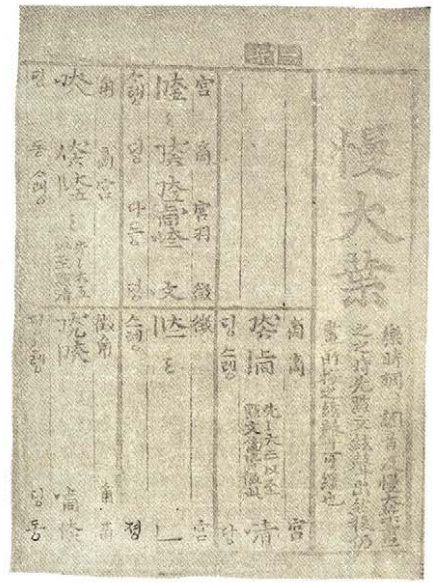
梁新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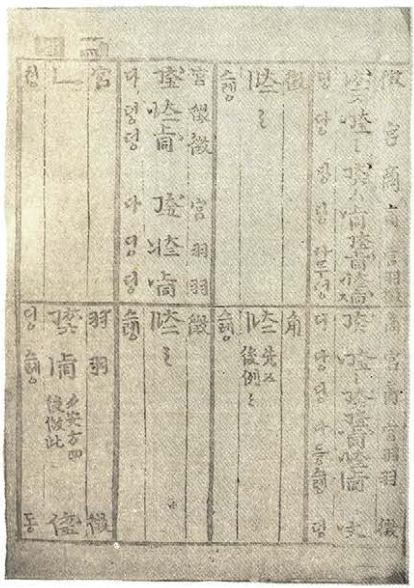
梁新5後



梁新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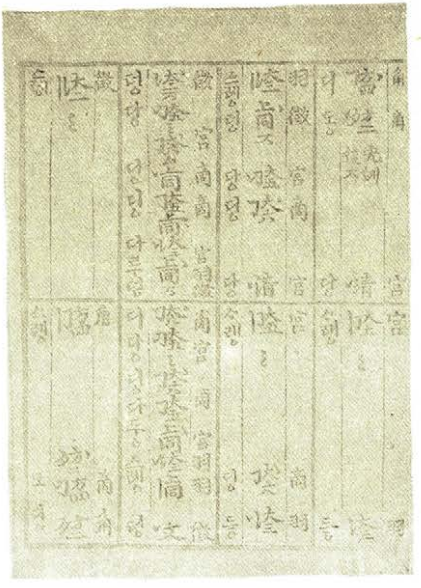
梁新6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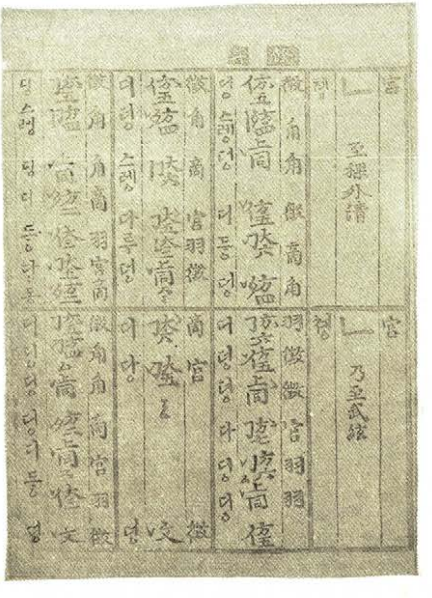
梁新6前

梁新7前

梁新7後



梁新8前



梁新8後

梁新9後

梁新9前

梁新10後

梁新10前

梁新1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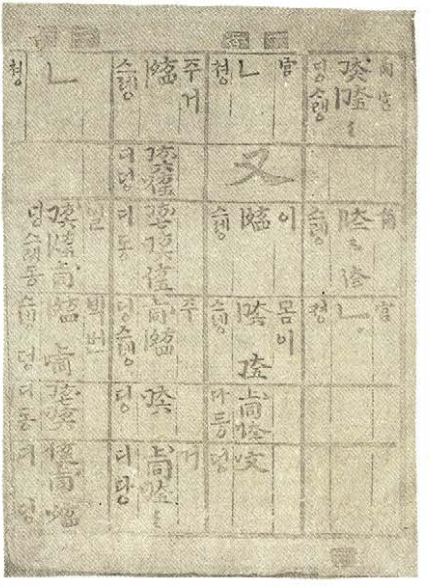
梁新11前

梁新1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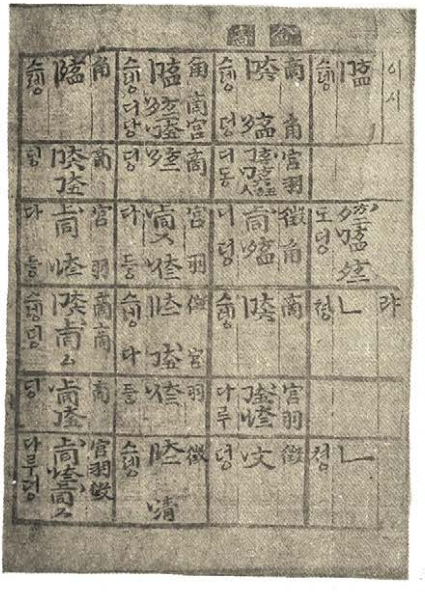
梁新12前

梁新13後

梁新1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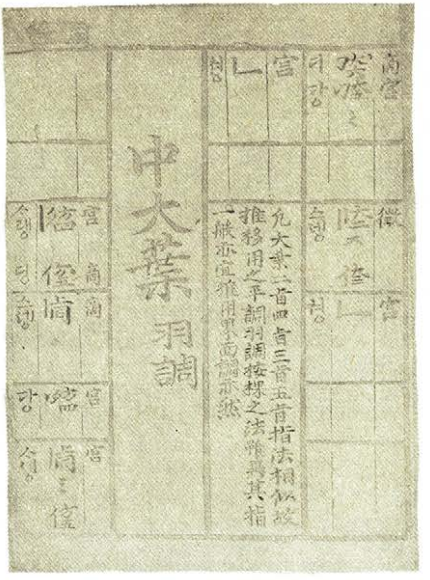
梁新14後



梁新14前

梁新15後

梁新1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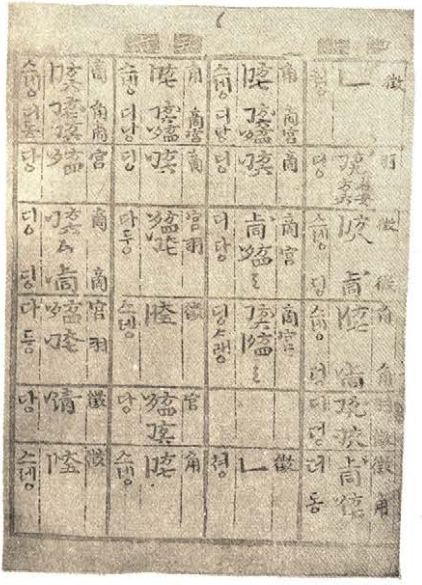
梁新16後

梁新16前

梁新17後

梁新17前

梁新18後



梁新18前

梁新19後

梁新19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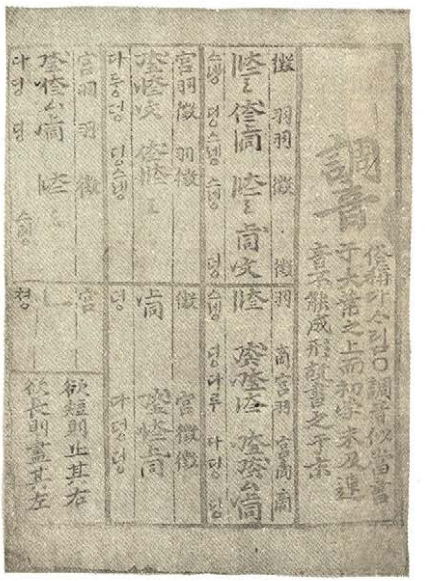
梁新20後

梁新20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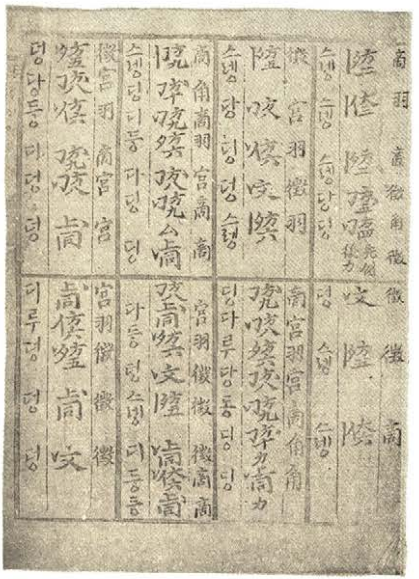
梁新21前

梁新21後

梁新22前



梁新2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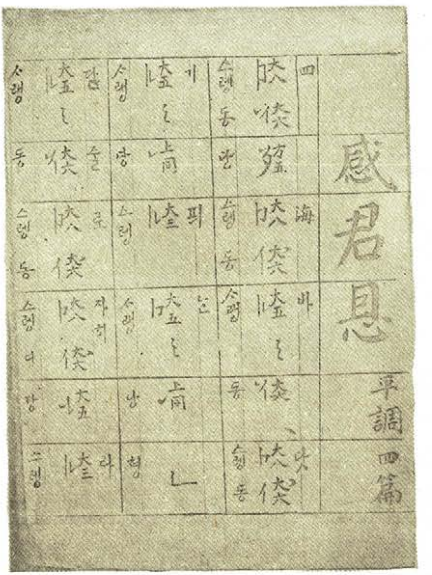


梁新23後

梁新23前

梁新2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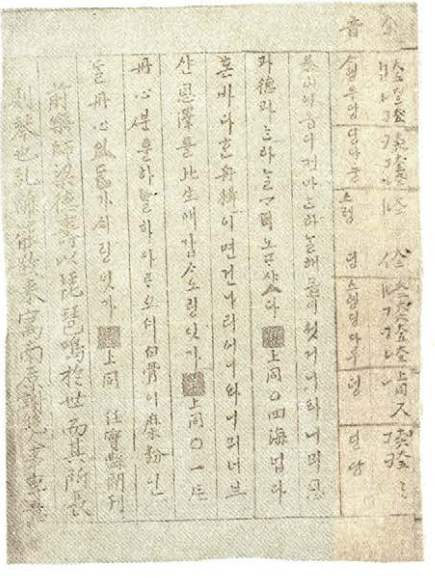
梁新2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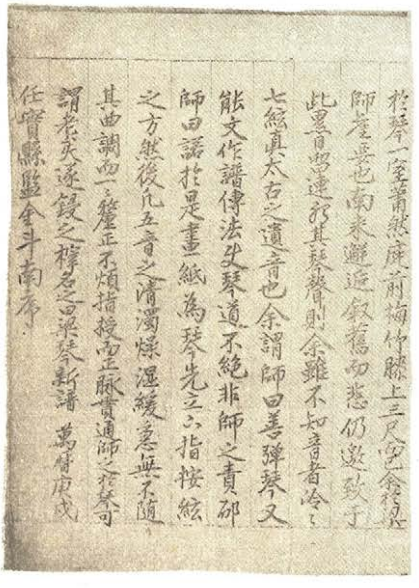
梁新25前

梁新25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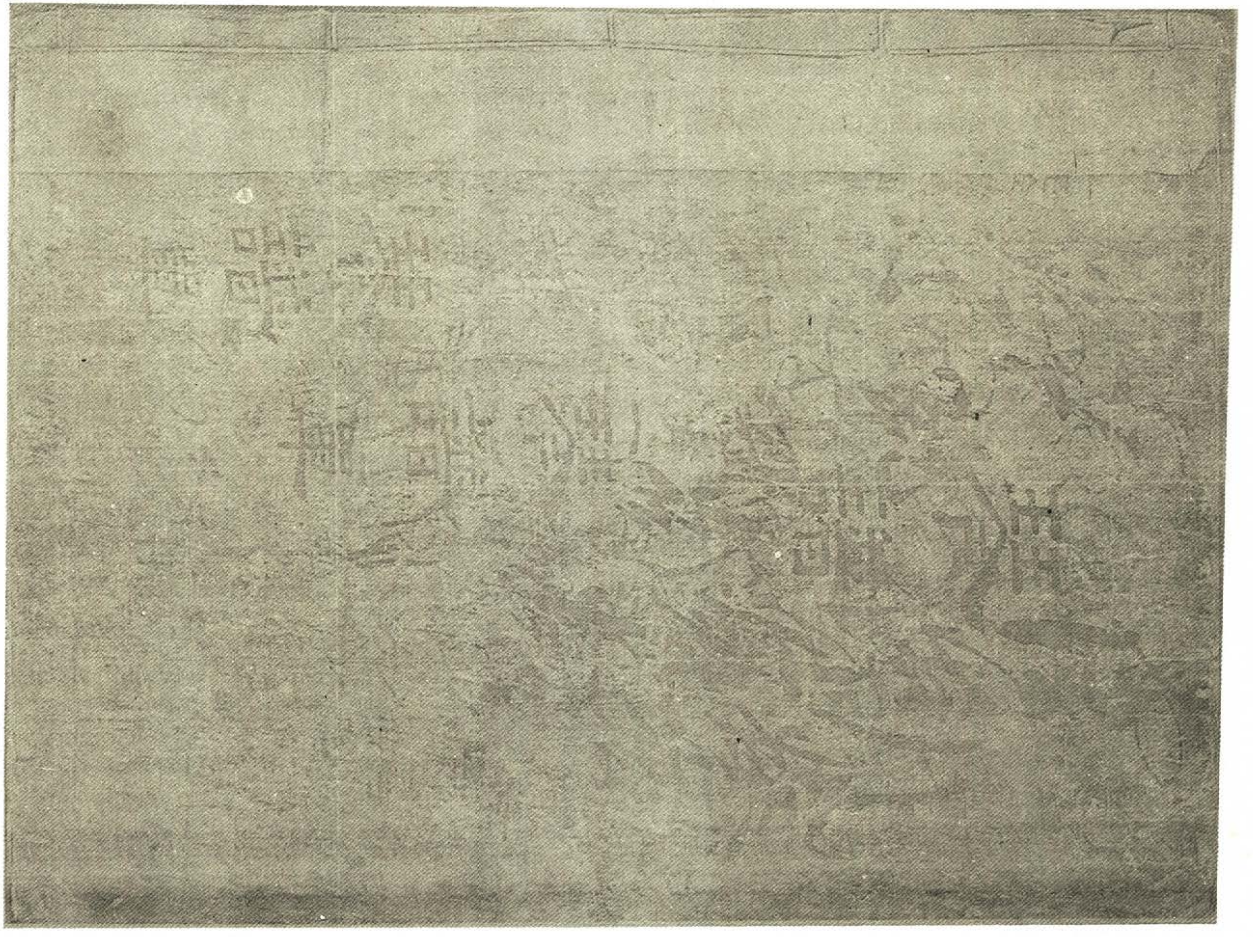
梁新26前



梁新26後



於琴一室蕭然庭前梅竹滕上三尺空餘良
師是要也南來邂逅叙舊如悲仍邀致于
此豈曾連於其琴聲則余雖不知音者冷
七絃真太古之遺音也余謂師曰善彈琴又
能文作譜傳法及琴道不絶非師之責邵
師曰諾於是畫紙為琴先之六指按絃
之方然後凡五音之清濁燥溼緩急無不隨
其曲調而一聲正不煩指授而正脉貫通師之於琴可
謂老矣遂錄之樗老之四梁琴新譜 萬曆庚戌
任實縣監金斗南序



改訂鉄絲琴譜

가람
787
Y57g

歐邏1前

歐邏鐵絲琴字譜

洌上 李圭景 伯揆氏 翻譯
弟圭達 叔璋甫 校

第一翻來

歐邏琴入于中華以帝京景物畧攷之則自利瑪竇始名曰天琴即鐵絲琴也迺北偶談香山墨三吧寺有風琴銅絃彈之以和經唄癸酉御禍存回部既平得其樂命於大饗所陳諸部末肆之其器有洋琴之屬流出我東則幾此六十載終無翻曲徒作文房奇器摩玩而已

歐邏1後

宗朝年間當考樂院典樂朴寶安者隨使入燕始學數法翻以東音自此傳習而以手相授苦無字譜旋得隨失歲在丁丑仲春同典樂文命新講作此譜嘗見文獻錄中有人於小紙列書某〻書及梁琴一譜而梁字雖與洋字異而音則同焉似是此琴之譜今不可放

第二律名

大抵樂無十二律則縱補知音何以成舞故先於絃下依律呂相生相和列書十二律四清舞而互相變易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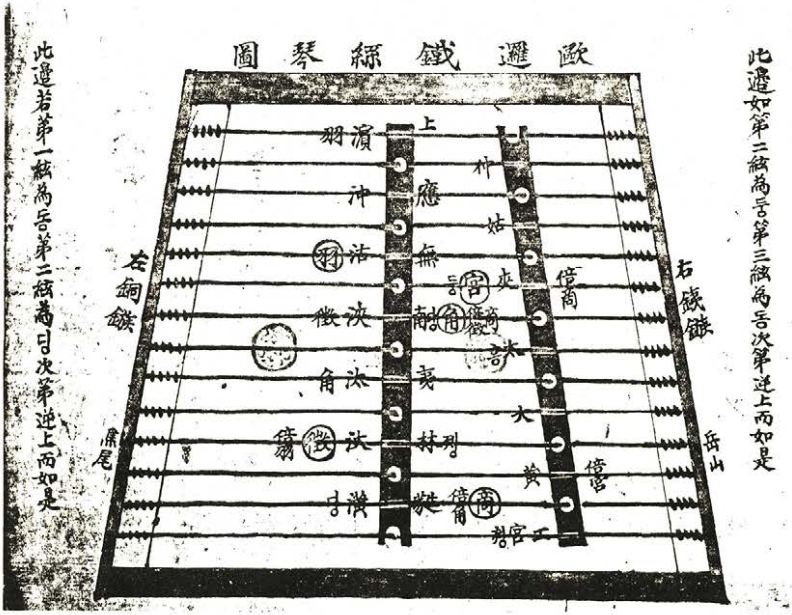
可以本律拘也東樂本以夾鍾定為
初舞今以夾鍾為宮
第三字點
洋琴十四絃除十二律呂則餘二絃定
為變宮變徵字鞞標以工上字工
在下上在首十二律呂若備書太繁
故省用首字清舞去半字止取左
偏水旁附於下字之左如潢之類
也其中濱字本清蹤也而若取蹤
字從水合成則傷於駭眼故強取
賓字合成為◦者單擊◦◦者兩
擊◦◦者聯擊而頓竿也

第四宜用彼字
此琴出自泰西則當以西音翻律
然後可謂本色按舊港唐先
生樂字論律筭書則西樂之
入中國始自波尓都哈尓國徐
日昇大里呀國人德格里其言
樂大要有二一則論管律絃度
生舞之內舞字相合不相合之
故一則定審音合度之規用剛
※柔乙二紀以辨陰陽二調之
異用倍長明長日緩日中
○半♩小♩速♪最速

以五線界拜三品明調由
低而高者上品也可上可
下者爲中品也自高而低者
下品也六字定位以備七
音曰烏勒鳴乏朔拉自烏至
勒勒至鳴乏至朔朔至拉皆
全分惟鳴至乏爲半分于是
新法補一犀字以助鳴乏之不
及而七音始全曰朔乏烏中法
之四字調也曰拉朔勒乙字調
也曰拉鳴上字調也曰乏烏尺
字調也曰朔勒烏工字調也

曰拉鳴勒九字調也曰乏鳴六
字調也以上七調是謂七級高
低上下相借爲用至于樂音
長短之度又有八形號以爲
準則有全準○有大準(3有
小半準(3之不同半分度三
分度之互用云云則雖未盡
該依上諸字形標於東音高
低分度則可備此琴之本體覽
者詳焉

第五製形


歐邏鐵絲琴圖
此邏若第一絃為吾第二絃為日次第逆上而如是
此邏如第三絃為吾第三絃為吾次第逆上而如是
左銅鐵
右鐵鐵
上
應
無
南
夷
林
蕤
羽
沖
沽
汰
角
徵
宮
商
太
大
英
僖
僖
僖

琴之質用梧桐其狀上殺下廣其顛
末樹釘處用榕木非榕則釘難錮
蓋榕性吸引銅鐵故也琴之腹
空〻如也可以發響琴之徽有二各
鑿圜孔八而兩頭鐵圜將以貫弦
也徽上以一條大銅絲與徽長等
者當中橫置將以承弦也兩徽
相距以比例法為度大緊鐵鏃过
徽距鐵鏃二寸強則兩徽中間
相距五寸銅釘過徽距銅釘
六寸強琴弦用黃銅細絲非蠶
絲則體柔易鬆一弦合四條左

右合六絃共十四弦總計五十六條貫
于徽每孔一上一下則弦互交其勢
如織帛者之貫箴焉琴左端則
小銅釘右端則鐵釘其大如箭
鏃入木處矩之掛弦處規之而弦
之餘緒纏于此釘而掛弦時弦之
兩緒暫入于火中取出放冷然
后作套圈及纏釘則不絕弦若
斷絕則解此條改焉弦之緊鬆
專在於此而欲緊鬆時有曲鐵
者狀如隱穴鑰匙冒于釘頭而
挨之隨纏絃之勢而左右之蓋

銅鍊丙釘之數與絃數等歟義
其飾者丙徽之間黏離玉小圜
銅釘之內板亦如之鼓弦之竿
削竹尺長可五寸廣可一分薄
其中厚其首尾把而鼓之其
勢彎〻然琴亟視琴之體
隨其狀而制之洋布為最褐
布為次琴體大小不拘為大者
可至三尺小者可至一尺此先定
度然大則彈濁小則彈清

第六藏彝

藏彝最難太燥則弦斷太濕則弦

濕以不燥不濕為法
第六藏彝
鼓琴之法運手如翰下竿如顫始
乃發聲

第八琴銘

雅亭先生銘洪湛軒之琴曰謂之琴
抱以絃謂之絲剝以尊備等之
體藉璈之音竹之兼乎木竹也
魚之間乎獸禽也又銘徐觀齋
琴曰空〻玉尺〻桐顫〻竹纖
〻銅鏗鏗鏗瓏瓏瓏歌邏技
震檀聽李圭景雅亭先生李圭景祖父也

嘗富一琴而題其背曰五十六弦
各有情歐邏奇光渡重瀛版
頭鐵鏃尖抽笋微腹銅絲細
貫箴腔和人聲無難出響全
天籟自然生殊方異樂疇
堪解強譯東音譜已成上
二銘宜刻琴匣之上

第九典故

朴楚亭齋家戊戌（正宗朝）入燕與唐
駕港樂字論樂楚亭問如西
洋鉄絲琴及天主堂琴籥律
之屬以我音翻之亦通是必有

天地間元聲之一定者荅元聲自
有一定而以人聲出之則不一定矣
人之聲出於臟腑不一靈樞素
問已詳言之問萬國之音合於
一何也荅不一即中国之音亦不
一如歸川中人呼龜浙中人呼
居問然則天下之樂不一耶荅
豈獨天下萬人各不同也問先
生以何歸宿荅我得聞於鄭
世子之書每人制樂以每人中
指為定問造樂律用何尺荅
尺之為用有三有横黍此周尺

歐邏8前

竪黍此廣尺斜黍此兩尺間俱
用上黨羊頭山黑黍否荅山
上有黍甚疑此皆前人妄說
早潦不時大小不一豈能以此
為定耶向今不用黍耶荅太常
所掌我不得聞想來無此說
矣

洋琴無羽調蓋緣專清無濁也
歐作羽舞琴體絕大可合此
腔

此琴非雅樂舞調清越此可賞
也大率樂以舞之雅俗為邪

歐邏8後

西此琴雖曰蠻方殊音若被之
以雅樂則亦可以人神和諧政
不在於器也昔荀勗聽牛鐸
而諧樂之義

靈山會相大一篇

夾・工・夾・工・夾

𢊁・夾・𢊁・林・𢊁

・夾・𢊁・夾・𢊁

南・𢊁・潢・南・太

・𢊁・夾・太・𢊁

南・夾・𢊁・南・夾

・𢊁・（合三十九點）

靈山會相大二篇

潢・南・太・南・潢・

南・𢊁・潢・南・𢊁

・潢・南・潢・𢊁・

南・太・南・𢊁・潢

・南・太・南・林

𢊁・潢・林・𢊁・潢

・浹・浹・潢・𢊁・

潢・南・太・𢊁・夾

・太・𢊁・南・夾・

𢊁・南・夾・𢊁・（合五十點）

靈山會相大三篇

潢・浹・潢・浹・潢・

南・𢊁・夾・𢊁・夾

・𢊁・南・浹・潢・

夾。潢。南。浹。潢
。南。潢。南。韉。
南。韉。潢。南。潢
。浹。汰。潢。南。
韉。潢。南。太。韉
。夾。太。韉。南。
夾。韉。南。夾。韉
。合五十四點

靈山會相大四篇

夾
。韉。夾。韉。南。
浹。潢。南。韉。林
。南。汰。南。潢。

浹。潢。浹。潢。浹。
。南。韉。潢。南。
太。韉。夾。太。韉
。林。潢。林。林。
林。韉。夾。韉。林
。韉。夾。韉。夾。
太。工。林。潢。林
。韉。夾。韉。夾。
韉。南。韉。潢。南
。太。韉。夾。太。
韉。南。夾。韉。南
。夾。韉。合七十七點

歐邏11前

靈山會相中一篇

汰
汰潢洽南潢
汰南潢洽汰
潢南雞南
太南汰潢南
潢汰潢洽
潢南潢洽沽
洽汰潢南
雞潢南潢汰
潢洽潢南
雞南太南
合五十二點

歐邏11後

靈山會相中二篇

濱
濱洽濱洽濱
南洽濱南雞
南太南潢
洽南潢沽洽
潢洽汰潢
洽南洽濱沽
此洽字下又有洽字與一點故闕而不書
洽濱沽洽
雞洽汰潢南
潢汰洽潢
南雞南太南
合五十二點

靈山會相中三篇

浹・潢・夾・潢・南・
浹・潢・南・韎・夾
・韎・南・汰・南・
潢・浹・潢・浹・潢
・南・林・韎・南・
潢・浹・潢・南・浹
・潢・南・韎・南・
太・南・合四十點

靈山會相中四篇

潢・浹・南・潢・沽・
浹・潢・浹・汰・潢

・浹・南・潢・浹・
濵・沽・浹・濵・沽
・浹・韎・浹・汰・
潢・南・韎・潢・南
・潢・浹・潢・浹・
潢・南・韎・南・太
・南・合四十點

靈山會相小一篇 俗稱殘灵山

潢・汰・南・汰・潢・
南・韎・南・潢・浹
・潢・浹・潢・南・
韎・南・太・南・韎

潢
•林•潢•林•潢•
林•潢•林•韓•南
潢•沽•浹•沈•
潢•浹•潢•浹•南
浹•潢•南•韓•
南•太•南 合二十 九點
靈山會相小三篇
沈
潢•浹•潢•浹•
•潢•南•韓•潢
浹•潢•沈•潢•
•南•太•南•沈•
南•夾•韓•南•
合三十 五點
靈山會相小二篇

浹
•潢•浹•南•韓•
南•潢•浹•潢•浹
•南•太•南•沈•
南•沈•南•浹•潢
•南•潢•浹•沈•
潢•南•韓•夾•韓
•潢•浹•南•潢•
浹•潢•沈•潢•南
•夾•韓•南•太•
南 合二十 九點
靈山會相小四篇

潢

南太南合三十八點

除篇一篇俗稱篇除가라다리

沈南沈潢

南韉南潢洽

潢洽潢南

韉南太南潢

洽南合三

韉南韉南

十一點

除篇二篇

沈潢洽沽洽

潢南洽潢洽

沈潢南韉

南韉南合十九點

除篇三篇

潢南韉南潢

洽潢南韉南

合十二點

除篇四篇

潢夾潢洽沈

潢南韉南潢

南潢洽南

合十八點

還入一篇

潢・浹・潢・浹・潢・

浹・濱・沽・浹・潢

・浹・潢・夾・潢・

浹・潢・夾・潢・夾

・潢・蹉・南・潢・

此潢字下又有潢字與一點故圈而不書

浹・潢・浹・南・潢

・合二十九點

還入二篇

沽・浹・潢・浹・南・

潢・浹・潢・浹・南

・潢・浹・潢・南・

蹉・潢・浹・沈・潢

・南・蹉・潢・南・

潢・南・合二十九點

還入三篇

潢・南・蹉・南・蹉・

南・潢・南・蹉・南

・潢・南・蹉・南・

蹉・夾・南・蹉・合二十點

還入四篇

潢・南・潢・沽・浹・

潢・浹・潢・浹・南

○潢○浹○潢○南○
雞○南○太○南○潢
○沽○浹○沈○潢○
浹○南○潢○浹○潢
○南○浹○沈○潢○
南○雞○南○潢○南
○潢○浹○南○合四十六點

下綫還入一篇

潢○浹○潢○浹○濱○
沽○浹○潢○浹○潢
○南○潢○浹○潢○

○潢○合十七點

下綫還入二篇

夾
○雞○夾○雞○潢○
南○雞○林○雞○南
○雞○林○雞○潢○
浹○潢○南○林○雞
○潢○南○林○雞○
合二十六點

下綫還入三篇

潢
○雞○南○潢○雞○
南○雞○南○雞○南
○林○南○林○南○

林。南。韃。南。林
。漢。林。漢。林。
韃。夾。韃。南。林
。韃。夾。林。韃。
夾。太。夾。合三十九點

下絃還入四篇

浹。漢。韃。南。韃。
南。浹。漢。浹。漢。
。南。韃。南。太。
漢。沽。浹。沈。漢
。浹。南。漢。浹。
漢。浹。南。韃。南

。漢。南。漢。浹。
南。合三十九點

界面調調絃

夾•蕤•太•夾•蕤•

南•蕤•太•夾•蕤

•南•蕤•南•濱•

浹•濱•南•蕤•太

•夾•合二十二點

羽調調絃

濱•沖•沽•汰•濱•

沖•汰•濱•浹•濱

•蕤•合十三點

歌曲大葉初章（俗稱太平令）

南・蕤・夾・潢・南・蕤・夾・大・蕤・南・林・蕤・潢・浹・蕤・南・蕤・潢・南・蕤・南・蕤・夾・工・（合二十五點）

二章

潢・浹・潢・林・蕤・夾・蕤・南・蕤・潢・南・蕤・南・林・蕤・夾・工・（合十九點）

三章

夾・蕤・夾・蕤・林・蕤・南・潢・浹・潢・南・蕤・夾・蕤・南・潢・蕤・夾・林・蕤・夾・太・工・（合二十四點）

中餘音

夾・蕤・夾・蕤・南・潢・南・蕤・潢・南・太・南・夾・工・（合十五點）

四章

夾・潢・浹・汰・潢・

蕤・南・汰・潢・夾

・潢・浹・潢・南・

太・潢・工・合十八點

五章

夾・蕤・南・蕤・南・

夾・蕤・南・林・蕤

・潢・南・蕤・南・

蕤・南・蕤・潢・南

・蕤・南・蕤・夾・

林・蕤・夾・工・夾

・工・合二十九點

大餘音

蕤・林・蕤・工・蕤・

南・蕤・潢・南・潢

・南・蕤・南・潢・

蕤・南・蕤・夾・蕤

・南・蕤・夾・蕤・

夾・蕤・南・蕤・潢

・南・蕤・南・蕤・

夾・蕤・南・蕤・合三十七點

歐邏21前

時調

夾・蕤・南・蕤・潢・
南・浹・潢・南・蕤
・林・蕤・夾・蕤・
潢・南・蕤・南・太
・南・太・南・浹・
潢・南・潢・浹・潢
・南・蕤・南・蕤・
潢・南・潢・南・蕤
・南・林・南・蕤・
潢・浹・潢・浹・潢
・南・蕤・夾・蕤・

歐邏21後

潢・南・蕤・合六十點

子部
圖書館
部 子部
類 類
書号 3-592
冊数 1-1
148
1
1

○玄琴五音統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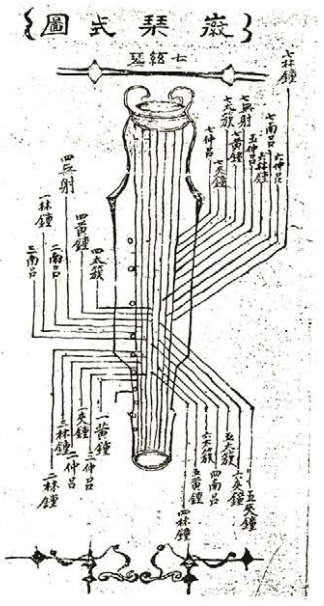
○宮土其氣黃其色聲和而平○商金其氣素其色聲肅而清○羽
水其氣黑其色聲嘆〻然頗細
太史公禮樂序曰聞宮音使人溫舒而廣大聞商音使人方正而
好義聞羽音使人輕齊而好禮
○鄒子曰天地之生起于中位宮屬土位中數居律應林鍾以合長
坤統平沉厚有雅洪之味
○易曰戰競乾兌商屬金位西數四律應夷則以合乾兌故鍾鏘清
亮有肅慄之氣
○又曰勞乎坎也羽屬水居北象諸物律應黃鍾適合坎卦故嘆〻

透徹有高細之氣
○聲平曰平聲寬而安去聲勵而舉上聲清而遠入聲直而促
○調格
平調即上聲屬宮雅深和平聲律正大黃鍾一動萬物皆春洛陽
三月鄭子來半百花叢裏接嚕徐行舜御南薰殿上彈五絃之琴
歌南風之詩以和天下月到天心處風來水面時一般清意味斜
得少人知
○宮聲和平而餘風送晚烟輕朱戶簷前調乳燕綠楊院裏囀雛鶯
○羽調即羽聲屬水清壯激勵聲律疎暢玉手撥破碎唳鏘鳴項羽
躍馬雄劍腰鳴大江以西改無堅城秦皇吞二周席捲天下御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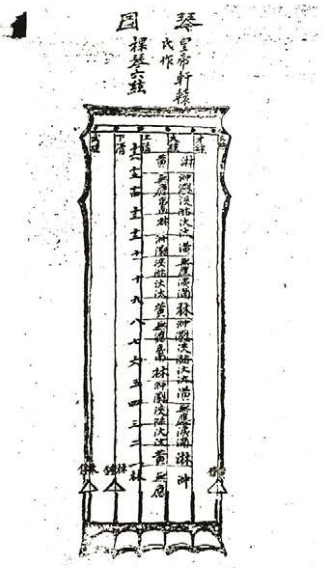
房宮朝六國諸侯宮殿明天牧馬遶月明羌笛戍樓間惜問梅花
何處落風吹一夜滿關山悲風和三字誤書
○桂面調即商聲屬金震悲激烈聲律悲悵忠魂沉江餘恨滿楚今
威去國千載始歸墨〻衆塚物是非人王昭君辭才赴胡白雪彩
〻手弄琵琶聲悲鳴咽嬋娟長信宮空階生苔玉輦不到黃昏花
落拱顧脉〻洞庭西望楚江分水盡南天不見雲日落長沙秋色
遠不知何處弔湘君
○與民樂世祖作合七章又一章有詩而不被絃者節奏太緩難連
故不彈
一海東六龍飛無非天所授古聖同符

二根深之木風亦不撓有灼其華有資其實
三源深之水旱亦不竭流斯爲川于海必達
四昔周太王于豳斯依〻〻〻造肇丕基
五今我始祖慶興是宅〻〻〻肇開鴻業
六狄人與慶狄人于侵岐山之遠實有天心
七野人與慶野人不禮德源之徙實有天啓　此樂律式始未載

玄統3後



玄統3前



玄統4後

九徽與六絃散聲相應次調第二絃與六絃散聲按二絃八徽半相應次調第三絃與六絃散聲按三絃八徽相應次調五絃按五絃七徽六分與五絃散相應得仙翁為準次調第四絃按五絃九徽與四絃散聲相應得仙翁為準而四絃散聲與第一絃十二徽半相應四絃散聲與東琴文絃相同四絃七絃與五絃九徽相應次調第七絃按七絃七徽六分與六絃散聲相應得仙翁為準○第一絃散聲為無射南呂間律而八徽八分為林鍾九徽六分為夾鍾十一徽為太簇十二半為黃鍾○第二絃散聲為無射律而七徽九分為南呂八徽半為林鍾九徽三分為仲呂○第三絃散聲為黃鍾無射間律而八徽一分為南呂九徽為林鍾九徽八分為仲呂○第四絃散聲為黃鍾律而六徽六分為太簇七徽一分為黃鍾七徽六分為無射八徽

玄統4前

徽琴學門人識

○吾族兄秋河先生顯宗氏攻經術而兼通六藝間嘗注意律呂每以東琴之不合古式為憾與余質論者屢矣迨在庚辰冬從郎使購古琴於燕京覓得徽迂齋琴譜與秋河茶敎樂部諸書其制作規則果無差矣遂因徽齋譜先得調絃之法次以我國調今解之十數朔工夫僅領旨趣其音韻之雄暢艷雅此東琴毫無異焉噫聲律之沉微久矣十調雖未可究得觀其器而家悲安知無存羊之一助也舅乙酉冬與秋河諸劇數月爰成一譜閒錄如左以俟後之學者　費

調絃法

○初調第六絃以林鍾律為準與東琴卦下清相同次調第三絃按三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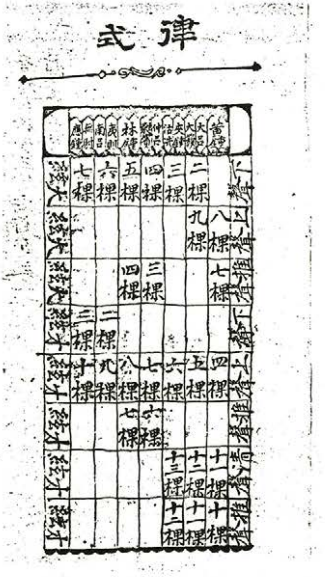
玄統5前

二分為南呂九徽一分為林鍾○第五絃散聲為仲呂律而七徽一分為
仲呂七徽半為夾鍾八徽二分為太簇九徽為黃鍾○第六絃散聲
為林鍾律而七徽一分林鍾七徽六分為仲呂八徽一分為夾鍾八徽
九分為太簇○第七絃散聲為南呂律而四徽九分為仲呂五徽
二分為夾鍾五徽七分為太簇六徽為黃鍾六徽半為無射七徽一
分為南呂七徽六分為林鍾　○毋絃律聲隨其徑條不可勝
數而取其多用之律槩録如此觀者可以自解琴徽間架或有
稍異者稍短稍長彈者隨機運按可也○嚮逞齋譜云琴有十二徽
散聲為全刻七徽當全律之半按之與散聲同四徽又屬半律之
半按之亦與散聲同五徽為一分九徽為一分徽之深淺而可分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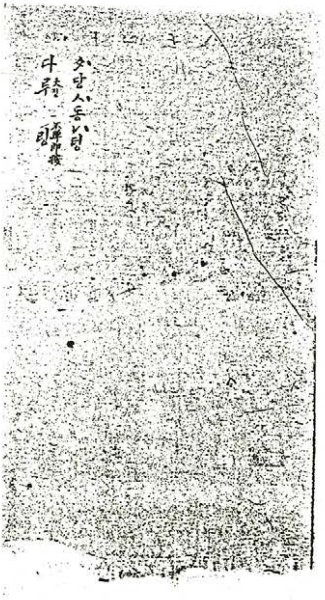
玄統5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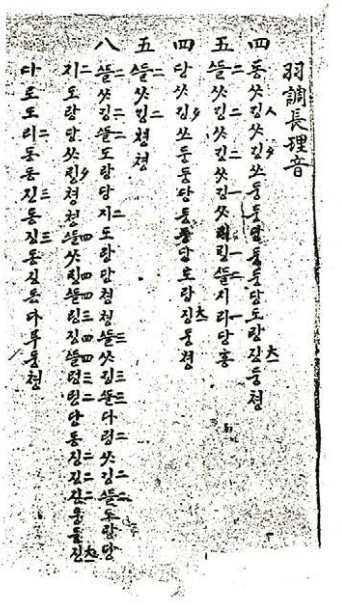
○音標每行分三行左行分絃之一二三四五六七八又分律呂左
行分左手指之一二三四

玄統6前



玄統6後





羽調長理音

四 동 ᄉᆞᆺ 깅 ᄉᆞᆺ 깅 ᄊᆞ 쏘 둥 둔 땅 둘 둔 당 도 랑 깅 둥 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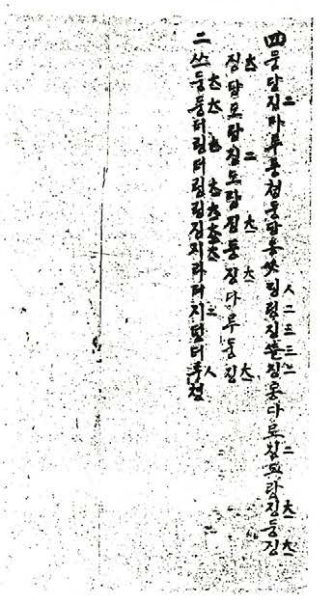
五 ᄉᆞᆯ ᄉᆞᆺ 깅 ᄉᆞᆺ 깅 ᄉᆞᆺ 깅 ᄉᆞᆺ 리 깅 ᄉᆞᆯ 시 라 당 홍

四 당 ᄉᆞᆺ 깅 ᄊᆞ 쏘 둔 둔 당 둘 뚤 달 도 랑 깅 둥 쳥

五 ᄉᆞᆯ ᄉᆞᆺ 깅 쳥 쳥

八 ᄉᆞᆯ ᄉᆞᆺ 깅 ᄉᆞᆯ 도 랑 당 지 도 랑 당 쳥 쳥 ᄉᆞᆯ ᄉᆞᆺ 깅 둔 다 렁 ᄉᆞᆺ 깅 ᄉᆞᆯ 도 랑 당 지 도 랑 당 ᄉᆞᆺ 깅 ᄊᆞ 쳥 쳥 ᄉᆞᆯ ᄉᆞᆺ 깅 ᄉᆞᆯ 렁 렁 당 동 깅 깅 쏜 둥 둘 깅

다 도 도 리 둔 둥 깅 둥 깅 옷 다 루 둥 쳥



四 뚱 달 깅 다 루 둥 쳥 둥 달 둘 ᄉᆞᆺ 렁 렁 깅 뚠 깅 옷 다 도 깅 도 랑 깅 둥 깅

깅 달 도 랑 깅 도 랑 깅 둘 깅 다 루 둥 깅

二 쏜 둘 둥 리 깅 리 깅 깅 깅 지 라 마 지 딸 리 둥 쳥

本靈山第一章

四 쏘렝ᄉᆞᄠᆞᆯ홍ᄃᆞᆫ下쏘렝ᄠᆞᆯᄉᆞᄃᆞᆫ짇ᄠᆞᆯ쏘렝ᄠᆞᆯᄉᆞᄃᆞᆫ도랑ᄠᆞᆯ길당ᄃᆞᆫ당ᄃᆞᆫ

당짇ᄠᆞᆯ짇ᄠᆞᆯ쏟길ᄠᆞᆯ홍당ᄃᆞᆫᄠᆞᆯ당짇ᄃᆞᆫ당짇ᄃᆞᆫ

第二章

四 짇짇홍짇짇ᄠᆞᆯ당짇짇ᄠᆞᆯ짇홍짇ᄠᆞᆯ짇ᄠᆞᆯ쏟길ᄠᆞᆯ홍당

上下ᄠᆞᆯ길ᄠᆞᆯ도랑짇ᄠᆞᆯ도랑짇ᄠᆞᆯ당ᄃᆞᆫ당ᄃᆞᆫ짇ᄠᆞᆯ짇ᄠᆞᆯ쏟길ᄠᆞᆯ홍

당ᄃᆞᆫᄠᆞᆯ당짇ᄃᆞᆫ당짇ᄃᆞᆫ

第三章

四 짇짇홍짇ᄠᆞᆯ당ᄃᆞᆫ당ᄃᆞᆫ당짇ᄠᆞᆯ짇ᄠᆞᆯ길ᄠᆞᆯ홍짇ᄠᆞᆯ짇ᄠᆞᆯ

길ᄠᆞᆯ홍짇ᄠᆞᆯ당ᄠᆞᆯ짇짇짇ᄠᆞᆯ당ᄃᆞᆫᄃᆞᆫ당짇ᄠᆞᆯ짇ᄠᆞᆯ길ᄠᆞᆯ홍

당ᄃᆞᆫᄠᆞᆯ당짇ᄃᆞᆫ당짇ᄃᆞᆫ

第四章

四 ᄃᆞᆫ당ᄃᆞᆫ당짇ᄠᆞᆯ짇ᄠᆞᆯ짇ᄠᆞᆯ홍ᄃᆞᆫ도랑ᄠᆞᆯ길ᄠᆞᆯ당짇ᄠᆞᆯ짇ᄠᆞᆯ당ᄠᆞᆯ

짇ᄠᆞᆯ짇ᄠᆞᆯ짇ᄠᆞᆯ홍당ᄃᆞᆫᄠᆞᆯ길당ᄃᆞᆫ도랑짇ᄃᆞᆫ도랑.

第五章

四 ᄃᆞᆫ당ᄃᆞᆫ당도랑ᄠᆞᆯ당ᄃᆞᆫᄃᆞᆫ당짇ᄃᆞᆫᄃᆞᆫ당짇ᄠᆞᆯ당ᄃᆞᆫᄃᆞᆫ당짇ᄠᆞᆯ당

ᄃᆞᆫ당짇ᄠᆞᆯ짇ᄠᆞᆯ길ᄠᆞᆯ홍당ᄃᆞᆫᄠᆞᆯ당짇홍당당ᄃᆞᆫ

中靈山第一章

七 ᄠᆞᆯ길ᄃᆞᆫ짇ᄃᆞᆫᄠᆞᆯ당ᄃᆞᆫ짇ᄃᆞᆫ당ᄃᆞᆫ홍당짇ᄃᆞᆫᄠᆞᆯ라ᄃᆞᆫ

짇ᄃᆞᆫ짇ᄃᆞᆫ당ᄃᆞᆫ짇ᄠᆞᆯ라ᄃᆞᆫ짇지ᄃᆞᆫ짇ᄠᆞᆯ당ᄃᆞᆫ라ᄃᆞᆫ

ᄃᆞᆫᄠᆞᆯ당ᄃᆞᆫ링ᄃᆞᆫ당ᄃᆞᆫᄠᆞᆯ

第二章

七 ᄃᆞᆫ짇ᄃᆞᆫᄃᆞᆫ당라링ᄃᆞᆫ도랑ᄃᆞᆫᄠᆞᆯ당ᄠᆞᆯᄃᆞᆫ짇라ᄃᆞᆫ짇ᄃᆞᆫᄃᆞᆫ

짇지ᄃᆞᆫᄠᆞᆯ라ᄃᆞᆫ지ᄃᆞᆫ짇ᄃᆞᆫ당ᄃᆞᆫ짇지ᄃᆞᆫ짇ᄠᆞᆯ당ᄃᆞᆫ라ᄃᆞᆫ도랑ᄃᆞᆫᄠᆞᆯ

당ᄃᆞᆫ링ᄃᆞᆫ당ᄃᆞᆫ홍당ᄠᆞᆯ

第三章

七 ᄠᆞᆯ링ᄠᆞᆯᄉᆞᄃᆞᆫᄃᆞᆫ라링ᄃᆞᆫ도랑ᄃᆞᆫᄠᆞᆯ링ᄃᆞᆫ당지랑ᄃᆞᆫ짇ᄃᆞᆫᄃᆞᆫ도랑ᄃᆞᆫ

ᄠᆞᆯ라ᄃᆞᆫ짇ᄃᆞᆫᄃᆞᆫ도랑ᄃᆞᆫ당ᄃᆞᆫ홍당ᄠᆞ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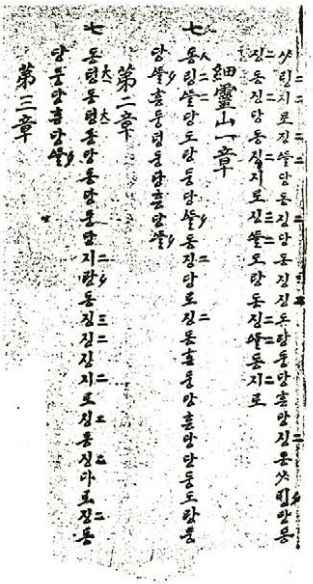
第四章

七 ᄃᆞᆫ짇라ᄃᆞᆫ짇ᄃᆞᆫ짇지ᄃᆞᆫ짇당ᄃᆞᆫ짇짇짇ᄠᆞᆯ짇짇ᄃᆞᆫ짇지ᄃᆞᆫ당

당ᄃᆞᆫ짇ᄃᆞᆫ짇ᄃᆞᆫ라ᄃᆞᆫ당ᄃᆞᆫ홍당ᄠᆞᆯ

第五章

玄琴1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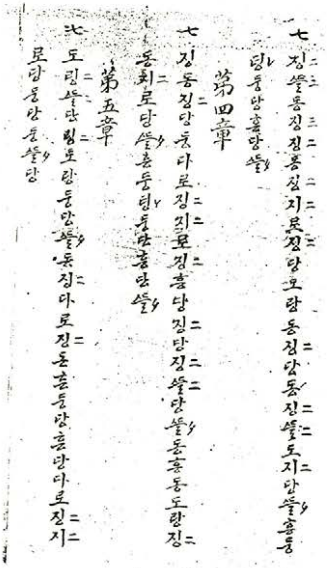


細靈山一章

第二章

第三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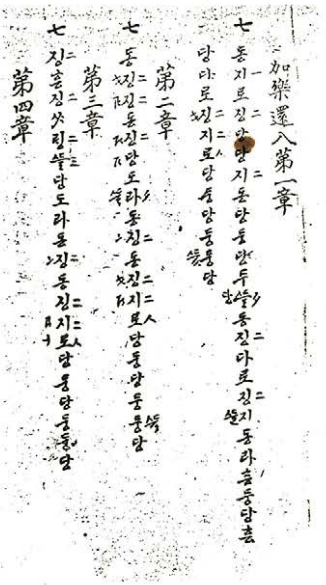
玄琴11後



第四章

第五章

玄琴1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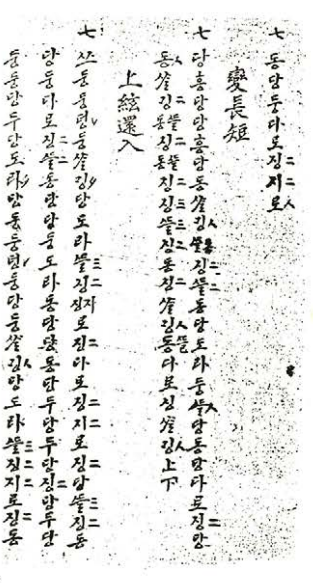
加樂還入第一章

第二章

第三章

第四章

玄琴12後



變長短

上絃還入

七 打令

變調

五 軍樂

第二章

第三章

五

變調二章連

七

五

界面如樂調

五

在下變調自此變九刻

變調

四

七

兩清還入

八

玄統19後

玄統1

羽調加樂調

七

八

玄統20後

玄統20前

吹打調

第一章

七

八

第二章

八

第三章

第四章

八

第五章

八

第六章

八 당동도라지당다동동아링당도링도라동지로장지로다로지
로다링당당동징동동당홍쌋링징징징쌋링쓸도라지로다링
당당동

第七章

八 동징동당다동징동당동다지다쌋링당동도라지로당아둥동
다링당다로다링당당동당동징도라동지로징징쓸

第八章

八 동징징도랑쌋링다로지로쓰랑동당동당지당동쌋링당동당
동다링도랑동당동당
동덩덩청七덩덩동덩덩덩동덩다덩다링당덩쌋링당쓸

本還入第一章

四 당덩쓸덩동덩동당동덩당덩동二홍징징징덩덩홍징징덩지
랑

第二章

四 홍동동동당덩동당지도라청동동당동당동동당두링당덩

동二홍징쓸징덩덩홍징징덩지랑

第三章

四 홍덩쓸덩동동홍징쓸동징동홍덩쓸덩동징홍동쓸동당
당홍동쓸동징동홍쓸덩동덩홍동쓸더랑쓸동당동당동당덩
덩당덩당동쌩징쓸징도라동당당징도라징당징당징당징당
덩당덩당동징동징동당덩덩당덩당덩동당두링당덩동二홍
징쓸징덩덩홍징쓸덩지랑

第四章

四 당지로당당동홍二징쓸지더철홍징쓸징쓸下四엉자두더
동동쓸징당동당동쌩징쓸징쓸징쌩징당동동당동장동징쓸철
동쌩징쓸당지로당도라쓸징철동

第五章

四 쌩징쓸당덩동동당덩당동징쌩징쓸동당동五쌩징징지징
지쌩징一징진당징당징지징지라四쌩징쓸당쓸동당덩당지도
라쓰덩쓸덩쓸동당덩동덩동덩쌩징쓸동지로징동동당당당
덩덩당덩동당지로당쓸덩동二홍징쓸지덩징홍징쓸징쓸덩
홍덩上下三당지로당쓸덩

第六章

四

七

第七章

細選入第一章

七

第二章

七

第三章

七

第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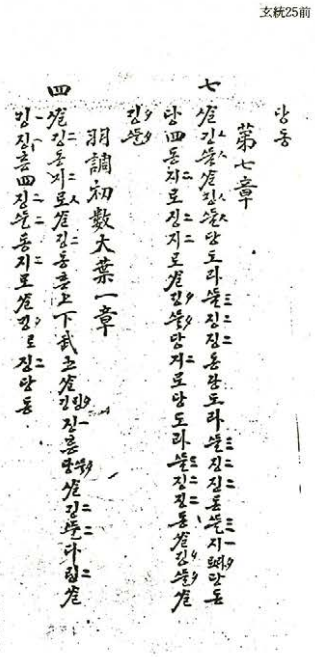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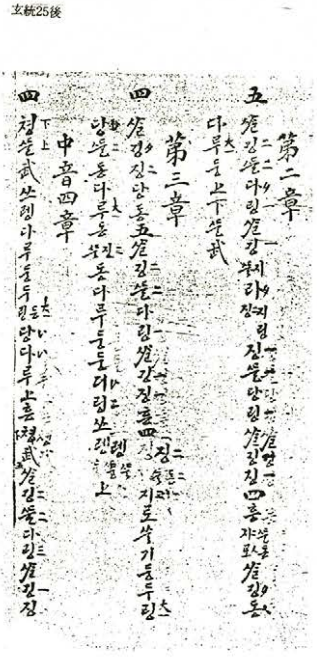
第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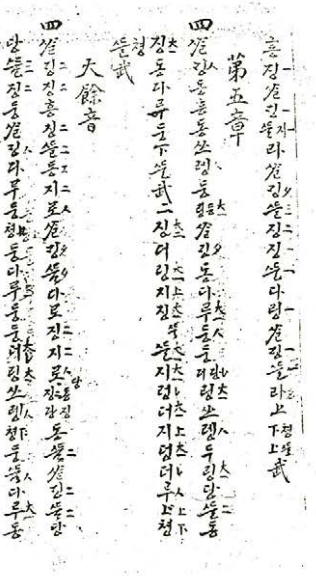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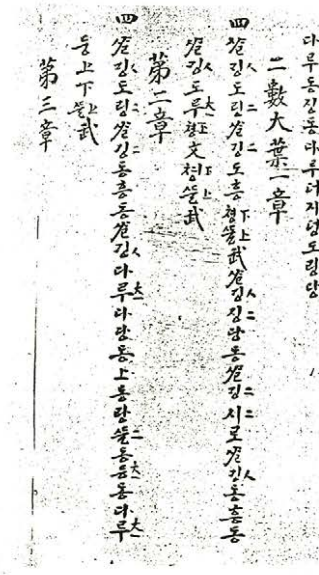
第六章

七









玄統27前

四 쏘렝 둥 링 쌀 징 다 루 쓸 도 링 쌀 징 동 흥 동 쌀 징 다 루 다 당 동 上 동
랑 쌀 징 쓸다 동루 둥 드 둥 다 루 둥 둥 더 링 쏘 렝 쓸 고

中音四章同

五 下 둥 당 지 동 다 루 둥 쓸 동 도 루 上 흥 下 쓸 武

第五章

四 쌀 징 동 홍 동 쌀 징 도 링 쌀 징 동 홍 동 쌀 징 다 루 다 쌍 동 고 도 랑 쓸
동 둥 동 다 루 둥 下 武 쓸 二 징 더 렁 上 쓸 쓸 지 랑 더 지 덩 더 루 上 文
下 上 쓸 武

玄統27後

中擧大葉音

四 쌀 징 둥 흥 五 당 五 쌀 징 쓸 다 렁 쌀 징 징 四 흥 징 쌀 징 다 링 쌀 징 징 홍
지 로 삿 링 다 루 둥 上 둥 다 루 둥 둥 더 링 쏘 렝 下 둥 둥 다 루 둥 당 당
동 다 루 더 지 덩 도 링 당

中擧平擧與二數大葉同　平擧大餘音

四 쌀 징 동 흥 五 당 五 쌀 징 쓸 다 렁 쌀 징 징 四 흥 징 쌀 링 징 下 동 징 도 링
쓸 징 동 쌀 징 다 루 둥 上 둥 다 루 둥 둥 더 링 쏘 렝 下 둥 둥 다 루 동 다
루 동 징 동 다 루 더 지 엉 도 링 당

玄統28前

頭擧大餘音

四 쌀 징 동 흥 동 쌀 링 동 下 징 동 다 루 둥 둥 다 루 동 다 루 동 징 도 링 쓸
징 동 쌀 징 징 동 다 루 랑 다 루 동 징 다 루 둥 둥 더 링 쏘 렝 下 둥 둥 다
루 동 다 루 동 징 동 다 루 더 지 덩 도 링 당

第一章

四 쌀 징 쓸 도 링 쌀 징 동 흥 청 쓸 武 쌀 징 징 당 동 쌀 징 쓸 로 쌀 징 도 링
쓸 징 동 쌀 징 도 루 上 흥 下 武

第二章

玄統28後

四 쌀 징 쓸 동 랑 쌀 징 동 홍 동 쌀 링 동 다 루 동 징 도 링 쓸 징 동 쌀 징 둥
동 다 루 둥 上 下 쓸 武

第三章

四 쏘 렝 두 링 쌀 징 다 루 쓸 도 랑 쌀 징 동 홍 동 쌀 링 동 다 루 동 징 도 링
쓸 징 동 쌀 징 다 루 둥 청 둥 다 루 둥 둥 더 링 쏘 렝 쓸 청 上

四 中音 청 下 둥 당 동 징 도 링 쓸 징 동 쌀 징 도 루 上 文 下 武

第五章

四 쌀 징 동 홍 동 쌀 징 동 링 쌀 징 동 홍 동 쌋 링 동 다 루 동 징 도 링 쓸 징

동 꼳 깅 뎡 동 다 루 동 청 下 뜯 武 二 깅 더 링 청 쳇 뜯 지 랑 더 지 뎡 더 루

청 홍 下 뜯 武

三數大葉 大餘音 三大餘音以初數大餘音用

五 꼳 링 깅 홍 당 꼳 깅 뜯 다 링 꼳 깅 깅 홍 깅 쏫 링 깅 下 七 깅 깅 동 꼳 동

당 청 下 四 꼳 깅 동 다 루 당 다 루 동 깅 다 루 동 동 더 링 쏫 링 下 동 동

다 루 동 다 루 동 깅 다 루 더 지 뎡 도 링 당

第一章

七 꼳 랑 뜯 깅 깅 도 링 당 당 당 깅 당 쏫 링 쏫 링 뜯 쏫 링 루 깅 깅 도 링 당

당 四 홍 동 꼳 깅 도 루 上 홍 下 루 武 四 도 링 뜯 깅 동 꼳 깅 도 루 上

文 下

第二章

四 꼳 깅 뜯 도 링 꼳 깅 동 홍 동 쏫 링 도 다 루 동 깅 도 링 뜯 깅 동 꼳 깅 뎡

동 다 루 동 上 下 뜯 武

第三章

四 쏫 렝 루 랑 꼳 깅 다 루 쏫 도 링 꼳 깅 동 홍 동 쏫 랑 동 다 루 동 깅 도 링

뜯 깅 동 쏫 링 동 下 八 꼳 링 당 다 로 깅 지 로 당 뜯 당 동 당 지 랑 뜯

홍 당

八 中音 쏫 링 뜯 당 동 깅 지 로 당 당 동 지 깅 지 라 깅 뜯 지 랑 당 깅 뜯

第四章

七 깅 깅 도 링 당 뜯 당 깅 깅 도 당 동 당 쏫 링 뜯 쏫 링 뜯 깅 깅 도 링 당 뜯

당 깅 깅 도 당 깅 당 下

、第五章

八 꼳 링 당 지 랑 꼳 깅 다 로 쏫 링 지 랑 뜯 깅 지 링 당 깅 지 링 당 당 동 지

깅 지 랑 깅 뜯 지 랑 당 七 깅 뜯 깅 깅 도 링 당 뜯 당 깅 깅 도 당 동 다 링

꼳 링 동 홍 동 쏫 링 동 下

二大餘音

七 쏫 렝 깅 당 뜯 깅 동 깅 깅 깅 도 링 당 뜯 당 깅 깅 도 당 당 당 당 깅 깅

동 뜯 동 당 下 四 꼳 깅 뜯 동 다 루 당 다 루 동 깅 다 루 동 동 더 링 쏫 렝

下 동 뜯 다 루 동 동 다 루 동 깅 동 다 루 더 지 뎡 도 링 당

猱龍耳大餘音

八 동 뜯 쏫 링 뜯 깅 당 동 깅 동 깅 도 랑 당 당 동 당 도 랑 당 동 깅 지 랑 지

랑 깅 뜯 지 랑 당 당 쏫 렝 동 동 당 뜯 동 깅 지 랑 지 랑 깅 뜯 지 랑 당 다 도

라 뜰징 징뜰

第一章

七 ᄊᆞᆯᆡᆫᆞᆯ징징도ᄅᆞᆯᆡᆫᆞᆯ징ᄃᆞᆼᆫᆞᆯᄊᆞᆯᆡᆫᆞᆯᄊᆞᆯᆡᆫᆞᆯᄃᆞᆼᆫᆞᆯᄌᆞᆼᆫᆞᆯᆡᆫᆞᆯᄃᆞᆼᆫᆞᆯ
징징도ᄃᆞᆼᆫᆞᆯᆡᆫᆞᆯᄃᆞᆼᆫᆞᆯᆡᆫᆞᆯᄃᆞᆼᆫᆞᆯ

第二章

七 징ᄃᆞᆼᆫᆞᆯᆡᆫᆞᆯᄌᆞᆼᆫᆞᆯᆡᆫᆞᆯᄌᆞᆼᆫᆞᆯᆡᆫᆞᆯᄊᆞᆯᆡᆫᆞᆯᄃᆞᆼᆫᆞᆯᆡᆫᆞᆯᄊᆞᆯᆡᆫᆞᆯᄃᆞᆼᆫ

第四章

七 [illegible]

第五章

四 [illegible]

文 [illegible] 武章

界面勒數大業第一章

四 [illegible] 下武七 [illegible]

第二章

七 [illegible]

第三章

四 [illegible]

四 中音四章

七 [illegible] 上 [illegible] 下武 二音同

第五章

四 [illegible]

文下 [illegible] 武

大餘音

四 [illegible]

[illegible]

二數大業一章 四音上同

四 [illegible] 下武

第二章

四 [illegible]

[illegible] 上文下武

第三章

四 쏘렝당꼳깆다루둥당꼳깆장흗징꼳깆다루둥둗뜰당꼳깆다루둥당징다루둥당쏘렝뚱上下

四 中흡당둗뜰꼳쌈징다루둥당꼳깆다리上文下武

第五章

四 꼳깆징흗징꼳깆쏴뢸징둥뜰당꼳깆다루둥다당징上지랑뜰징둥징다루둥下뜰武 뢸징두렝뜰三종개명데지렝다루上文下뜰武

大餘音

四 꼳깆뜰흗당다렝꼳깆징흗깆꼳깆다루깆둥뜰당꼳깆다루둥당징다루둥당쏘렝下둥뜰둥당다당꼳깆징다루둥둥

中擧平擧並二數大葉全 平擧大餘音

四 꼳깆당흗당꼳렝둥둥뜰다렝꼳깆징흗징쏘렝깆下징징당징다당깆뜰징당징지라깆다루둥뜰둥당다깆다당둥당두당뜰징징자당다리징뜰당다렝뜰징징둥징당

頭擧大餘音

四 꼳깆당흗당쏘렝둥둥뜰당렝꼳깆징흗뜰쏘렝깆징下징지라깆다루둥뜰둥당둥당지라뜰깆흗뜰당쏘렝깆징下징지라깆다루둥뜰둥당징당둥당징징뜰징다징꼳깆뜰다루둥뜰다렝당

頭擧一章 四章上全

四 꼳깆뜰징뜰꼳깆징다당둥뜰당징下꼳깆다루둥당꼳깆뜰다꼳깆뜰지렝징징당꼳깆지렝上文下武

第二章

四 꼳깆뜰징뜰꼳깆징흗징쏘렝깆다징꼳깆뜰다징둥뜰당꼳깆둥징다루둥上下뜰武

第三章

四 쏘렝당꼳깆다루둥당꼳깆징흗징쏘렝깆다렝꼳깆뜰다징둥뜰당꼳깆다루둥당징다루둥둥당쏘렝뚱上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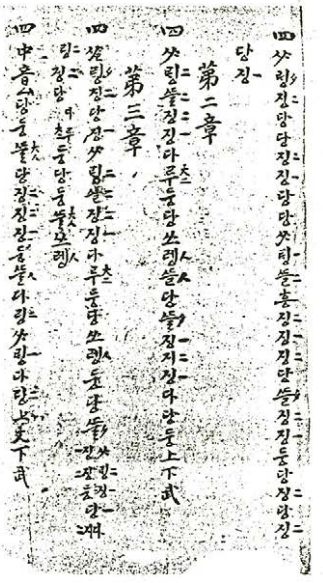
四 中흡당둥뜰당징뜰징다렝둥뜰당꼳깆다렝上文下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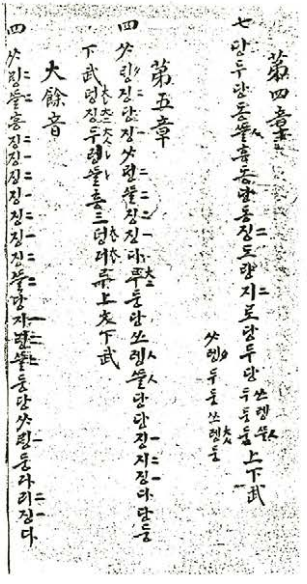
第五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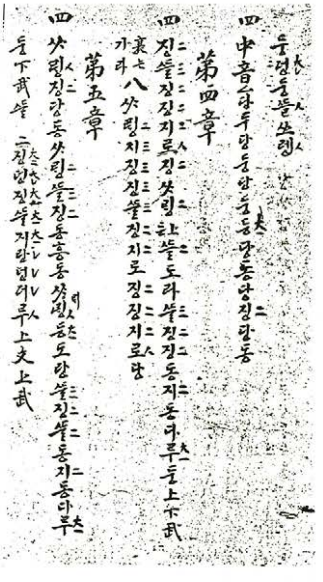
四 꼳깆징흗징꼳깆뜰꼳깆징흗징쏘렝깆당징꼳깆뜰당징

大餘音　界驟蛮伊通用

七 ᄊᆞᆷᄅᆞᆫᄀᆞᆯᄒᆞᆫᄀᆞᆯᄒᆞᆫᄀᆞᆯᄒ







大餘音

四 ᄉᆞᆯᄅᆡᆫᄉᆞᆯᄒᆞᆫᄌᆡᆫᄉᆞᆯᄌᆡᆫᄃᆞᆫᄌᆡᆫᄅᆞᆫᄃᆞᆫᄅᆞᆫᄉᆞᆯᄌᆡᆫᄃᆞᆫᄌᆡᆫᄃᆞᆫᄌᆡᆫᄃᆞᆫᄃᆞᆫᄃᆞ

리당뜰홍동ᄊᆡᆼ도루ᄯᆞᆺ上文下武

第二章

七 징징도리당ᄯᆞᆯ홍 四 징ᄊᆡᆼᄯᆞᆯ도라뜰징징동지동다루ᄯᆞᆺ두上下上武

第三章

五 ᄊᆡᆼ징당뜰ᄊᆡᆼ뜰다링ᄊᆡᆼ리징홍 四뜰ᄊᆡᆼ뜰ᄊᆡᆼ동당뜰ᄊᆡᆼ징당뜰징징당동단두뜰ᄊᆡᆼ동뜰

四 中音四五후다동뜰당징뜰징다루동뜰ᄯᆞᆺ당ᄯᆞᆼ긴다링四五후與十樂 上文下武

七 界驟奪伊一章

ᄊᆡᆼ뜰징징도랑당동ᄊᆡᆼ뜰징징도라징도랑뜰당동다로징다로징홍징ᄊᆡᆼ당징뜰四징징도운징도랑당홍당지라

第二章

七 지로징징홍징ᄊᆡᆼ당징뜰四징징도운징도랑당홍당지라

第三章

七 뜰징도랑당동뜰징도랑다로징다로징다로지로징징도랑당동다링동뜰홍

七 中음당지라동뜰징도랑다로징다로징다로 七四후二운全

第五章

四 징도링당동뜰징도랑다로징다로지로징지링징도

랑당동下동동징동징당동동징동동ᄊᆡᆼ下

七 ᄊᆡᆼ뜰四징징동징징징징징징당당동지로동다로당당동동징징동징도라징징동동징징동동징징동지링징징

大餘音

還界樂三章 今始音初二章同樂二章同四五후界樂四五후同

四 ᄊᆡᆼ동홍동동ᄊᆡᆼ뜰도링ᄯᆞᆼ징동홍동ᄊᆡᆼ당뜰ᄯᆞᆼ렝ᄯᆞᆺ당당징징징동동당징당당동동당동

四 中音당동동뜰당징징동뜰다링ᄊᆡᆼ다링上文下武

還界樂三章 今始音

四 ᄊᆡᆼ다로지로ᄊᆡᆼ당동다로지로당당동당당징징징뜰지로

당다로지로ᄊᆡᆼ동辨ᄊᆡᆼ동지동다루ᄯᆞᆺ뜰당지ᄂᆞ ᄯᆞᆼ렝동당당

界大餘音隨聲叅 中舉大餘音

四 ᄊᆡᆼ당홍뜰ᄊᆡᆼ동동뜰다링ᄯᆞᆼ징홍ᄯᆞᆼ당다루동동당ᄯᆞᆼ징동뜰下징지라징다루동뜰ᄯᆞᆺ당ᄯᆞᆼ렝下동동당당두당징다당징징당징다루동뜰다링당

平舉大餘音

四 ᄊᆡᆼ당홍뜰ᄊᆡᆼ동동뜰다링ᄯᆞᆼ징홍뜰ᄊᆡᆼ下ᄯᆞᆼ징지라뜰징동뜰다링ᄊᆡᆼ下징ᄊᆡᆼ지라징다루동뜰ᄯᆞᆺ당ᄯᆞᆼ렝下동당두당징다루동동다링당

頭舉大餘音

四 [illegible]

編二大餘音

四 [illegible]

四 [illegible]

三數第二大餘音

七 [illegible]

四 [illegible]

四 [illegible]

四 [illegible]

四 [illegible]

平調第三大餘音

四 [illegible]

太平歌一章 二三四五中音頭舉同

四 [illegible]

四 [illegible]

界中舉隨聲 女唱

四 [illegible]

四 [illegible]

第二章

四 [illegible]

第三章

四 [illegible]

編樂三章 隨聲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鳳凰吟 編樂三章

四 [illegible]

平調二章 [illegible] 女唱 正

七 ᄊᆞᆼᆞᆫᄉᆞᆫᄃᆞᆫᄅᆞᆫᄃᆞᆫᄅᆞᆫᄃᆞᆫᄅ

림을 정읍

羽樂 李仙男唱三章 正

四 정랑다로지로 ᄭᆞᆺ림랑동정흔지로 ᄭᆞᆺ림동ᄭᆞᆺ림정랑동정쓴정지지로정ᄭᆞᆺ림지로ᄭᆞᆺ림다로지로ᄭᆞᆺ림랑동정흔정ᄭᆞᆺ림쓴 쇠ᄭᆞᆺ림정흔지로ᄭᆞᆺ림동.

四 ᄭᆞᆺ림쇠ᄭᆞᆺ림정흔지로ᄭᆞᆺ림동ᄭᆞᆺ림다로지로ᄭᆞᆺ림동ᄭᆞᆺ림정흔정쓴 正

李仙五章 淮陽金城

第三章

四 정랑다로지로ᄭᆞᆺ림동쇠ᄭᆞᆺ림정흔지로ᄭᆞᆺ림동ᄭᆞᆺ림정흔정쓴 쇠ᄭᆞᆺ림지로ᄭᆞᆺ림다로지로랑동ᄭᆞᆺ림정흔지로ᄭᆞᆺ림동ᄭᆞᆺ림정흔정ᄭᆞᆺ림지로랑정랑동

정쓴정지정지로정ᄭᆞᆺ림쓴ᄭᆞᆺ림정흔지로랑동ᄭᆞᆺ림다로지로랑동쇠ᄭᆞᆺ림정흔정ᄭᆞᆺ림랑동

第五章

ᄭᆞᆺ림정랑동ᄭᆞᆺ림지로정흔정ᄭᆞᆺ림동쇠ᄭᆞᆺ림정흔지로랑동

界初數大葉三章 青石嶺

四 ᄭᆞᆺ림정지라지림정랑지로ᄭᆞᆺ림랑흔동랑동랑쓰렝동동

第五章

四 ᄭᆞᆺ림지정정ᄭᆞᆺ림랑동랑정흔정ᄭᆞᆺ림다로지로랑동랑흔정ᄭᆞᆺ림지로랑동

編三章 瑞色은 領國名山男唱

七 동정흔랑동동흔랑동 七정쓴동랑동동지동랑동

羽中擧一章 女唱

界二數大葉 女唱五章

四 ᄭᆞᆺ림다루동랑쓰렝동랑두랑정쓴정랑동쓴랑ᄭᆞᆺ림정흔정다루동下武以下上同

界中擧 든ᄂᆞᆫ것 女唱山村四山

七 ᄭᆞᆺ림쓴다림ᄭᆞᆺ림 四 ᄭᆞᆺ림동랑ᄭᆞᆺ림정흔정ᄭᆞᆺ림지림ᄭᆞᆺ림 四 ᄭᆞᆺ림동랑ᄭᆞᆺ림정흔정ᄭᆞᆺ림지림ᄭᆞᆺ림 七 ᄭᆞᆺ림쓴다림ᄭᆞᆺ림

第二章 든ᄂᆞᆫ것

七 ᄭᆞᆺ림쓴다림ᄭᆞᆺ림정다루동 四 ᄭᆞᆺ림다정랑동쓴랑ᄭᆞᆺ림정다루동上下武

界中擧二章 女唱 든ᄂᆞᆫ것 두구ᄂᆞᆫ武

七 ᄭᆞᆺ림다림ᄭᆞᆺ림다로정ᄭᆞᆺ림랑 四 ᄭᆞᆺ림上정두랑ᄭᆞᆺ림정다루동上下武

四 平ᄎᆞᆫ平刻 ᄭᆞᆺ림정동정ᄭᆞᆺ림랑

羽樂全一刻 ᄭᆞᆺ림정쓴ᄭᆞᆺ림랑흔정ᄭᆞᆺ림랑

四 랑정동지동동정흔정ᄭᆞᆺ림동랑지동정동지동동上 全쓴정

玄統57前

지라짐믇도라둔ᄉᆞᆫ다로짐지로짐만동

第五章

七 ᄉᆞᆯᆷᄃᆞᆯ라짐만ᄆᆞᆯ동짐ᄃᆞᆯ동동다로짐지로짐만동동동짐ᄉᆞᆯ도라지로ᄊᆞ링ᄃᆞᆫ만동ᄃᆞᆫᄃᆞᆫ짐동ᄒᆞᆫ롱짐짐ᄉᆞᆯ동동다로짐ᄉᆞᆯ도라둔ᄉᆞᆫ다링ᄊᆞ링ᄉᆞᆫ동동ᄊᆞ링ᄉᆞᆫ동下

四 ᄃᆡᆼᄃᆡᆼᄃᆞᆫᄊᆞ링ᄊᆞ링로짐동동만만동동동ᄉᆞᆫ거루짐ᄉᆞᆯ두ᄃᆡᆼ

別界三葉猿頭

ᄊᆞ링ᄉᆞᆫ두ᄉᆞᆫ上홍下武

界鵞奪伊一章

七 만만동ᄊᆞ링ᄊᆞ링ᄉᆞᆯ짐짐짐짐지ᄀᆞᆼᄌᆞᆯ도라둔ᄉᆞᆫ다로짐지로

玄統57後

짐만동다로짐만동 大餘音通用

第二章

七 짐동짐짐ᄉᆞᆯ짐동짐ᄊᆞ링짐동ᄊᆞ링ᄊᆞ링ᄉᆞᆯ짐짐짐짐지만짐ᄉᆞᆯ

도만동ᄃᆞᆫᄉᆞᆫ만홍만ᄊᆞ링동

第三章

七 짐ᄉᆞᆯ짐짐ᄉᆞᆯ도라둔ᄉᆞᆫ만동짐ᄉᆞᆯ짐도라둔만ᄉᆞᆯ만동만동다로짐

짐ᄉᆞᆯ짐동만동도라둔ᄉᆞᆫ만동짐ᄉᆞᆯ짐도라둔만ᄉᆞᆯ만동만동다로짐

七 中홍도링동짐짐ᄉᆞᆯ짐지로짐만동다로짐만동 二四章同

第五章

七 짐ᄆᆞᆯ짐도만동만동짐ᄉᆞᆯ짐도라둔만ᄆᆞᆯ동동ᄉᆞᆯᄉᆞᆯ도라지로ᄊᆞ링

玄統58前

둔만동둔둔짐홍홍동짐짐ᄉᆞᆯ동동다로짐짐ᄉᆞᆯ도라둔ᄉᆞᆫ다링ᄊᆞ

링ᄉᆞᆫ동홍동ᄊᆞ링ᄉᆞᆫ동下

言樂二章 白鶴之調

四 ᄊᆞ링ᄉᆞᆫ만동짐ᄉᆞᆯ짐지짐ᄊᆞ링동짐ᄉᆞᆯ짐ᄉᆞᆯ

第三章

四 ᄊᆞ링다로ᄊᆞ링동ᄊᆞ링ᄉᆞᆫ짐홍짐ᄊᆞ짐ᄉᆞᆯᄉᆞᆯᄊᆞ링ᄉᆞᆫ짐홍짐ᄊᆞ링동

짐지로짐동만동ᄊᆞ링ᄉᆞᆫ만동ᄊᆞ링지로ᄊᆞ링ᄉᆞᆫ홍동ᄊᆞ링ᄉᆞᆫ만동

第五章

四 ᄊᆞ링ᄉᆞᆫ쫘짐홍짐ᄊᆞ링ᄉᆞᆫ만동ᄊᆞ링ᄉᆞᆫ만동짐ᄉᆞᆯ짐지짐지로짐ᄊᆞ링

ᄉᆞᆯ

玄統58後

四 ᄊᆞ링다로지로ᄊᆞ링만동짐홍짐ᄊᆞ링동ᄊᆞ링만동만동짐ᄉᆞᆯ짐지라짐다ᄅᆞᆫ둔만

아홍아홍며은

第三章

四 동ᄊᆞ링짐홍짐ᄊᆞ링ᄉᆞᆯ지로ᄊᆞ링다로지로ᄊᆞ링동ᄊᆞ링짐홍짐

ᄊᆞ링지로쫘ᄊᆞ링동홍동ᄊᆞ링만둔

界初數大葉三章 中腔

四 ᄊᆞ렌ᄉᆞᆫ두링만ᄉᆞᆯ짐만짐지라짐다ᄅᆞᆫ둔만

諸長數大餘音

四 ᄉᆞᆯᆷᄃᆞᆯ짐홍짐지링ᄊᆞᆯᄃᆞᆯ홍만짐라지링ᄊᆞᆯᄃᆞᆯᄉᆞᆯᄉᆞᆯ만짐ᄉᆞᆯ짐

만짐ᄉᆞᆯ만짐다ᄅᆞᆫ둔ᄉᆞᆫ만짐짐라만둔만만짐짐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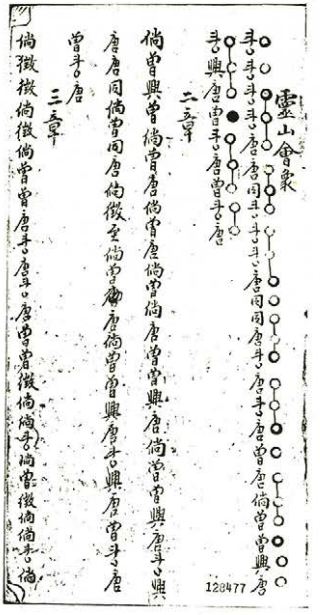
七 第四章

ᄉᆞᆯᄒᆡᆫᄉᆞᆯᄒᆡᆫᄃᆞᆯᄒᆡᆫᄉᆞᆯᄒᆡᆫᄀᆞᆺᄉᆞᆫᄃᆞᆫᄃᆞᆫ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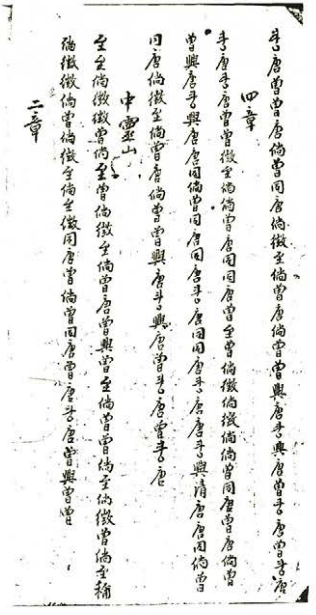
靈山會象

780.951
영산회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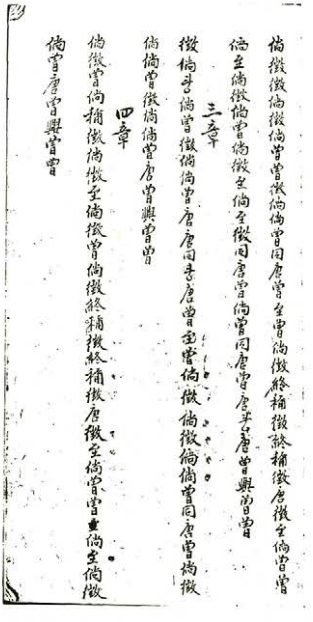
延靈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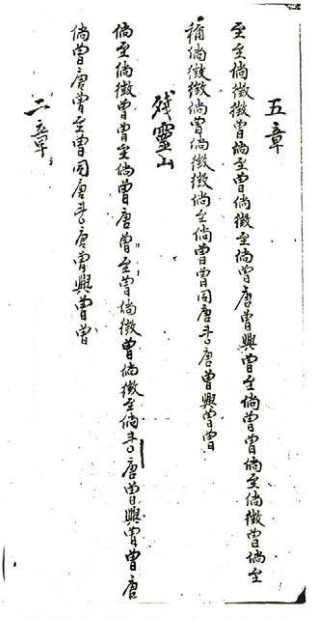
延靈1後



延靈2前



延靈2後



倘至同倘同倘同倘同倘同倘曾至曾倘稱徵至至倘徵倘徵曾曾倘徵倘
曾唐曾興曾曾
三章
至至倘稱徵倘徵倘徵曾唐曾唐至曾倘徵徵倘至倘曾曾同唐寺唐曾
興曾曾
四章
至倘徵曾唐曾倘徵至曾倘曾興曾至曾曾至曾倘寺倘倘曾徵倘至倘

曾曾同唐寺唐曾興曾曾
加樂道頭里
倘至倘曾徵曾至倘曾唐曾至曾倘徵曾倘徵至倘寺唐曾興曾曾倘
徵至倘曾唐曾唐同唐曾
二章
倘曾徵倘徵曾倘曾倘徵倘徵至倘曾唐曾唐同唐曾
三章

至倘徵徵稱徵倘曾倘徵倘徵至倘唐曾唐曾唐同唐曾
四章
倘曾唐曾倘徵至倘曾興曾曾興曾倘寺倘倘徵至倘曾曾唐曾倘
曾曾倘徵曾唐倘徵倘徵終稱徵倘徵徵唐倘曾倘徵徵唐倘寺興
上絃道頭里
曾興曾倘至倘徵曾曾倘稱徵至倘徵曾倘稱徵倘徵曾倘徵倘曾唐
曾倘徵至倘曾曾唐倘曾倘曾曾

二章
倘曾唐曾唐曾倘曾唐曾唐曾唐曾徵倘曾同唐寺唐倘同唐
三章
倘至曾倘稱徵至倘徵倘徵至倘徵至倘至曾倘曾唐曾曾唐
唐曾徵倘至倘曾唐曾興曾
四章
倘稱徵至至倘徵徵曾倘徵倘曾倘徵至倘曾曾唐唐曾倘曾曾
倘徵曾唐倘徵倘徵倘徵終稱徵倘徵徵唐倘曾倘徵徵唐倘寺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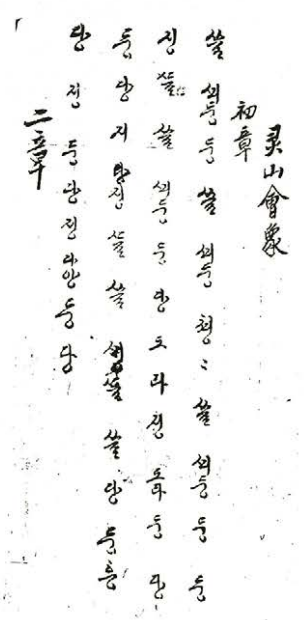
下經道經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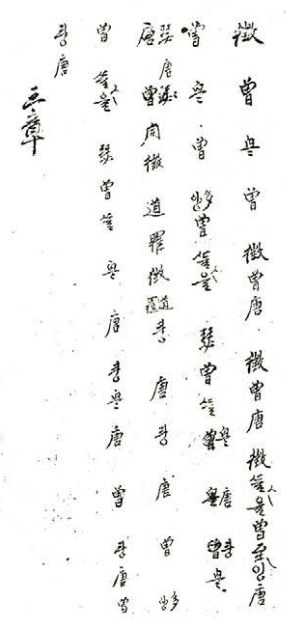
二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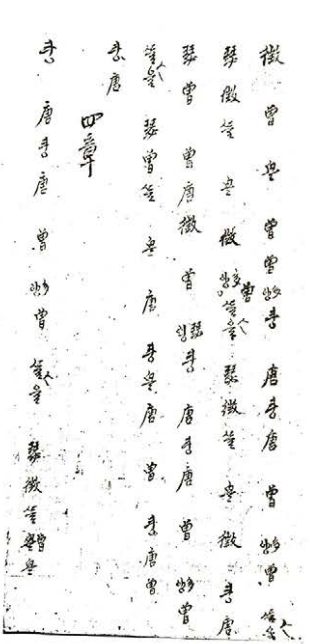
三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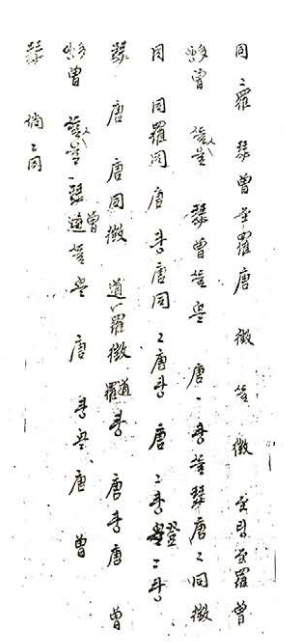
四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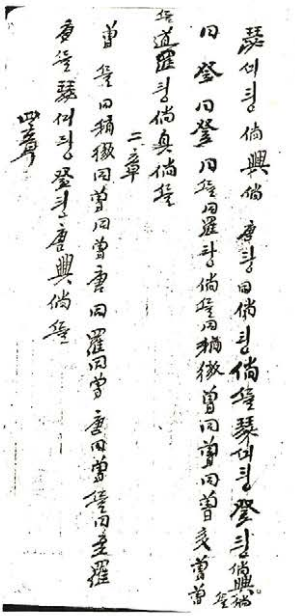
念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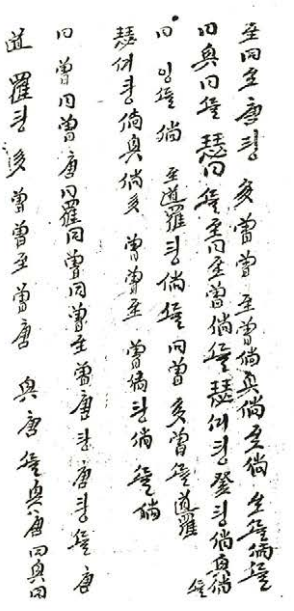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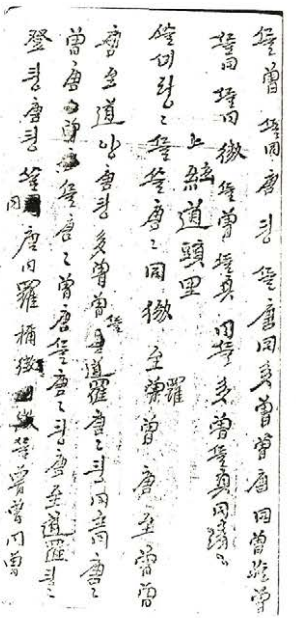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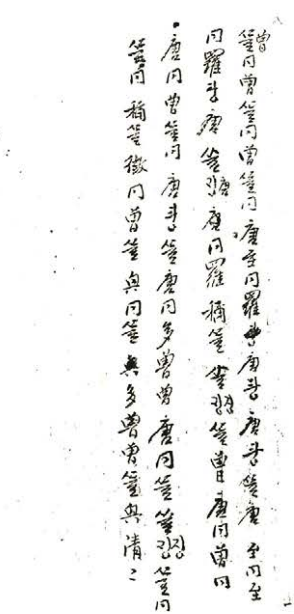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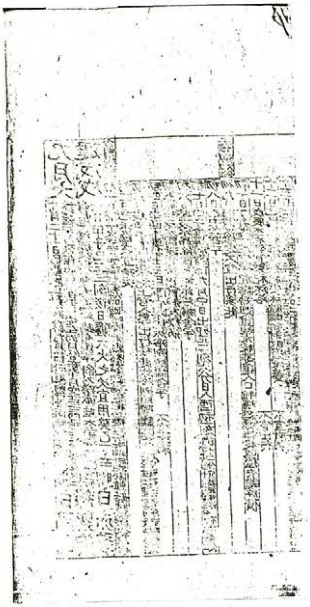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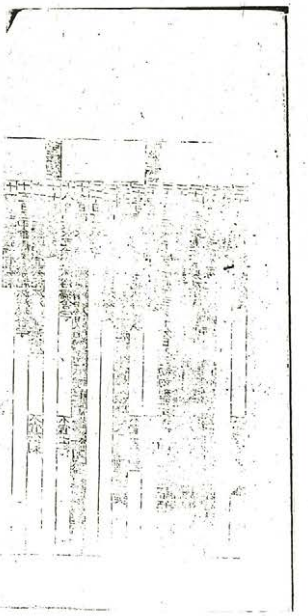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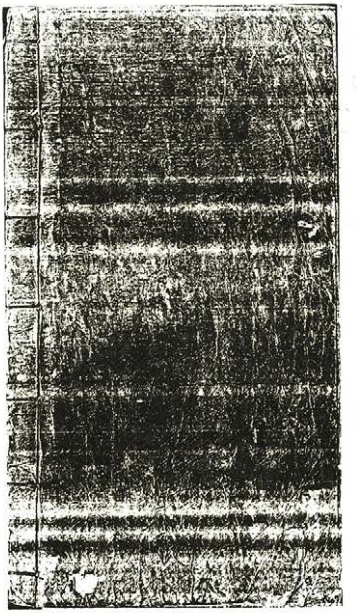


延靈1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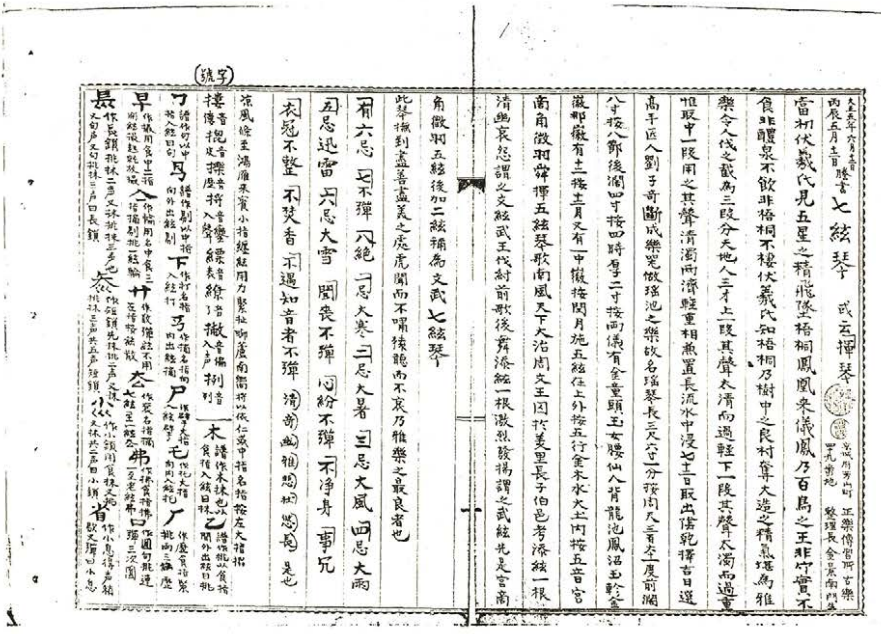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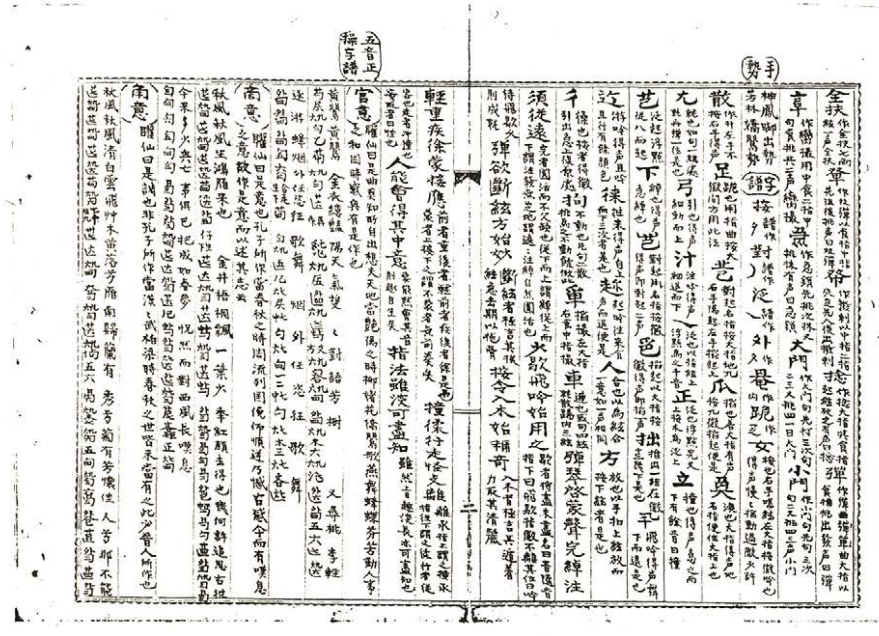
延靈13前





詩韻合璧





念慨古慨古考歎人生古往今來會水離多素 老何歎人生能幾何
世蕾蕾蕾

五音

宮 喉音土君 如牛声　商 齒音金臣 如羊声　角 牙音木民 如雞声

羽 中黃 始發声　倘 西方音上声 秋義　徵 東方青色 春仁

徵 舌音火事 如猪声　羽 唇音水物 如馬声

宮 南方赤色 夏禮　清 北方黑色 音下声 冬智

音律

陽 黃鐘 子月 生林鐘 丑月 冬 太簇 寅月 生南呂 卯月 春 姑洗 辰月 生應鐘 巳月 夏

蕤賓 午月 生大呂 未月 夏 夷則 申月 生夾鐘 酉月 秋 無射 戌月 生仲呂 亥月 冬

六律

陰 大呂 丑月 生夷則 子月 冬 夾鐘 寅月 生無射 卯月 春 仲呂 辰月 生黃鐘 巳月 夏

林鐘 未月 生太簇 寅月 夏 南呂 酉月 生姑洗 辰月 秋 應鐘 亥月 生蕤賓 午月 冬

六呂

三品標 即指標 左右分外也

上標 中 右絃之云也　平標 下 外絃之云也　去標 上 左絃之云也

平声 哀以安 上声 厲以舉 去声 清以遠 入声 直以促 似其音而語短 遲也

西琴 洋琴 凡例

此琴異於玄琴雖無原方毋論異声 雖其音只要叶律而已也

一面裝分陰陽 一裝各六孔 陽律六 陰律六

一三品分排象三才 一二絃四線合四序 一十二絃應十二時

後加二絃即變宮變徵 絃俱十二無後十二律四清声之相生分明

仲呂當生清 黃鐘而振益之数有差故以蕤賓半律為演

平調下声 從稱徵動倘 音與 此比平下声 徵同唐音尋與 蹺清 此比界面中声

春鶯 平調去声 稱徵 至倘 徵同唐音尋與 此比去声上 即 唐從稱徵動倘同唐之徵倘 此比界面中声 動 至尋 此比去声上

笙簧 安鍋氏作 製造法次右

有六音 洋琴

一 竹 管音 ㄧ 倘 層 六字

一 竹 音 累 寻 一字

十六竹 音 盧 唐 徵 清 五字

二竹 音 羅 澄 從 與 二字

四竹 音 芮 稱 聽 同 三字

七竹 音 芮 稱 聽 同 三字

十二竹 音 里 至 蹺 動 四字

俗樂 一五 三 三孔上下声 又謂子母声

凡按 五字必按 二字 三字 與 二 三 六字 與 三 六字 與三謂 提声 四字 筆声 右按長一字 左長按六字

聲短 右長 左毋二字 右毋二 并關声中 左長一 右毋六 上同 左長六 右長五 并關声中 左毋 二 上同 左長二 左毋六、

声短 左右毋指按二字声長 左長 左大 右毋右六 声長 左長三 右毋六 声短

凡俗樂琴笙諸声與歌声相和三章則歌唱者少休樂奏餘声以間之

謂之中念 四五章與歌曲相和五章畢歌者又止樂奏餘声以終之謂

大念 大鐘 音 靈山會像一調與民樂一調步虛詞與琴笛相和者也

玄琴 絃聲

文絃 黃鐘声　掛下清 林鐘声　武絃 林鐘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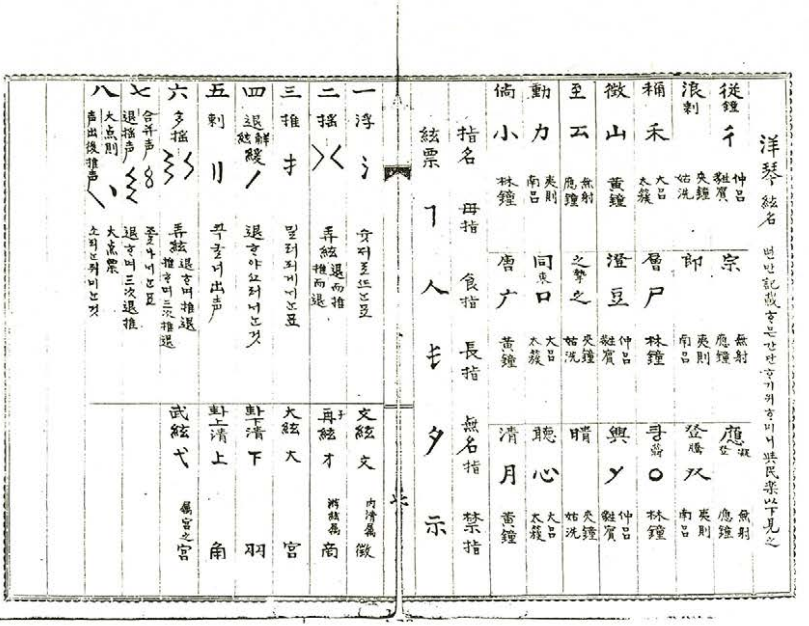
大絃 自二掛 黃鐘 太呂 姑洗 夾鐘 仲呂 蕤賓 林鐘 夷則 南呂 應鐘 黃鐘

再絃 上同 林鐘 夷則 無射 南呂 應鐘 黃鐘 大呂 太簇 夾鐘 仲呂 蕤賓 林鐘

掛上清 自限掛 林鐘 上金 上金 上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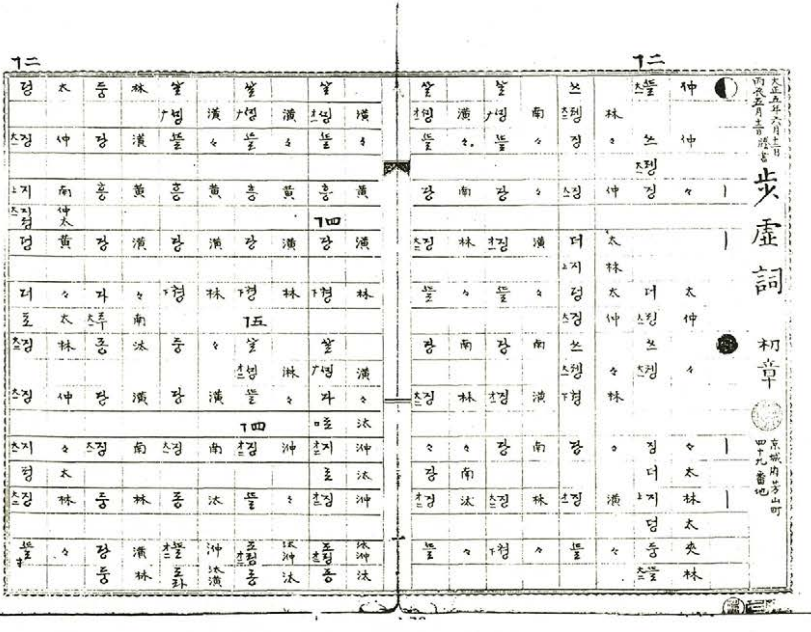
芳山7後

芳山7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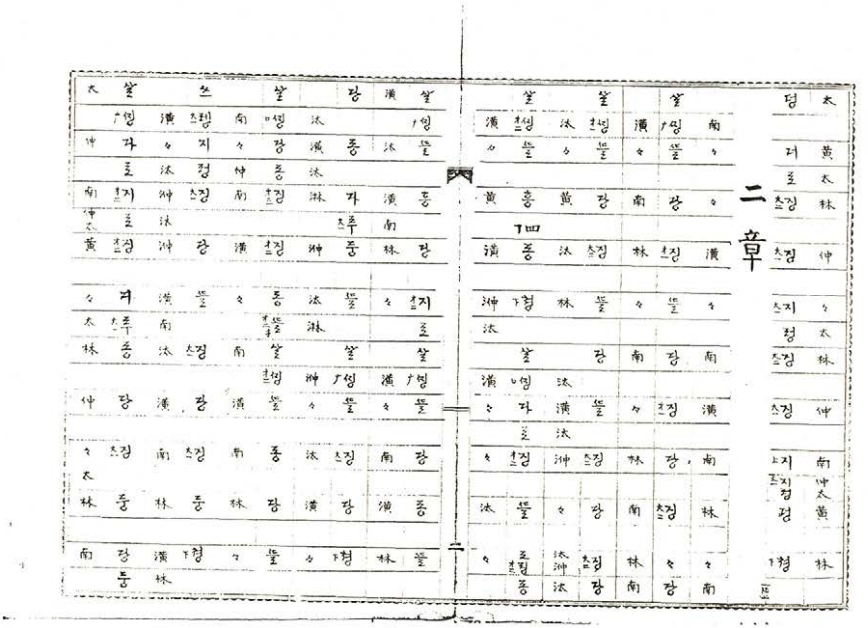


芳山8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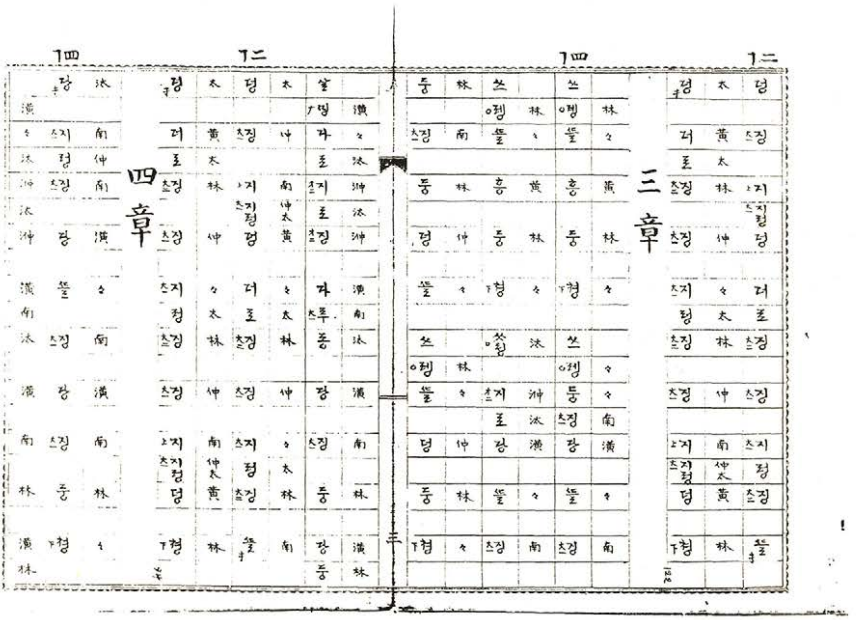
芳山8前



芳山9後　　芳山9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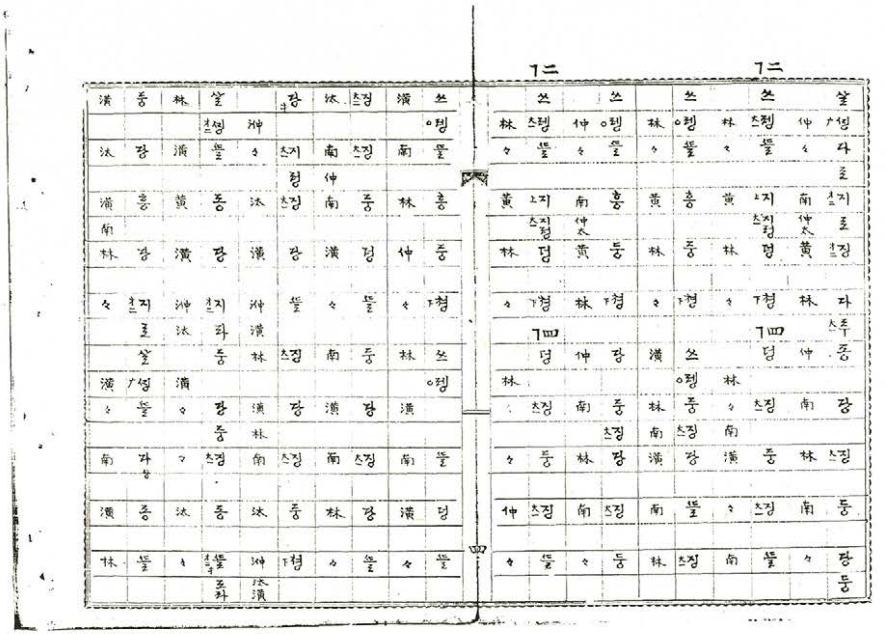


芳山10後　　芳山10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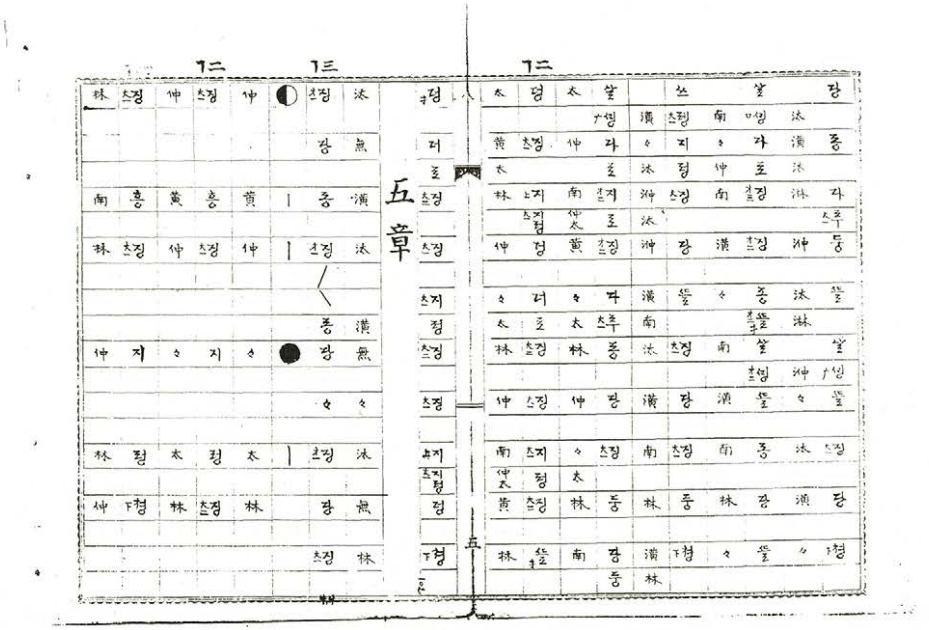
芳山11後

芳山1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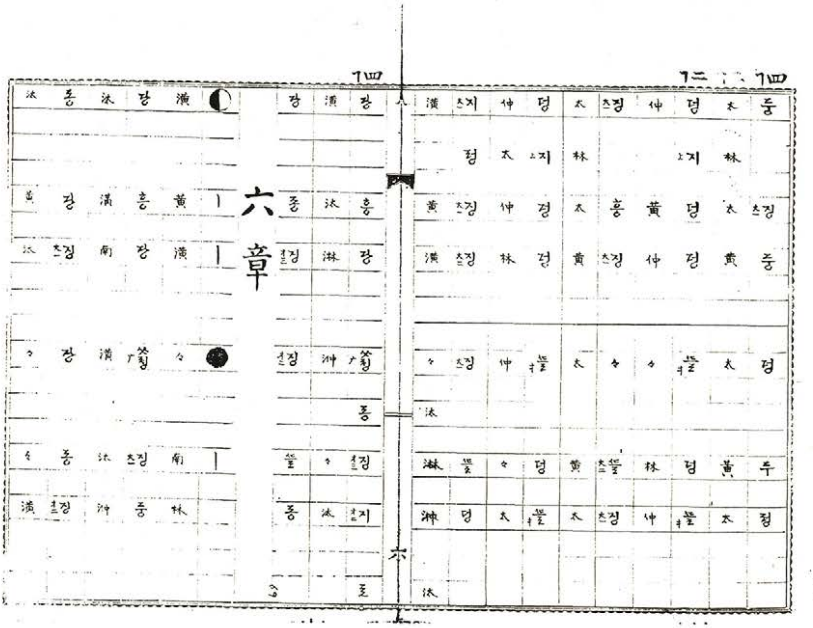
芳山12後

芳山1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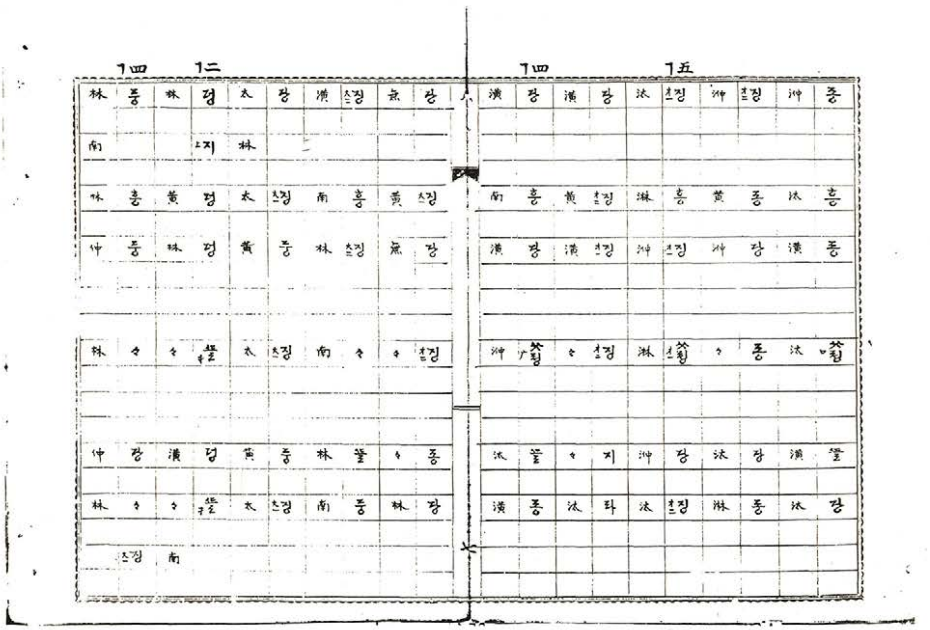
芳山13後

芳山1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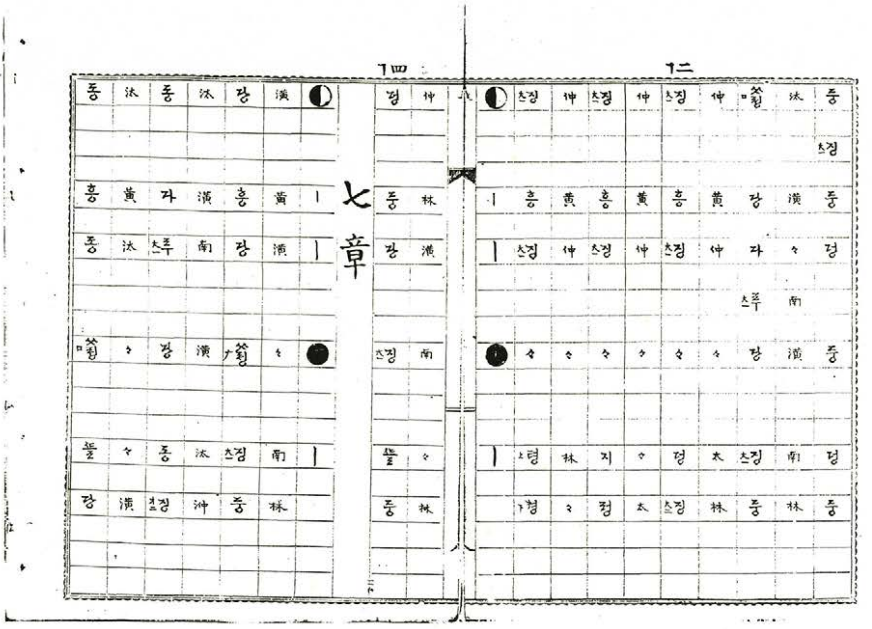
芳山14後

芳山1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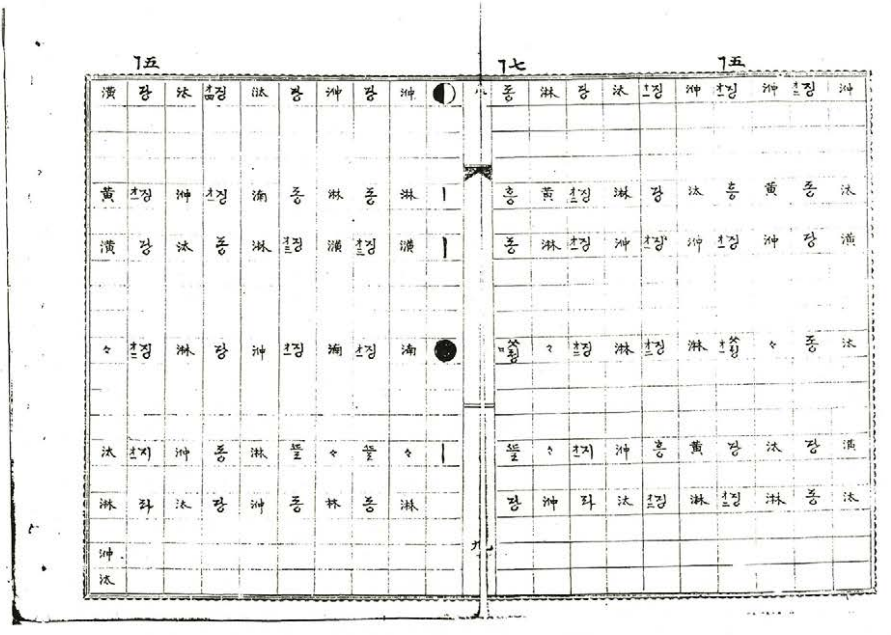
芳山15後

芳山1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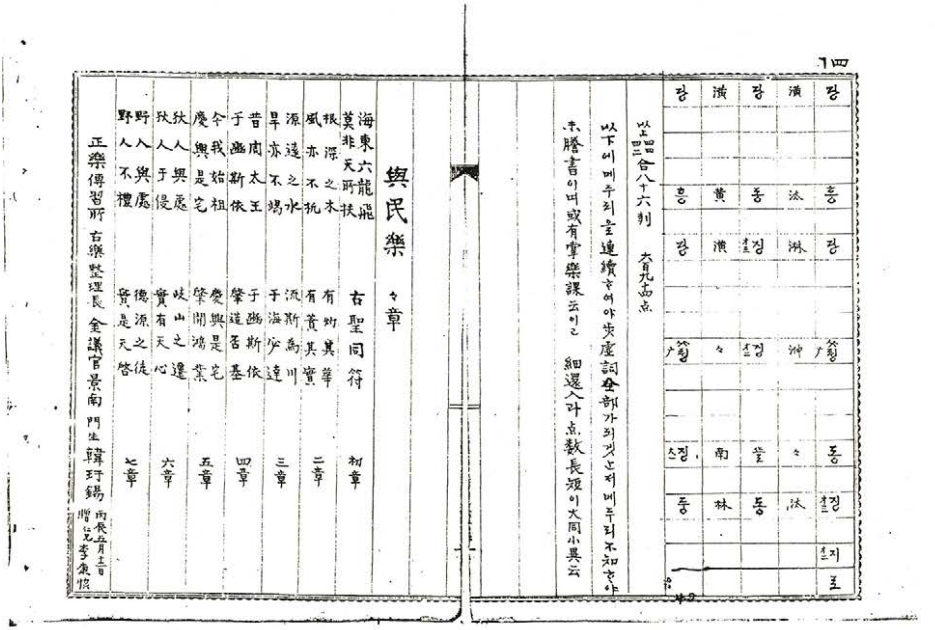
芳山16後

芳山16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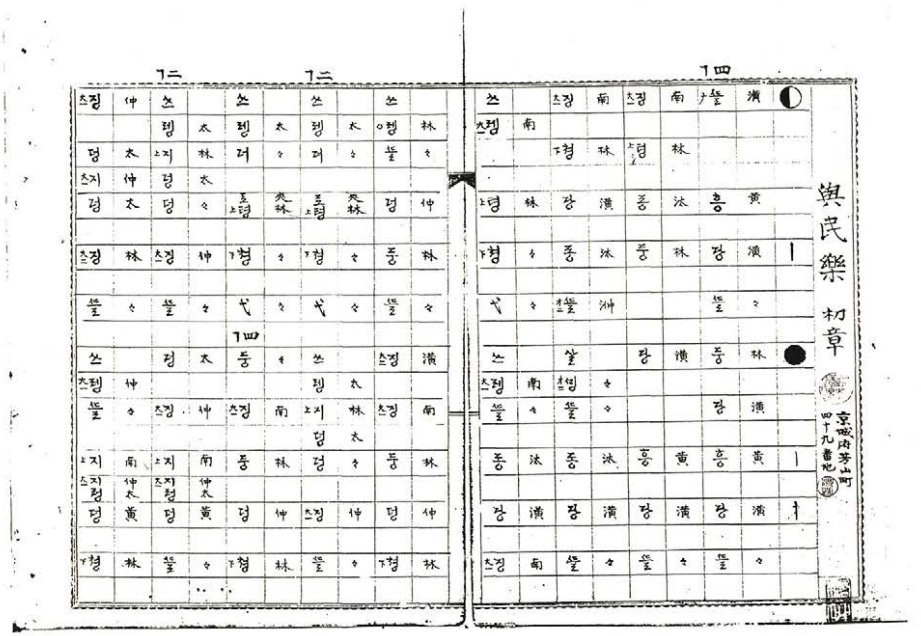
芳山17後

芳山17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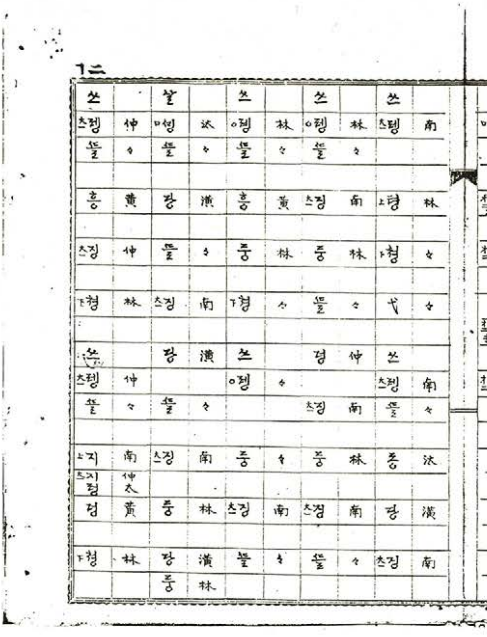


芳山18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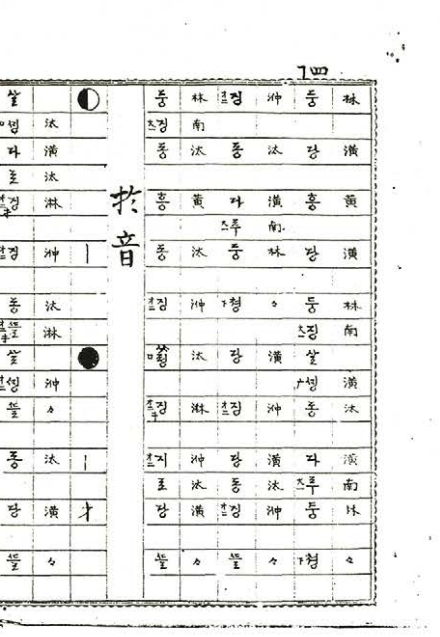
芳山18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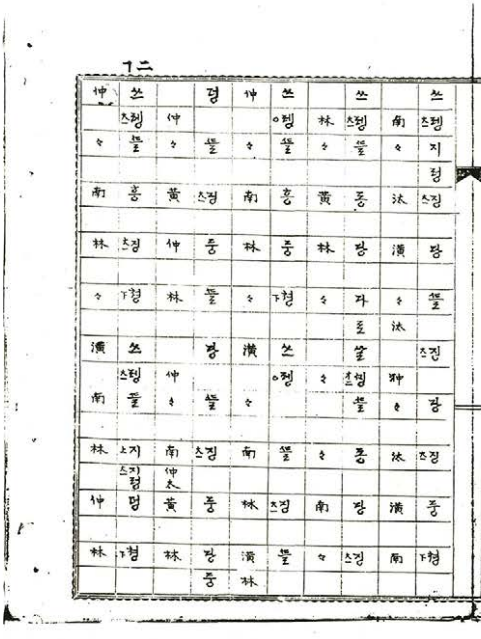
芳山19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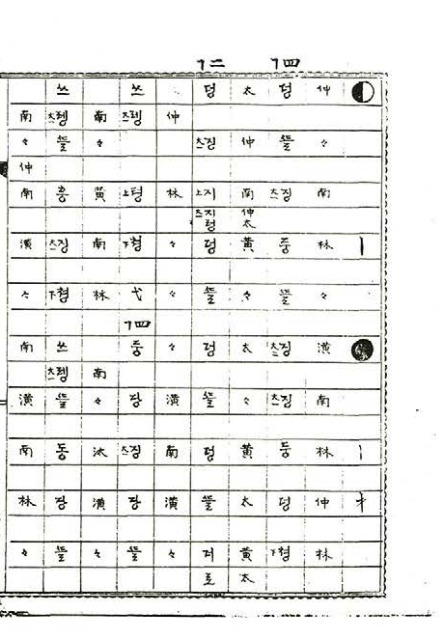
芳山19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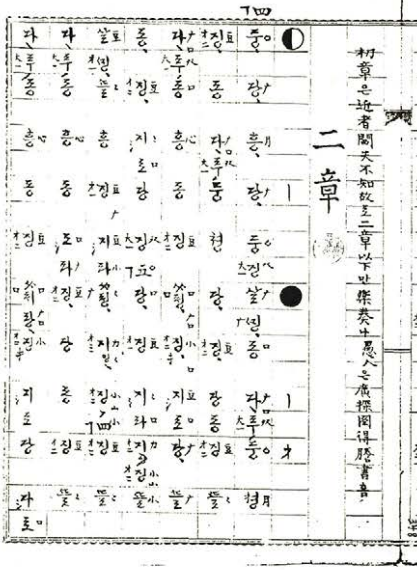
芳山20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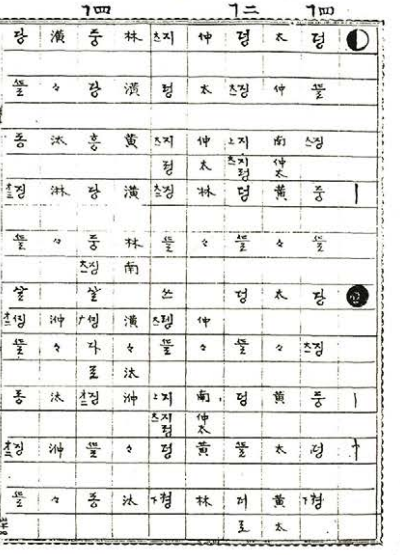
芳山20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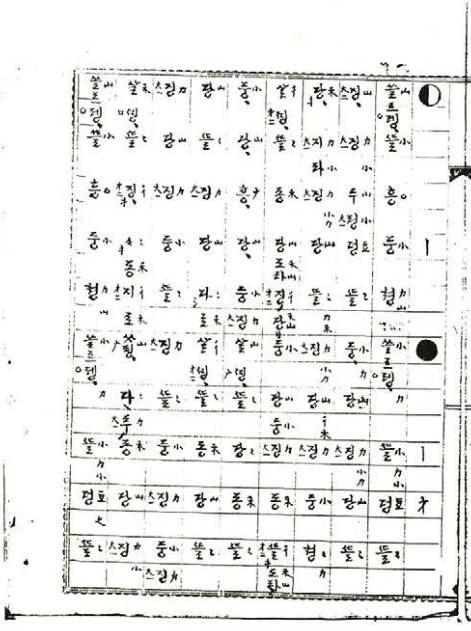
芳山2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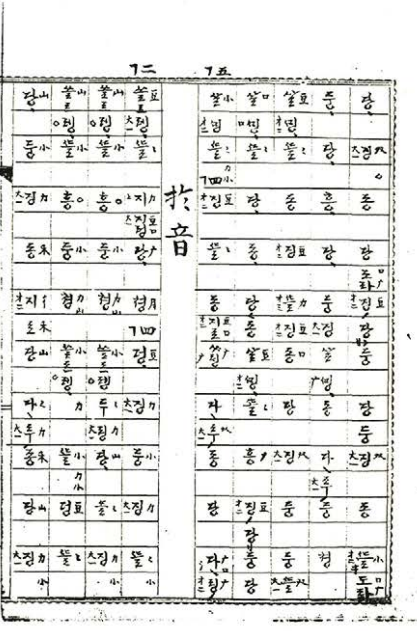
芳山2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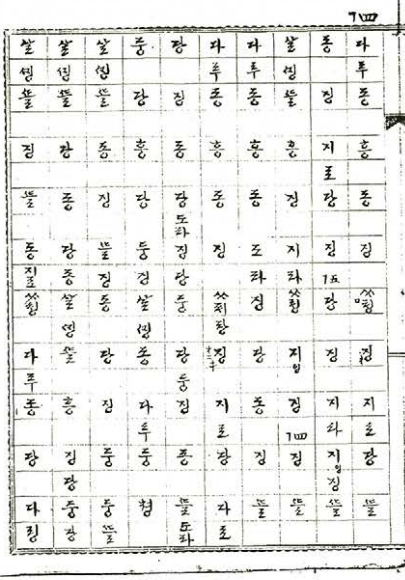
芳山2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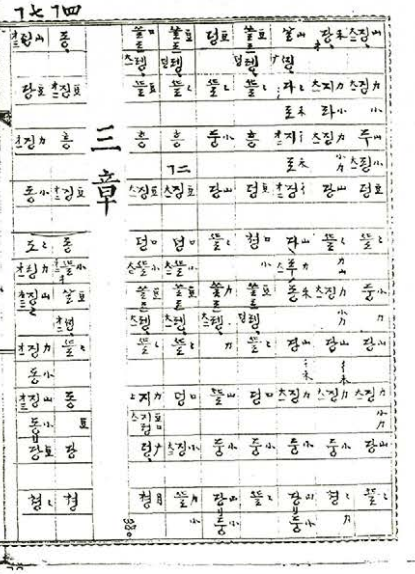
芳山2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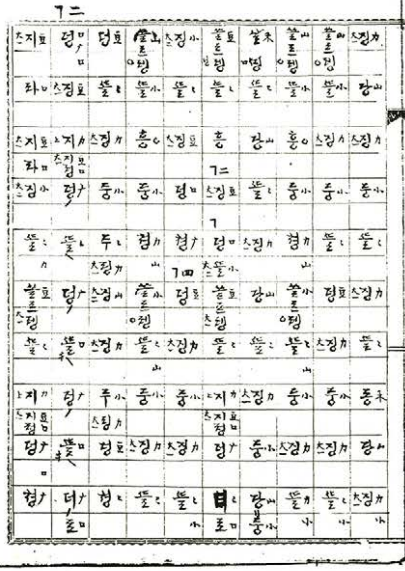
芳山2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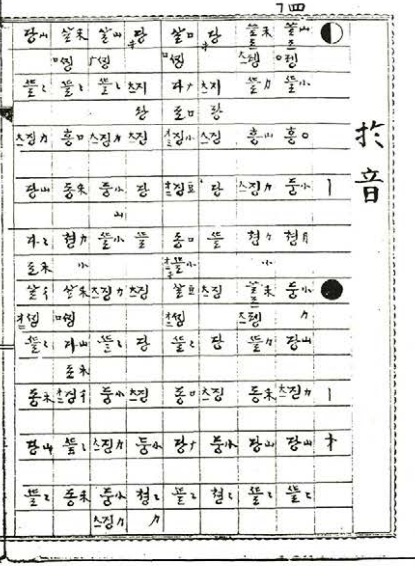
芳山2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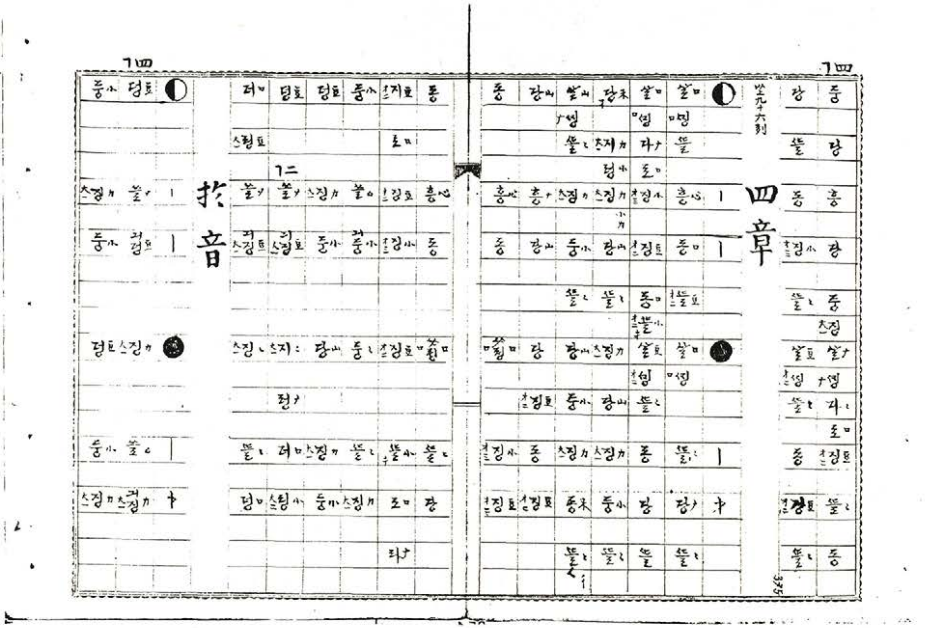
芳山2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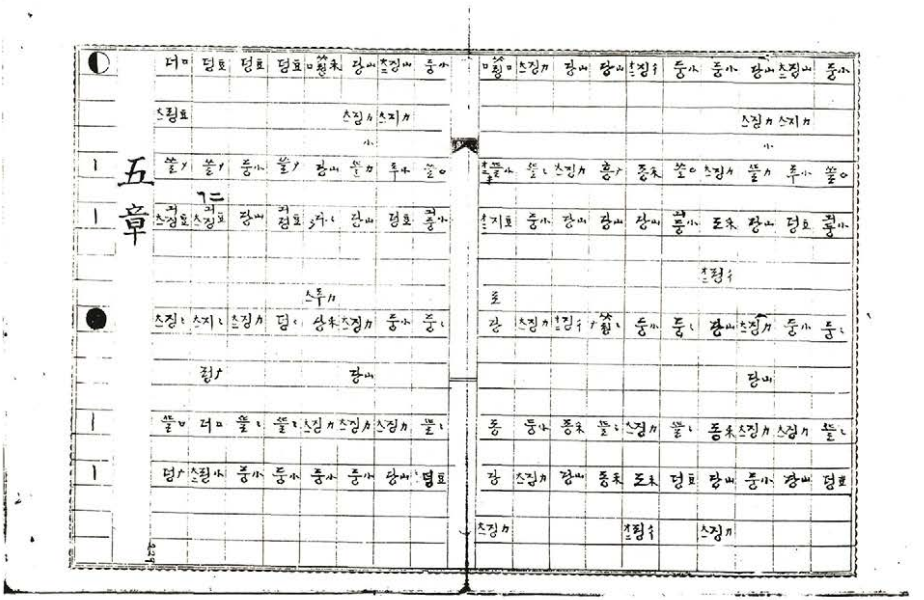
芳山2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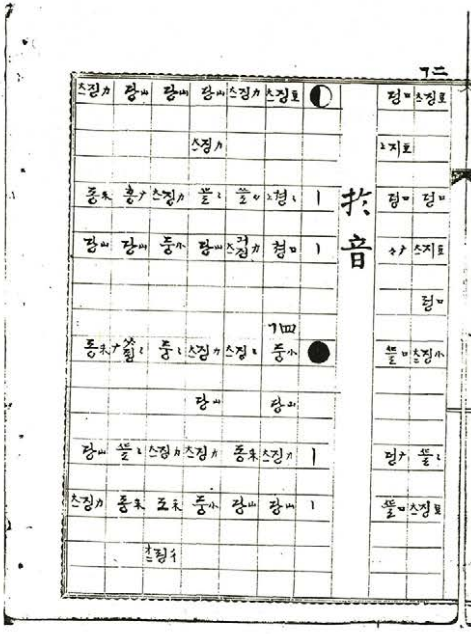
芳山25後　　芳山2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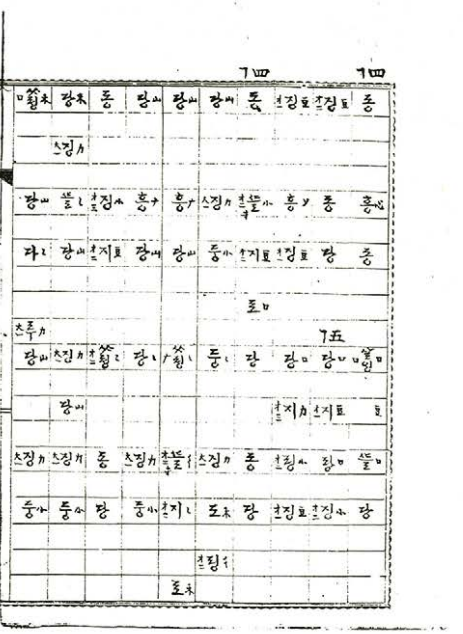
芳山26後　　芳山26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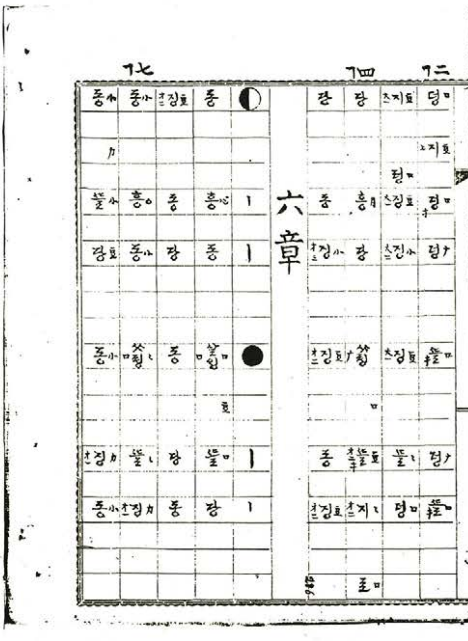
芳山27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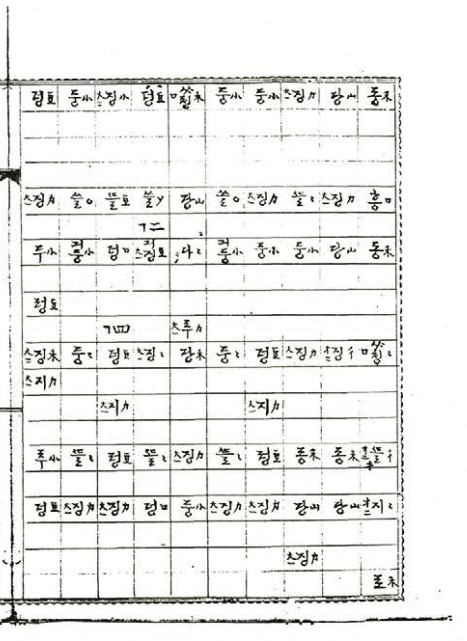
芳山27前



芳山28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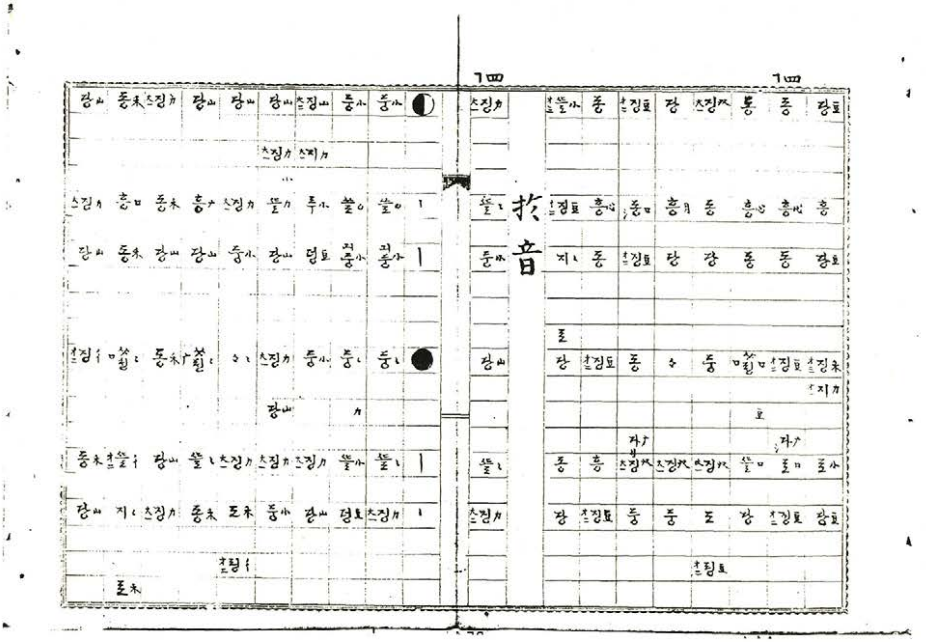


芳山28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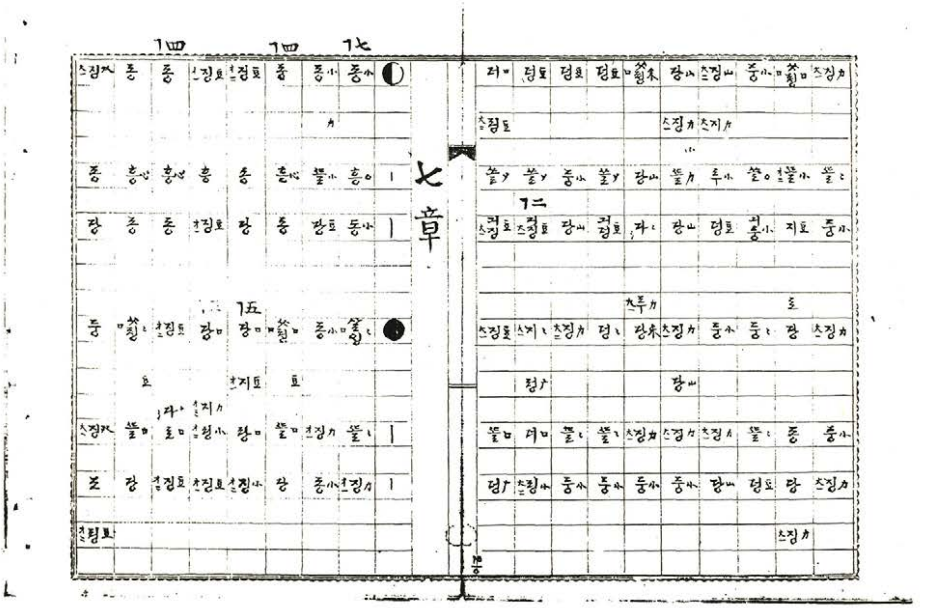
芳山29後

芳山29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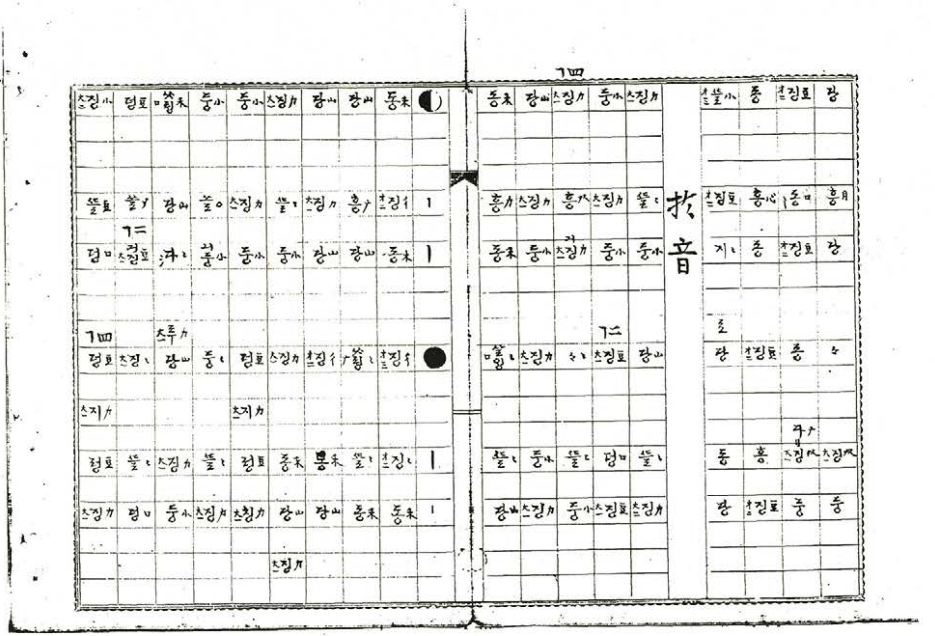
芳山30後

芳山30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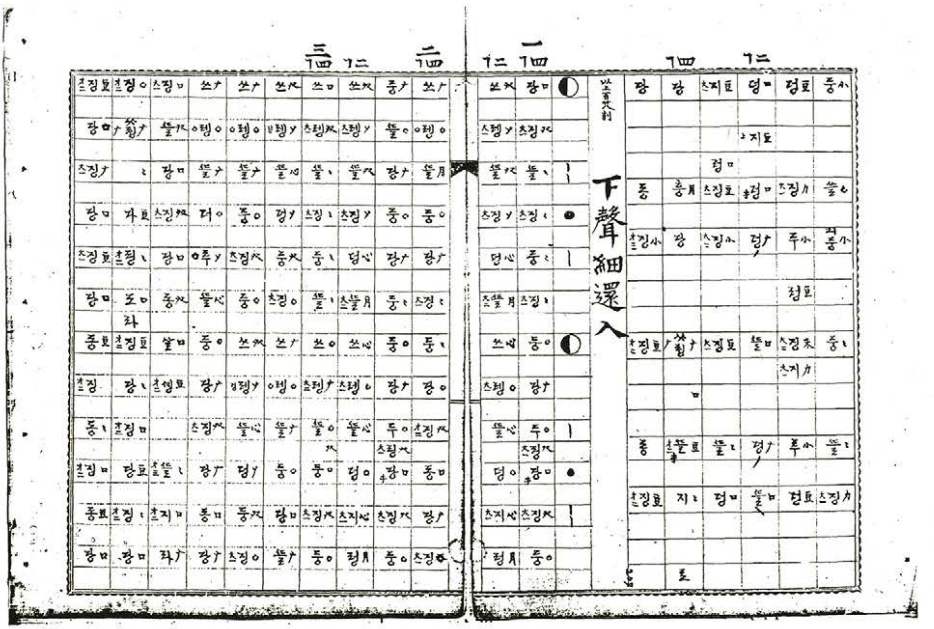
芳山31後

芳山3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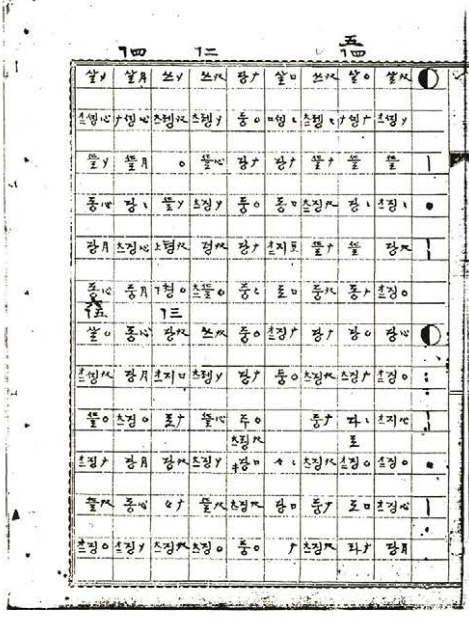


芳山3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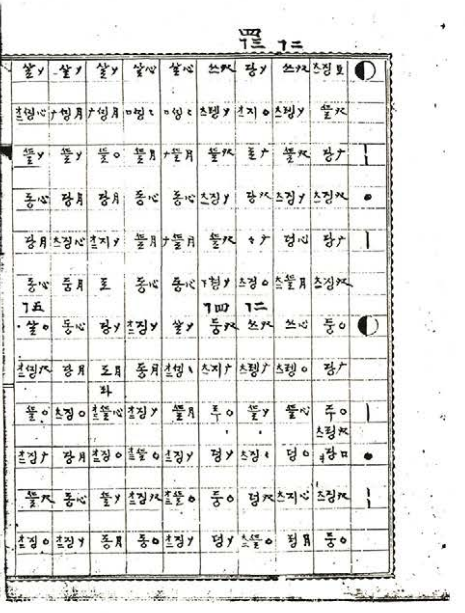
芳山3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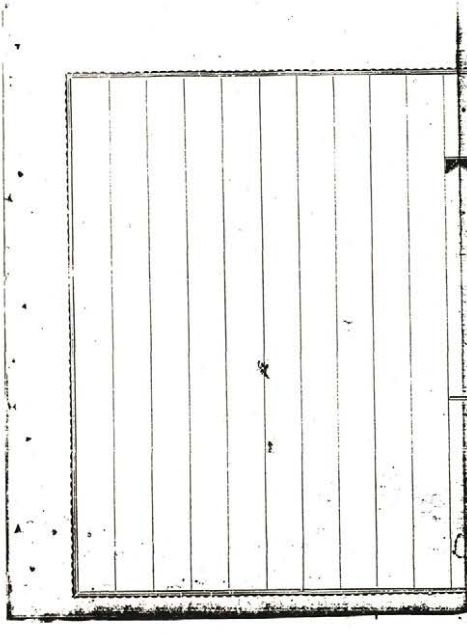
芳山3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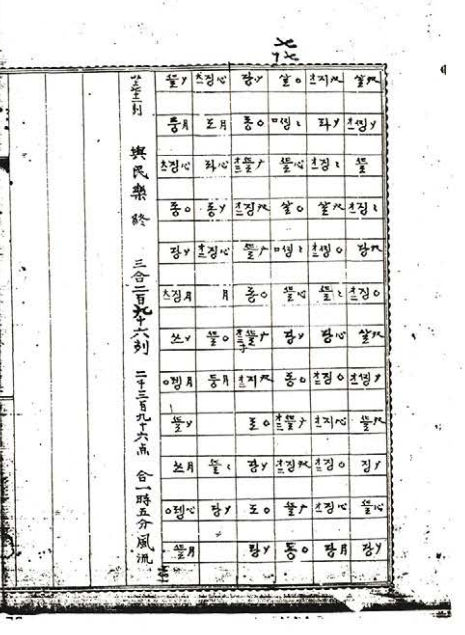
芳山3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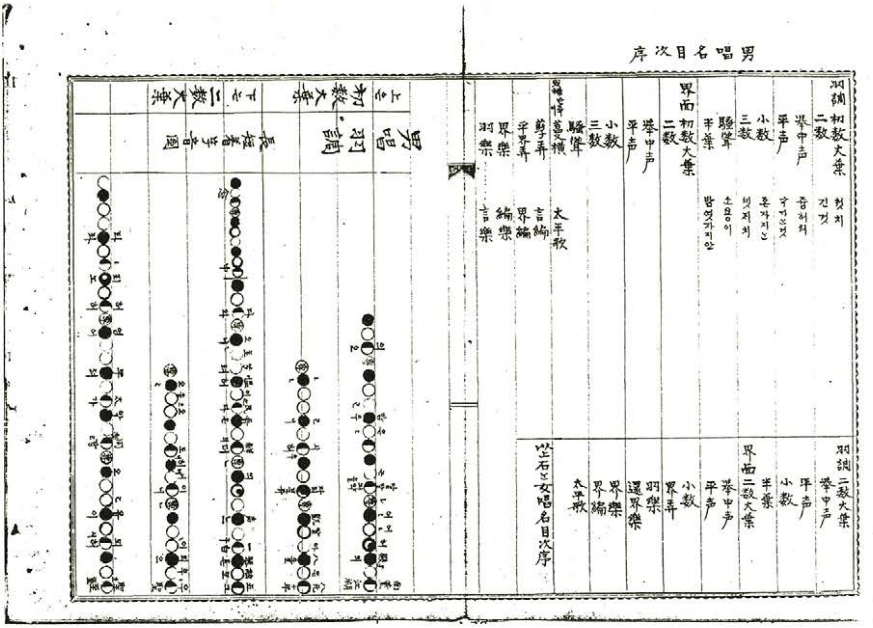
芳山34後



芳山3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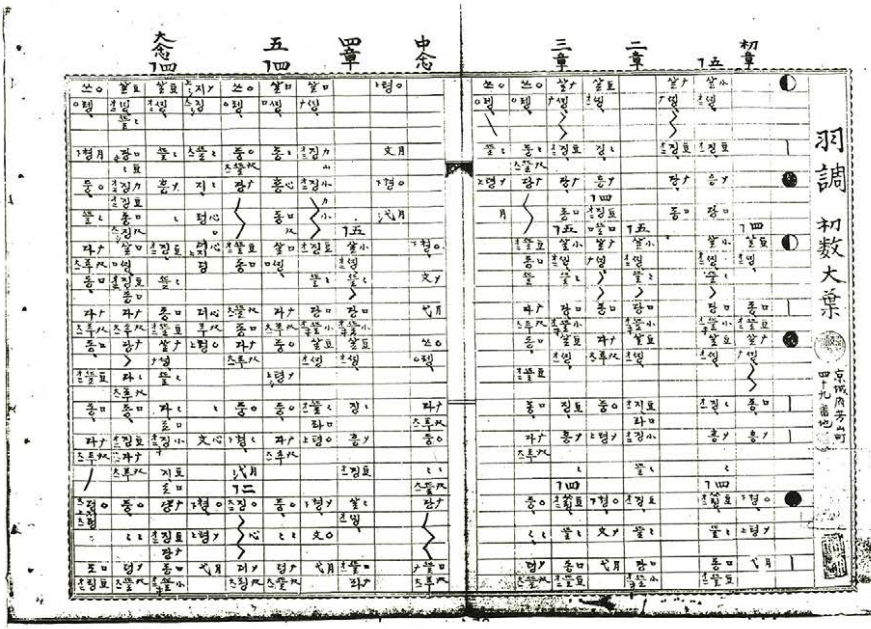


芳山35後



芳山3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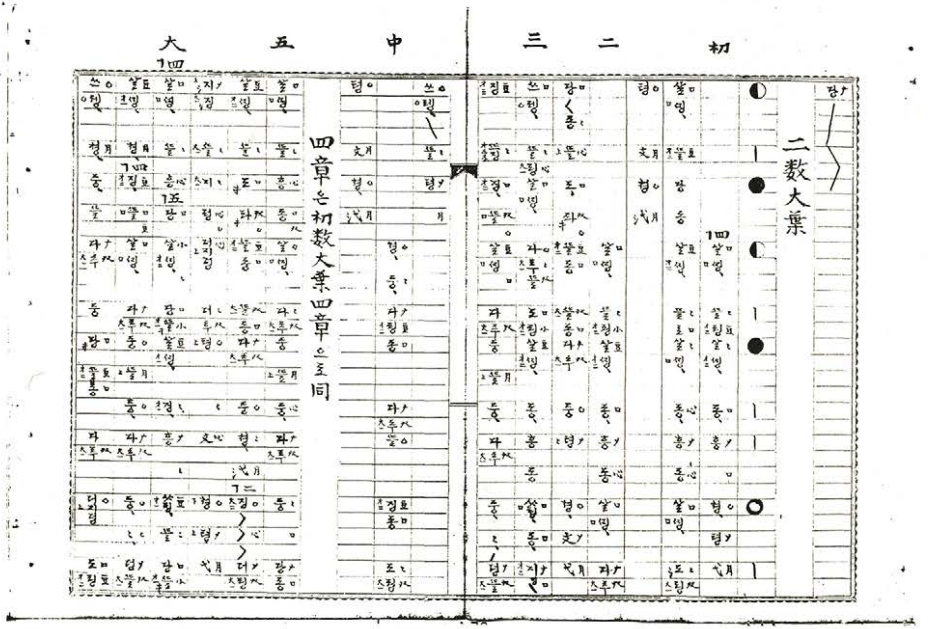
芳山36後



芳山36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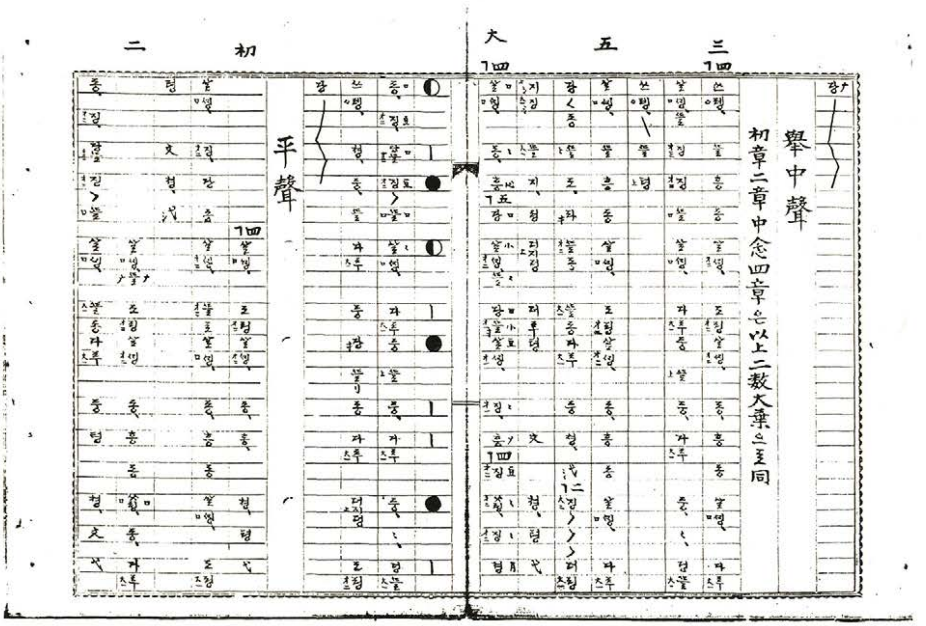
芳山37後

芳山37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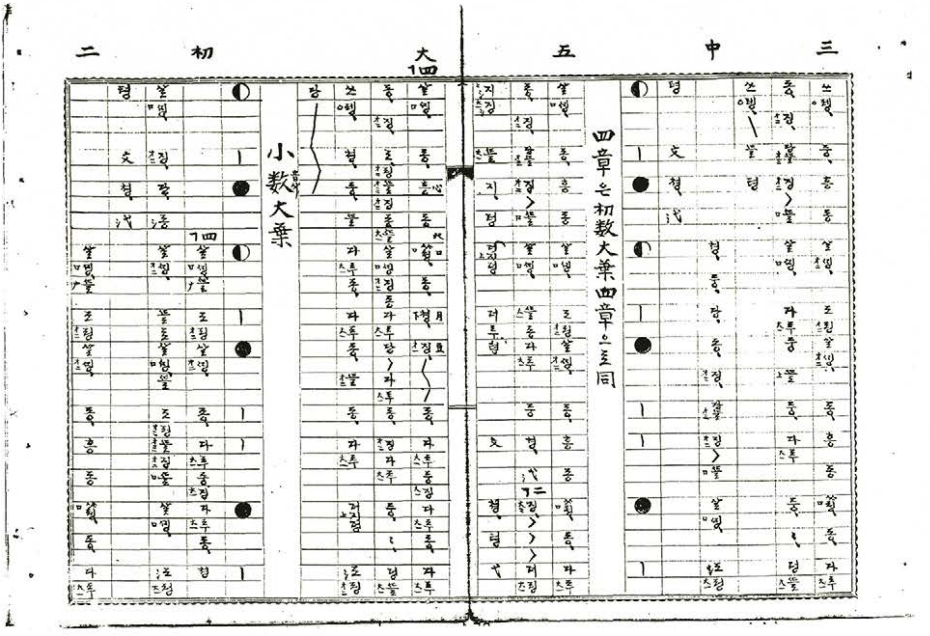


芳山38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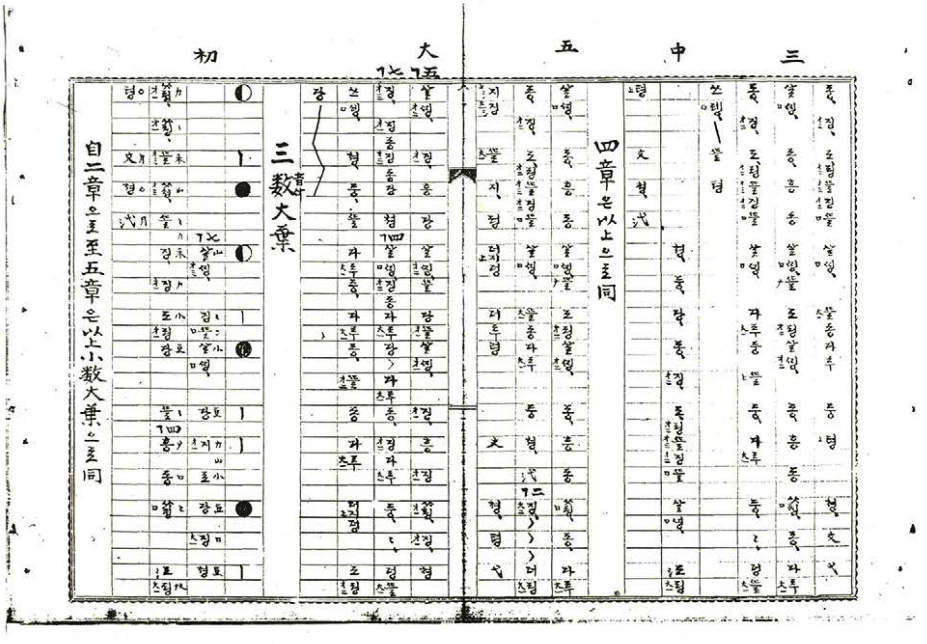
芳山38前



芳山39後　　芳山39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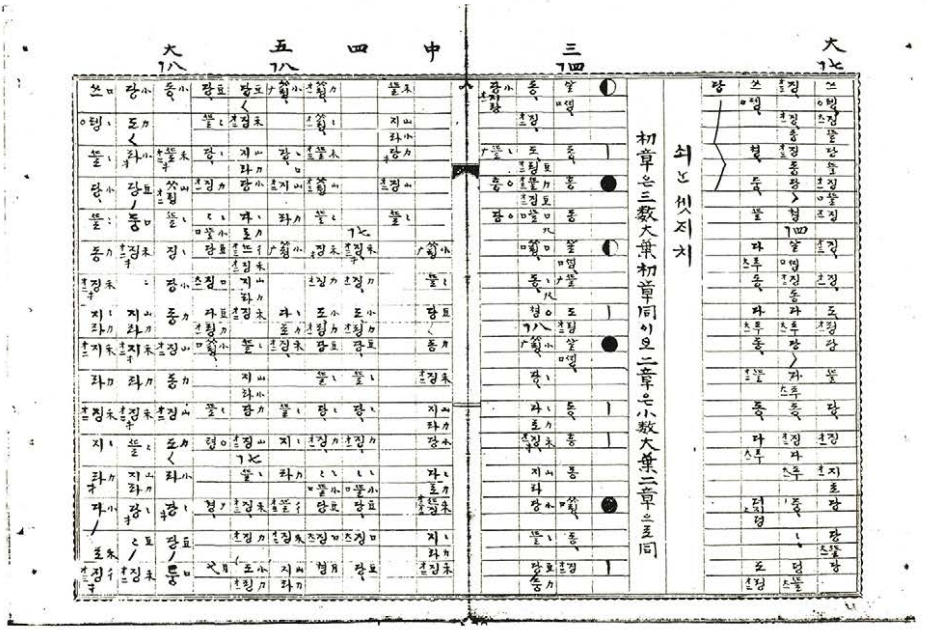


芳山40後　　芳山40前



芳山4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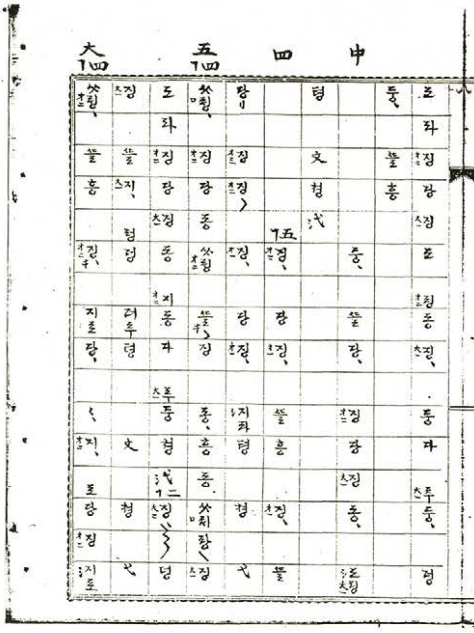
芳山4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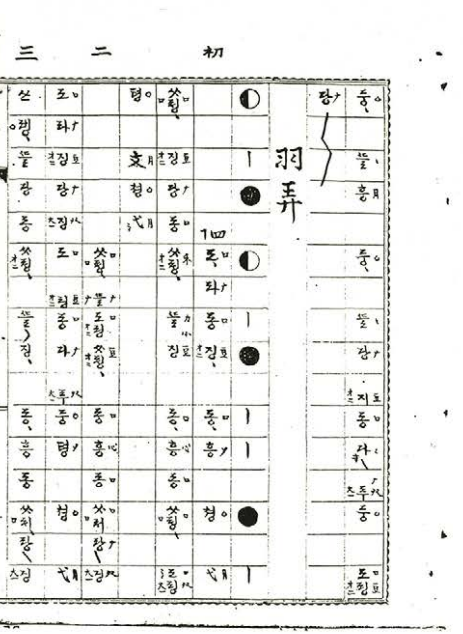
芳山42後

芳山4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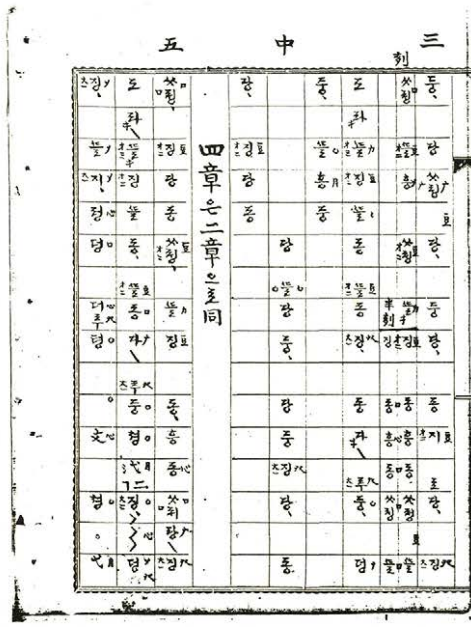
芳山4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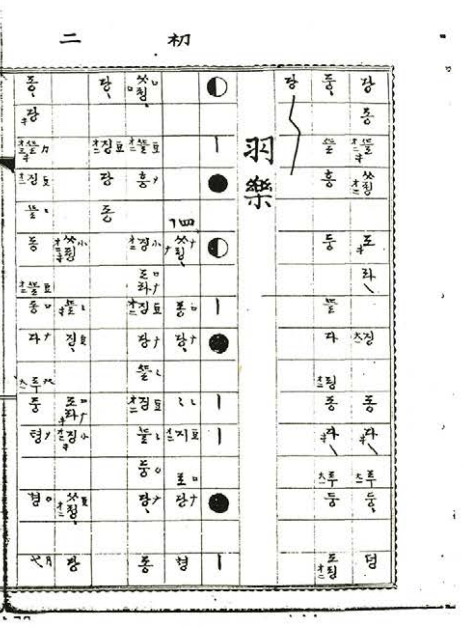
芳山4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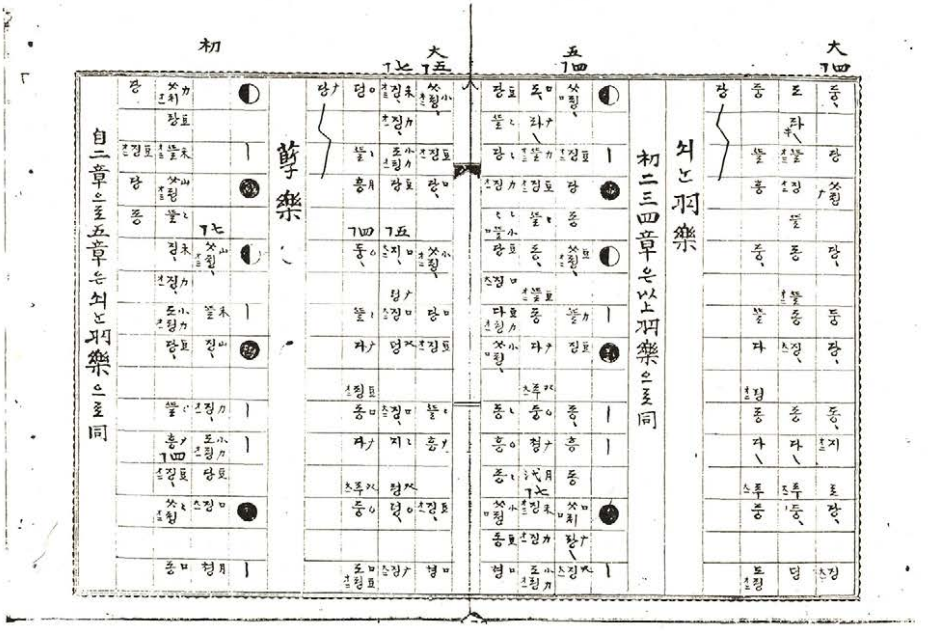
芳山44後



芳山4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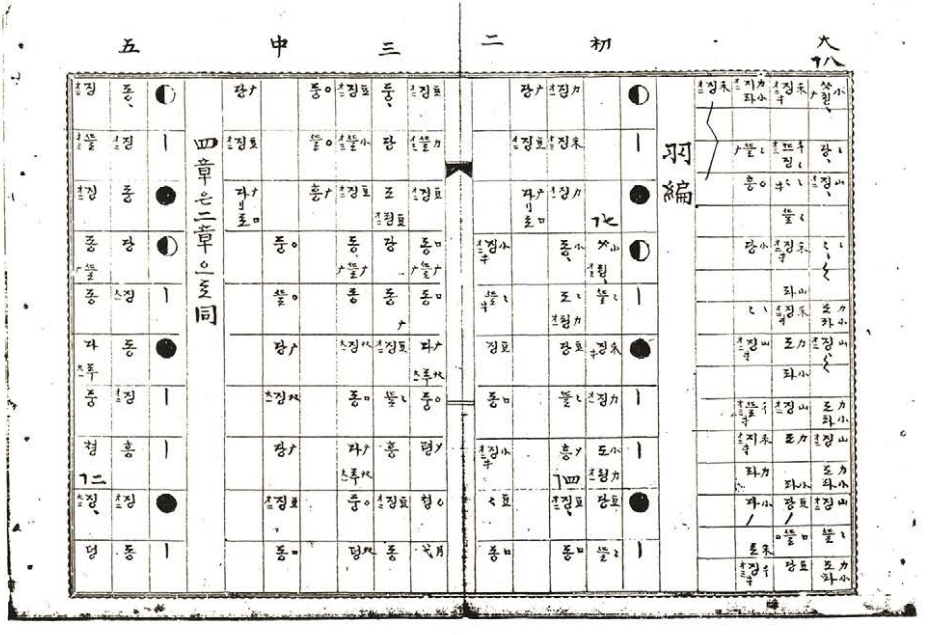


芳山45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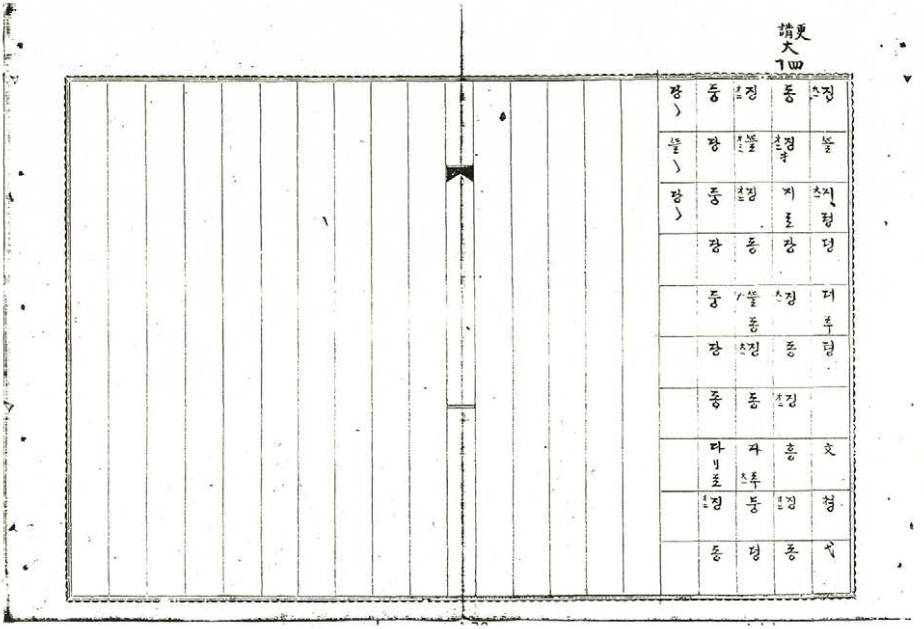
芳山45前

芳山46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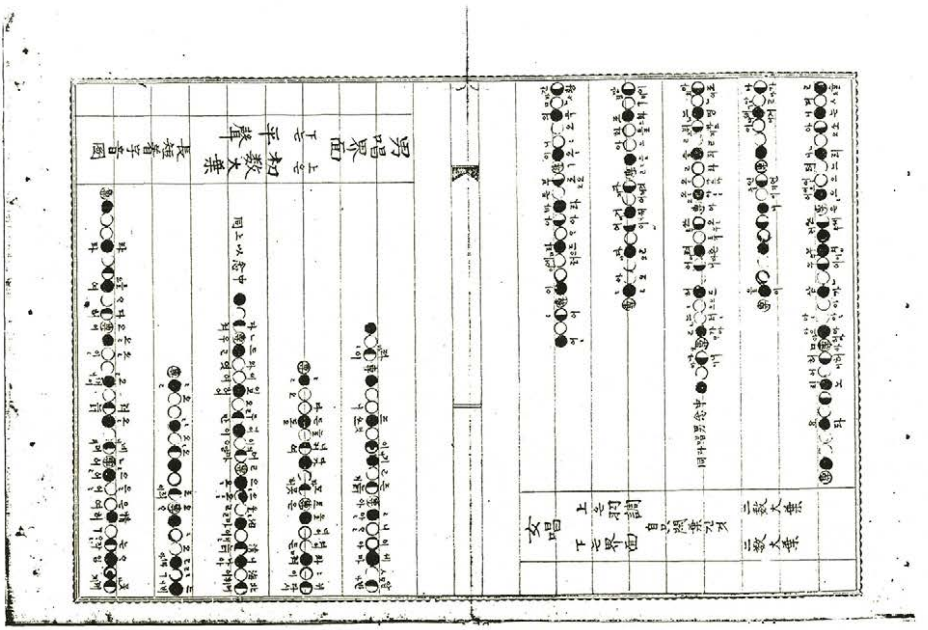
芳山46前

芳山47後



芳山47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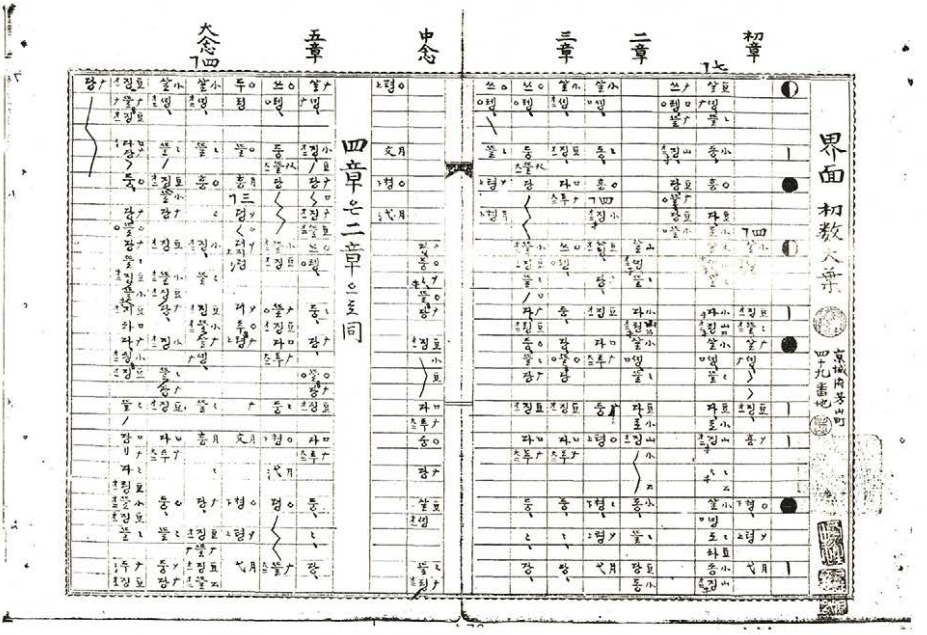
芳山48後



芳山48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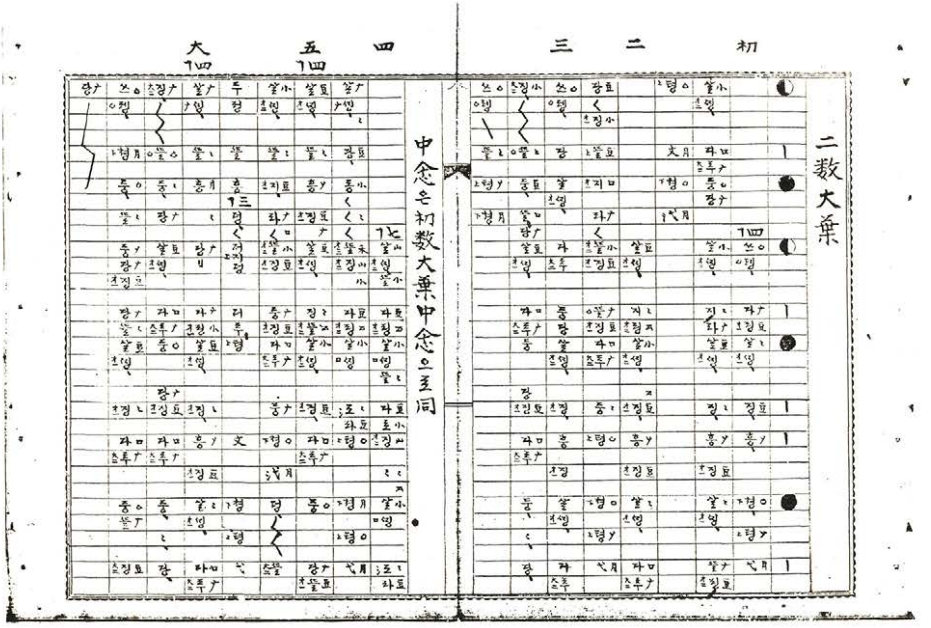
芳山49後

芳山49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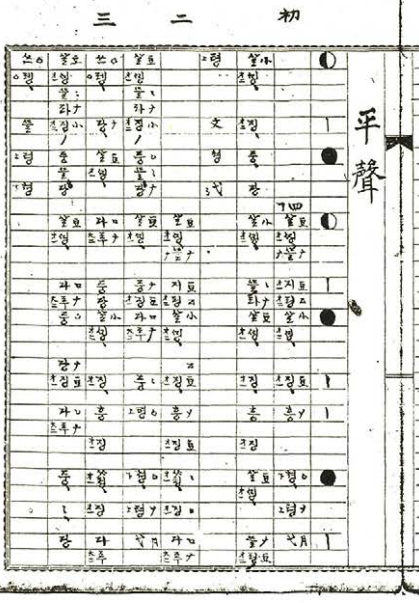


芳山50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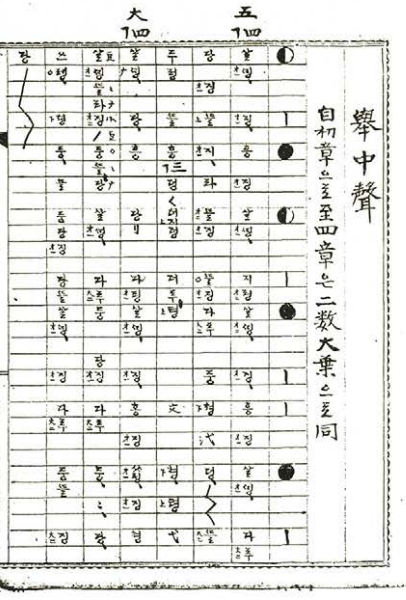
芳山50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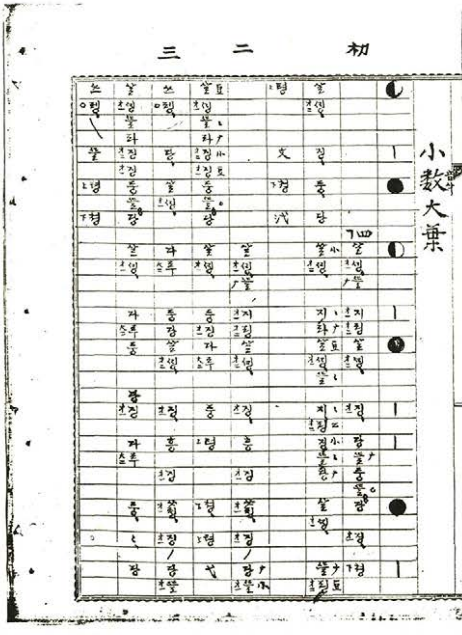
芳山5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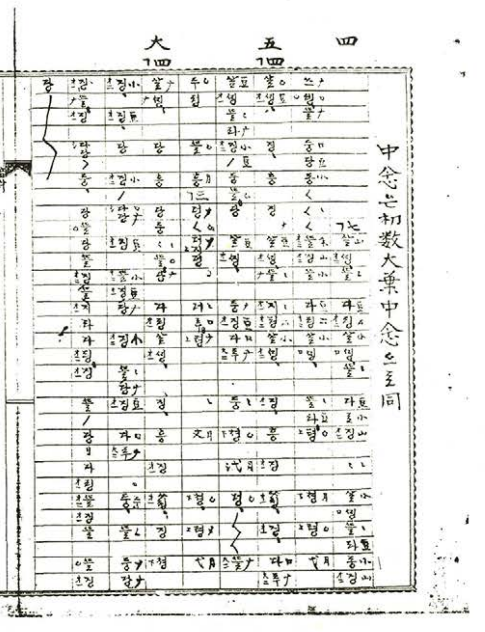
芳山51前



芳山5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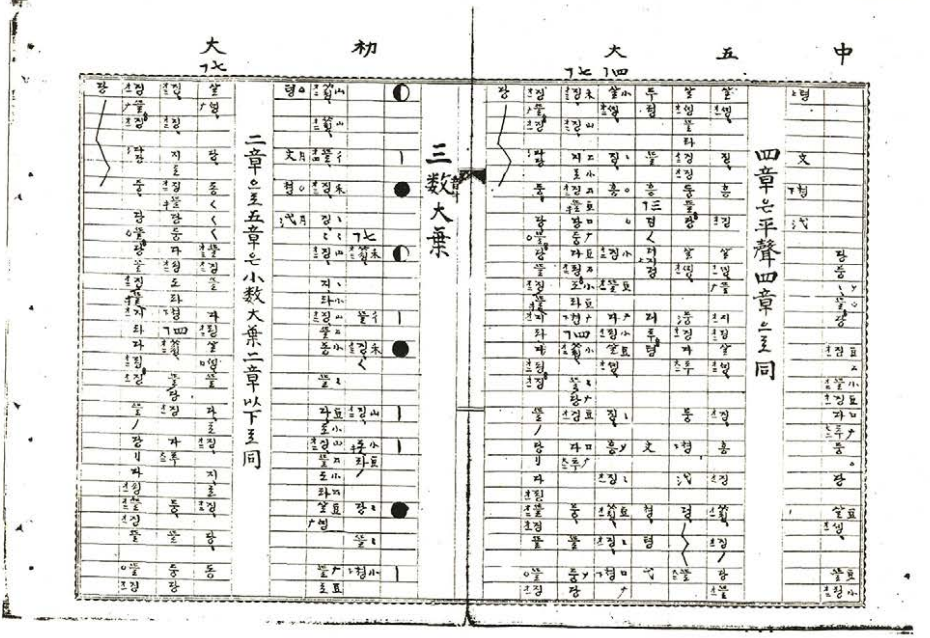


芳山5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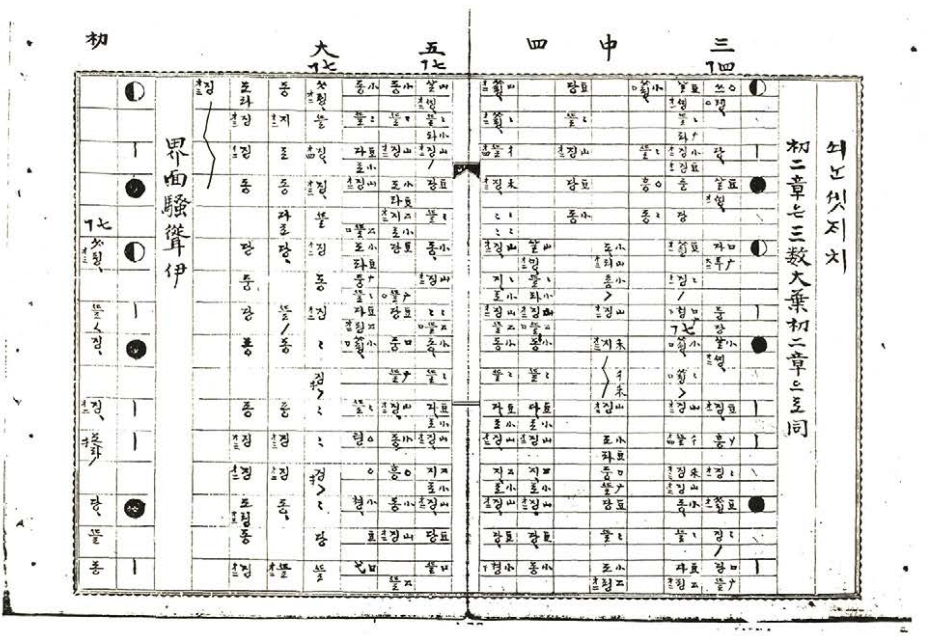
芳山53後

芳山5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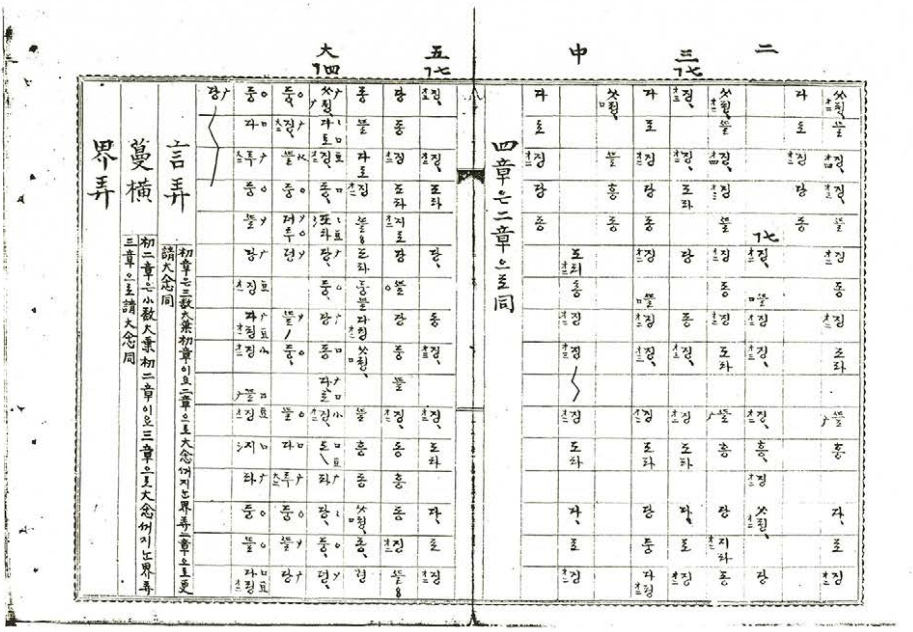
芳山54後

芳山5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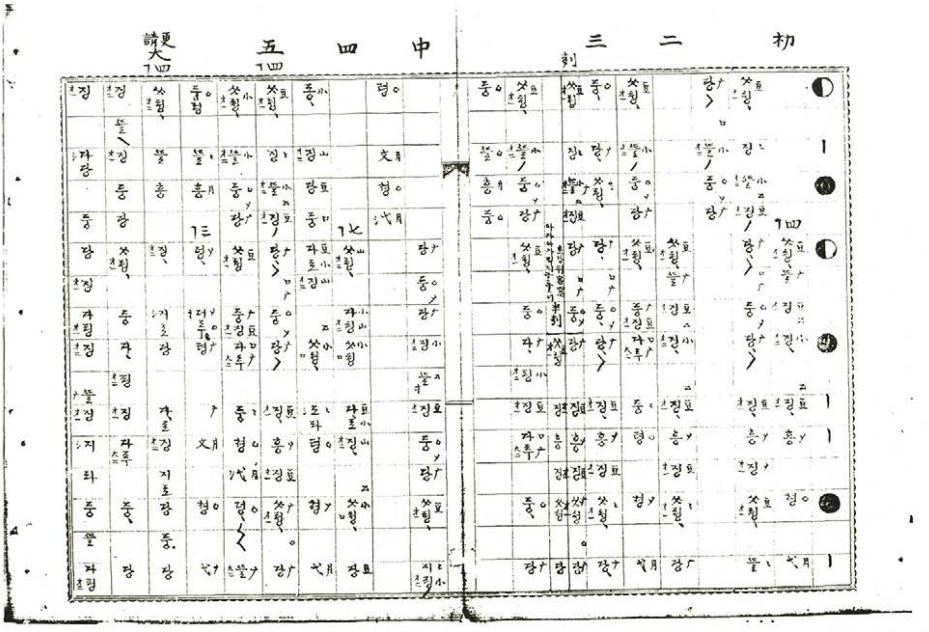
芳山55後

芳山5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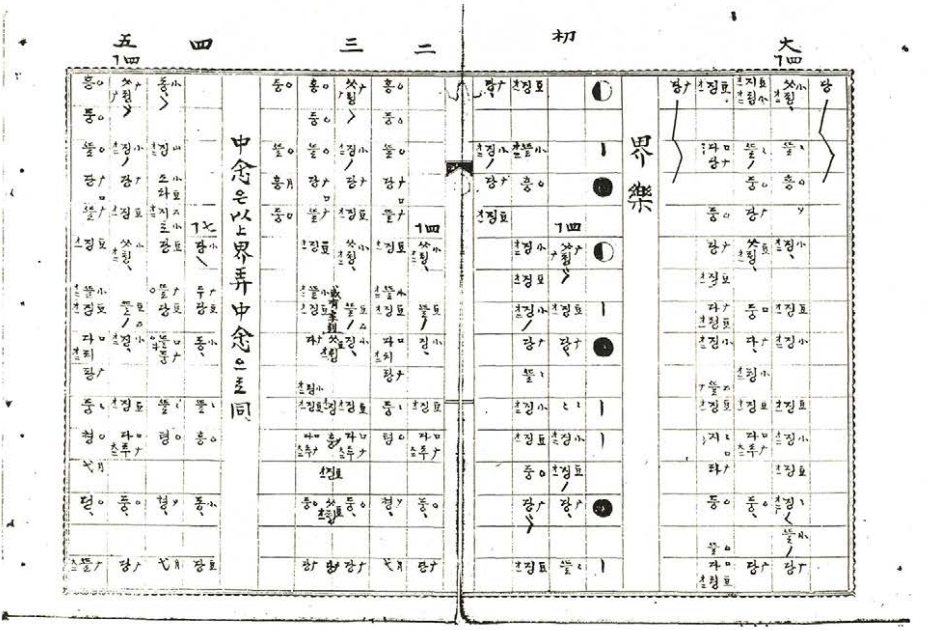


芳山56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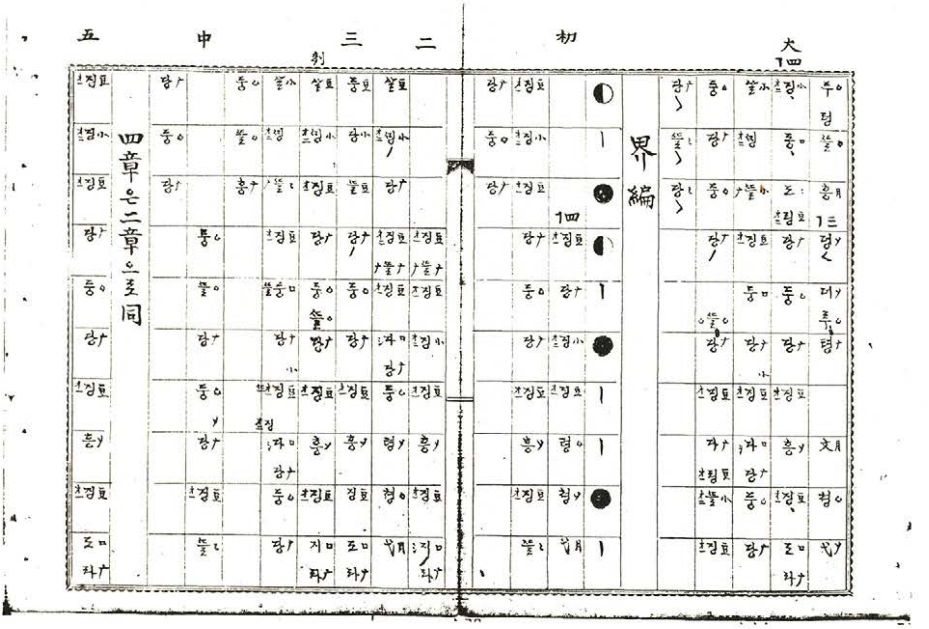
芳山56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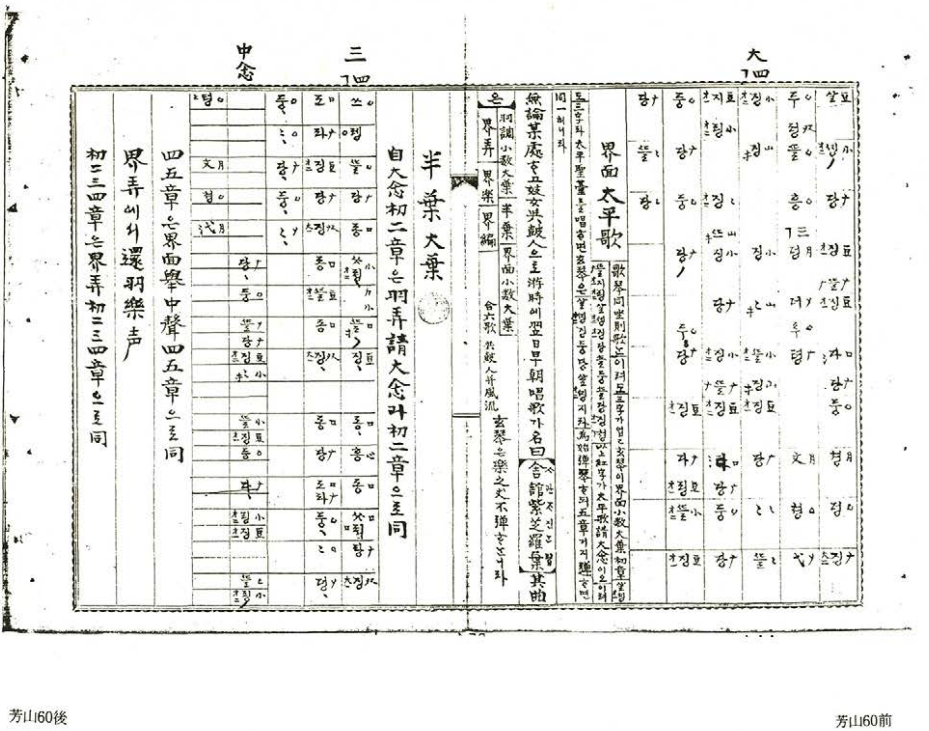
芳山57後　　芳山57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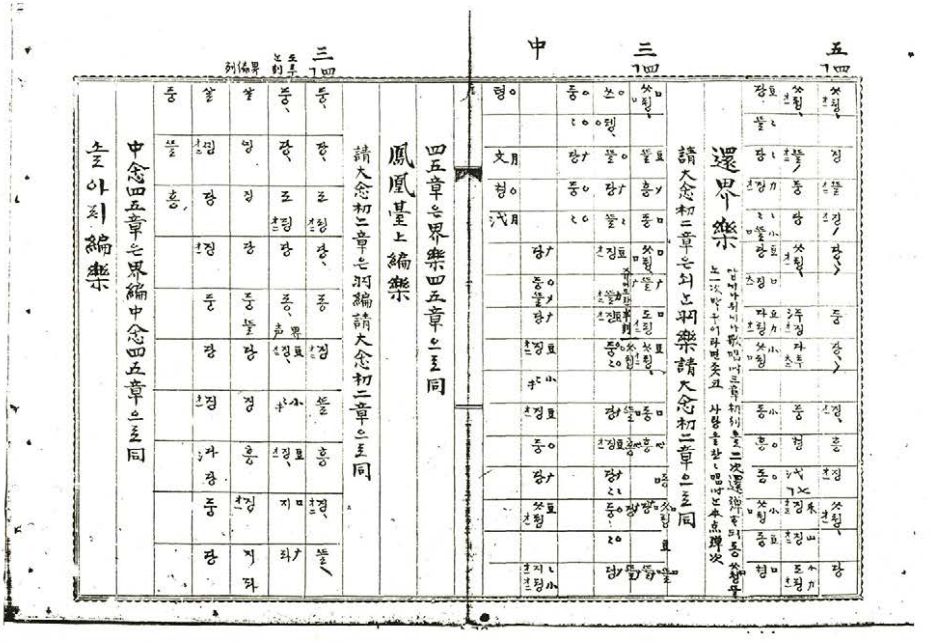
芳山58後　　芳山58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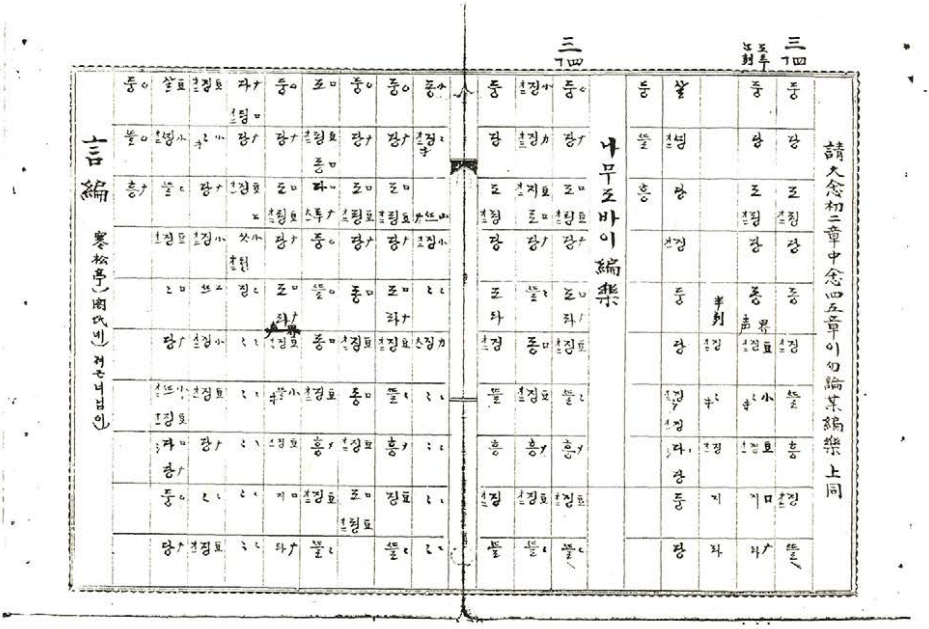
芳山59後


半葉大葉
自大念初二章은羽弄請大念라初二章으로同
界弄에서還羽樂声
初三四章은界弄初三四章으로同
四五章은界面樂中聲四五章으로同
界面太平歌
無編葉處玄鶴女與鼓人으로將時에翌日早朝唱歌가名曰【舍詩繁芝蹈蹈】其曲은【界弄】【界樂】【界編】合六歌 其鼓人并風流 玄琴은樂之史不彈호드라
羽調小數大葉 半葉 界面小數大葉
大
三
中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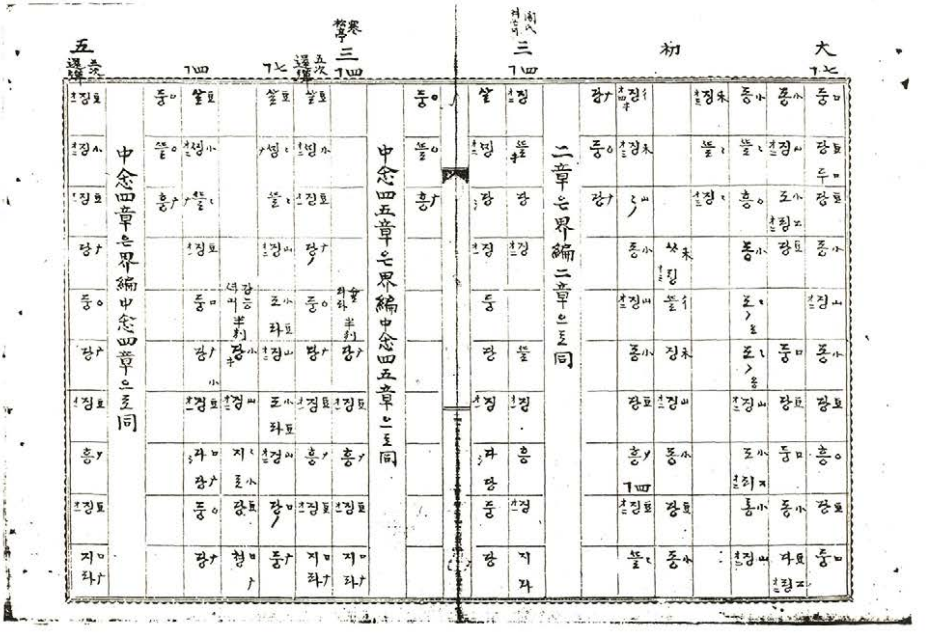
芳山60後


四五章은界樂四五章으로同
鳳凰臺上編樂
請大念初二章은羽編請大念初二章으로同
中念四五章은界編中念四五章으로同
還界樂
請大念初二章은되도羽樂請大念初二章으로同
五
三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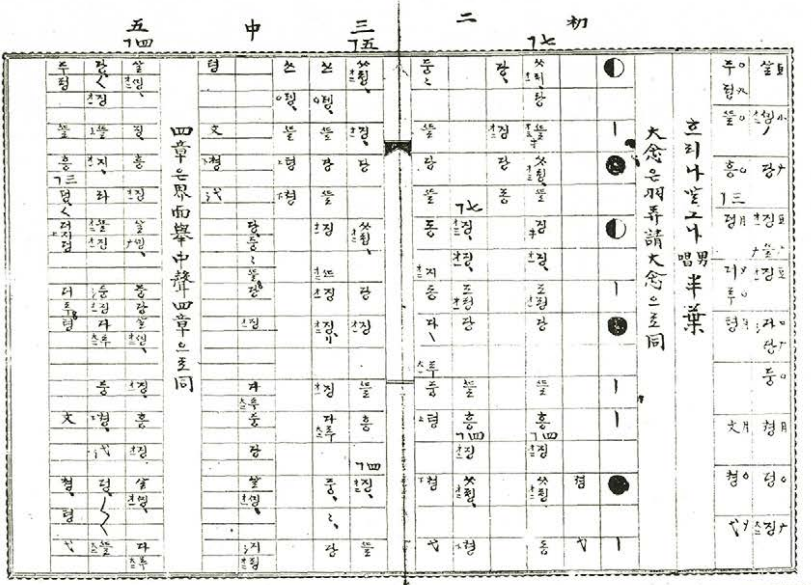
芳山61後


請大念初二章中念四五章이勿論某編樂上同
나무조바이編樂
半列
聲界
三
三
言編
寒松亭)(南氏네) 전은니답안

芳山6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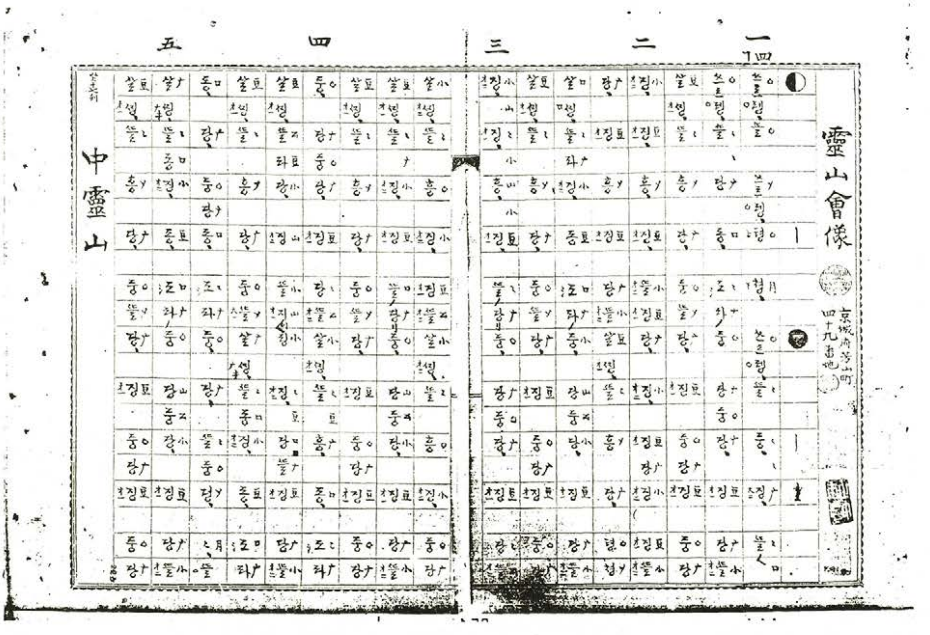

大
初
三
三
五
二章은界編二章으로同
中念四五章은界編中念四五章으로同
中念四章은界編中念四章으로同

芳山6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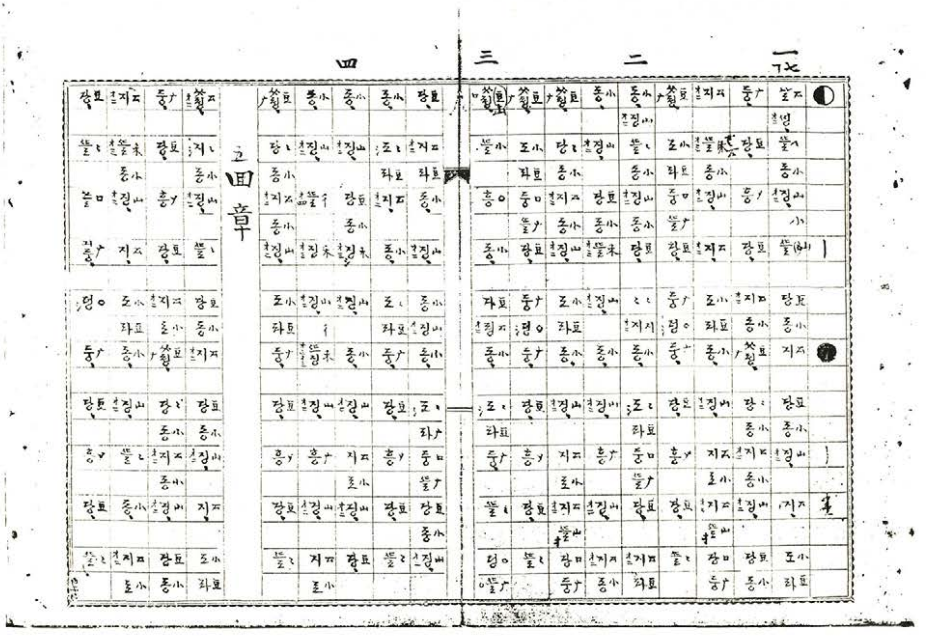
芳山64後

芳山6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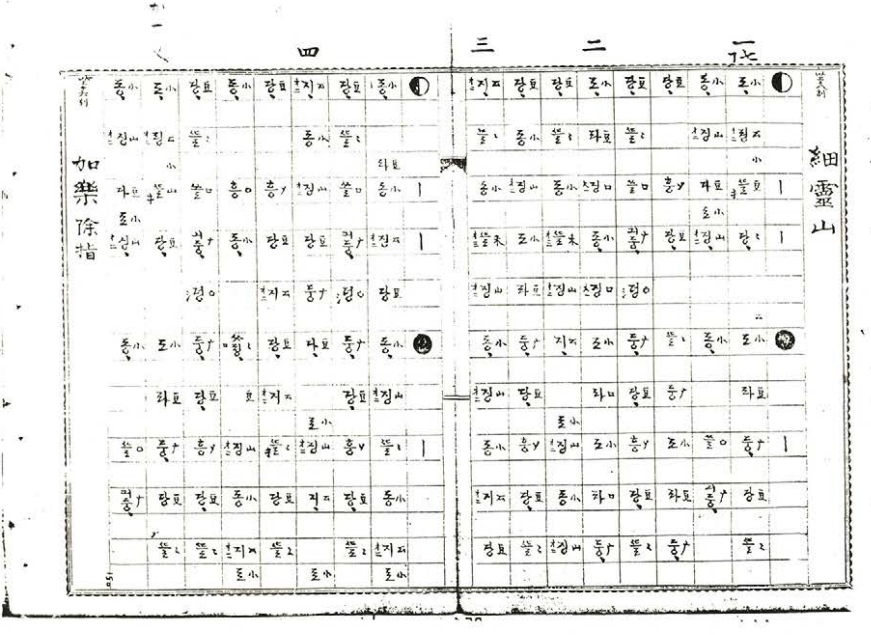
芳山65後

芳山6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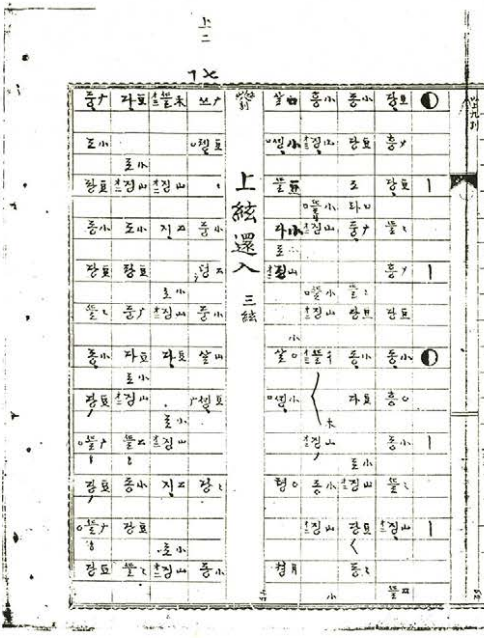


芳山66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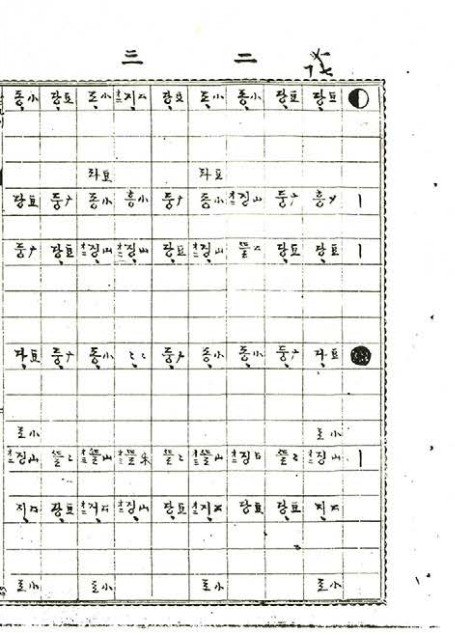
芳山66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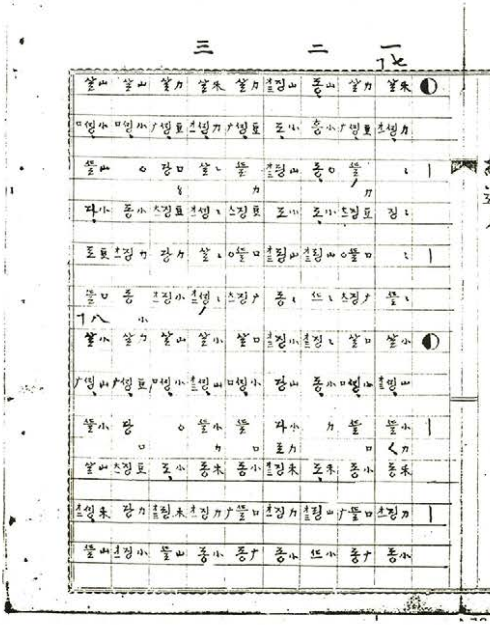
芳山67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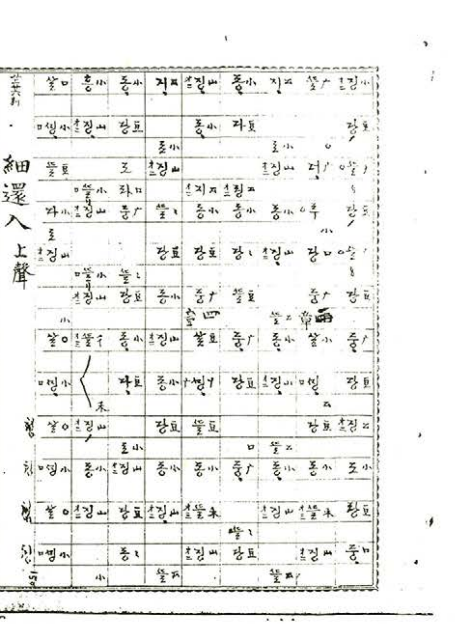
芳山67前



芳山68後



芳山68前



芳山69後

芳山69前

芳山70後

芳山70前

芳山71後

芳山7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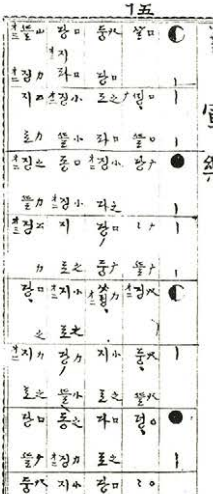
念佛

芳山7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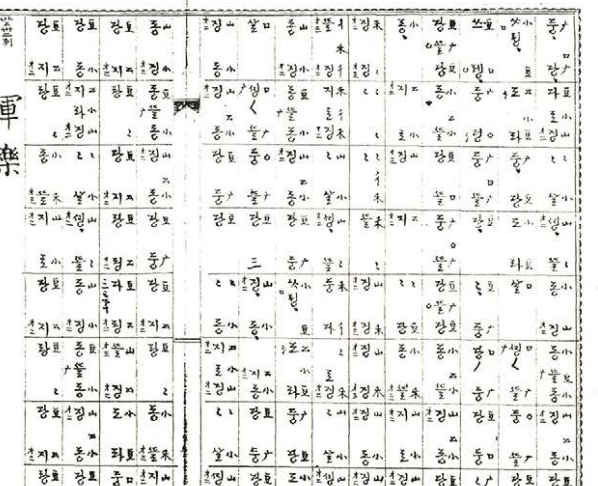
芳山72前

打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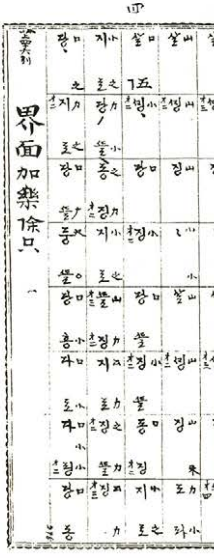
芳山7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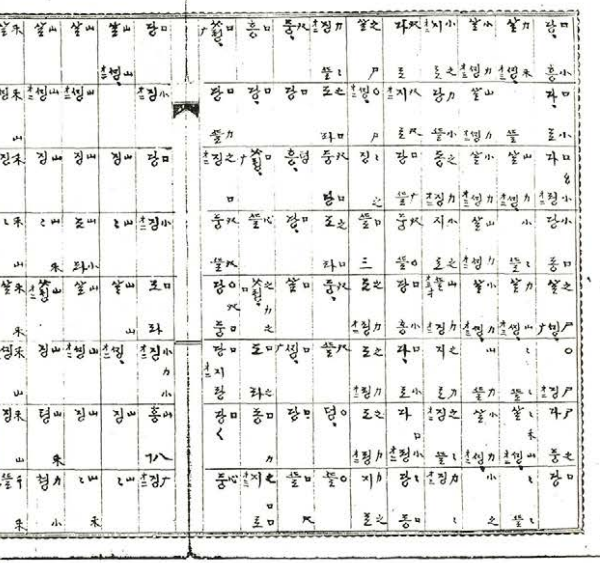
芳山7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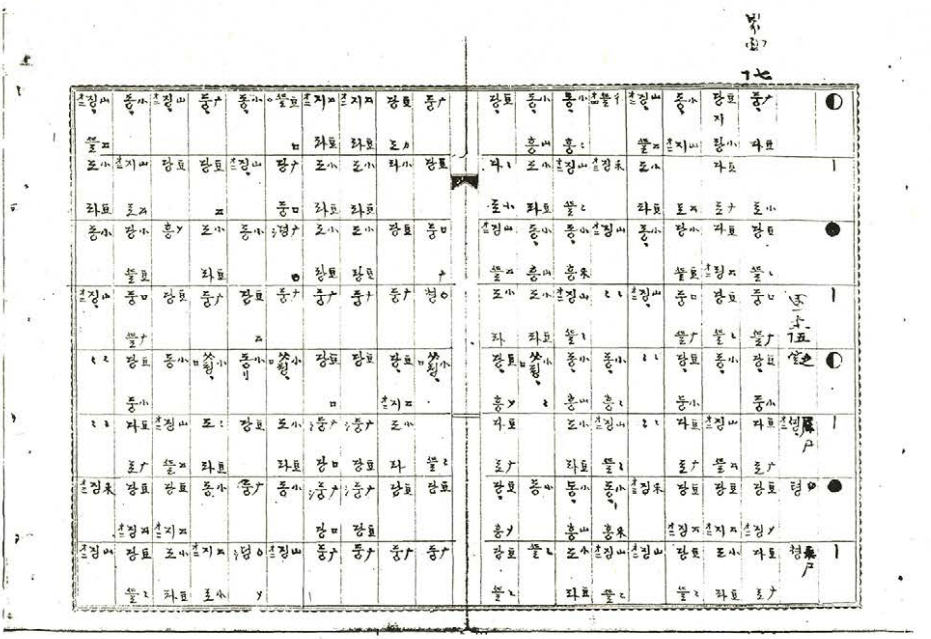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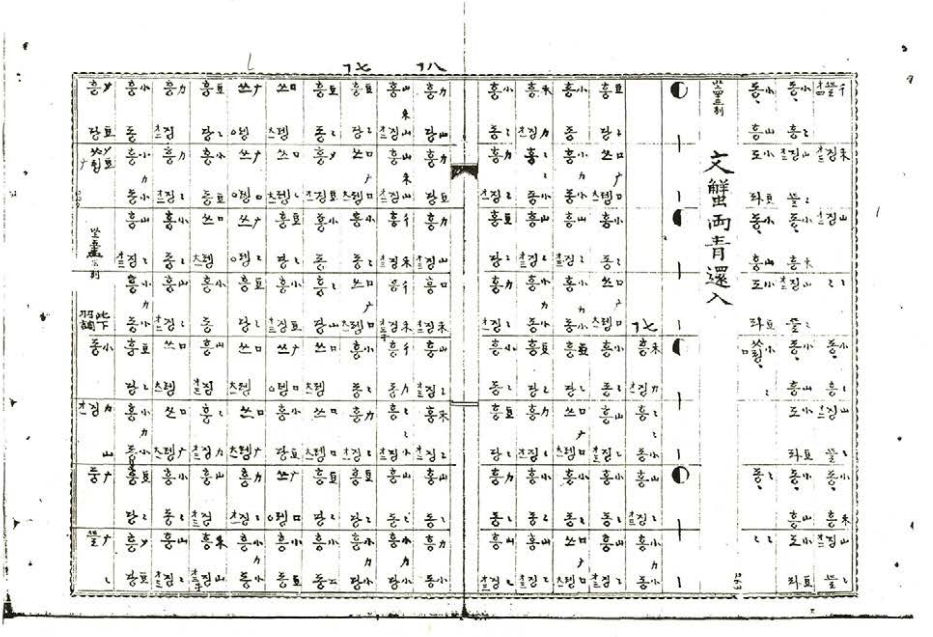
芳山74後



芳山7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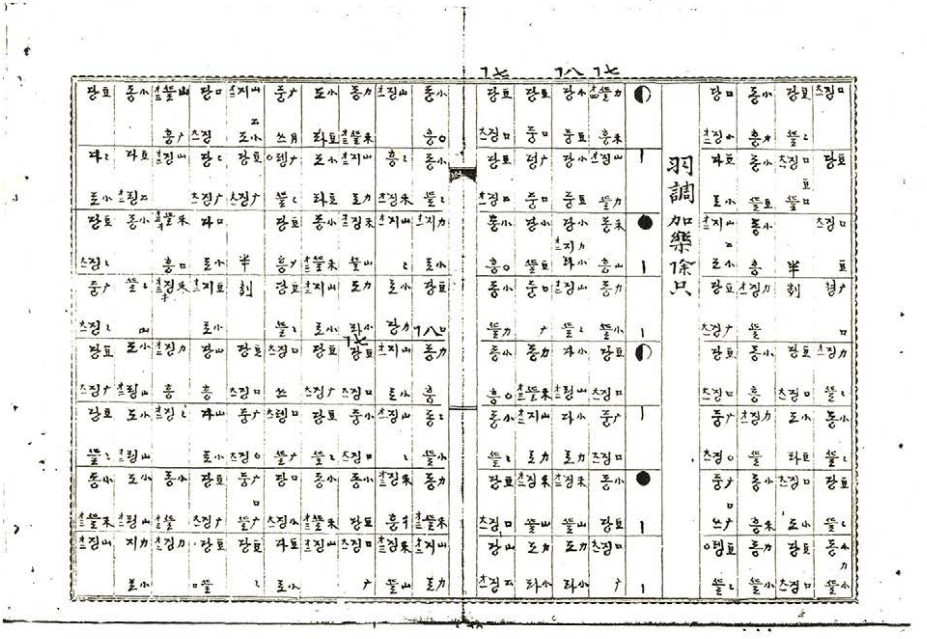





文鮮兩青還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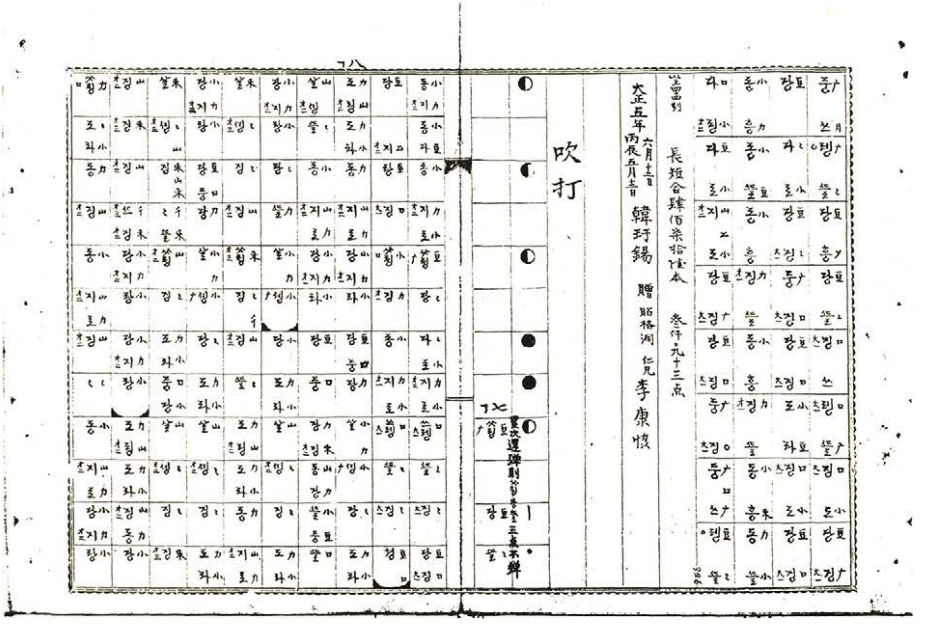
芳山77後

芳山77前



芳山78後

芳山78前



芳山79後

芳山79前

芳山80後

芳山80前

伽倻琴 絃名

一 從　二 稱　三 徵

四 至　五 倘　六 澄

之 同　八 唐　九 등

十 興　土 聽　土 清

遞掛法

自本靈山彈琴則同을너져唐으로타가 細還入에서는唐을울여同

호는至을너져動호며 軍樂에서는唐을너져登호는唐을울여同호

는澄을너져之호는至을너져動호며 兩青에서는唐을울여同호는

羽調에서는唐을울여同호는至을너져動할事

本、中、細置山、加樂陰、上絃、下絃、念佛、打鈴、點曲、此九余는同을너져唐으로彈호라

長指、無名指、로幷曲執按絃式

退호여오히여는것

앞으로

搖운데멍거푸絃

길게앞으로

食指로휘기는것

五指後第次로휘기는것

母指로曲執、無名指壓絃式

울너멀게執ㅋ기는것

울너앞으로멍거푸絃

울너게울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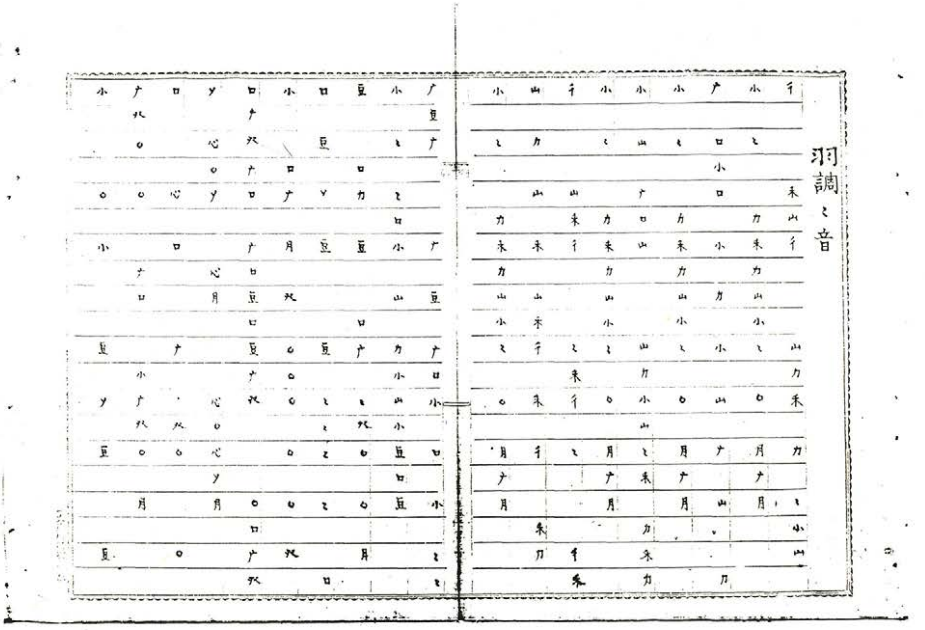
食指長指로울는것

食指長指로푸울는것

連音울나붓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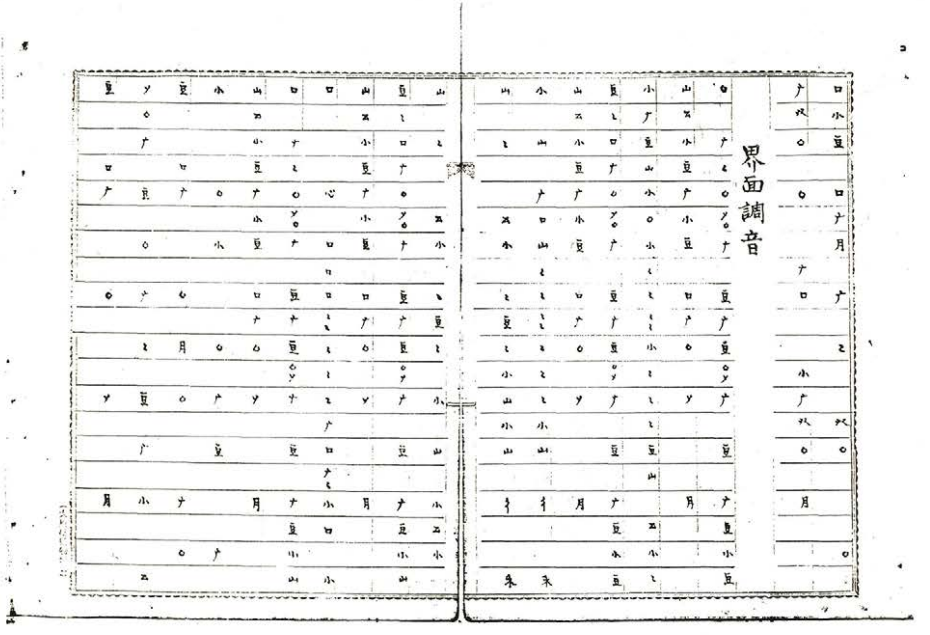
芳山81後

芳山8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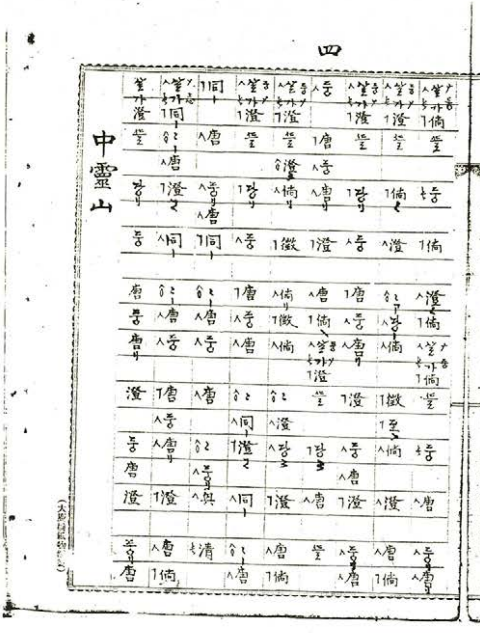


芳山82後

芳山8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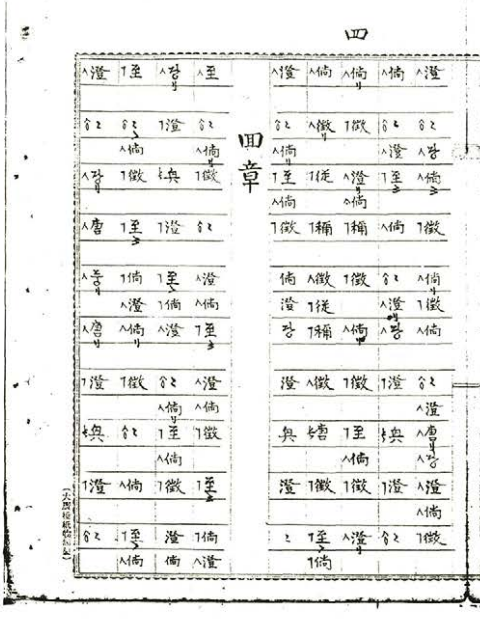


芳山8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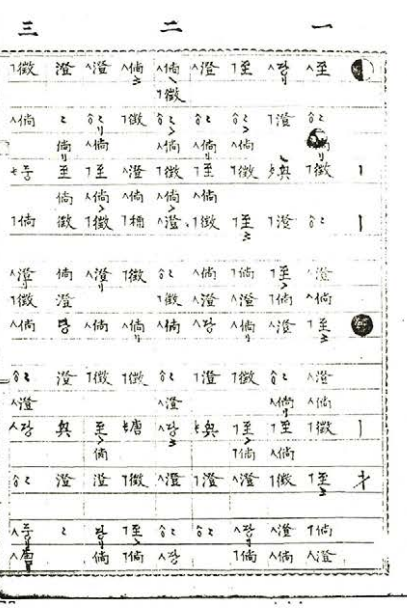


芳山83前

芳山8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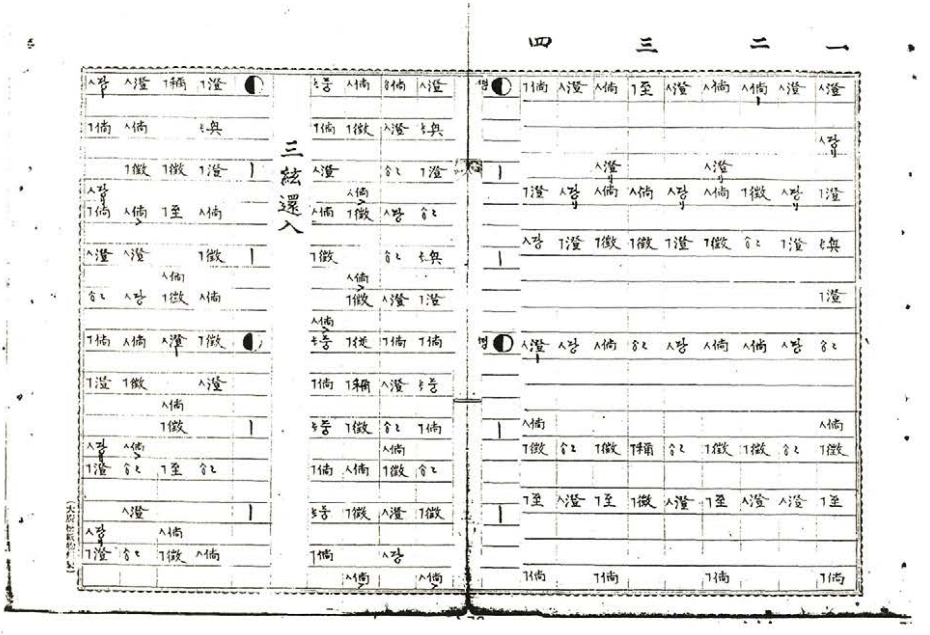
芳山84前



芳山85後

芳山85前

芳山86後



芳山86前

芳山87後

三

芳山87前

一

上聲細還入

二

芳山88後

五

芳山88前

四

芳山89後

下絃

芳山89前

七

四章

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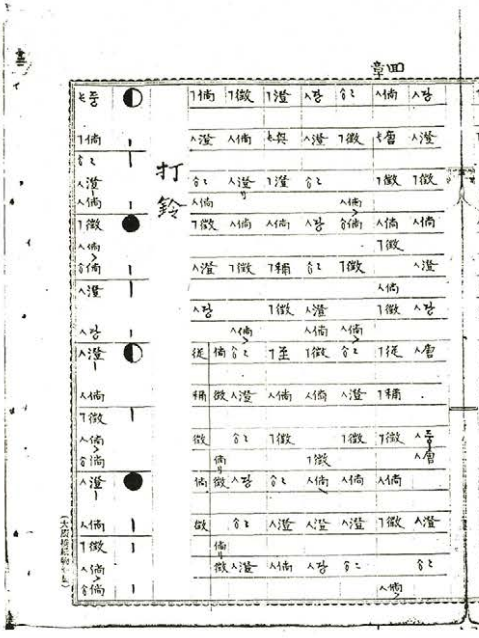
芳山90後

念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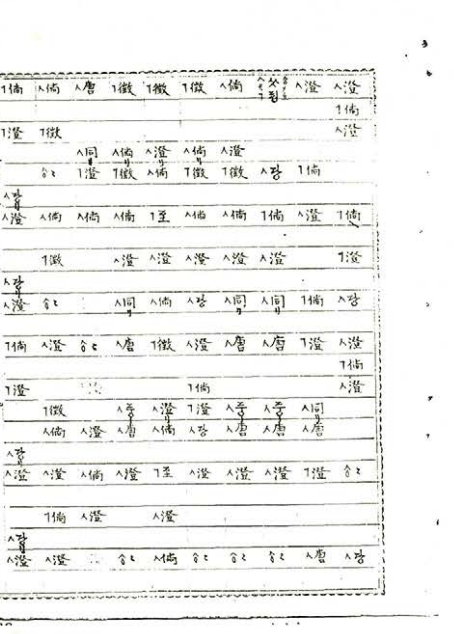
芳山90前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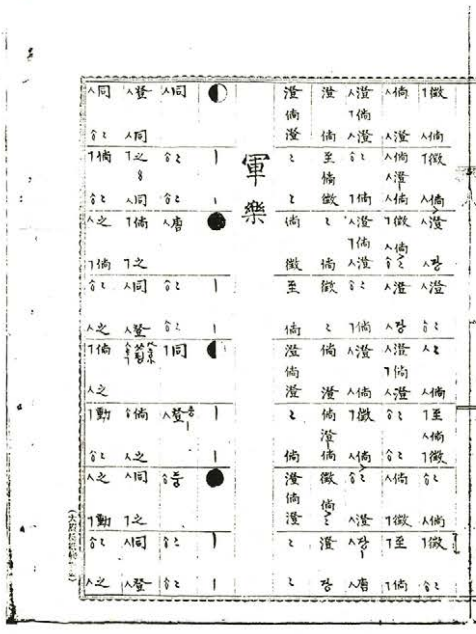
芳山9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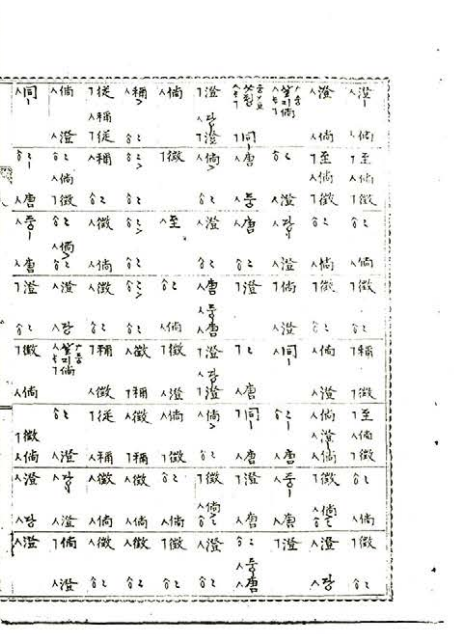
芳山9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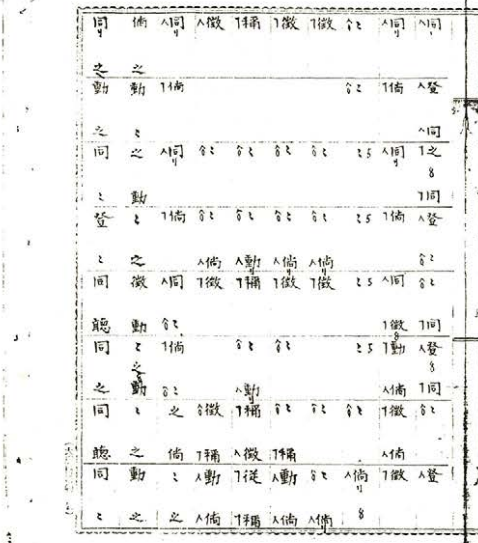
芳山9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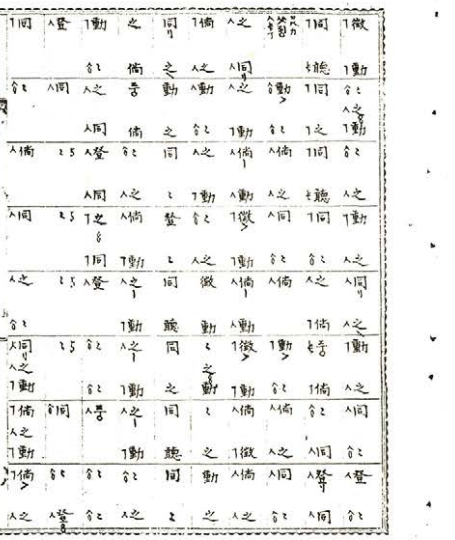
芳山9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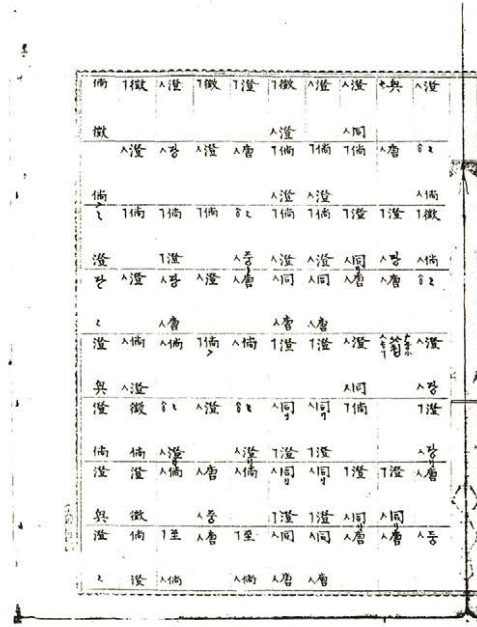
芳山9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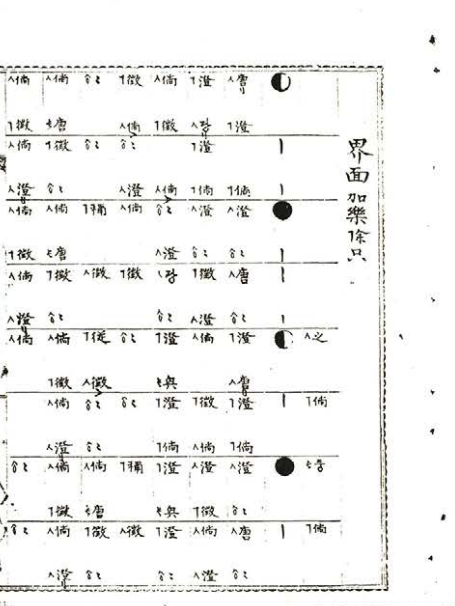
芳山93前



芳山9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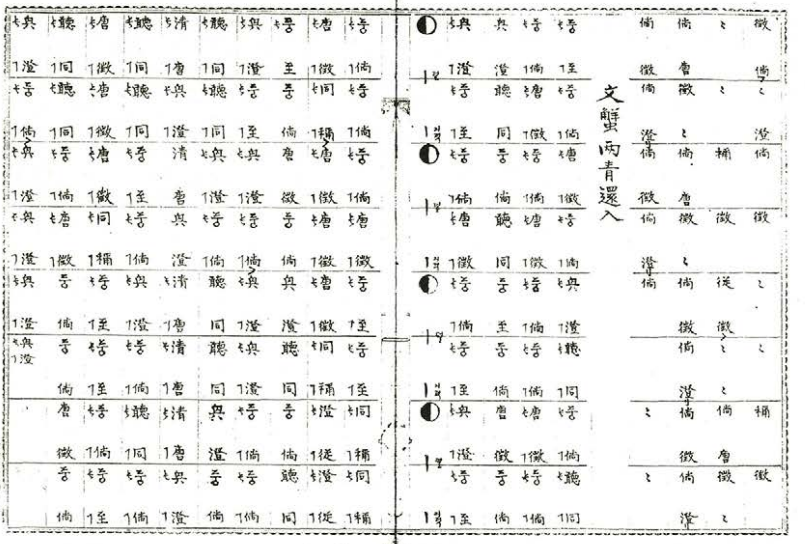


芳山9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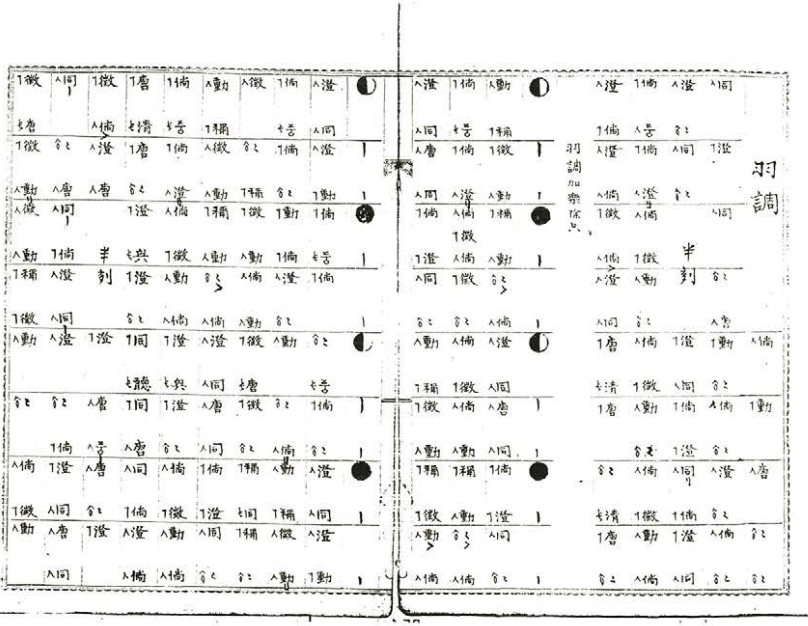
界面加樂條只

芳山95後



芳山95前

芳山96後



芳山96前

芳山97後

芳山97前

會像時間

本 十三分 中 十分 細、加 并 七分

三、細還入 并 十分 下念 并 五分

打、軍 并 七分 界、兩、羽 并 八分

合一時風流

芳山町四十九番地 韓玗錫書

芳山98後

芳山98前

時節歌 洋琴并長短 界面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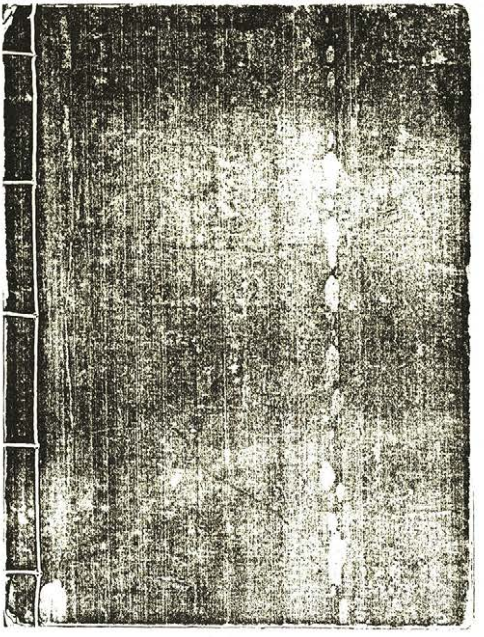
界面調音

五絃琴之 笛琴之 與琴之

鶴舞時節에 귀조흔가

夢請

澄 至澄 至 調徵 至 澄 調 澄 唐 至 與 至 與



ᄉᆞᆺᄀᆞᆺᄋᆡ 쥐ᄒᆞᆫ이ᄆᆞᆯᄀᆞᆫ 細雨中에 ᄒᆞᆫ쥐ᄆᆡᄅᆞᆫ
山田ᄅᆞᆯ 쇼ᄆᆡᄌᆞᆨᄀᆞᆯ 綠陰에 ᄌᆞᆷᄀᆞᆯᄌᆞᆫᄀᆡ
牧童이 牛羊ᄃᆞᆯᄒᆞᆫᄌᆞᆨᄀᆞᆯ 잠ᄃᆞᆫ나ᄆᆞᆯᄅᆞᆯ

平調

「同倘同唐 同倘同唐ᄃᆞᆫ唐ᄃᆞᆫ 同倘同唐 倘徵倘 倘徵

文王子 武王弟ᄋᆞᆫ 冨貴雙全 ᄒᆞᆫ선周公

權變 吐哺握髮 愛下敬勤 ᄒᆞᆫ샹기ᄃᆞᆫ

ᄋᆞᆺ제ᄀᆞᆨ 後世不有ᄋᆞᆫ 驕奢自尊

浪翁新譜

五拜

七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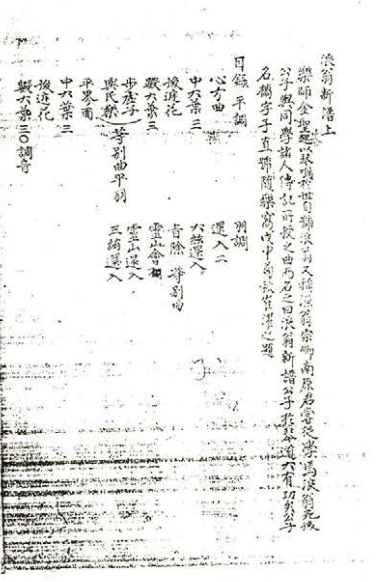
十二拜

五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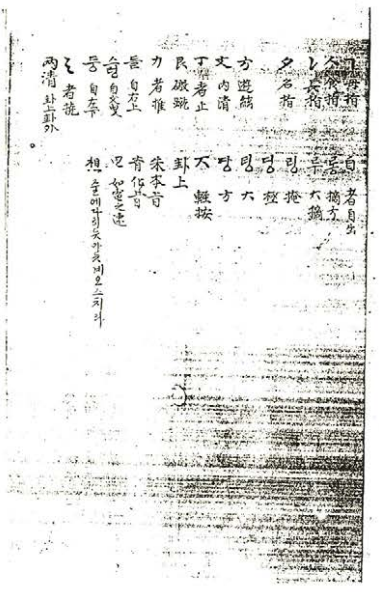
八音

十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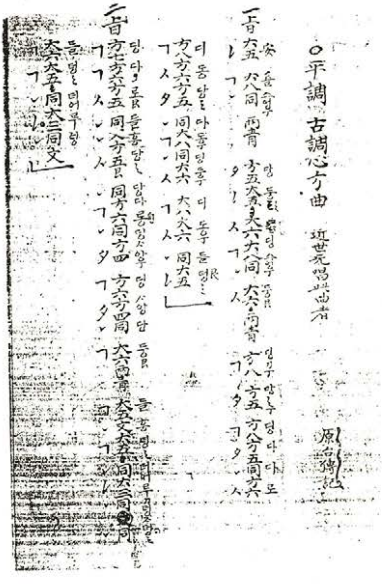
浪翁1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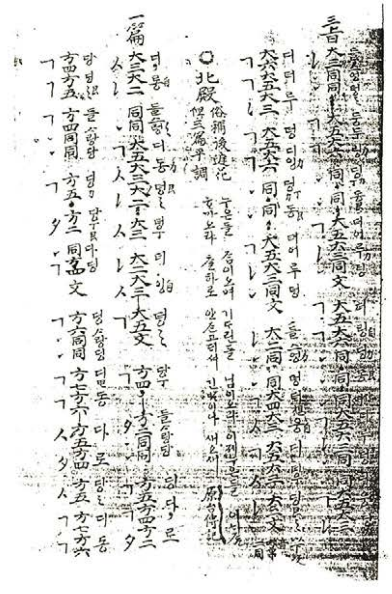
浪翁1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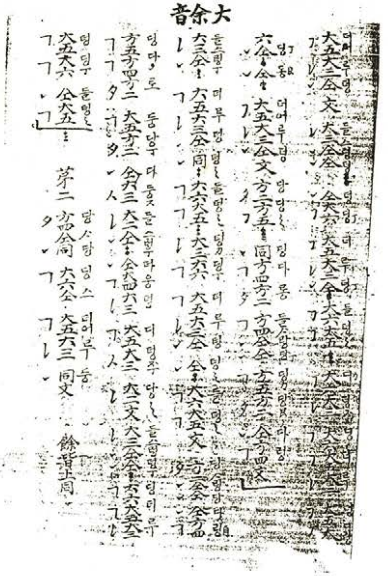
浪翁2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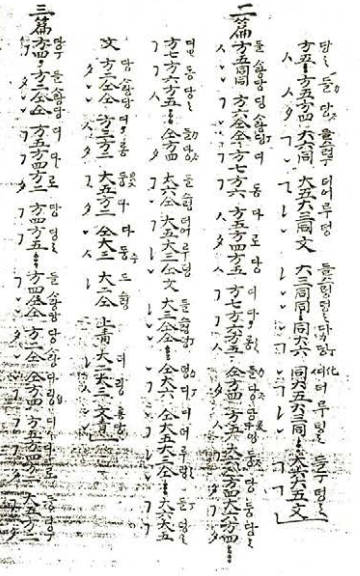
浪翁2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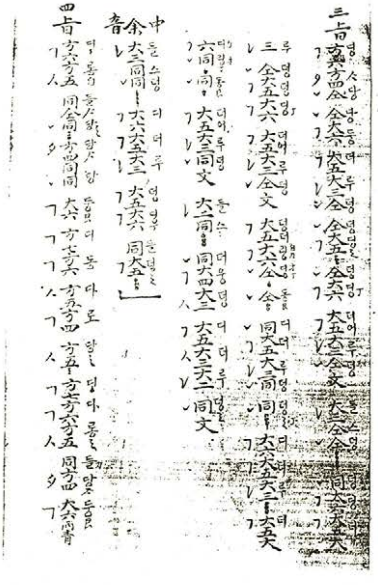
浪翁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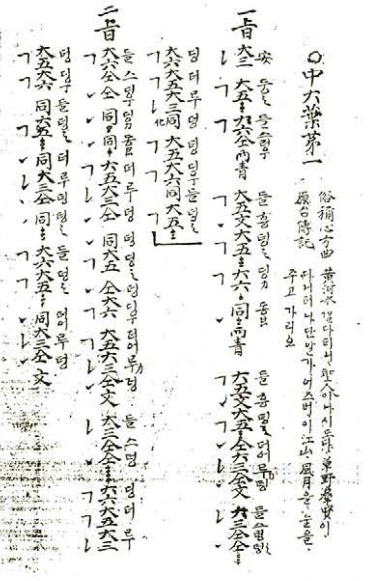
浪翁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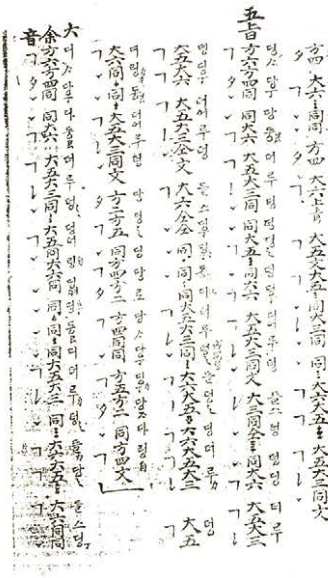
浪翁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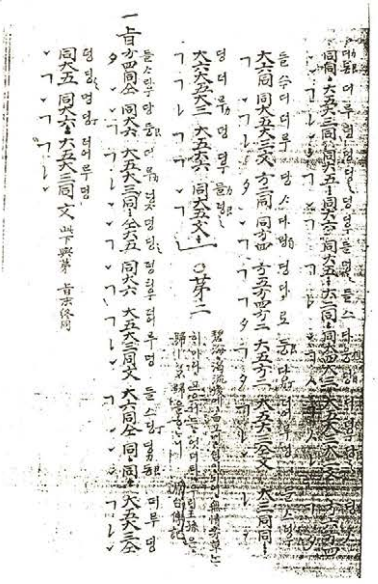
浪翁4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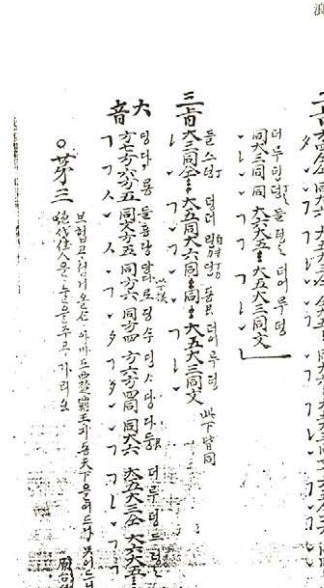
浪箭5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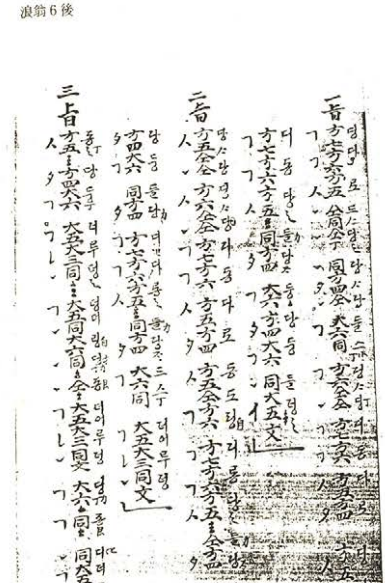
浪箭5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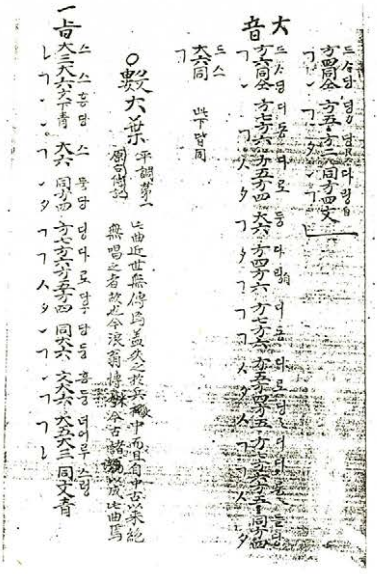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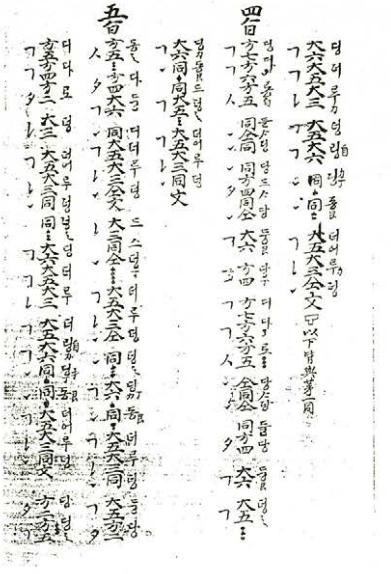
浪箭6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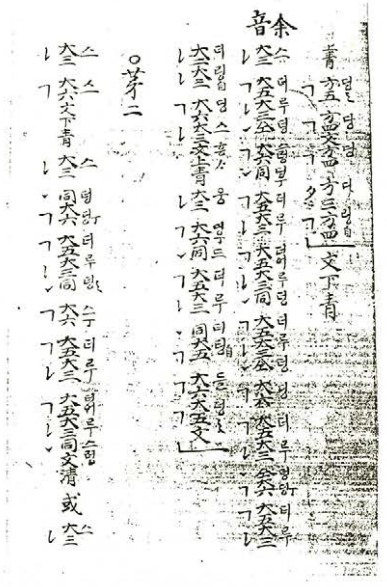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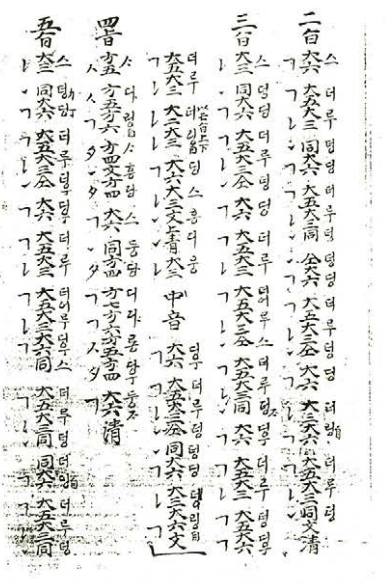
浪箭6後











餘上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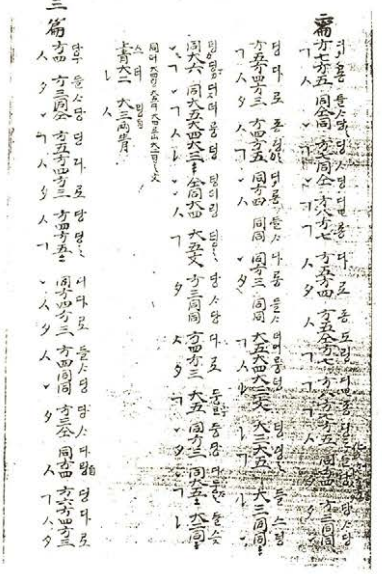
○第四

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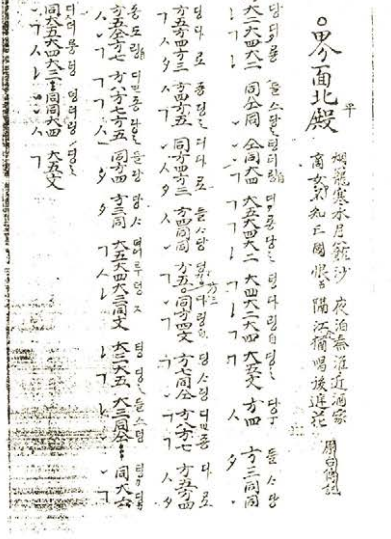
○平調界面調ㄷ音 다소임

○平調ㄷ音 다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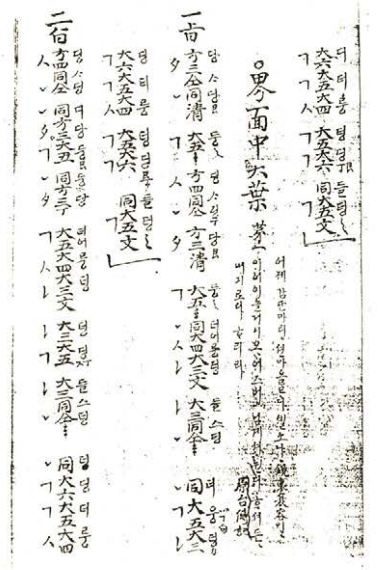
浪翁13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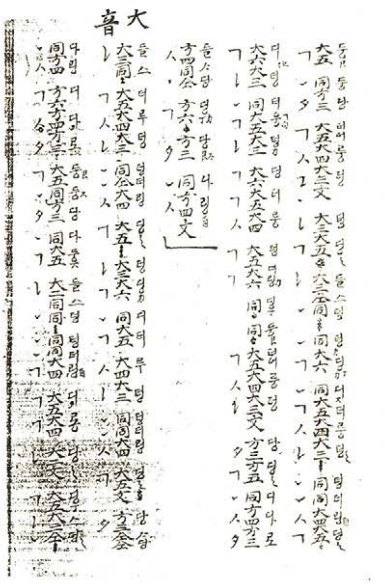
浪翁13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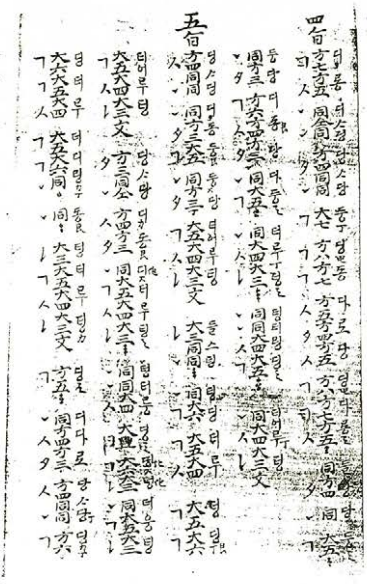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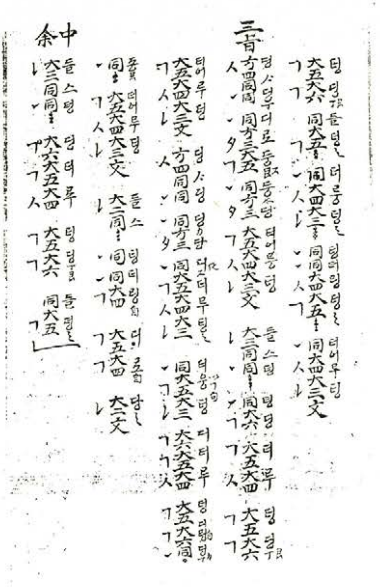
浪翁14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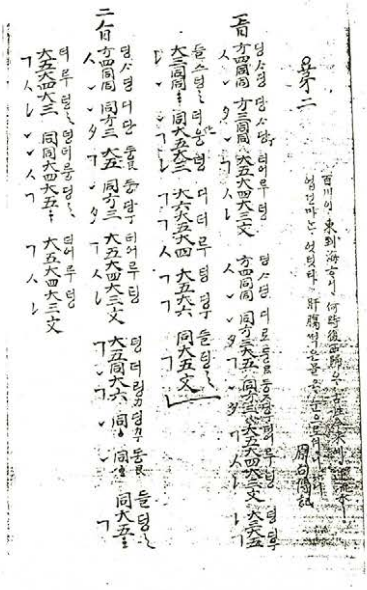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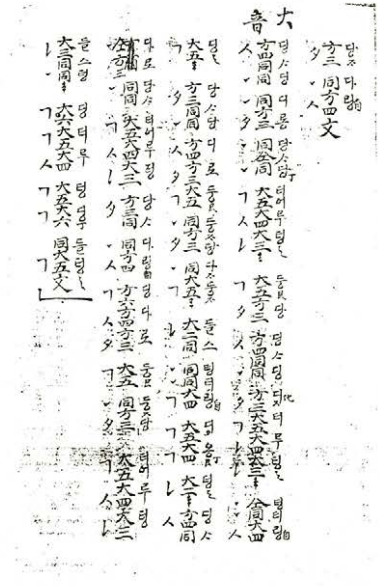
浪翁14前











浪翁17前

浪翁17後

浪翁18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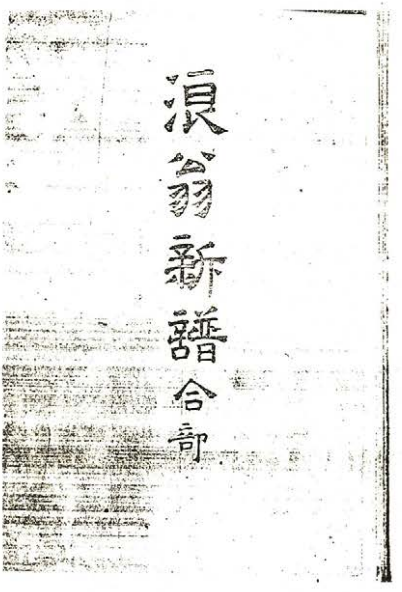
浪翁18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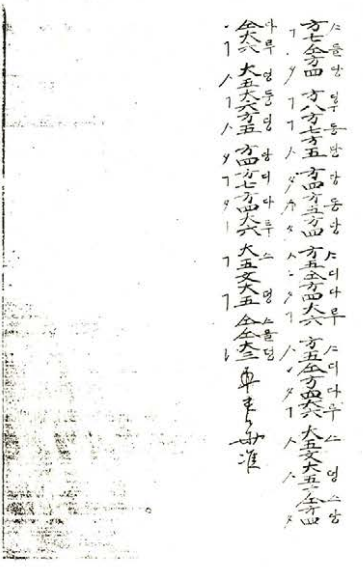
浪翁21後

浪翁21前

浪翁22後

浪翁22前


浪翁新譜合部



韓國音樂學資料叢書 十四

協律大成・梁琴新譜
歐邏鐵絲琴字譜・玄琴五音統論
靈山會象・芳山韓氏琴譜・浪翁新譜

一九八四年 十二月 日 印刷
一九八四年 十二月 日 發行

發 行 處 國 立 國 樂 院
서울特別市 中區 奬忠同 二街 山一四~六七
電 話 二七四~一一七八・一一七九

印 刷 處 서울印刷工業協同組合

정간위 41－6－103〈비매품〉